브라운 신부의 순진

The Innocence of Father Brown

G.K. 체스터턴 (G.K. Chesterton) (1874–1936)

1911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3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G.K. 체스터턴 (G.K. Chesterton), "The Innocence of Father Brown" (Cassell & Co. 1911)

저자

G.K. 체스터턴 (G.K. Chesterton) (1874–1936)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04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GB10 로컬) · 검수 Claude Opus 4.8 (검수·교정)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체스터턴 특유의 역설적 위트와 아늑한 영국 정서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푸른 십자가 비밀의 정원 기묘한 발자국 날아오르는 별들 보이지 않는 남자 이스라엘 고우의 명예 잘못된 형상 사라딘 공의 죄악 신의 망치 아폴로의 눈 부러진 검의 상징 죽음의 세 가지 도구

푸른 십자가

아침의 은빛 리본과 바다를 반짝이는 푸른 리본 사이로, 배는 해리치에 닿았다. 배는 마치 파리 떼처럼 사람들을 쏟아냈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남자는 결코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눈에 띄는 점은 없었다. 다만 옷차림의 휴일 같은 경쾌함과 얼굴의 관료적인 무거움이 살짝 대비될 뿐이었다. 그는 연한 회색 재킷과 흰색 조끼, 회색빛 리본이 달린 은빛 짚모자를 쓰고 있었다. 야윈 얼굴은 어둡게 그늘져 있었고, 끝은 짧고 단호한 검은 수염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수염은 스페인풍으로 보였으며, 엘리자베스 시대의 레이스 칼라를 연상시켰다. 그는 게으름뱅이처럼 진지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회색 재킷 아래에는 장전된 리볼버가 숨어 있었고, 흰 조끼 안에는 경찰증이 들어 있었으며, 짚모자 아래에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두뇌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그 남자가 바로 발랑탱이었다. 파리 경찰청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형사. 그는 한 세기 중 가장 위대한 체포를 위해 브뤼셀에서 런던으로 향하고 있었다.

플랑보가 영국에 있었다.

세 나라의 경찰이 드디어 그 거대한 범죄자를 추적했다. 겐트에서 브뤼셀로, 브뤼셀에서 홀랜드 훅까지. 그리고 런던에서 한창 열리고 있는 성체성사 대회(Eucharistic Congress)의 낯섦과 혼란을 그가 이용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아마도 대회와 관련된 하급 서기나 비서 신분을 가장하고 여행할 것이었다. 하지만 발랑탱이 확신할 수는 없었다. 누구도 플랑보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다.

범죄의 거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시절도 이미 오래전이다. 그가 갑자기 모습을 감추자, 롤랑이 죽은 뒤 세상에 찾아온 고요함처럼, 땅 위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전성기, 아니 최악의 시절의 플랑보는 카이저처럼 위용이 넘쳤고 국경을 초월한 유명인사였다. 거의 매일 아침 신문은 그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한 가지 놀라운 범죄의 대가를 피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거구의 가스코뉴 사람으로, 육체적 담력이 남달랐다. 그의 운동선수다운 유머 감각에 관한 기이한 일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는 조사 판사를 거꾸로 들어 세워 머리를 땅에 대고 "머리를 맑게 한다"고 했으며, 양팔에 경찰 한 명씩 끼고 리볼리 거리(Rue de Rivoli)를 질주하기도 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의 기이한 체력은 대체로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체면은 구겨지는 장난에 쓰였다. 그의 진짜 범죄는 주로 기발하고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절도였다. 하지만 그의 각 절도는 거의 새로운 죄악에 가까웠고,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가 될 만했다.

그가 런던에서 운영한 '타이롤 유제품 회사'는 우유 공장도, 소도, 우유 배달 마차도, 심지어 우유조차 없었다. 하지만 수천 명의 구독자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집 문 앞에 있던 작은 우유 통을 자신의 고객 집 문 앞으로 옮겨 놓는 간단한 조작으로 그들을 서비스했다.

또 그는 한 젊은 여성과 끈질기게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녀의 모든 우편물은 가로채였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현미경 슬라이드 위에 극도로 작게 촬영해 보내는 기이한 트릭으로 이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그의 실험 중 많은 부분에는 거침없는 단순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한 여행자를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해 거리 전체의 집 번호를 다시 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한 그는 휴대용 우체통을 발명해, 한적한 교외의 모퉁이에 설치해 두었다. 낯선 사람들이 우편환을 넣을 확률을 노린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놀라운 곡예사임이 알려졌다. 거구의 몸집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뚜기처럼 점프하고 원숭이처럼 나무 꼭대기에 숨어든다.

따라서 플랑보를 쫓아 나선 대 발랑탱은, 그가 플랑보를 찾아냈을 때 모험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를 찾아야 할까? 이 대목에서 거물 발랑탱의 생각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플랑보가 어떤 변장술을 부려도 가릴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그 기이한 키였다. 만약 발랑탱의 날카로운 눈이 키 큰 사과 파는 여인이나, 키 큰 근위병, 혹은 그럭저럭 키 큰 공작 부인을 발견했다면, 그는 즉시 그들을 체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탄 기차 안에는 변장한 플랑보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고양이에게 기린이 변장할 수 없는 이치와 같았다.

발랑탱은 이미 배 위의 승객들을 확인했다. 해리치나 여행 중 만난 사람들은 정확히 여섯 명으로 한정되었다. 그중에는 터미널로 향하는 키 작은 철도 직원, 두 역 뒤에 올라탄 꽤 키 작은 채소 농부 세 명, 에식스의 작은 마을에서 올라온 키 작은 과부 한 명, 그리고 에식스의 작은 마을에서 올라온 키 작은 로마 가톨릭 신부 한 명이 있었다.

마지막 그 신부 사건에 이르러 발랑탱은 손을 놓고,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 작은 신부는 동부 평야 지대의 정수를 담은 존재였다. 그의 얼굴은 노퍽의 둥글고 밋밋한 만두처럼 동그랗고 둔탁했으며, 눈은 북해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여러 개의 갈색 종이 꾸러미를 들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챙길 능력은 전혀 없어 보였다.

성체성사 대회가 그 지역들의 정적에서 수많은 이런 존재들을 끌어냈을 것이다. 땅에서 파헤쳐진 두더지처럼 맹목적이고 무력한 존재들이 말이다. 발랑탱은 프랑스 특유의 엄격한 스타일의 회의론자였으며, 신부들을 좋아할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연민을 가질 수는 있었다. 그리고 이 신부는 누구든 연민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바닥에 자주 떨어지는 큼직하고 낡은 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귀향 승차권의 올바른 방향조차 알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객차 안의 모든 이들에게 달걀 모양의 단순한 마음으로, 자신은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갈색 종이 꾸러미 중 하나에 '푸른 돌'이 박힌 진짜 은으로 만든 물건이 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에식스 평야의 둔함과 성자 같은 단순함이 기묘하게 혼합된 그의 모습은, 신부가 어찌어찌 토트넘에 도착해 모든 꾸러미를 챙기고 우산을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 프랑스인을 끊임없이 즐겁게 했다. 신부가 마지막 행동을 할 때, 발랑탱은 오히려 너그러움을 보여 그에게 은품을 남에게 알리지 말고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가 누구와 말을 나누든, 발랑탱의 눈은 다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키가 6피트(약 183cm)에 달하는 사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꾸준히 살폈다. 플랑보는 그보다 4인치(약 10cm)나 더 키가 컸기 때문이다.

그는 리버풀 스트리트역에 내려서도, 아직 범인을 놓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정리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스코틀랜드 야드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담배 한 대에 불을 붙여, 런던의 거리를 길게 거닐기 시작했다.

빅토리아역 너머의 거리와 광장을 걷던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서 있었다. 그곳은 특이하고 고요한 광장이었다. 런던의 정취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곳으로, 우연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네모반듯하게 둘러선 높은 건물들은 번영해 보였지만, 동시에 사람이 살지 않는 듯했다. 중앙의 작은 수목원은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고립된 초록빛 섬처럼 황량해 보였다. 네 면 중 한쪽은 다른 곳보다 유난히 높았는데, 마치 단상(壇床)처럼 솟아 있었다. 그쪽 면의 윤곽선은 런던 특유의 기이한 변주 하나에 의해 끊어지는데, 그것은 소호(Soho)에서 어딘가 잘못 들어온 듯한 한 식당이었다.

그 식당은 부당할 정도로 매력적인 존재였다. 화분에 심은 작은 식물들과, 레몬색과 흰색의 줄무늬 차양이 그것이었다. 식당은 거리보다 유난히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런던 특유의 불규칙한 배치 덕분에 거리에서부터 계단이 하나 올라와 정문과 이어졌다. 마치 소화용 사다리가 1층 창문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발랑탱은 노란색과 흰색의 차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오랫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기적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은,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하늘의 구름 몇 점이 모여, 마치 한 인간의 눈동자처럼 뚜렷한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불확실한 여정의 풍경 속에, 한 그루의 나무가 마치 물음표처럼 정교하고도 정확한 자태로 우뚝 서기도 한다. 나는 최근 며칠 동안 이 두 가지 광경을 모두 직접 목격했다.

넬슨 제독은 승리의 순간에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윌리엄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우연히도 윌리엄슨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살해했다. 이 이름들의 유사성은 마치 영아살해처럼 들릴 정도다.

요컨대, 일상의 논리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종종 놓치고 마는, 삶 속에는 요정 같은 우연의 요소가 존재한다. 포의 역설이 잘 지적했듯, 지혜란 예상치 못한 것에 대비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아리스티드 발랑탱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철저히 프랑스인이었다. 프랑스의 지성은 특별하고 독보적인 것이었다. 그는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었다. '생각하는 기계'라는 말은 현대의 운명론과 물질주의에서 나온, 머리가 빈 듯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기계가 기계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평범한 사람이었다. 마술처럼 보였던 그의 놀라운 성공들은 모두 뚝심 있는 논리와, 명확하고 평범한 프랑스적 사고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프랑스인은 역설을 제기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관철함으로써 세계를 전율시킨다. 프랑스 혁명처럼, 그들은 진리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

발랑탱은 이성을 잘 이해했기에, 이성의 한계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엔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연료 없이 운전하는 이야기를 하듯, 이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확고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첫 원리 없이 추론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확고한 첫 원리가 없었다. 플랑보가 하위치에서 사라졌고, 만약 그가 런던에 있다면, 그는 윈블든 코먼의 키 큰 거지부터 호텔 메트로폴의 키 큰 진행자까지 그 어떤 모습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노출된 상태에서, 발랑탱은 자신만의 견해와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믿었던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합리적인 추리가 통하지 않는 순간, 그는 냉정하고도 신중하게 '비합리적'인 길을 따라갔다.

은행이나 경찰서, 약속 장소 같은 '올바른 곳'으로 향하는 대신, 그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곳'으로 향했다. 빈 집마다 문을 두드렸고,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섰다. 쓰레기로 막힌 골목길로 올라갔으며, 헛수고만 하게 만드는 반달 모양의 도로를 두루 돌아다녔다.

그는 이 미친 듯한 행보를 논리적으로 변명했다. 단서가 있을 때는 이보다 더 나쁜 방법이 없을 테지만, 단서가 전혀 없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추적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기이한 무언가가, 동시에 피신자의 시선에도 잡혔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어디서든 시작은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른 사람이 멈출 법한 곳, 바로 그곳이어야 했다.

가게로 이어지는 그 계단들의 모습, 레스토랑의 고요함과 기묘한 분위기는 그 탐정 특유의 드문 낭만적 상상을 자극했다. 그는 무작정 한 방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검은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아침은 이미 한참 지나서였다. 그는 아직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다른 이들이 남기고 간 아침 식사 자리가 어지럽게 놓여 있어, 그의 배고픔을 일깨우듯 그를 재촉하고 있었다.

그는 달걀 프라이를 하나 더 주문하며, 생각에 잠겨 커피에 흰 설탕을 털어 넣었다. 머릿속은 오직 플랑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플랑보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기억해 냈다. 손톱 깎이 한 쌍으로, 그리고 불이 난 집 한 채로. 우표가 붙지 않은 편지를 내야 했을 때의 탈출도,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르는 혜성을 망원경으로 보라고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 순간도 모두 그의 손끝에서 빠져나갔다.

그는 자신의 탐정적 두뇌가 범인의 두뇌와 맞먹는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하지만 그는 그 두뇌가 지닌 불리함도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범인은 창조적인 예술가요. 탐정은 그저 비평가일 뿐이죠."

그는 시큰둥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 잔을 입까지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곧장 매우 빠르게 내려놓았다.

그가 잘못 넣은 것은 설탕이 아니었다. 소금이었다.

그는 은빛 가루가 들어 있던 용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확실히 설탕 접시였다. 샴페인 병이 샴페인을 담는 용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듯, 그릇이 설탕을 담기 위한 것임은 분명했다. 그는 왜 그곳에 소금이 들어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는 더 정통적인 용기가 있는지 확인했다. 있었다. 소금통이 두 개나 꽉 차 있었다. 아마도 소금통에 든 양념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그것을 맛보았다. 설탕이었다.

그제야 그는 흥미를 되찾은 듯한 표정으로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설탕을 소금통에, 소금을 설탕 접시에 넣는 그 기이한 예술적 취향이 드러나는 다른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얀 종이로 덮인 벽면 중 한 곳의 이상한 어두운 액체 얼룩을 제외하면, 전체 공간은 깔끔하고 밝으며 평범해 보였다. 그는 웨이터를 부르기 위해 종을 울렸다.

그 관리가 급히 달려왔다. 이른 시간이라 머리카락은 어수선하고 눈은 약간 흐릿하게 떠 있었다. 형사는 단순한 유머 감각을 일면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그에게 설탕을 맛보라고 청했다. 호텔 설탕이 소문만큼 훌륭하냐고 물어보며 말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웨이터가 갑자기 하품을 하며 깨어난 것이다.

"매일 아침 손님들에게 이런 섬세한 장난을 치는 겁니까?" 발랑탱이 물었다. "소금과 설탕을 바꾸는 게 농담으로서 물리지는 않습니까?"

아이러니가 점점 선명해지자, 웨이터는 당황한 목소리로 이 가게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변명했다. 아마도 매우 기이한 오해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설탕 그릇을 들어 올려 살펴보고, 소금 그릇을 들어 올려 또렷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그는 급하게 실례를 빌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몇 초 후 주인을 데리고 돌아왔다. 주인 역시 설탕 그릇을, 그리고 소금 그릇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주인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갑자기 웨이터는 말이 꼬이기 시작했다.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론요, 바로 그 두 신부님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성직자 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벽에 수프를 던진 두 신부 말이오." 웨이터가 말했다.

"벽에 수프를 던졌다고?" 발랑탱이 되뇌었다. 이건 분명히 특이한 이탈리아식 비유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네, 맞아요." 종업원이 신이 나서 대답하며 흰 종이 위의 검은 얼룩을 가리켰다. "그걸 벽 쪽으로 던졌어요."

발랑탱은 주인장에게 그 의문을 던졌다. 주인장은 발랑탱을 구원하듯 더 상세한 보고를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설탕이나 소금과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요. 아주 이른 아침, 가게 문짝을 치우자마자 신부님 두 분이 들어와 수프를 드셨거든

요. 둘 다 말이 없고 단정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계산을 하고 나가셨고, 다른 분은 좀 더 천천히 물건을 챙기시느라 몇 분 더 걸리셨지만, 결국 나가셨죠. 그런데 문밖으로 나서는 바로 직전, 그분은 반쯤 비운 수프 잔을 들고는 벽에다 수프를 그대로 쏟아부으셨습니다. 저는 뒷방에 있었고 웨이터도 있었죠. 그래서 뛰어 나왔을 때는 벽에 수프가 튀어 있고,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큰 피해는 없지만, 정말 무례한 짓이었습니다. 저는 거리로 뛰어나가 그들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달아나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다음 모퉁이를 돌아 카스터스 거리로 들어가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자를 단단히 눌러 쓰고 지팡이를 손에 쥔 채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첫 번째로 이상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가락은 충분히 이상했다.

계산을 마치고 뒤쪽 유리문을 나가며 딸랑거리는 소리를 들은 그는 곧장 다른 거리로 방향을 틀었다.

그토록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음에도, 그의 눈빛만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가게 진열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잡았다. 그것은 그저 번쩍이는 빛에 불과했지만, 그는 발걸음을 돌려 다시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인기 있는 채소와 과일 가게였다. 재료가 야외에 드러내놓듯 진열되어 있었고, 이름과 가격이 적힌 태그가 명확하게 붙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두 칸에는 각각 오렌지와 견과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견과류 더미 위에는 파란 분필로 굵게 쓴 종이 조각이 놓여 있었다. "최상급 탠저린 오렌지, 1펜니에 두 개." 반면 오렌지 더미 위에는 똑같이 명확하고 정확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최고급 브라질 너트, 파운드당 4펜스."

발랑탱 씨는 이 두 개의 표지판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주 최근, 그리고 매우 미묘한 유머를 한 번 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붉은 얼굴의 과일 장수를 불렀다. 장수는 다소 뚱한 표정으로 거리를 이리저리 훑어보고 있었다. 발랑탱 씨는 그의 광고에 있는 이 오류를 지적했다.

과일 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두 장의 카드를 정확히 제자리에 놓았다.

형사는 우아하게 지팡이에 기대어 가게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 제 말이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더라도 부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선생님. 하지만 저는 실험 심리학과 연상 작용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얼굴의 점원은 그를 위협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신나게 말을 이어갔다. 지팡이를 흔들며 그는 물었다.

"왜 두 장의 티켓이 마치 휴가를 위해 런던에 온 삽 모양의 모자처럼, 채소 가게에 잘못 놓여 있을까요? 만약 제가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오렌지로 표시된 견과류'라는 생각과 '키 큰 신부 한 명과 키 작은 신부 한 명'이라는 생각 사이에는 어떤 신비로운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상인의 눈이 달팽이처럼 튀어나왔다. 그는 순간 그 낯선 이를 향해 덤빌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는 분노에 겨워 더듬거렸다. "당신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소. 하지만 네가 그들의 편이라면 내게 전하라. 그들이 내 사과를 또 망친다면, 목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들의 멍청한 머리를 박박 부수겠다고."

"정말요?" 형사는 깊은 동정을 담아 물었다. "그들이 당신의 사과를 망쳤나요?"

"한 명은 그랬습니다." 상인은 성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를 온 거리에 굴려놨어요. 내가 그 바보를 붙잡았을 텐데, 사과를 주워야 했으니까 못 잡았죠."

"이 신부님들은 어느 쪽으로 가셨소?" 발랑탱이 물었다.

"왼쪽 두 번째 도로를 따라 올라가서, 광장을 가로질러 가면 됩니다."

"고맙소." 발랑탱이 대답하더니 요정처럼 자취를 감췄다. 그는 두 번째 광장 건너편에서 순경 한 명을 발견했다. 그리고 말했다. "급한 일입니다, 순경님. 솔모를 쓴 성직자 두 분 보셨습니까?"

경찰관이 무겁게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네, 있습니다, 각하. 그리고 제 생각엔 그 중 하나가 술에 취해 있었죠. 그는 도로 한가운데 서서 그--”

“저들은 어느 쪽으로 갔소?” 발랑탱이 날카롭게 물었다.

“저기 노란색 버스를 탔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햄스테드로 가는 그런 버스요.”

발랑탱이 공식 신분증을 꺼내며 재촉했다. “나를 따라 추격할 부하 두 명을 불러라.” 그의 에너지가 전염병처럼 퍼지자, 무거운 몸집의 경찰관도 거의 민첩하게 명령을 따랐다. 1분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프랑스인 형사는 맞은편 인도에서 경관과 평복 차림의 형사 한 명을 만나게 되었다.

“글쎄요, 각하,” 전자가 미소를 띠며 중요한 듯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발랑탱이 지팡이로 갑자기 앞을 가리켰다. “그 옴니버스 꼭대기에서 말해주마.” 그는 말하자마자 교통이 엉킨 도로 사이를 재빠르게 피하며 내달렸다.

세 사람은 헐떡거리며 노란 차체의 옴니버스 윗자리로 내려앉았다. 경위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택시였다면 네 배는 더 빨리 왔을 텐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요."

"그래,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다른 한 사람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발랑탱은 잠시 동안 찌푸린 채 담배를 피웠다. 그러고는 담배를 입에서 떼어내며 말했다.

"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겠다면, 그 앞을 가로막아야 해. 하지만 무슨 짓을 할지 추측하고 싶다면, 그 뒤를 바짝 따라붙어라. 그가 어딘가로 비켜나면 당신도 비켜나고, 그가 멈추면 당신도 멈춰라. 그가 가는 속도보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여라. 그래야 그가 본 것을 당신도 보고, 그가 행한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이상한 것에 눈을 떼지 않는 것뿐이야."

"도대체 무슨 이상한 말씀이세요?" 경위가 물었다.

"이상한 건 뭐든요." 발랑탱이 대답했지만, 곧 다시 고집스러운 침묵에 빠졌다.

노란색 옴니버스가 북쪽 도로를 기어올랐다. 마치 몇 시간 동안이나 이어진 듯한 느린 속도였다. 위대한 탐정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았고, 아마도 그의 조수들은 그의 임무에 대해 묵묵하지만 커져만 가는 의심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점심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조용하지만 강렬해지는 배고픔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북런던 교외의 긴 도로들은 마치 지옥 같은 망원경처럼 끝없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런 여행은 마치 우주의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터프넬 파크의 시작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깨닫게 한다. 런던은 지저분한 술집과 초라한 덤불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다가, 이내 번쩍이는 주요 거리와 요란한 호텔들 속에서 설명할 수 없이 다시 태어났다. 마치 열세 개의 서로 맞닿아 있는 저속한 도시들을 통과하는 것과 같았다.

겨울 황혼이 이미 앞길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파리 출신의 탐정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경계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양옆으로 미끄러져 지나가는 거리들의 외관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캠던 타운을 뒤로 한 무렵에는 경찰관들이 거의 잠들고 있었다. 적어도 발랑탱이 벌떡 일어나 양쪽 남자의 어깨를 툭 치고 운전사에게 정차를 외쳤을 때, 그들은 그제야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났는지 알지 못한 채 계단을 굴러떨어져 도로로 나왔다. 그들이 정체를 알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발랑탱이 의기양양하게 왼편 도로의 한 창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넓은 창문이었다. 금박과 호화로운 외관을 지닌 대형 술집의 긴 정면 중 일부였다. 이곳은 정숙한 손님들을 위한 식당 구역으로, '식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이 창문은 호텔 정면의 다른 모든 창문

들과 마찬가지로, 서리 낀 무늬 유리였다. 하지만 그 중앙에는 얼음 위의 별처럼 큰 검은 균열이 있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군." 발랑탱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외쳤다. "유리창이 깨진 저 집이야."

"무슨 창문요? 무슨 단서요?" 그의 수석 보좌관이 물었다. "도대체 이게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까?"

발랑탱은 분노에 떨며 대나무 지팡이를 꺾으려다시피 했다.

"증거요!" 그가 외쳤다. "세상에나! 그 사람은 증거를 찾고 있는 거야! 물론, 그 증거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스무 대 일일 거야.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한 치의 가능성이라도 따라가야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어야지. 둘 중 하나일 뿐이야."

그는 식당 안으로 쾅쾅 발소리를 내며 들어섰고, 동료들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곧 늦은 점심을 위해 작은 테이블에 앉았고, 안쪽에서 부서진 유리 조각들의 별 모양을 바라보았다. 비록 그 당시에도 그들에게는 별다른 단서가 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발랑탱이 계산을 하며 웨이터에게 말했다. "유리창이 깨졌군, 보아하니."

"네, 각하." 종업원이 대답했다. 그는 지폐를 세느라 정신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발랑탱이 조용히 거대한 팁을 얹는 것을 받았다. 종업원은 몸을 일으키며, 부드럽지만 분명한 흥분 섞인 표정을 지었다.

"네, 맞습니다, 각하. 정말 이상한 일이죠."

"정말요?" 탐정이 무심한 호기심으로 물었다. "자세히 말해 봐요."

"검은 옷을 입은 두 분의 신사가 들어오셨어요," 웨이터가 말했다. "바깥을 돌아다니는 그런 외국인 신부들이죠. 그들은 값싸고 조용하게 간단한 점심을 드셨고, 그중 한 분이 계산을 하신 뒤 나가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막 나가시려다 제가 잔돈을 다시 확인했는데, 계산하신 금액이 세 배나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턱에 서 계신 그 분에게 '여보시게, 너무 많이 내셨어요'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분은 아주 당당하게 '아, 그렇습니까?'라고 대답하더군요. '네,' 제가 말하며 계산을 증명해 보이려고 계산서를 들어 올렸죠. 그게 정말 충격이었죠."

"무슨 뜻이오?" 상대방이 물었다.

"전, 일곱 성경을 손에 얹고 맹세할 만큼 그 계산서에 4실링이라고 적어뒀다고 생각했었소. 그런데 지금 보니, 물감칠한 듯 또렷하게 14실링이라고 적어놓았더군."

"그래?" 발랑탱이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타오르는 눈빛으로 물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던 목사가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계산하는 데 방해가 되어 죄송하지만, 이 돈이면 창문 값은 될 겁니다.' 그러자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창문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더군요. '내가 깨뜨릴 그 창문이지.' 그리고는 그 축복받은 유리창을 우산으로 내리쳐 깨뜨렸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도망친 정신병자를 쫓고 있는 건가?"

종업원은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재미있다는 듯 계속 이어갔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는 곧장 그곳을 빠져나와 모퉁이 바로 옆에서 친구와 합류했죠. 그리고 그들은 벌록 거리를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비록 제가 그들을 쫓기 위해 바로 옆으로 우회해서 달렸지만, 결국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불록 스트리트입니다." 형사가 말했다. 그리고 그가 쫓고 있던 기이한 쌍을 뒤쫓아 그 대로로 빠르게 달렸다.

이제 그들의 여로는 터널처럼 보이는 벌거벗은 벽돌 길로 이어졌다. 불빛도 드문 거리, 창문은 더 적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사물이 뒷면만 드러낸 채 지어진 거리 같았다. 해는 저물어 짙은 황혼이 깔렸고, 런던 경찰이라도 그들이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 당혹스러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형사는 확신했다. 결국 그들은 햄스테드 헛의 어느 구석에 닿게 될 것이라고.

그때였다. 불룩하게 튀어나온 가스등 불빛이 든 창 하나가 푸른 황혼을 뚫고 나타났다. 마치 소의 눈동자 모양 등불처럼 유난히 빛났다.

발랑탱은 잠시 멈춰 서서, 번쩍이는 달콤한 간식 가게 앞을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섰다.

색색의 과자들로 가득한 가게 한가운데에서 그는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초콜릿 시가를 열세 개를 신중하게 고르며 샀다.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준비가 필요 없었다.

가게 안에는 각진 얼굴의, 나이 들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우아한 외모를 그저 습관적으로 훑어보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선 뒤로 문이 막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눈이 번쩍 뜨이는 듯했다. 문밖에는 파란 제복을 입은 경감의 실루엣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오," 그녀가 말했다. "그 소포에 관해 오셨다면, 이미 보내버렸어요."

"소포?" 발랑탱이 되풀이했다. 이제 그의 차례로 의아한 눈빛을 던졌다.

"신부님이 남기신 그 소포를 말씀하시는군요. 성직자이신 그 신부님이요."

"제발 부탁이오!" 발랑탱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처음 보는 진지한 태도였다. "하느님, 제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시오."

"글쎄요," 여자가 약간 의아한 듯 말했다. "성직자 두 분이 약 반 시간 전에 들어와서 페퍼민트 사탕을 몇 개 사시고는 잠시 수다를 떨다가, 다시 히스로 향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 한 분이 다시 가게로 뛰어 들어와서 물으시더군요. '소포를 하나 두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두루 살펴보았지만, 소포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분은 '괜찮으니, 만약 발견되면 이 주소로 보내주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소와 제 수고비로 실링 한 닢을 남기셨죠."

"그리고 정말로요. 제가 이미 여기저기 다 살펴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갈색 종이로 싼 소포가 하나 놓여 있더군요. 그래서 말씀하신 주소로 우송했어요. 지금은 주소가 기억나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근처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소포가 아주 중요한 물건인 것 같아서, 혹시 경찰이 그 일로 찾아왔나 싶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발랑탱이 짧게 대답했다. "햄스테드 헛이 여기 근처인가요?"

"십오 분만 직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여자가 말했다.

발랑탱은 상점 밖으로 뛰쳐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다른 형사들은 마지못해 따라붙으며 달렸다.

그들이 지나온 거리는 너무 좁고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어, 갑자기 넓고 탁 트인 하늘 아래로 나왔을 때 그들은 저녁이 여전히 이렇게 밝고 맑다는 사실에 놀랐다. 공작의 깃털처럼 푸른색의 완벽한 돔이 어두

워지는 나무들과 짙은 보라색의 멀리 있는 풍경 사이로 황금빛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빛나는 녹색 빛깔은 충분히 깊어서 한두 개의 별을 수정 같은 점으로 뚜렷이 드러냈다. 낮의 빛이 남아 있는 곳은 햄스테드의 가장자리와 '건강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오목한 땅 전체에 황금빛 반짝임으로 퍼져 있었다. 이 지역을 거닐던 휴가객들은 완전히 흩어지지 않았다. 몇 쌍의 연인들이 벤치에 흐릿하게 앉아 있었고, 여기저기서 멀리서 한 소녀가 그네에서 비명처럼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하늘의 영광은 인간의 숭고한 저급함 주위를 깊게, 그리고 어둡게 감싸고 있었다. 경사면에 서서 계곡 너머를 바라보던 발랑탱은 그가 찾고 있던 대상을 목격했다.

먼저 저멀리 검은 무리들이 갈라지고 합쳐지는 사이, 한 무리는 특히 더 짙게 어둠을 머금고도 흩어지지 않았다. 두 명의 인물이 함께 서 있었는데, 둘 다 성직자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벌레처럼 작아 보였지만, 발랑탱은 그중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알아챘다. 다른 한 명은 학생처럼 어깨가 구부정하고 눈에 띄지 않는 태도를 띠고 있었지만, 키는 여섯 피트도 훨씬 넘는 장신인 것 같았다. 발랑탱은 이를 갈며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갔다. 손에 쥔 지팡이를 조급하게 휘두르며 걸었다.

그가 거리를 크게 줄이고, 마치 거대한 현미경으로 두 개의 검은 형상을 확대하듯 바라보는 순간,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를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그는 어딘지 모르게 이미 예감하고 있던 것이었다.

키 큰 사제가 누구든, 짧은 사제의 정체를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바로 해리치 열차에서 만났던 그 친구, 에식스의 땅딸막한 작은 신부였다. 발랑탱은 그에게 갈색 종이 포대에 대해 경고한 바 있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발랑탱은 그날 아침 조사 끝에 에식스 출신의 브라운 신부가 사파이어가 박힌 은십자가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유물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성유물이었다. 그는 이를 대회에 참석한 외국 신부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지고 오는 중이었다. 이것이 바로 '파란 돌이 박힌 은제품'이었고, 브라운 신부는 바로 그 열차에서 본 작은 풋내기였다.

발랑탱이 알아낸 사실을 플랑보 역시 알아냈다는 점에는 별다른 놀랄 일이 없었다. 플랑보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 사람이었다. 또한 플랑보가 사파이어 십자가를 알게 되자 그것을 훔치려 했다는 사실도 이상할 게 없었다. 자연사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리고 우산과 소포를 든 멍청한 양처럼 쉽게 속을 남자를 상대로 플랑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줄만 당기면 북극까지 데려갈 수 있는 타입이었다. 다른 신부 복장을 한 배우 플랑보가 그를 햄스테드 헛으로 유인한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범죄는 분명해 보였다. 탐정은 신부의 무력함을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순진한 희생자를 상대하다니 플랑보가 자존심을 낮췄다는 이유로 그를 거의 경멸했다. 하지만 발랑탱은 그사이 벌어진 일들, 그리고 자신의 승리로 이끄는 모든 과정을 떠올려 보았다. 그

는 그 모든 것에 작은 단서 하나, 이치 하나를 찾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다.

에식스 출신 신부에게서 파란색과 은색 십자가를 훔치는 일이, 왜 벽지에 수프를 던지는 일과 연결되는가? 왜 호두를 오렌지라 부르며, 유리창을 먼저 사고 나중에 깨는 일과 관련이 있는가? 그는 추적을 끝까지 따라갔지만, 어째서인지 정중앙을 놓치고 말았다.

보통 발랑탱이 실패할 때는(그런 경우는 드물었다) 단서는 잡았지만 범인은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였다. 그는 범인을 잡았지만, 단서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그들이 쫓고 있던 두 사람은 거대한 초록빛 언덕의 윤곽선을 검은 파리와 같이 기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히 대화에 몰두하고 있었고, 아마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분명히 향하고 있던 곳은 헛들의 더 거칠고 고요한 고지대였다. 추격자들이 그들을 바짝 따라붙자, 뒤따르는 자들은 사냥꾼이 사슴을 쫓을 때처럼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했다. 그들은 작은 나무 무리 뒤에 몸을 숨기고, 심지어 깊은 풀밭에 엎드려 기어다녀야 했다. 이러한 어색하지만 효과적인 기지로 추격자들은 피추적자들 바로 근처까지 다가가, 그들의 대화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들을 수 있는 단어는 높고 거의 아이 같은 목소리로 자주 반복되는 '이유(reason)'라는 말뿐이었다.

한 번은 급격한 지형의 하강과 빽빽한 덤불을 지나면서, 형사들은 쫓고 있던 두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들은 십 분 동안의 고통스

러운 시간을 보낸 끝에 다시 그들의 발자취를 찾았고, 그 길은 결국 풍요롭고 황량한 노을 풍경이 펼쳐진 원형 극장 같은 계곡을 내려다보는 큰 언덕의 정상 부근으로 이어졌다. 이 장엄하면서도 외로운 곳에는 한 그루 나무 아래 낡고 허술한 나무 의자가 있었다. 그 의자에는 두 사제가 여전히 심각한 어조로 대화를 나누고 앉아 있었다.

화려한 초록과 금빛이 어스름해지는 지평선에 아직까지도 달라붙어 있었지만, 머리 위의 하늘은 공작의 녹색에서 공작의 푸른색으로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고, 별들은 단단한 보석처럼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말없이 추격자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낸 발랑탱은 가지를 뻗은 큰 나무 뒤에 숨어 다가가는 데 성공했고, 그곳에서 죽을 듯한 침묵을 지키며 그 이상한 사제들의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

그는 일 분 반 동안 그들의 대화를 들어야 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사악한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두 명의 영국 경찰을, 무화과를 찾으려 가시덤불을 헤매는 것만큼이나 미친 듯한 임무로, 밤의 황야로 끌고 온 것은 아닐까? 두 사제는 신부답게, 경건하고 학식 있으며 여유로운 태도로, 가장 공허한 신학의 수수께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작은 에식스 출신의 사제는 둥근 얼굴을 밝아오는 별들을 향해 돌리며 더 단순하게 말했고, 다른 한 사제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별들을 바라볼 자격조차 없는 듯 이야기했다. 그러나 하얀 이탈리아의 수도원이나 검은 스페인의 대성당 어디에서든, 이보다 더 순진무구한 성직자들의 대화는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브라운 신부의 말이 끝나는 소리가 먼저 들렸다.

"…중세인들이 하늘이 썩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의미했던 바는 무엇이었나요?"

더 키가 큰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맞아요. 근대적 불신자들은 이성을 내세우죠. 하지만 저 수백만 개의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위에 이성이 완전히 비이성적인 놀라운 우주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오." 다른 사제가 말했다. "이성은 언제나 합리적입니다. 마지막 림보에서조차, 사물들의 잃어버린 변방에서조차요. 사람들은 교회가 이성을 낮춘다고 비난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이성을 참으로 최고로 만듭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교회는 하나님 자신조차 이성에 묶여 있다고 단언합니다."

다른 사제는 엄숙한 얼굴을 별이 빛나는 하늘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하지만 그 무한한 우주 안에서라면, 누가 알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무한할지라도," 작은 사제가 자리에서 갑자기 몸을 돌려 말했다. "진리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무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던 발랑탱은 분노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막연한 추측 하나로 멀리까지 데려온 영국 형사들의 비웃음 소리를 거의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두 명의 온화한 신부들의 형이상학적 잡담일 뿐이었다. 그의 조급함 때문

에 그는 키 큰 성직자의 정교한 답변을 놓치고 말았다. 다시 귀를 기울였을 때, 그것은 또 다시 브라운 신부의 목소리였다.

이성과 정의는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외로운 별까지도 단단히 붙잡고 있다. 저 별들을 보라. 마치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처럼 보이지 않는가? 물론 너는 원하는 대로 미친 식물학이나 지질학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다이아몬드 잎을 가진 금강석 숲을 떠올려도 좋고, 달을 거대한 사파이어 하나인 푸른 달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하지만 그 모든 광란의 천문학이 인간의 행동에 담긴 이성과 정의에 단 한 줄의 차이도 가져오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오팔의 평원에서, 진주로 깎여 나간 절벽 아래에서조차, 우리는 여전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경고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발랑탱은 딱딱하게 굳은 자세에서 일어나, 가능한 한 조용히 물러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을 저지른 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 큰 신부의 침묵이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음을 느껴, 신부가 말을 건네기 전까지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마침내 신부가 입을 열었다.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글쎄, 나는 다른 세계들이 어쩌면 우리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천국의 신비는 깊고도 끝이 없지. 나는 그저 고개 숙여 경외할 뿐이야."

그는 여전히 이마를 구부린 채, 태도나 목소리에 미세한 변화도 주지 않은 채 덧붙였다.

"당신의 사파이어 십자가를 그냥 건네주시오. 여기 우리 둘뿐이니까, 짚 인형처럼 당신을 갈가리 찢어버릴 수도 있소."

목소리와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 놀랄 만큼의 변화는 오히려 말의 충격에 기이한 폭력성을 더했다. 하지만 유물을 지키는 자는 나침반의 가장 작은 각도만큼만 고개를 돌린 듯했다. 그는 여전히 어리석은 표정으로 별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마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이해했기에, 공포에 질려 굳어 앉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네," 키 큰 사제가 낮은 목소리로, 또 같은 침묵 속에 답했다. "네, 나는 플랑보야."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자, 그 십자가를 주시겠소?"

"아니요."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 한 마디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플랑보는 갑자기 위엄을 부리던 태도를 모두 내려놓았다. 거대한 도둑은 의자에 기대어 앉더니, 낮지만 길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주실 생각 없군요. 오만한 고위 성직자여. 주실 생각 없군요, 순진한 독신 얼간이여. 왜 주지 않으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제 가슴 주머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식스에서 온 작은 남자가 황혼 속으로 어리둥절해 보이는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는 '개인 비서' 특유의 조심스럽되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확실…… 확실합니까?"

플랑보는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정말, 당신은 3막짜리 소극 한 편만큼이나 훌륭하군요." 그가 외쳤다. "그래, 당신 같은 순무 같으니라니. 저는 올바른 소포의 복제본을 만들어 둔 지혜가 있었죠. 이제 제 친구, 당신은 그 복제본을 얻었고 저는 보석을 손에 넣었습니다. 옛날부터 쓰이던 술수요, 신부님. 아주 오래된 술수 말입니다."

"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는 같은 기이한 어정쩡함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네,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범죄의 거인이 갑자기 작은 시골 신부에게 흥미로운 듯 몸을 기울였다.

"그 일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물론 그의 이름은 말할 수 없지," 작은 남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고해성사를 하러 온 신자였으니까. 그 남자는 약 이십 년 동안, 겉모습만 똑같은 갈색 종이 소포 수법에 전적으로 의존해 번듯하게 살았단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가엾은 친구의 수법을 떠올렸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무법자가 더욱 격앙된 어조로 되물었다. "진짜로, 내가 당신을 이 황량한 황야로 데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의심할 만큼 대담했단 말인가?"

"아니,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가 사과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처음 뵐 때부터 저는 당신을 의심했거든요. 바로 그 소매 위쪽의 약간 볼록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네가 그 가시 달린 팔찌를 차는 습관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 가시 달린 팔찌 이야기를 들었소?" 플랑보가 외쳤다.

"아, 제 양무리 말입니다, 알다시피!" 브라운 신부가 다소 공허한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제가 하틀풀에서 부제로 있을 때, 가시 달린 팔찌를 찬 세 명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당신을 의심했죠. 그러니 십자가가 어쨌든 안전하게 가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당신이 소포를 바꾸는 모습을 목격했죠. 그러자마자, 알다시피, 저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바른 소포를 그대로 두고 온 거죠."

"남겨두셨다고요?" 플랑보가 되뇌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함성이 처음으로 다른 음색을 띠고 섞였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었습니다." 작은 신부는 여전히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 과자 가게로 돌아가서, 내가 소포를 두고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찾아낸다면 제게 특정 주소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죠. 물론 제가 실제로 소포를 두고 온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게를 나설 때는, 정말로 소포를 하나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들은 그 귀중한 소포를 쫓아오지 않고,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제 친구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는 다소 슬픈 어조로 덧붙였다. "이것도 하틀풀의 한 불쌍한 친구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친구는 옛날에 철도역에서 훔친 핸드백으로 같은 수법을 썼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수도원에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다 알게 됩니다. 아시죠?" 그는 다시 한번 머리를 긁적이며, 마치 죄인처럼 절박하게 사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신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니까요."

플랑보는 안주머니에서 갈색 종이로 싼 소포를 꺼내어 찢어 버렸다. 안에는 종이와 납 막대들만 들어 있었다. 그는 거대한 제스처를 취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믿을 수가 없소. 당신 같은 시골뜨기가 그 모든 일을 해냈을 거라고는 믿지 못하겠소. 당신 아직 그걸 가지고 있소. 안 줄 거라면…… 우리 둘만 있는 곳이니, 내가 강제로 빼앗겠소!"

"아니요." 브라운 신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역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제로 빼앗으려 하지 마십시오. 첫째, 그건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플랑보가 앞으로 나아가려던 발걸음을 멈췄다.

"그 나무 뒤에 건장한 경관 두 명과 현존하는 최고의 탐정이 숨어 있소." 브라운 신부가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하지? 물론 내가 데려왔지. 어떻게? 좋아, 말해 주마. 우리가 범죄자들과 일할 때는 이런 상식 스무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하니까.

당신이 도둑인지 확실치 않았거든. 우리 성직자 중 한 명을 두고 스캔들을 일으킬 수는 없지. 그래서 당신이 모습을 드러낼지 테스트해 본 거야. 커피에 소금이 들어있으면 대개 작은 소동을 피우거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조용히 있으려는 이유가 있는 셈이지. 나는 소금과 설탕을 바꿔봤어. 그런데 당신은 아무 말도 없었지.

또한, 청구서가 세 배나 많으면 보통 불평을 터뜨려. 하지만 그대로 지불한다면,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가려는 동기가 있는 거야. 나는 당신의 청구서를 조작해 봤어. 당신은 그것을 지불했지."

세상은 플랑보가 호랑이처럼 덤빌 것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마법에 걸린 듯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지극한 호기심에 얼어붙어 있었다.

"자, 계속 말하자면," 브라운 신부가 둔탁하지만 명료하게 말했다. "당신이 경찰을 위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으니, 당연히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했지. 우리가 갔던 곳마다, 나는 그날 종일 우리를 화제로 만들 만한 일을 챙겼다. 해를 끼친 건 많지 않았다. 벽에 무언가를 튀기고, 사과를 떨어뜨리고, 창문을 깨는 식이었지. 하지만 나는 십자가를 구했다. 십자가는 항상 구해지기 마련이다. 지금쯤 웨스트민스터에 도착했을 것이다. 넌 당나귀의 휘파람으로 그걸 막지 못한 게 의외다."

"그 뭐로요?" 플랑보가 물었다.

"그걸 들어보지 못해 다행이야." 신부가 찌푸리며 말했다. "정말 추악한 짓이거든.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은 그걸 하는 사람이 돼선 안 돼. 나라도 감히 맞서지 못했을 거야. 설령 스폿스라도 못 이겼을 테고. 나 다리가 약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허, 당신이라면 스폿스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요." 신부는 기쁜 듯 놀라며 말했다. "아직은 크게 빗나가지 않으셨군요!"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요?" 플랑보가 외쳤다.

그의 성직자 차림의 상대는 동그랗고 소박한 얼굴에 미소의 그림자가 스쳤다.

"아, 독신자이면서 순진한 바보라서요," 그가 말했다. "남들의 진정한 죄악을 거의 다 들어주는 사람이 인간 악에 대해 완전히 무지할 리가 없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나요? 하지만 사실, 제 직업의 다른 부분이 저로 하여금 당신이 사제가 아님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도둑이 입을 벌리며 거의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은 이성을 공격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가 자신의 물건을 주우려 몸을 돌릴 때, 황혼의 나무들 사이에서 세 명의 경찰이 모습을 드러냈다. 플랑보는 예술가이자 스포츠맨이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발랑탱에게 큰 절을 했다.

"저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친구여." 발랑탱이 은빛처럼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둘 다 우리의 스승께 절합시다."

두 사람은 잠시 모자를 벗은 채 섰다. 작은 에식스 신부는 우산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비밀의 정원

파리 경찰청장 아리스티드 발랑탱은 저녁 약속에 늦었다. 일부 손님들은 그보다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은 발랑탱의 심복 하인 이반에게 안심했다. 이반은 흉터가 있는 노인으로, 수염만큼이나 회색빛을 띤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현관 입구에 놓인 식탁에 앉아 있었다. 현관 벽면에는 무기들이 걸려 있었다.

발랑탱의 집은 주인만큼이나 특이하고 유명했다. 이 집은 높은 담장과 센 강을 거의 덮을 듯이 우뚝 선 포플러 나무들이 있는 오래된 주택이었다. 그러나 그 건축 양식의 기이함은, 그리고 아마도 경찰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지점은 바로 이 문이었다. 이 정문을 통하는 것 외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가 전혀 없었다. 정문은 이반과 무기고가 지키고 있었다.

정원은 넓고 정교했다. 집안에서 정원으로 나가는 출구는 많았다. 하지만 정원에서 외부로 나가는 길은 없었다. 정원 주변에는 높은 매끄러운 벽이 둘러싸고 있었고, 벽 위에는 특별한 spikes(날카로운 장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오를 수 없는 벽이었다. 백 명의 범죄자들이 그를 죽이기로 맹세한 남자라면, 이런 정원은 명상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곳일 것이다.

이반이 손님들에게 설명하길, 주인은 10분 정도 늦게 도착할 것이라고 전화해 왔다. 사실 그는 처형과 같은 잔인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그에게 이러한 의무는 본성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는 항상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를 수행했다. 그는 범죄자를 쫓는 데에는 냉혹했지만, 그들의 처벌에 대해서는 매우 온화했다. 프랑스, 그리고 유럽의 경찰 방법론을 주도해 온 그에게서 큰 영향력이 발휘되었는데, 그것은 형량 감경과 교도소의 정화를 위해 존엄하게 사용되었다. 그는 프랑스의 주요한 인본주의적 자유사상가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문제는, 그들이 정의보다 더 차가운 자비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발랑탱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검은 옷에 빨간 로제트를 달고 있었다. 짙은 수염에 회색 빛이 돌기 시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우아한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집 안을 곧장 지나 뒷마당으로 통하는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의 정원 문은 열려 있었고, 그는 자신의 상자를 공식적인 장소에 조심스럽게 잠근 뒤 잠시 동안 열린 문 너머 정원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날카로운 달빛이 폭풍의 날아다니는 구름 조각들과 싸우고 있었고, 발랑탱은 그 광경을 평소에는 찾아보기 힘든, 그의 과학적 성격으로는 드문 그리움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마도 이러한 과학적 성격의 소유자들만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문제를 예감하는 심리적 직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신비로운 분위기에서 그는 빠르게 벗어나 있었다. 그는 이미 늦었고,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거실로 들어갔을 때, 한눈에 본 그의 초대객 중 주요 인물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그는 이 작은 모임의 다른 주요 인물들을 모두 보았다. 그는 영국 대사인 갤러웨이 경을 보았는데, 그는 사과처럼 붉은 빛을 띤 얼굴을 가진 성미가 급한 노인이었고, 가터 훈장의 푸른 리본을 달고 있었다. 그는 슬림하고 가느다란 실처럼 보이는 은발의 부인, 갤러웨이 부인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예민하고 우월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그는 딸인 마거릿 그레이엄 양을 보았는데, 마거릿은 창백하고 아름다운 소녀였으며, 요정 같은 얼굴과 구리빛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검은 눈과 풍만한 체격을 가진 생미셸 공작 부인을 보았고, 그녀와 함께 검은 눈과 풍만한 체격을 가진 두 딸도 있었다. 그는 안경과 뾰족한 갈색 수염을 가진 전형적인 프랑스 과학자, 사이먼 박사를 보았다. 그의 이마에는 겸손하지 않음의 대가로 생기는 평행한 주름이 있었

는데, 이는 항상 눈썹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다. 그는 최근 영국에서 만난 에식스 코브홀의 브라운 신부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람들 중 어느 누구보다 더 큰 관심으로, 갤러웨이 가문에 인사했지만 그다지 열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채 혼자 앞으로 나아오는 키 큰 군복 차림의 남자를 보았다. 이 남자는 프랑스 외인부대의 오브라이언 단장이었다. 그는 슬림하지만 다소 당당한 풍모를 지니고 있었고, 면도한 얼굴, 검은 머리,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승리한 실패와 성공적인 자살'의 부대 장교로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대담하면서도 우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태생이 아일랜드 귀족이었으며, 소년 시절 갤러웨이 가, 특히 마거릿 그레이엄을 알고 지냈다. 그는 부채 문제로 인해 나라를 떠났고, 이제 영국 예절에 완전히 자유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군복에 군도와 박차를 차고 거들먹거리며 돌아다녔다. 그가 대사 가문에 인사했을 때, 갤러웨이 경과 부인은 경직되게 고개를 숙였고, 마거릿 여사는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끌리는 구시대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을 맞이한 명망 높은 주인은 그들에게 특별히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적어도 그들 중 누구도 그에게는 '오늘 밤의 주인공'으로 보이지 않았다.

발랑탱은 특별한 사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한 인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펼친 위대한 탐정 활동과 승리를 거두던 시절, 그와 우정을 쌓은 바 있었다. 그가 기다리는 이는 줄리어스 K. 브라인이었다. 브라인은 소수 종교에 거액의 기부를 아끼지 않는, 그 규모가 압도적일 정도로 막대한 부를 지닌 억만장자였다. 그의 이런

행보는 미국과 영국의 신문들에게는 손쉬운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도 쉽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누구도 브라인 씨가 정확히 무신론자인지, 모르몬교도인지, 아니면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인지 확실히 가늠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릇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떤 지적 용기든 가리지 않고 돈을 쏟아붓는 사람이었다. 그의 취미 중 하나는 '미국의 셰익스피어'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낚시를 하는 것보다 더 인내심이 필요한 취미였다. 그는 월트 휘트먼을 존경했지만, 루크 P. 타너(파리, 펜실베이니아 주 출신)가 휘트먼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믿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아했다. 그리고 그는 발랑탱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발랑탱에게 지대한 불이익을 안겨주는 오해였다.

줄리어스 K. 브라인이 방 안으로 들어선 모습은 저녁 식사 종소리가 울린 듯 확고하고 단호했다. 그는 드물게 가진 놀라운 자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이 그의 부재만큼이나 컸다는 것이다. 그는 키만큼이나 뚱뚱한 거구였으며, 시계고리나 반지 하나 없는 완전한 검은 저녁용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독일인처럼 하얗게 빛나며 단정하게 뒤로 빗어 넘겼고, 얼굴은 붉고 사나우면서도 천사처럼 동그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인상을 풍겼다. 턱 아래 한 줄기 짙은 수염이 그 유아적인 얼굴에 극적인, 심지어 메피스토펠레스(악마)적인 효과를 더했다.

하지만 그 살롱에 모인 사람들은 이 유명한 미국인을 오랫동안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지 못했다. 그의 지체는 이미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장 팔에 갤러웨이 부인을 끼고 식탁으로 급히 이끌려 갔다.

갤러웨이 가문은 대체로 온화하고 여유로웠다. 마거릿 양이 그 방탕한 모험가 오브라이언의 팔을 잡지 않는 한, 그녀의 아버지는 만족스러웠다. 그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정중하게 사이먼 박사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그럼에도 노령의 갤러웨이 경은 안절부절못했다. 거의 무례할 정도였다. 그는 저녁 식사 중에는 외교관다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시가 한 모금 끝난 뒤 젊은 세 명이 사라지자 태도가 달라졌다. 의사 사이먼, 사제 브라운, 그리고 외국 군복을 입은 망명자 오브라이언까지 그들은 모두 숙녀들과 어울리거나 온실로 나가 담배를 피우러 갔다. 이때 영국 외교관은 외교관답지 않게 변했다.

그는 매분마다 오브라이언이 무언가 마거릿에게 신호를 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찔렸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브라인과 발랑탱과 함께 남았다. 브라인은 모든 종교를 믿는 노련한 미국인이었고, 발랑탱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회색머리 프랑스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논쟁을 벌일 수 있었지만, 둘 중 누구도 그의 마음을 끌지는 못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진보적'인 말싸움은 지루함의 절정에 달했다. 갤러웨이 경도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그는 몇 분 동안 긴 복도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다 의사의 날카롭고 교훈적인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 사제의 둔탁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는 일반적인 웃음소리가 따라왔다. 그는 저주 섞인 생각으로, 그들도 아마 '과학과 종교'에 대해 논쟁하고 있겠지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가 살롱 문을 연 순간, 그가 본 것은 단 한 가지였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본 것이었다. 그는 오브라이언이 없다는 것과, 마거릿 부인도 없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식당에서 그랬듯, 거실에서도 조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다시 한 번 거칠게 내달렸다. 딸을 아일랜드계 알제리인 무뢰한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그의 생각은 이제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고, 심지어 미친 듯이 고착되었다.

그가 발랑탱의 서재가 있는 집 뒤쪽으로 향할 때, 딸과 마주쳤다. 딸은 하얗게 질린, 경멸에 찬 얼굴로 그를 지나쳐 갔다. 이 또한 두 번째 수수께끼였다. 만약 딸이 오브라이언과 함께 있었다면, 오브라이언은 어디에 있는가? 만약 딸이 오브라이언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녀는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그는 노쇠하면서도 열정적인 의심에 사로잡혀, 어두운 집 뒤쪽으로 더듬거렸다. 그리고 결국 정원으로 통하는 하인용 출입구를 찾아냈다.

초승달이 칼날처럼 빛나며 폭풍의 잔해를 찢어내고 밀어냈다. 은빛 빛깔이 정원의 네 모퉁이를 모두 비추었다. 푸른 옷을 입은 키 큰 인물

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서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옷깃에 달린 은장식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는 코망당 오브라이언이었다.

그는 프랑스식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갤러웨이 경은 설명할 수 없는 분통을 터뜨렸다. 날카로운 분노와 어지러운 혼란이 뒤섞인 상태였다.

푸르고 은빛으로 물든 정원은 극장 무대처럼 보였다. 그의 세속적 권위가 맞서 싸우고 있는, 그 거칠 정도로 다정한 힘들이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아일랜드인의 긴 보폭과 우아한 걸음걸이는 그를 격분시켰다. 그는 상대를 아버지가 아니라 경쟁자로 여긴 듯했다. 달빛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마법이라도 걸린 듯 트로바두르들의 정원에 갇혔다. 왓토의 동화 속 세계였다. 그는 이런 연애광적인 어리석음을 말로써 떨쳐버리려 했다. 적수를 따라 재빨리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그는 풀밭 속의 나무뿌리나 돌에 발을 헛디뎠다. 처음에는 짜증 섞인 눈으로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이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번째로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달과 키 큰 포플러 나무들은 낯선 광경을 목격했다. 한 노령의 영국 외교관이 달리고 있었다. 그는 달리는 내내 울부짖거나 포효하고 있었다.

그의 거친 비명소리에 서재 문 앞에 창백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경 너머로 빛나던 눈빛과 걱정 가득한 이마를 가진 사이먼 박사

가 귀를 기울였다. 그제야 귀에 들어온 귀족의 첫 번째, 또렷한 말이었다.

갤러웨이 경이 외쳤다.

"잔디 위에 시체가 있다. 피투성이 시체가."

오브라이언은 마침내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었다.

"당장 발랑탱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사가 갤러웨이 경이 차마 살펴본 것을 더듬더듬 모두 이야기하자마자 말했다. "그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군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위대한 탐정이 서재로 들어섰다. 비명 소리에 이끌려 온 것이다. 그의 변신을 지켜보는 것은 거의 유쾌할 지경이었다. 그는 평소의 신사이자 집주인으로서의 평범한 걱정, 즉 어떤 손님이거나 하인이 아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안고 들어왔었다.

그러나 피비린내 나는 사실을 듣자마자, 그는 순식간에 진지하고도 업무적인 태도로 변했다. 비록 그 사건이 갑작스럽고 끔찍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일인 것이다.

"이상하군요, 여러분." 그들이 정원으로 급히 나서는 동안 그가 말했다. "전 세계를 누비며 미스터리들을 쫓아다녔건만, 정작 내 뒷마당에 하나가 터지다니."

"그 장소가 어디죠?"

강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해 잔디밭을 건너기가 그리 수월하지 않았다. 그러나 흔들리던 갤러웨이의 안내를 따라 그들은 깊은 풀 속에 잠겨 있는 시신을 찾아냈다. 아주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의 시신이었다.

그는 얼굴을 대고 누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큰 어깨가 검은 천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과, 그의 큰 머리가 거의 대머리였다는 사실, 그리고 젖은 해초처럼 두개골에 달라붙은 갈색 머리카락이 한 두 가닥 남아 있다는 사실밖에 볼 수 없었다.

떨어진 얼굴 아래로는 피의 붉은 뱀이 기어 나오고 있었다.

"적어도," 사이먼이 깊고 묘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지."

"검사해 보시오, 의사 선생님." 발랑탱이 다소 날카롭게 외쳤다. "그가 아직 죽지 않았을 수도 있소."

의사가 몸을 굽혔다. "체온은 아직 식지 않았지만, 유감스럽지만 이미 확실히 죽은 것 같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도와주십시오. 그를 들어 올릴 수 있게."

그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땅에서 한 뼘 들어 올렸다. 그가 정말로 죽었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은 즉시, 그리고 끔찍하게도 해결되었다.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져 나갔다. 목은 몸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목을 베어 죽인 자가 목도 잘라냈던 것이다. 발랑탱조차도 살짝 놀랐다. "저 자는 고릴라만큼이나 힘이 세었을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사이먼 박사는 해부학적으로 형편없는 시체들을 많이 봐왔지만, 그래도 어깨가 오싹해지며 머리를 들어 올렸다. 목과 턱 주변이 약간 찢겨 있었지만, 얼굴 전체는 크게 상하지 않았다. 그 얼굴은 무겁고 누르스름했다. 함몰된 부분과 부어 오른 부분이 뒤섞여 있었고, 매부리코와 무거운 눈꺼풀이 특징이었다. 악독한 로마 황제의 얼굴 같았지만, 어쩌면 중국 황제의 기색도 약간 섞여 있었다.

모두가 무심한 눈으로 그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에 대해 더 이상 주목할 만한 것은 없었다. 다만 몸을 들어 올릴 때, 셔츠 앞판이 붉은 피로 얼룩져 있는 것이 보였다. 사이먼 박사가 말했듯, 그 남자는 우리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복장으로 차려입고 왔던 점을 보면, 아마도 합류하려던 참이었을 것이다.

발랑탱은 손과 무릎을 꿇고 앉아 시체 주변 약 20야드 거리의 풀과 땅을 면밀히 살폈다. 의사도 서툴게 그를 도왔고, 영국 귀족은 거의 형식적으로만 도움을 줬다. 하지만 그들의 애씀을 보상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발랑탱이 잠시 들어 올려 살펴본 뒤 다시 던져 버린 것은 몇 개의 나뭇가지뿐이었다. 그것들은 꺾이거나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려 있었다.

"나뭇가지입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목이 잘린 낯선 사람. 이 잔디밭에 있는 건 그뿐입니다."

거의 기이할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심란해져 있던 갤러웨이가 날카롭게 외쳤다.

"저기, 저기다! 정원 담장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냐!"

달빛이 뿌연 안개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흔들리며 다가왔다. 순간 괴물처럼 보였으나, 곧 그들이 거실에 남겨둔 순진한 작은 신부임이 드러났다.

"저기요," 그가 소심하게 말했다. "이 정원에는 문이 없습니다. 아시나요?"

발랑탱의 검은 눈썹이 불쾌한 듯 좁혀졌다. 가운을 입은 신부를 보는 것만으로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는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나치게 정의로운 사람이어서, 그 발언의 타당성을 부인할 수 없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그가 어떻게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 직위와 의무에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라면, 우리는 특정 유력한 인물들의 이름을 이 사건에서 배제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인들과 외국인 대사도 포함되어 있소. 만약 이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면, 그 범죄를 철저히 추적해야 하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재량을 행사하겠습니다. 저는 경찰의 수장입니다. 저는 너무 공개적인 인물이라, 사적인 일을 처리할 여유가 있소. 신께서 도우신다면,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 제 요원들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제 손님들을 모두 무죄로 돌리겠소.

여러분, 명예를 걸고 약속하십시오. 내일 정오가 되기 전까지 누구도 이 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침실이 준비되어 있

소. 시몬, 내 측근인 이반을 현관에서 찾을 수 있을 거요.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내입니다. 다른 하인 한 명을 경비원으로 남겨두고, 즉시 나를 만나러 오라고 전하십시오.

갤러웨이 경, 당신은 이 사실을 부인들에게 알리고 공황을 막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들도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브라운 신부와 저는 시신 곁에 남겠습니다."

이때 발랑탱의 마음속에서 선장의 정신이 목소리를 내자, 그것은 나팔소리처럼 모든 사람을 움직였다. 사이먼 박사는 무기고로 가서, 사립 탐정인 이반을 깨워냈다. 갤러웨이는 접견실로 가서, 적절하게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 여성들은 이미 놀랐고 이미 달래졌다. 한편, 선한 사제와 선한 무신론자는 달빛 아래서 죽은 자의 머리맡과 발치에 서서, 그들의 두 가지 죽음에 대한 철학을 상징하는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흉터와 수염을 가진 심복 이반이 집 밖으로 쏜살같이 나왔다. 그는 대포알처럼, 그리고 주인을 찾은 개처럼 잔디밭을 가로질러 발랑탱 쪽으로 질주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은 이 가정 내 추리극의 열기에 가득 차 생동감 넘쳤고, 그는 유해를 조사해도 되는지 주인의 허락을 구하며 거의 불쾌할 정도로 성급하게 행동했다.

"그렇소. 보고 싶으면 보시오, 이반." 발랑탱이 말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게.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오."

이반이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그는 그 머리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왜, 그것은--아니, 아니야. 있을 수 없어. 그 남자 아시나요?"

"아니요." 발랑탱은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함께 들어 서재의 소파로 옮겼다. 그리고 모두 거실로 향했다.

형사는 주저 없이, 그러나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중죄 재판소의 판사처럼 냉철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눈앞의 종이에 몇 줄의 메모를 빠르게 적더니, 짧게 물었다. "모두 모였나?"

"브레인 씨가 안 보이네요." 생미셸 공작부인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아니오." 갤러웨이 경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닐 오브라이언 씨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체가 아직 따뜻했을 때, 그 분을 정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이반," 형사가 말했다. "오브라이언 지휘관과 브레인 씨를 부르러 가시오. 브레인 씨는 지금 식당에서 시가를 피우고 있을 거요. 오브라이언 지휘관은 온실 안을 오가며 거닐고 있을 테고. 정확히는 모르겠소."

신실한 수행원이 방을 빠져나갔다. 아무도 움직이거나 말을 건네기 전에, 발랑탱은 군인처럼 빠른 속도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정원에서 머리가 몸통에서 잘려 나간 시체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사이먼 박사님, 그 시체를 검사해 보셨죠. 그런 식으로 목을 베어 내는 데는 막대한 힘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아주 날카로운 칼만 있으면 될까요?"

"칼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창백한 의사가 말했다.

"그걸 해낼 만한 도구가 있을까요?" 발랑탱이 다시 물었다.

"현대적인 확률로 따져봐도, 정말 떠오르는 게 없소." 의사가 고통스러운 듯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서툴게 베더라도 목을 자르기는 쉽지 않은 법이오. 그런데 여기서는 칼날이 매우 깔끔하게 들어갔소. 전투용 도끼나, 옛날 처형인이 쓰던 도끼, 혹은 오래된 양손검 정도라면 가능했을 거요."

"세상에!" 공작부인은 거의 히스테리 상태가 되어 외쳤다. "이 근처에 양손용 검이나 전투도끼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발랑탱은 여전히 책상 위의 종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빠르게 글을 쓰며 물었다.

"말인데, 이 일이 긴 프랑스 기병용 사브르로 가능했을까?"

문 밖에서 낮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맥베스에서의 두드림처럼 모든 이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사이먼 박사는 겨우 입을 열었다. "사브르—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고맙소." 발랑탱이 말했다. "들어오시오, 이반."

심복 이반이 문을 열고, 마침내 정원을 다시 거닐고 있던 닐 오브라이언 지휘관을 안으로 들였다.

문턱에 선 아일랜드인 장교는 흐트러진 차림새로 일어섰다. 그는 거친 눈빛으로 외쳤다.

"무슨 일로 나를 부르시오?"

"앉으시오." 발랑탱이 쾌활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왜, 칼을 차고 있지 않소? 칼은 어디에?"

"도서관 책상 위에 놔뒀어요." 오브라이언이 말했다. 그의 아일랜드 사투리가 더욱 굵어졌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좀 성가셨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반," 발랑탱이 말했다. "도서관에 가서 지휘관의 검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하인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물었다.

"갤러웨이 경은 시체를 발견하기 직전, 당신이 정원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셨다고 하네요. 정원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지휘관은 거침없이 의자에 몸을 던졌다. "아, 이 달을 보며 자연과 교감하는 중이야, 내 아들아." 그는 순수한 아일랜드 사투리로 외쳤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그 끝에서 또다시 경미하면서도 끔찍한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반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비어 있는 강철 칼집을 들고 있었다. "이게 제가 찾을 수 있는 전부입니다."

발랑탱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시오."

방 안에는 비인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자의 피고석을 둘러싼 바다 같은, 비인간적인 고요였다. 공작 부인의 약한 탄식도 이미 오래전에 잦아들었다. 갤러웨이 경의 부풀어 오른 증오는 만족을 얻었고, 심지어는 진정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들린 목소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거릿 부인이 힘차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용기 있는 여성이 공개석상에서 말할 때 내는 그런 목소리였다. "오브라이언 씨가 정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가 침묵을 지키기로 했으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집안 사정상 드릴 수 있는 것은 존중뿐이라

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에 조금 화가 난 듯했습니다. 제 존중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녀는 창백한 미소를 띠며 덧붙였다. "지금 와서 그가 그 존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존중을 그에게 바칩니다. 그가 이런 짓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어디에서든 증언하겠습니다."

갤러웨이 경은 딸 쪽으로 슬며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이 속삭이는 줄 알았지만, 소리는 우레처럼 울렸다.

"입 다물어, 매기."

그가 쉿 소리를 내며 말했다.

"왜 그 녀석을 감싸 주려 해? 그의 검이 어디 있나? 그 미친 기병대는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는 멈춰 섰다. 딸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유난히도 기이했기 때문이다. 그 시선은 마치 붉은 자석이라도 된 듯, 온 집안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 늙은 바보 같으니!" 그녀는 경건한 체하지 않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아시오? 이 남자는 내 곁에 있을 때 무죄였소. 만약 그가 무죄가 아니라면, 그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소. 그가 정원에서 사람을 죽였다면, 누구를 봐야 하겠소? 최소한 누구는 알고 있었을 것이오. 닐을 그렇게 미워하시어 당신의 딸을……"

갤러웨이 부인이 비명을 질렀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순간, 전설 속 연인들을 짓누르던 악마적인 비극의 기운이 자신들의 피부에 스며드는 듯 전율했다. 그들은 어두운 방 안에 걸린 옛 초상화처럼, 고귀하고 하얗게 질린 스코틀랜드 귀족 여인과 그녀의 연인이자 아일랜드인 모험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긴 침묵은 형체 없는 역사적 기억들로 가득 찼다. 살해당한 남편들과 독을 쓴 정부(情夫)들에 대한 기억들이 공기를 채웠다.

그 병적인 침묵 한가운데서, 순진한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다.

"그 담배가 아주 긴 것이었나요?"

생각의 전환이 너무 급격해서, 누가 말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두 고개를 돌렸다.

"저는요," 방 구석에서 작은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브라인 씨가 피우고 있는 그 시가 말이오. 지팡이만큼이나 길어 보이거든요."

발랑탱이 고개를 들어 올리자, 그의 얼굴에는 그 엉뚱한 말에도 불구하고 동의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맞는 말이오."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이반, 브라인 씨를 다시 찾아보시오. 그리고 그를 당장 여기로 데려오게."

문지기(팩토툼)가 문을 닫는 순간, 발랑탱은 완전히 다른 진지함으로 소녀에게 말을 건넸다.

"마거릿 부인," 그가 말했다. "당신이 사사로운 체면을 넘어서서, 지휘관의 행동을 설명해 주신 데 대해 우리는 모두 감사와 경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갤러웨이 경이 서재에서 거실로 지나가던 당신을 만났다고 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분 뒤, 그가 정원에 내려갔을 때 지휘관은 여전히 그곳을 거니고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마거릿이 미묘한 비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거절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팔짱을 끼고 돌아올 리가 없죠. 그는 어쨌든 신사니까 뒤에서 더디 걸었겠지요. 그리고 그 때문에 살인죄로 몰린 거예요."

발랑탱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정말로--"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반이 흉터 난 얼굴을 내밀었다.

"실례합니다, 나리." 그가 말했다. "브라인 씨가 집을 떠나셨습니다."

"떠났다고!" 발랑탱이 외치며, 처음으로 일어서 있었다.

"도망갔어요. 쏜살같이 사라졌죠. 증발해 버렸다고나 할까요." 이반이 유머러스한 프랑스어로 대답했다. "그의 모자와 코트도 함께 사라졌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 남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집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정말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주 큰 흔적이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발랑탱이 물었다.

"보여 드리죠." 하인이 말하며 다시 나타났다. 번뜩이는 검날을 든 채였다. 기병용 검이었다. 칼끝과 날에는 피가 얼룩져 있었다. 방 안의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천둥번개라도 본 듯 경계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이반은 아주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계속 말했다.

"이걸 찾았어요." 그가 말했다. "파리로 가는 길, 50야드쯤 떨어진 관목들 사이에 던져져 있던 거요. 다시 말해, 그 점잖은 브라인 씨가 도망갈 때 버린 바로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죠."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사뭇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발랑탱은 사브르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주저함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러고는 정중한 표정으로 오브라이언을 바라보았다.

"지휘관님, 경찰의 감식이 필요할 때 이 무기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말을 잇자, 발랑탱은 울리는 칼집에 칼을 도로 꽂으며 말했다.

"그동안은, 당신의 칼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행위에 담긴 군대식 상징성 때문에, 관객들은 거의 참지 못하고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닐 오브라이언에게 그 제스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아침 빛깔이 감도는 그 신비로운 정원을 다시 거닐 때쯤, 그는 평범한 외모가 지닌 비극적 무용함을 벗어던지고 있었다. 그는 행복할 수많은 이유를 지닌 남자가 되어 있었다.

갤러웨이 경은 신사였다. 그리고 그에게 사과를 건넸다. 마거릿 부인은 단순한 숙녀가 아닌, 적어도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이었다. 아침 식사 전, 두 사람은 오래된 꽃밭 사이를 유영하듯 걷다가 아마도 사과 그 이상의 무언가를 건넸을 것이다.

전체 분위기는 한층 가볍고 인간미가 넘쳤다. 비록 죽음의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누추한 의심의 짐은 벗겨졌다. 그 짐은 낯선 백만장자, 즉 그들이 거의 알지 못하던 그 남자에게 실려 파리 쪽으로 날아갔다. 집안에서 악마가 쫓겨났다. 아니, 악마가 스스로 자진해서 나간 것이다.

하지만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오브라이언이 사이먼 박사와 나란히 정원의 벤치에 털썩 주저앉자, 과학자다운 그 박사는 곧장 그 문제로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은 별다른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훨씬 더 즐거운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별 흥미가 없군요." 아일랜드 남자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 보면 사연이 꽤 명확해 보이니까요. 브라인은 어쨌든 이 낯선 이를 무

언가 이유로 증오했고, 정원으로 유인한 뒤 제 칼로 그를 죽였죠. 그리고 칼을 던져버린 채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반이 말하길, 죽은이의 주머니에는 양키 달러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브라인의 고향 사람인 셈이고, 그 점이 모든 걸 확증해 주는군요. 이 일에 별다른 의문점은 없습니다."

"다섯 가지 거대한 난관이 있습니다." 의사가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들은 벽 안의 벽과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브라인이 범인임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도피가 그것을 증명하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요.

첫째, 왜 남을 주머니칼로 죽일 수 있는데도 덩치 큰 사브르 칼을 썼을까요? 주머니칼이면 충분했을 텐데 말입니다.

둘째, 왜 소음이나 비명이 없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언월도를 휘두르며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나요?

셋째, 하인이 밤새도록 앞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쥐도 발랑탱의 정원에 들어갈 구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정원에 들어갔을까요?

넷째, 같은 조건 하에서 브라인은 어떻게 정원을 빠져나갔을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닐이 말했다. 그는 천천히 길 위로 올라오는 영국 사제, 곧 브라운 신부를 응시하며 그렇게 말했다.

"별일 아닌 것 같군요, 아마도요."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묘하게 이상한 점이 있죠. 처음에 목이 베인 부상을 보고는, 살인자가 여러 번 휘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잘려나간 목 부분 전체에 여러 개의 칼자국이 있었죠. 다시 말해,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진 후에 내려친 상처들이었습니다. 브라인이 적을 얼마나 악랄하게 미워해서, 달빛 아래서 시체를 베어대며 복수를 갚았단 말입니까?"

"끔찍하군!" 오브라이언이 떨며 말했다.

작은 사제 브라운이 그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도착했다. 그는 특유의 수줍음을 타며, 그들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곤 어색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잠시만요. 이 소식을 전하러 왔거든요!"

"소식?" 시몬이 안경을 낀 채로 그를 고통스럽게 바라보며 되물었다.

"네, 죄송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다정하게 말했다. "알고 계신다시피, 이번에는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좌석에 앉아 있던 두 남자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좌석이 흔들리며 요동쳤다.

"더 기이한 것은," 신부가 만병초를 바라보며 차분한 어조로 이어 말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추악한 수법이 쓰였다는 점이다. 또다시 목이 잘린 것이다. 브라인이 파리 가는 길에서 몇 야드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시체의 머리가 실제로 강물 속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세상에나!" 오브라이언이 외쳤다. "브라인이 강박증 환자란 말이오?"

"미국에는 원한에 찬 복수극도 있죠." 신부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당신을 도서관으로 불러서, 거기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군."

오브라이언 사령관은 다른 이들을 따라 심문실 쪽으로 향했다.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군인으로서 그는 이런 은밀한 살육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런 과잉된 단두대의 행진이 언제 멈출 것인가? 먼저 한 사람의 머리가 베어졌고, 또 다른 사람의 머리가 베어졌다. 이번 사건은 그에게 쓴웃음을 자아냈다. 머리 둘이 하나보다 낫다는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다.

그가 서재를 지나칠 때, 끔찍한 우연에 마주해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다. 발랑탱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피 흘리는 머리의 컬러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발랑탱 자신이었다.

두 번째로 살펴보니, 그것은 단지 『단두대』라는 민족주의 신문이었다. 이 신문은 매주 처형 직후 눈이 굴러가고 얼굴이 일그러진 정치 상대자의 모습을 실었다. 발랑탱은 꽤 유명한 반교권주의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브라이언은 아일랜드인이었다. 그의 죄악들 속에도 일종의 청렴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프랑스만이 지닌, 지적인 잔혹함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고딕 교회들의 기괴한 조각상부터 신문의 노골적인 풍자화까지, 파리를 전체적으로 느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거대한 농담들을 기억했다.

그는 파리를 하나의 추한 에너지로 보았다. 발랑탱 책상 위의 피투성이 스케치에서부터, 괴물 석상들의 산과 숲 위로 우뚝 솟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거대한 악마가 비웃는 미소까지.

도서관은 길고 낮으며 어두웠다. 들어오는 빛은 낮은 차양 틈으로 비쳤고, 아직 아침의 붉은 기운을 간직하고 있었다.

발랑탱과 그의 하인 이반은 긴 책상 위쪽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은 약간 경사진 형태였고, 그 위에는 죽은 자들의 시신이 어둠 속에서 거대하게 보였다.

정원에서 발견된 남자의 큰 검은 실루엣과 노란 얼굴은 거의 변함없이 그들을 맞았다. 반면, 아침에 강가의 갈대 사이에서 건져 올린 두 번째 머리는 그 옆에 젖은 채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발랑탱의 형사들은 여전히 수면 위에 떠 있다는 이 두 번째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브라운 신부는 오브라이언의 감수성을 조금도 공유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두 번째 머리로 다가가 깜빡이는 눈으로 세심하게 그것을 살폈다. 그것은 젖은 하얀 머리카락 덩어리에 불과했다. 붉고 수평적인

아침 햇살 아래서 은빛 불꽃처럼 번졌다. 얼굴은 추하고 보라빛이 돌며, 어쩌면 범죄자 같은 인상을 풍겼다. 물에 떠밀려 나무나 바위에 부딪힌 흔적이 곳곳에 선명했다.

"오브라이언 사령관님, 안녕하세요." 발랑탱이 차분하면서도 친절한 어조로 말했다. "브레인의 마지막 도살 실험에 대해 들으셨겠지요?"

브라운 신부는 하얀 머리카락의 시신을 향해 여전히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브레인이 이 머리도 잘랐다는 건 거의 확실해."

"글쎄, 상식적인 추론이군요." 발랑탱이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으며 말했다. "다른 희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됐고, 다른 시체에서 불과 몇 야드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가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 동일한 무기로 찔려 죽었다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브레인이 이 머리를 잘라냈을 거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왜 안 되죠?" 사이먼 박사가 이성적인 눈빛으로 물었다.

"글쎄요, 의사 선생님." 신부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들었다. "사람이 자기 머리를 베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브라이언은 미친 듯이 어지러운 우주 전체가 자신의 귀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의사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인 태도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젖은 하얀 머리카락을 뒤로 밀어주었다.

"브레인이 맞아요." 신부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왼쪽 귀에는 딱 그 모양의 흉터가 있었으니까."

그 탐정은 신부를 고정된 눈빛으로, 그리고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며, 꽉 다물고 있던 입을 벌리고 날카롭게 말했다. "신부님,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작은 남자는 간단히 말했다. "그와 몇 주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에 입교하기를 고려하고 있었죠."

광신자의 눈동자에 별이 빛났다. 그는 주먹을 쥐고 신부 쪽으로 다가가며 격렬한 비웃음을 띤 채 외쳤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당신의 교회에 남기려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브라운 신부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발랑탱이 끔찍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과, 그의……"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발랑탱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런 모욕적인 소리는 멈추시오, 발랑탱. 칼이 더 필요해질 수도 있겠소.”

발랑탱은 신부의 담담하고 겸손한 시선을 받으며 이미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다.

“좋아요. 사람들의 사적인 의견은 잠시 미루기로 하지요. 여러분은 머무르기로 한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단속하고 서로를 견제하십시오.”

“이반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모두 알려줄 겁니다. 저는 당국에 보고할 일이 있어서 먼저 업무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을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조용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조용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조용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발랑탱은 짧게 잘라 말했다.

“더 이상 이 일을 조용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조용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발랑탱은 짧게 잘라 말했다.

“더 이상 이 일을 조용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발랑탱은 짧게 잘라 말했다.

"이반, 다른 소식은 없소?" 사이먼 박사가 물었다. 경찰청장이 방을 나서던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각하." 이반이 회색빛 주름진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물론 그것도 제법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경건한 척하지도 않고, 잔디밭 위에 놓인 거대한 검은 시체, 노란 머리를 가진 그 시체를 가리켰다.

"그 영감탱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쨌든 알아냈습니다."

"정말요!" 놀란 의사가 물었다. "그가 누구란 말이오?"

"그 이름은 아놀드 벡커입니다." 부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가명을 사용했지요. 그는 떠돌이 신세로, 미국에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어 브레인이 그에게 칼을 겨누게 된 계기가 되었죠. 우리는 그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습니다. 그가 주로 독일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일 경찰과는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에게 루이 벡커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형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죠. 사실, 어제 그 형제를 처형해야만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사들이여,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그 남자가 잔디밭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생애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내가 루이 벡커의 목이 잘리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나는 풀 위에 누운 그 남자가 바로 루이 벡

커라고 단언했을 것입니다. 그 후, 나는 그의 독일에 있는 쌍둥이 형제를 기억해냈고, 그 단서를 따라가자--"

설명하려던 이반은 말을 멈췄다.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령관과 의사는 브라운 신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신부는 굳은 몸짓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갑작스럽고 격렬한 통증을 느낀 사람처럼 양쪽 관자놀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만, 그만!" 그가 외쳤다. "잠시 말 좀 멈추게나. 내가 반쯤은 이해했어. 하느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실까? 내 머리가 그 마지막 도약, 즉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순간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전에는 생각한다는 게 제법 잘되던 사람이었다. 한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느 페이지든 재치 있게 풀어낼 수 있었지. 이제 내 머리가 터질까, 아니면 깨달음이 올까? 나는 반만 보고 있어. 오직 반만."

그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생각인지 기도인지, 알 수 없는 경직된 고통 속에 서 있었다. 반면 나머지 세 사람은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황폐한 열두 시간 동안, 이는 마지막이자 가장 기이한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브라운 신부의 손이 떨어지자, 그 얼굴은 마치 아이처럼 맑고 진지하게 드러났다. 그는 거대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빨리 끝내자. 모두에게 진실을 가장 빠르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소."

그는 의사를 향해 돌아섰다. "사이먼 박사, 당신은 뛰어난 두뇌를 가진 분이지요. 오늘 아침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질문 다섯 가지를 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다시 그 질문을 해 주신다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먼의 핀스네즈가 의심과 경이로움 속에서 코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즉각 대답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하필 둔한 검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는 것이죠. 침으로 된 작은 칼만으로도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신부는 차분하게 말했다. '사람이 바늘로 목을 베어 낼 수는 없소. 그런데 이 살인 사건에서는 목을 베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

"왜요?" 오브라이언이 흥미롭게 물었다.

"다음 질문은 무엇입니까?"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왜 비명을 지르거나 하지 않았소?" 의사가 물었다. "정원에 사브르가 있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니까."

"가지입니다." 신부는 어둡게 말하며, 죽음의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창가로 돌아섰다.

"그 잔가지의 의미를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 하필이면 나무 한 그루 없는 잔디밭 한복판에 떨어져 있었을까? 자세히 보라. 가지가 꺾인 것이 아니라, 베어졌단 말이다. 살인자는 적을 상대하며 검무(劍舞)를 부렸다. 공중에서 가지를 베어내는 묘수를 보여주며 적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다. 그러다 적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조용히 내리친 한 방. 그리고 머리가 떨어졌다."

"글쎄요," 의사가 천천히 말했다. "그건 꽤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던질 다음 두 질문은 그 누구도 당황하게 만들 겁니다."

사제는 여전히 창밖을 날카롭게 훑어보며 서 있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모든 정원이 밀폐된 방처럼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죠." 의사가 계속 말했다. "그렇다면 그 이상한 남자는 어떻게 정원에 들어왔을까요?"

그 작은 신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정원에 이상한 남자는 없었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갑자기, 거의 아이 같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며 긴장감을 해소했다. 브라운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이반은 공개적인 조롱을 퍼붓기 시작했다.

"아!" 그가 외쳤다. "그렇다면 어제 밤 소파에 큰 뚱뚱한 시체를 실어 나르지는 않았다는 말인가? 그는 정원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지?"

"정원에 들어갔다고?" 브라운 신부가 생각에 잠긴 듯 되물었다. "아니, 완전히 그런 건 아니야."

"정말, 참을 수가 없군." 사이먼이 소리쳤다. "남자는 정원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거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신부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무엇입니까, 의사 선생?"

"당신 아픈 것 같군요." 사이먼 박사가 날카롭게 외쳤다. "하지만 원하시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은 어떻게 정원을 빠져나갔습니까?"

"그는 정원을 벗어나지 않았소." 신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사이먼이 폭발하듯 외쳤다.

"전부는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사이먼은 프랑스식 논리의 광기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둘렀다. "한 남자가 정원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나가지 않는 건지, 둘 중 하나뿐이야!"라고 그는 외쳤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사이먼 박사는 성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그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벽 한쪽과

다른 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당신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신부님," 성직자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항상 매우 원만하게 지내왔습니다. 그저 옛 정을 위해라도, 잠시 멈추어 제 다섯 번째 질문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바심 난 사이먼은 문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짧게 말했다. "머리와 어깨 부분이 이상하게 잘려 있었다. 사후에 한 짓으로 보였다."

"네," 움직이지 않는 신부가 말했다. "당신이 정확히 그 하나의 단순한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한 일입니다. 머리가 몸과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요."

뇌의 변방, 모든 괴물이 태어나는 그곳이 게일족인 오브라이언의 내면에서 끔찍하게 요동쳤다. 그는 인간의 비자연적인 상상이 낳은 모든 반인반마들과 인어들의 혼돈스러운 존재감을 느꼈다. 그의 선조들보다 더 오래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두 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는 기이한 정원으로 들어가지 마라.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남자가 죽은 그 악한 정원을 피하라."

그렇지만 아일랜드 영혼이라는 고대의 거울을 수치스러운 상징적 형상들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그의 프랑스화된 지성은 전혀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이한 신부를 가만히, 그리고 믿기지 않는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브라운 신부는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창가 벽에 기대어 섰고, 얼굴은 짙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재처럼 창백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아주 평정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마치 이 세상에 게일 영혼 따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선생님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은 정원에 벡커라는 낯선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원에 그런 시체는 없었습니다. 사이먼 박사의 합리론에도 불구하고, 저는 벡커가 부분적으로만 존재했다고 단언합니다. 여기 보십시오!"(그는 신비로운 시체의 검은 덩어리를 가리켰다.) "당신들은 평생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미지의 인물, 즉 누렇게 머리가 빠진 머리를 재빨리 치워 버리고 그 자리에 곁에 있던 흰머리 머리를 놓았다. 그리고 그곳에, 온전하게, 하나로 통일된, 결코 의심할 여지 없는 Julius K. Brayne가 누워 있었다.

"살인자는 적의 목을 베어 내고는 검을 벽 너머로 멀리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검만 던질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벽 너머로 함께 던졌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시체에 다른 머리를 붙이기만 하면, (그가 사적 심문을 고집했기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상상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머리를 또 하나 갖다 붙여!" 오브라이언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어떤 머리란 말이냐? 머리라고 해서 정원 수풀에 달리는 것도 아니지."

"아니요," 브라운 신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부츠만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오직 한 곳에서만 자랍니다. 단두대의 바구니에서요. 살인 한 시간 전, 경찰청장 아리스티드 발랑탱이 서 있던 곳 바로 옆에서요. 오, 친구들이여, 저를 찢어 죽이기 전에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발랑탱은 정직한 남자입니다. 설령 그 정직함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유 때문에 미친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차갑고 회색빛 눈동자에서 그가 미쳤음을 본 적이 없습니까? 그는 자신이 '십자교의 미신'이라 부르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싸웠고, 굶주림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브레인의 미친 듯한 거액의 재산은 그동안 수많은 교파에 흩어져 있어 사물의 균형을 크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발랑탱은 브레인이 머리가 나쁜 회의론자들처럼 우리 편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브레인은 궁핍하고 호전적인 프랑스 교회에 물자를 쏟아부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_단두대_ 같은 육개 민족주의 신문들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전투는 이미 한 점의 균형 위에 서 있었고, 광신도는 그 위험에 불타 올랐습니다. 그는 백만장자를 없애기로 결심했고, 그는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탐정이 저지를 유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형사학적 구실을 대어 벡커의 잘린 머리를 빼내어 자신의 공식 상자 안에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브레인과 마지막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쟁의 끝부분은 골로웨이 경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 시도가 실패하자, 그는 그를 밀폐된 정원으로 데려갔고, 검술

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나뭇가지와 사브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있는 이반이 벌떡 일어났다. "미친놈이로구나!" 그가 외쳤다. "내가 너를 붙잡으면 바로 내 주군께로 데려가겠어."

"글쎄요, 저도 거기 가려던 참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무겁게 말했다. "그에게 고백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요청해야 하죠."

그들은 불행한 브라운을 인질이나 제물로 앞세운 채, 발랑탱의 서재가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 속으로 함께 돌진했다.

위대한 형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가 시끄럽게 들어온 그들을 듣지 못할 정도로 바빠 보였다. 그들은 잠시 멈춰 섰다. 그러자 곧장 똑바로 선, 우아한 등줄기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 의사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갔다. 한 번 만져보고, 한 번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는 알 수 있었다. 발랑탱의 팔꿈치 옆에는 작은 알약 상자가 놓여 있었고, 발랑탱은 자신의 의자에서 죽어 있었다. 자살자의 흐릿한 얼굴에는 카토의 자부심보다 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상한 발

만약 그 특별한 동호회 '진정한 낚시꾼 열두 명'의 일원이 연례 동호회 저녁 식사를 위해 버논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는 외투를 벗을 때 검은색이 아닌 초록색의 저녁용 재킷을 입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별에 도전할 듯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다면, 그는 아마도 웨이터로 오인받지 않기 위

해 그렇게 한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무너진 듯 그 자리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와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를 남기고 떠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터무니없는 추측을 이어가자면, 온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작은 사제, 브라운 신부를 만난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에게 생에서 가장 기묘한 행운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본다면, 그는 아마도 가장 큰 행운은 버논 호텔에서의 사건이었다고 답할 것이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몇 가지를 듣는 것만으로 범죄를 막고, 어쩌면 한 영혼을 구한 적이 있었다.

그는 아마도 이 기이하고 놀라운 자신의 추측에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높은 지위에 올라 '열두 명의 참된 어부'를 만나거나, 혹은 슬럼가와 범죄자들 속에 충분히 깊이 내려가 브라운 신부를 만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그러니 나는 당신이 이 이야기를 결코 듣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내가 직접 들려주지 않는 한.

십이 진어(The Twelve True Fishermen) 클럽이 매년 정기 만찬을 열던 버논 호텔은, 거의 예의라는 미친 병에 걸린 귀족 사회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 그것은 뒤집힌 세계의 산물이었다. 즉, '배타적'인 상업 기업이었다. 그것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쫓아냄으로써 수익을 내는 곳이었다.

부유층 사회의 중심부에서 상인들은 고객들보다 더 까다롭게 변할 만큼 교묘해진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난관을 만들어낸다. 그래야 부유

하고 지친 고객들이 그 난관을 넘기 위해 돈과 외교술을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런던에 키가 6피트 미만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유행하는 호텔이 있다면, 사회는 기꺼이 키 6피트짜리 남자들로 파티를 구성해 그곳에서 저녁을 먹을 것이다. 만약 소유주의 하찮은 기분에 따라 목요일 오후에만 문을 연 비싼 식당이 있다면, 목요일 오후에는 그 식당이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버논 호텔은 우연히도 벨그레비아의 한 광장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고 매우 불편한 호텔이었다. 하지만 그 불편함들 자체가 특정 계급을 보호하는 성벽으로 여겨졌다. 그중 특히 중요한 불편함 하나는, 동시에 이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상 스물네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유일한 큰 식탁은 유명한 테라스 테이블이었다. 이 테이블은 런던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래된 정원 중 하나를 내려다보는 반쯤 개방된 베란다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 테이블의 스물네 석은 따뜻한 날씨일 때만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 즐거움을 더욱 갈망하게 만들었다. 호텔의 현재 소유자는 레버라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호텔을 들어가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거의 백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렸다.

물론 그는 사업 범위의 이 제한과 함께, 서비스의 가장 세련된 광택을 결합했다. 와인과 요리는 유럽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고, 종업원들의 태도는 영국 상류층의 고정된 분위기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다. 소유주는 자신의 모든 웨이터를 손가락처럼 잘 알고 있었

다. 전체 웨이터는 고작 열다섯 명뿐이었다. 그 호텔에서 웨이터가 되는 것이 의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각 웨이터는 신사의 하인인 것처럼 끔찍할 정도로 침묵하고 매끄럽게 훈련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저녁을 먹는 신사마다 최소 한 명의 웨이터가 대기하고 있었다.

십이 진어(眞魚) 클럽은 오직 그런 곳이어야만 만찬을 허락했다. 그들은 사치스러운 사적(私的) 공간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같은 건물에서 다른 동호회가 식사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들은 당황해 했을 것이다.

매년 정기 만찬이 열릴 때, 어부들은 마치 개인 저택에 있는 것처럼 모든 보물을 드러냈다. 특히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유명한 생선용 나이프와 포크 세트였다. 이는 사실상 그들 단체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 각 포크와 나이프는 은으로 정교하게 생선 모양을 만들었고, 손잡이 부분에는 커다란 진주가 하나씩 박혀 있었다.

이것들은 항상 생선 요리가 나올 때 준비되었다. 그리고 생선 요리는 그 화려한 만찬 중에서도 가장 정교한 것이었다.

이 단체에는 수많은 의식과 관습이 있었지만, 역사도 목적도 없었다. 바로 그 점이 그들이 매우 귀족적인 이유였다. 당신은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이 열두 어부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다만, 이미 특정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 단체는 12년 동안 존재해 왔다. 회장은 오들리 씨였다. 부회장은 체스터 공작이었다.

만약 내가 이 끔찍한 호텔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전달했다면, 독자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심지어 평범한 사람인 브라운 신부가 어떻게 그 황금빛 선실 같은 곳에 들어설 수 있었는지 추측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부분은 내 이야기에서 단순하다, 아니 심지어 평범할 정도다.

세상에는 아주 나이가 많은 폭동 선동가가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은 형제다'라는 무서운 진리를 들고 가장 세련된 은신처에도 난입한다. 그 평준화자가 창백한 말 위에 앉아 가는 곳이면 어디든, 브라운 신부는 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그날 오후, 이탈리아인 웨이터 한 명이 마비성 발작으로 쓰러졌다. 유대인 주인은 그런 미신을 가볍게 여기며 놀랐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가톨릭 사제를 부르기로 동의했다. 웨이터가 브라운 신부에게 고백한 내용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 신부는 그것을 스스로에게만 간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어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메모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브라운 신부는 버킹엄 궁전에서도 똑같이 보였을 그 겸손하지만 대담한 태도로, 방과 필기도구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레버씨는 두 마음이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나 소동을 싫어하는, 즉 친절의 나쁜 본보기 같은 성향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그날 밤 그의 호텔에 낯선 손님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은, 방금 닦아낸 물건에 묻은 먼지 한 점과 같았다.

버논 호텔에는 대기실이나 대기 공간이 없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우연히 들어오는 손님도 없었다. 웨이터는 열다섯 명, 손님은 열두 명뿐이었다. 그날 밤 호텔에 새로운 손님이 있다는 것은, 내 가족 중 새로운 형제가 아침이나 차를 먹으며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일이었다. 게다가 그 사제의 외모는 평범했고, 옷은 진흙투성이였다. 멀리서 그를 본다면 클럽에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마침내 레버 씨는 수치심을 가릴 방법을 생각해 냈다. 지울 수는 없어도 가릴 수는 있었다. 버논 호텔에 들어설 때(하지만 당신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몇몇 흐릿하지만 중요한 그림으로 장식된 짧은 복도를 지나게 된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공개된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가, 왼쪽으로는 호텔의 부엌과 사무실로 이어지는 비슷한 복도가 있는 메인 현관과 라운지로 나온다. 바로 왼쪽에는 라운지와 맞닿아 있는 유리 사무실의 모서리가 있다. 말하자면 집 안의 집 같은 곳이다. 아마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오래된 호텔 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사무실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앉아 있었다. 이 곳에서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다. 사무실 바로 바깥, 하인 숙소로 가는 길목에는 신사들을 위한 코트방(cloak room)이 있었다. 그곳이 신사들의 영역에서 가장 끝나는 지점이었다.

하지만 사무실과 코트방 사이에는 작은 개인실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다른 출구가 없는 밀실이었다. 때때로 소유자는 그곳에서 민감하고

중요한 일들을 처리했다. 공작에게 천 파운드를 빌려주거나, 혹은 육펜스조차 빌려주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일 같은 것들 말이다.

레버 씨의 놀라운 관대함이 돋보이는 대목이 있다. 그는 이 성역과도 같은 공간이 약 반 시간 동안, 그저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평범한 사제 한 사람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브라운 신부가 기록하고 있던 이야기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길이가 거의 같았다는 사실과, 마지막 두세 단락은 가장 지루하고 흡입력이 부족했다는 점뿐이다.

그때쯤 되면, 신부는 자신의 생각이 조금씩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고, 평소 날카로웠던 오감도 서서히 깨어나곤 했다. 어둠과 저녁 식사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잊혀진 작은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때때로 그러하듯, 짙어가는 어둠이 청각을 더 예리하게 만들기도 했다.

브라운 신부는 문서의 마지막이자 가장 부차적인 부분을 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밖에서 반복되는 소리의 리듬에 맞춰 글을 쓰고 있음을 발견했다. 마치 기차 소리를 들으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의식한 그는,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했다. 그것은 단지 문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일 뿐이었다. 호텔에서는 흔하게 있을 법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어둠에 잠긴 천장을 응시하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몇 초간 몽롱하게 듣고 있다가, 그는 벌떡 일어나 머리를 약간 기울인 채 집중해서 들었다. 그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손을 이마에 댔다. 이제 그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었다. 듣고, 동시에 생각하고 있었다.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들은 어느 호텔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묘하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다른 발소리는 없었던 것이다. 이 집은 늘 조용했다. 익숙한 손님들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잘 훈련된 웨이터들은 필요할 때까지 거의 눈에 띄지 않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곳보다도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 발소리들은 너무 기묘해서, 정상이냐 비정상인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브라운 신부는 식탁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 발소리를 따라갔다. 마치 피아노에서 새로운 선율을 익히려는 사람처럼.

먼저, 가벼운 사람이 걷기 경주를 하듯 빠른 발걸음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특정한 지점에 이르러 그 발걸음은 멈추더니, 느리고 흔들리는 듯한 구르는 소리로 바뀌었다. 원래의 빠른 발걸음 수의 사분의 일도 채 되지 않는 횟수였지만, 그 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거

의 같았다. 마지막 울림이 사라지자마자, 또다시 가볍고 재빠른 발소리가 쉼 없이 이어졌다가, 이내 무거운 발걸음이 다시 울려 퍼졌다.

분명히 같은 부츠였다. 다른 부츠가 근처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부츠에서 나는 작지만 분명한 삐걱거리는 소리 때문이기도 했다. 브라운 신부는 질문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타입의 머리를 가졌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이 의문에 그의 머리가 거의 터질 지경이었다.

그는 점프하기 위해 달리는 사람을 보았다. 미끄러지기 위해 달리는 사람도 보았다. 그런데 대체 왜, 걷기 위해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달리기를 위해 천천히 걷는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다리들의 이상한 행동을 설명할 다른 표현은 없었다.

그 남자는 복도의 한쪽 절반에서는 매우 빠르게 걷고, 다른 절반에서는 매우 느리게 걷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한쪽 끝에서는 천천히 걷다가, 다른 쪽 끝에서는 빠르게 걷는 쾌감을 만끽하고 있었을 것이다. 두 추측 모두 별다른 논리가 없어 보였다. 그의 머리는 그의 방처럼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

그러나 그가 차분히 생각할수록, 감옥의 어둠은 오히려 그의 생각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환상적인 몽상 속에서, 복도를 따라 이상하거나 상징적인 자세로 춤추는 기이한 발걸음들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이교도의 종교적 춤이었을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과학적 운동이었을까?

브라운 신부는 그 발걸음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더 정확하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먼저 느린 걸음부터 따져보자. 그것은 분명히 주인장의 걸음이 아니었다. 그런 유형의 남자들은 빠른 물오리 걸음으로 걷거나, 가만히 앉아 있기 마련이었다. 그것은 지시를 기다리는 하인이나 전령의 발소리도 아니었다. 소리가 그렇지 않았다. 귀족 사회에서 하층민들은 약간 취했을 때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히 이렇게 화려한 장면에서는 제약된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기 마련이었다.

아니었다. 그 무겁지만 탄력 있는 걸음, 그리고 특유의 무심한 강조감. 특별히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나는 대로 내버려두는 태도. 그것은 이 땅의 동물들 중 오직 한 종에게만 속한 것이었다. 그것은 서유럽의 신사였으며, 아마도 생계를 위해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가 단호한 결론에 도달하려던 순간, 발소리가 달라졌다. 발걸음이 빨라졌고, 문 앞을 지나치는 소리는 열병에 걸린 쥐처럼 절박했다.

듣고 있던 이는 그 발소리가 훨씬 빠르면서도 훨씬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발끝으로 걷는 듯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에게 '비밀'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잊고 있던 무언가가 생각났다.

그는 반쯤 기억나는 기억에 사로잡혀 미칠 지경이었다. 그런 기억은 사람을 반쯤 멍청하게 만든다. 분명히, 그 기묘하고 빠른 발소리를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방은 복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한쪽은 유리 사무실로, 다른 쪽은 너머의 코트 홀로 통했다.

그는 사무실 쪽 문을 열어보았지만 잠겨 있었다. 그러자 그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에는 보라색 구름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사이로 생기 죽은 노을이 비치고 있었다. 순간, 그는 개가 쥐 냄새를 맡을 때처럼 악취를 맡았다.

그의 이성적인 부분이 다시 우위를 점했다. 현명한 판단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는 주인이 문에 자물쇠를 채워 두고 나중에 와서 풀어주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밖에서 들리는 기이한 소음은 생각지 못했던 스무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희미한 빛으로 자신의 마땅한 일을 끝낼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다고 되뇌었다.

그는 종이를 창가로 가져가 폭풍우 치는 저녁녘의 마지막 빛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결연하게, 거의 완성된 기록 작업에 다시 뛰어들었다.

빛이 점점 흐려질수록 그는 종이에 더 가까이 몸을 굽혔다. 약 이십 분을 그렇게 글을 썼을까, 갑자기 그는 몸을 쫙 펴고 앉았다.

다시 그 기이한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전의 그 낯선 남자는 경쾌하고도 번개처럼 빠른 걸음으로 걸어 왔었다. 그는 분명히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렸다. 복도 저편에서 빠른 발걸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도 경쾌하게 튀어 오르는 발소리였다. 도망치며 뛰는 표범의 발자국 같았다. 다가오는 이는 매우 건장하고 활동적인 남자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잔잔하면서도 격렬한 흥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마치 속삭이는 회오리바람처럼 사무실까지 밀려오자, 갑자기 다시 옛날의 느리고 당당하게 구르는 발걸음 소리로 변했다.

브라운 신부는 종이를 내려놓고는, 사무실 문이 잠겨 있음을 알기에 곧장 반대편에 있는 코트 홀로 들어섰다. 이 곳의 직원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아마도 유일한 손님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의 사무실은 형식적인 직함일 뿐이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색 코트들이 빽빽하게 걸린 숲을 헤치고 들어가자, 어스름한 코트 홀은 빛이 비치는 복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곳은 마치 카운터나 반쯤 열린 문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모두 우산을 건네고 티켓을 받아본 카운터들과 비슷했다. 이 입구의 반원형 아치 바로 위에는 전등이 하나 달려 있었다.

그 빛은 브라운 신부 자신에게는 거의 비추지 않았다. 그는 뒤쪽의 어스름한 석양 창문 앞에서 그저 어두운 윤곽선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빛은 코트 홀 밖, 복도에 서 있는 남자에게는 거의 극장 조명처럼 강렬하게 비추었다.

그는 매우 단정한 저녁용 정장을 입은 우아한 사내였다. 키는 컸지만, 공간에 불필요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기품이 있었다. 그는 그

림자처럼 슬쩍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작은 신사들이라면 분명히 시선을 끌고 방해가 되었을 자리에서도, 그는 눈치 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등불빛에 얼굴이 비쳐졌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의 얼굴은 거무스름하고 생동감이 넘쳤다. 외국인의 얼굴이었다. 그의 몸매는 훌륭했고, 태도는 유쾌하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혹독한 비평가라도 그의 검은 코트가 몸매나 태도에 비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할 뿐이었다. 게다가 그 코트는 이상하게도 군데군데 부풀어 오르거나 처지는 기묘한 모양새였다.

그가 해질녘 배경에 선 브라운 신부의 검은 실루엣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숫자가 적힌 종이 조각을 내던지며 친절한 권위 있는 어조로 외쳤다.

"모자와 코트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당장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말 없이 그 종이를 받아 들고, 순종적으로 외투를 찾으러 나섰다. 그의 일생에서 이것이 하인 노릇을 한 첫 번째 일은 아니었다.

그가 외투를 가져와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그동안 조끼 주머니를 더듬고 있던 낯선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은화가 없군. 이걸로 대신해."

그는 반 소버린 동전을 내던지며 외투를 재빨리 집어 들었다.

브라운 신부의 모습은 여전히 어둠 속에 고요히 서 있었지만,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의 머리는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빛을 발했다.

그럴 때면 그는 낱낱의 단서를 모아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곤 했다. 두 개와 두 개를 합쳐 사백만 개를 만들어내는 식이었다. 상식을 신봉하는 가톨릭 교회는 이런 그의 행태를 종종 용납하지 않았다. 브라운 신부 자신조차 때때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영감이었다. 드문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머리를 잃는 자야말로 그 머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진리가 작동할 때, 그 영감은 절실한 구원이 되었다.

"신부님, 주머니에 은화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말했다.

키 큰 신사가 멍하니 바라보았다. "젠장, 내가 너에게 금을 주기로 했다면, 네가 불평할 이유가 뭐냐?"

"은이 때로는 금보다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대량으로 거래할 때라는 뜻이지."

그 낯선이는 신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복도 너머 메인 입구 쪽을 더 궁금해하는 눈초리로 올려다보았다. 다시 신부에게로 시선을 돌린 그는, 신부의 머리 너머로 보이는 창문을 아주 면밀히 살폈다. 창문에는 아직 폭풍우가 지나간 자국인 붉은 빛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내 마음을 정한 듯했다. 한 손으로 카운터에 짚고는, 곡예사처럼 가볍게 점프해 카운터를 넘어섰다. 그는 신부 위에 우뚝 솟아올라, 거대한 손으로 신부의 목덜미를 쥐어짜고 있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는 기침 섞인 속삭임으로 말했다. "당신을 위협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

"당신을 위협하고 싶소." 브라운 신부가 구르는 북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로 말일세."

"당신은 참으로 기묘한 코트 홀 직원이군요,"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저는 신부입니다, 플랑보 씨." 브라운이 말했다. "당신의 고해성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숨을 헐떡이며 서 있다가, 결국 의자에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트웰브 트루 피셔먼(The Twelve True Fishermen) 클럽의 저녁 식사의 첫 두 코스는 평온하게 잘 진행되었다. 나는 메뉴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설령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메뉴는 아무에게도 아무 의미도 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요리사들이 쓰는 특유의 '초(超)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지만, 정작 프랑스인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클럽에는 전설 같은 관습이 하나 있었다. 오르되브르(전채 요리)는 미치도록 다양하고 많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오르되브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쓸모없는 추가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체 저녁 식사와 전체 클럽과 같은 이치였다. 또 다른 관습으로는, 수프 코스는 가볍고 과장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곧 올 어연(魚宴)을 위한, 단순하고 엄숙한 금식과도 같은 준비 과정이었다.

그때 오가는 대화는 묘하게도 가벼웠다. 그 대화는 대영 제국을 지배하며, 비밀리에 그 제국을 움직이는 힘이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 대화를 엿들었다 해도, 평범한 영국인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했을 것이다. 여야 내각 장관들은 지루한 자비심 어린 어조로 그들의 세례명을 부르며 언급되었다. 온 토당파가 그 재상에게서 착취를 당한다고 저주하고 있을 것 같던 급진파 재무장관은, 그의 소박한 시나 사냥터에서의 안장 솜씨를 칭찬받았다. 전체 자유당파가 그를 폭군처럼 증오할 것 같던 토당 지도자는 논의되었고, 전반적으로 자유당원으로서 칭찬받았다.

어떤 이유로인지 정치가들은 매우 중요해 보였다. 그런데 그들의 정치를 제외하면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다. 의장인 오들리 씨는 다정다감한 노신사였으며, 여전히 글래드스턴 스타일의 단단한 칼라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환상적이면서도 고정된 모든 사회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잘못된 일조차도. 그는 방탕하지 않았고,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어느 정당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고, 만약 그가 내각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면, 그는 분명히 그곳에 앉게 되었을 것이다.

부의장이자 체스터 공작은 젊고 유망한 정치인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곧은 금발과 주근깨가 있는 얼굴, 평범한 지능과 막대한 재산을 가진 즐거운 청년이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의 등장은 항상 성공적이었고, 그의 원칙은 간단했다. 그가 농담을 떠올리면 그것을 했고, '영리하다'는 평을 들었다. 농담이 떠오르지 않으면, "지금은 장난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유능하다'는 평을 들었다. 사적으로는, 자신의 계급에 속한 클럽에서 그는 단지 매우 즐겁게 솔직하고 멍청했다. 마치 학교 소년처럼.

오들리 의장은 정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대했다. 때로는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들로 회의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 자신은 사생활에서도 보수당원이었다. 그의 목 뒤로 회색 머리가 칼라 위로 흘러내렸는데, 이는 일부 구식 정치가들의 특징이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 제국이 원하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반면 앞모습을 보면, 알바니에 방을 두고 있는 온화하고 자기만족적인 독신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다.

테라스 테이블에는 의자가 스물네 개 있었다. 하지만 클럽 회원은 열두 명뿐이었다. 덕분에 그들은 가장 사치스러운 방식으로 테라스를 독점했다. 테이블 안쪽 가장자리에 줄지어 앉았으니, 정면을 마주 보는 사람이 없었다. 덕분에 정원 풍경을 끊김 없이 감상할 수 있었다. 저

녁이 내려앉아 해 질 녘 치곤 다소 음울하게 어둑어둑해졌지만, 정원의 색채는 아직 선명했다.

의장석이 줄의 한가운데였고, 부의장석은 그 오른쪽 끝이었다. 열두 명의 손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알 수 없는 이유인지도 모를 관습이 따랐다. 열다섯 명의 웨이터가 모두 줄을 서서 벽을 따라 섰다. 마치 국왕에게 총기를 예의 차려하는 병사들처럼. 그리고 뚱뚱한 사장님은 클럽 회원들을 향해 환한 놀람으로 고개를 숙였다. 마치 그들을 처음 본 양, 혹은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는 양이었다.

하지만 칼과 포크가 부딪히는 첫 소리가 나기도 전에, 이 병력 같은 종업원들은 사라졌다. 접시를 치우고 나르는 데 필요한 한두 명만, 죽을 듯한 침묵 속에서 날쌘 발걸음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물론 사장님 레버는 훨씬 전에 예의의 진풍경에 빠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하기는 과장일 뿐만 아니라, 실례가 될 정도였다.

하지만 중요한 코스, 생선 요리가 올라올 때가 되면—어떻게 표현해야 할까—그의 존재감이 짙은 그림자처럼, 혹은 투영된 형체처럼 나타났다. 그가 근처를 맴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성스러운 생선 요리는, 평범한 눈에는 거대한 푸딩 같은 음식으로 보였다. 결혼식 케이크만 한 크기와 모양에, 그 안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마지막 형태를 잃고 섞여 있었다. 신께서 주신 모양을 완전히 잃어버린 셈이다.

열두 명의 '진정한 낚시꾼'들은 유명한 생선용 나이프와 포크를 들었다. 그리고 푸딩을 향해 다가갔다. 마치 푸딩의 모든 부분이 그 푸딩을 먹는 데 쓰인 은포크만큼 비싸다는 듯, 엄숙한 표정으로 말이다. 사실 내가 알기로는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 요리는 열렬하고 탐욕스러운 침묵 속에서 처리되었다. 접시가 거의 비어갈 무렵이 되어서야 젊은 공작이 의례적인 말을 건넸다.

"여기서야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들리 씨가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말하는 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존경스러운 그의 머리를 여러 번 끄덕였다. "분명히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말고는요. 저는 카페 앙글레에서 그런 식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때 그의 접시가 치워지면서 잠시 주의를 빼앗겼고,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소중했던 생각의 실을 붙잡았다.

"그것은 카페 앙글레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선생님."

그가 가차 없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처럼 냉정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과대평가된 곳이지." 파운드 대령이 말했다. 그의 표정을 보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연 듯했다.

"글쎄요, 잘은 모르겠군요." 체스터 공작이 말했다. 그는 낙관적인 성품이었다. "어떤 일에는 아주 쓸모가 있죠. 그건~에겐 당할 상대가 없으니까요."

한 명의 웨이터가 방 안을 빠르게 지나가다 갑자기 멈춰 섰다. 그의 멈춤은 그의 발걸음만큼이나 조용했다. 그러나 그들, 즉 모호하고 자비로운 듯한 신사들은 보이지 않는 기계장치들이 자신들의 삶을 둘러싸고 지탱해 주는 그 완벽한 매끄러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 따라서 웨이터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큰 놀라움과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마치 우리가 사물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때, 혹은 의자가 우리를 피해 도망칠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이었다.

웨이터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시대가 낳은 특유의 기이한 부끄러움이 짙게 깔렸다. 이는 근대적 인도주의와 부자와 빈자 사이의 영혼적 심연이 결합된 산물이다. 진정한 역사적 귀족이라면 빈 병부터 던지기 시작해, 아마도 돈을 던지며 끝냈을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 동지처럼 단호하게 물었을 것이다. "도대체 뭐 하고 있냐?" 하지만 이 근대적 부자들은 노예든 친구든, 가난한 사람이 자신들 곁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하인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은 그저 무겁고 뜨거운 당혹감일 뿐이었다. 그들은 잔인해지고 싶지 않았고, 자비로워야 할 필요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이 일이, 무엇이든 간에, 빨리 끝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일

은 끝났다. 몇 초 동안 경련 환자처럼 굳어 있던 웨이터는 돌연 몸을 돌려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갔다.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방 안이 아니라 문턱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웨이터 한 명과 함께였는데, 남쪽의 격렬한 몸짓과 속삭임으로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다.

첫 번째 웨이터가 자리를 뜨자, 두 번째 웨이터가 남았다. 그러자 첫 번째 웨이터가 다시 나타나서 세 번째 웨이터를 데려왔다.

네 번째 웨이터까지 이 급박한 회의에 합류했을 때, 오들리 씨는 재치를 발휘하고자 침묵을 깨뜨려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의장단의 망치 대신 매우 큰 기침을 했고, 이렇게 말했다.

"버마에서 젊은 무처가 하고 있는 일이 훌륭하군. 이제,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

다섯 번째 웨이터가 화살처럼 달려와 그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미안합니다. 중요한 일이라서… 점주가 잠시 말씀하시겠습니다."

의장이 어수선하게 몸을 돌렸다. 멍한 눈으로 보니 레버 씨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특유의 거칠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좋은 주인인 레버 씨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의 얼굴은 전혀 달랐다. 평소 그의 얼굴은 온화한 구리빛 갈색이었는데, 지금은 병적인 누런빛으로 변해 있었다.

"실례합니다, 오들리 씨." 그는 숨이 턱에 차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당신의 생선 접시가 칼과 포크가 그대로 얹힌 채로 치워졌어요!"

"그게 좋겠지," 의장이 열을 담아 말했다.

"보셨습니까?" 호텔 주인장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 접시들을 가져간 웨이터를요. 그 사람을 아십니까?"

"웨이터를 안다고?" 오들리 씨는 분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물론 아니지!"

레버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벌리며 말했다. "저는 그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가 언제, 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웨이터를 보내 접시를 치우라고 했는데,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접시가 치워져 있었거든요."

오들리 경은 여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국에서 필요로 하는 단단한 인물이라기엔 너무 어수선해 보였다. 자리에 있던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오직 나무처럼 굳어 있던 사람, 즉 파운드 대령만이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 비현실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굳은 몸으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는 안경을 눈 깊숙이 끼워 맞추고,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쯤 잊은 듯 거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말하는 건, 누군가 우리 은 생선 식기 세트를 훔쳤다는 거야?"

주인은 더 큰 당황함과 함께 손을 벌리며 그 제스처를 반복했다. 그러자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들 모두 순식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웨이터들이 모두 여기 있소?" 대령이 낮고 거친 억양으로 물었다.

"네, 다 여기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젊은 공작이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가장 안쪽으로 내밀며 외쳤다. "들어올 때마다 세어보곤 합니다.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너무 기묘해서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는 법이지요," 오들리 씨가 무겁게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공작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곳에는 종업원이 열다섯 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밤도 열다섯 명 이상은 없었습니다. 더도 덜도 없이 정확히 열다섯 명이라고 맹세합니다."

주인이 그를 돌아보며 놀람의 경련으로 떨었다. "당신이 말하오, 당신이 말하오," 그가 더듬거렸다. "내 열다섯 명의 웨이터를 모두 본다고?"

"매한가지지." 공작이 동의했다. "그게 대체 무슨 문제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레버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다만 당신께서는 그렇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지금 위층에서 죽어 있으니까요."

그 방은 순간, 숨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지닌 초자연적인 힘 때문일까. 한때 여유만만하던 그들 각자가 잠시 동안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영혼이 마치 마른 완두콩 하나처럼 작고 하찮게 느껴졌다. 그중 한 사람, 아마 공작이었을 것이다. 그는 부유함에서 우러나오는 어리석은 자비심으로 물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사제를 만나 봤소." 유대인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제야 그들은 '심판의 종소리'에 대해 깨달았다. 잠시 동안 그들은 정말로 15번 웨이터가 윗층의 죽은 자의 유령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 무거운 압박감 아래 그들은 침묵했다. 유령은 그들에게 거북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마치 거지처럼.

그러나 은쟁반에 대한 기억은 기적의 마법을 깨뜨렸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잔인한 반동과 함께 깨졌다. 대령은 의자를 뒤로 던지고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만약 여기에 15번째 인물이 있었다면, 친구들이여, 그 15번째 자는 도둑이었다."

그가 말했다. "지금 바로 앞문과 뒷문으로 내려가 모든 것을 봉쇄해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자. 이 클럽의 스물네 진주는 되찾을 가치가 있다."

오들리 경은 처음엔 무언가에 급하게 재촉받는 것이 신사답지 않은 일인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공작이 젊은이다운 기세로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는 좀 더 성숙한 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다.

그때 마침 여섯 번째 웨이터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사이드보드 위에 생선 접시 더미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은식기는 온데간데없었다.

소란스럽게 복도를 내려오던 손님들과 종업원들은 두 무리로 갈라졌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주인장을 따라 앞방으로 달려가, 탈출구가 있는지 확인했다.

반면 파운드 대령은 이사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종업원 숙소 쪽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향해 내달렸다. 그곳이 더 유력한 탈출로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나갈 때, 희미한 양복 반입실 구석, 마치 동굴처럼 어두운 공간을 스쳤다. 그곳 그림자 깊숙이, 짧은 키에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인물이 서 있었다. 아마도 종업원일 것이다.

"여기!" 공작이 소리쳤다. "누군가 지나가는 거 보셨나요?"

그 작은 키의 남자는 질문에 곧장 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아마도 여러분이 찾고 계신 것을 제가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들."

그들은 망설이며 의아해하는 사이, 브라운 신부는 조용히 휴대품 보관소 뒤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빛나는 은수저가 가득했다. 그는 상인처럼 차분하게 그것을 카운터 위에 늘어놓았다. 그것은 십여 개의 기묘한 모양을 한 포크와 나이프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신, 당신—" 대령은 마침내 당황해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어둑한 작은 방을 응시했고,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먼저, 검은 옷을 입은 짧은 키의 남자가 성직자 차림이라는 점. 그리고 그 뒤쪽 방의 창문이 깨져 있어, 누군가 거세게 통과한 자취가 보였다는 점이었다.

"코트 룸에 맡길 만한 귀중품이 있겠군요." 성직자가 밝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그 물건들을 훔쳤습니까?" 오들리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게 했다면," 신부가 다정하게 말했다. "적어도 내가 다시 되돌려주고 있잖소."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소." 파운드 대령이 깨진 창문을 여전히 응시하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 나는 하지 않았소." 다른 한 사람이 유머러스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누가 했는지 당신은 알고 있지." 대령이 말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신부는 평온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체격은 잘 알고 있고, 영적인 고뇌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제 목을 조르던 때에 그의 체격을, 회개할 때에 그의 도덕성을 가늠했으니까요."

"이런, 참—'회개'라니!" 젊은 체스터가 비웃듯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브라운 신부가 일어나 뒤로 손을 뻗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유하고 안락한 이들은 여전히 냉정하고 경박하며,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한 도둑과 방랑자가 회개하다니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제 관할 영역에 조금씩 침범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회개가 단지 실제적인 사실로만 의심스럽다면, 저기 칼과 포크가 있습니다."

그는 둘러싼 식탁을 가리켰다.

"여러분은 '진정한 열두 어부'입니다. 그리고 저기 여러분의 은 물고기 식기가 다 있죠."

브라운 신부의 눈빛이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빛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을 잡았소?" 대령이 찡그리며 물었다.

브라운 신부는 찌푸린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맞아요," 그가 말했다. "그를 잡았죠. 보이지 않는 낚시바늘과 보이지 않는 줄로요. 그 줄은 세상의 끝까지 그를 방황하게 할 만큼 충분히 길지만, 줄을 살짝 당기기만 하면 언제든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자리에 있던 다른 남자들은 모두 일어난 뒤, 회수된 은식기를 동료들에게 건네거나, 이상한 사정 때문에 이상한 상황에 대해 주인과 상의하러 갔다.

그러나 그늘진 얼굴의 대령은 여전히 계산대 옆으로 반쯤 앉아, 길고 마른 다리를 흔들며 짙은 수염을 물어뜯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신부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녀석은 꽤 영리한 놈이었어. 하지만 더 영리한 놈은 내가 알고 있어."

"그는 영리한 놈이었지." 다른 한 남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른' 놈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군."

"당신을 말하는 거요." 대령이 짧게 웃으며 말했다. "저놈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건 안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에 어떻게 휘말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놈에게서 그 물건을 빼냈는지 정

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 은 포크를 몇 개는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들 중 가장 최신식의 악당이지요."

브라운 신부는 그 군인의 차갑고도 솔직한 태도를 오히려 마음에 들어하는 듯했다.

"글쎄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그 남자의 정체나, 그가 겪어온 사정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겉으로 드러난 사실들만큼은 말씀드려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경쾌하게 담장을 넘더니, 파운드 대령의 옆자리에 앉았다. 어린아이처럼 다리를 짧게 흔들며 담장 위에 앉아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치 크리스마스 불빛 아래 오랜 친구에게 수다를 떨듯, 그는 매우 자연스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보십시오, 대령." 그가 말했다. "저 작은 방에 갇혀 글을 쓰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렸소. 죽음의 춤처럼 기묘한 춤이었지.

먼저 경쾌하고 장난기 어린 작은 발걸음이 이어졌어. 도박을 걸고 발끝으로 걷는 남자처럼 말이야. 그다음은 느리고 게으르며 삐걱거리는 무거운 발걸음이 왔지. 시가를 물고 거니는 큰 남자의 걸음 같았어.

하지만 그 두 걸음은 모두 같은 발에서 나왔소. 맹세코 말이지. 두 걸음이 번갈아 나타났지. 먼저 달리고, 걷고, 다시 달리는 식이었어.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나중에는 놀람에 그 남자가 왜 두 역할을 동시에 연기하는지 궁금해졌소.

한 걸음은 내가 알고 있었어. 바로 대령의 걸음이었지. 배부른 신사가 무언가를 기다리며 걷는 모습이었어. 정신적 조급함보다는 신체적인 각성 때문에 거니는 듯한, 여유로운 보폭이었지.

다른 걸음도 내가 알고 있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 내 여행길에서 그 기이한 방식으로 발끝을 구르며 달리는 괴물을 만난 적이 있었나?

그때 어딘가에서 접시 소리가 났고, 정답은 성 베드로처럼 또렷하게 드러났지. 그것은 웨이터의 걸음이었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눈을 아래로 향하며, 발볼로 바닥을 밀어내고, 코트 자락과 식탁보를 휘날리는 그 특유의 보폭이었지.

그리고 나는 잠시 더 생각했소. 그리고 범행의 방식을 보았소. 마치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르려는 것처럼 또렷하게."

파운드 대령은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화자의 연한 회색 눈빛은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거의 텅 빈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범죄도 다른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옥의 작업장에서 만들어지는 예술이 범죄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성하든 악마적이든 모든 예술 작품에는 한 가지 빼놓을 수 없

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품의 중심은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비록 그 구현 과정은 복잡할지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햄릿을 봅시다. 광대 같은 무덤 파는 사람의 모습, 미친 소녀의 꽃들, 오스릭의 기괴한 복장, 유령의 창백한 얼굴과 해골의 미소. 이 모든 기이함은 마치 얽힌 화환처럼 하나의 평범한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비극적 형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내려오며 미소 지었다. "이것도 또한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평범한 비극입니다."

대령이 의아한 듯 고개를 들자 브라운 신부는 계속했다. "이 이야기 전체는 검은 코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햄릿에서 그랬듯 여기에도 로코코 양식의 과잉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있을 수 없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죽은 웨이터, 은수저를 싹 쓸어가고 공중으로 사라진 보이지 않는 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묘한 범죄는 궁극적으로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에 기반합니다. 그 사실 자체는 신비롭지 않습니다. 신비로움은 그 사실을 감추고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크고 미묘하며, 보통의 경우라면 가장 수익성 높은 이 범죄는 한 가지 단순한 사실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신사의 저녁 의복과 웨이터의 제복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연기였으며, 정말 훌륭하게 연기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츠를 내려다보며 찡그리며 말했다. "나는 아직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네."

"대령,"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당신의 포크를 훔친 그 무례천외한 천사가, 모든 등불이 환하게 빛나는 복도를, 모든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스무 번이나 오갔다고요. 그는 의심의 눈초리가 미칠 법한 어두운 구석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밝은 복도를 끊임없이 오가며, 자신이 그곳에 있을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마십시오. 오늘 밤 여섯 일곱 번이나 직접 보셨잖아요."

"그가 당신들 사이로 들어올 때는, 항상 웨이터처럼 번개 같은 속도로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냅킨을 휘날리며, 발을 재촉하죠. 그는 테라스로 쏘아져 나가 식탁보를 조금 손본 뒤, 다시 사무실과 웨이터 숙소 쪽으로 쏘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직원과 웨이터들의 시선 아래에 들어설 무렵, 그는 온몸의 모든 부분, 모든 본능적인 제스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 사이를 거닐며, 그들이 주인들로부터 늘 봐온 그 무심한 오만함을 풍겼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부류의 신사가 동물원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배회하는 것은, 그들에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 세트'의 특징이 어디를 가든 마음대로 걷는 습관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특정 복도를 걷는 데 지루함을 느끼고 위엄 있게 돌아서서 사무실 앞을 다시 지나갈 때, 바로 그 너머 아치 그림자 속에서 그는 마

법의 바람이라도 맞은 듯 변신했습니다. 그는 다시 '열두 사도' 식당 안으로 급히 들어가, 굽실거리는 종업원이 되었습니다."

"왜 손님들이 우연히 보이는 웨이터를 유심히 보겠습니까? 왜 웨이터들이 일류의 단련된 신사를 의심하겠습니까? 그는 한두 번은 가장 냉정한 속임수도 부렸습니다. 사장의 사적인 공간에서, 그는 당당하게 탄산수를 하나 달라고 외쳤습니다. 목이 말라서라고 하죠. 그리고 친절하게도 직접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분주한 손님들 사이를, 분명한 임무를 띤 웨이터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 변장을 오래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생선 요리가 끝날 때까지만 유지하면 되었으니까요."

그가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은 웨이터들이 일렬로 줄을 서 있을 때였다. 하지만 그때조차 그는 구석진 벽에 기댄 척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그 중요한 순간, 웨이터들은 그를 신사로 오인했고, 신사들은 그를 웨이터로 착각했다. 나머지 과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다.

만약 어떤 웨이터가 식탁에서 그를 붙잡으려 들면, 그 웨이터는 나른한 귀족을 붙잡은 셈이 되었다. 그는 생선 요리를 치워가기 2분 전에 정확히 맞춰 재빠른 하인으로 변신해, 직접 식탁을 정리했다. 접시를 사이드보드에 내려놓고, 은수저를 가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주머니가 볼록 튀어 오를 만큼 말이다. 그러곤 토끼처럼 달렸다.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코트 보관실까지 달렸다.

거기서는 다시 부자가 되어야 했다. 갑자기 용무가 생겨 떠나는 부자 말이다. 티켓을 보관실 직원에게 건네고, 들어올 때처럼 우아하게 나가면 끝이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바로 내가 바로 그 코트 보관실 직원이었다는 점이었다.

"당신은 그에게 무슨 짓을 했소?" 대령이 평소와는 달리 격렬하게 물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만," 신부는 움직일 기색 없이 말했다. "그곳이야말로 이야기의 끝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군요." 파운드가 중얼거렸다. "그가 쓰는 직업적 속임수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속임수는 아직 낱낱이 파헤치지 못했군요."

"이제 가야겠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현관으로 걸어가다가, 경쾌하게 뛰어오는 체스터 공작의 싱그럽고 주근깨 낀 얼굴을 보았다.

"가자, 파운드." 그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너를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어. 저녁 식사가 다시 화려하게 시작되고 있단다. 포크들이 구해졌다는 것을 기념해서 올드 오들리가 연설을 해야 해. 우리는 이 일을 기념할 새로운 의식을 시작해야 해, 알지? 내가 말하는데, 너는 정말로 물건을 되찾았잖아. 너는 어떤 제안을 해?"

"왜냐고?" 대령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일종의 냉소적인 승낙을 표했다. "앞으로는 검은색 대신 초록색 코트를 입자는 거야. 우리가 웨이터와 너무 닮아 있으면, 언제 어떤 실수가 생길지 알 수 없거든."

"아, 참을 수가 없군!" 젊은이가 말했다. "신사는 웨이터처럼 보이지 않거든."

"신사처럼 보이는 웨이터도 없겠지," 파운드 대령이 낮고 무거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신부님, 당신의 친구는 정말 단단히 각오하고 신분을 가장했을 겁니다."

브라운 신부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는 것을 고려해, 평범한 코트를 목까지 단단히 단추를 채웠다. 그리고 받침대 위에 놓인 평범한 우산을 하나 집어 들었다.

"네, 맞습니다." 그가 말했다. "신사가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겠죠. 하지만 가끔 생각해보면, 웨이터가 되는 것도 거의 비슷한 정도로 고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건네며 그는 그 쾌락의 궁전의 무거운 문을 밀어 열었다. 금빛 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고, 그는 페니 옴니버스를 찾기 위해 축축하고 어두운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날아다니는 별들

"제 평생 저지른 가장 아름다운 범죄," 플랑보는 도덕적 노년에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것은 우연히도 제 마지막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저질렀죠."

그는 예술가로서 늘 특별한 계절이나 자신이 머무는 풍경에 어울리는 범죄를 설계하려 했다. 마치 조각상 군상을 위해 특정 테라스나 정원을 고르듯, 그는 재앙이 펼쳐질 배경을 신중하게 선택했다.

따라서 영국의 귀족들은 오크 패널로 장식된 긴 방에서 사기당해야 했고, 유대인들은 카페 리슈의 등불과 커튼 사이에서 뜻밖에도 빈털터리가 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영국에서는, 만약 내가 어떤 대성당 도시의 푸른 잔디밭과 회색 탑들 사이에서 주임 사제의 재산을 털고자 한다면(상상하는 것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배경을 꼭 그렇게 꾸며야 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는, 만약 내가 부유하고 악한 농부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면(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의 분노에 찬 얼굴이 잘 다듬은 포플러 나무들의 회색 줄기 너머로 드러나고, 밀레의 영혼이 내려앉은 장엄한 갈리아의 평원 위에 그가 누워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내게 큰 만족이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저지른 죄는 크리스마스 때의 죄였습니다. 정겹고 포근한, 영국 중산층 특유의 죄요. 찰스 디킨스식의 죄랄까. 저는 퍼트니 근처의, 아주 오래되고 단정한 중산층 가정집에서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차가 드나드는 초승달 모양의 진입로가 있는 집, 옆채에

마구간이 딸린 집, 대문 두 개에 집안 이름이 새겨진 집, 그리고 원숭이 퍼즐 나무가 있는 집 말입니다. 아시죠, 그런 집들의 종류라면. 솔직히 디킨스의 문체를 모방한 제 솜씨는 꽤 손재주 있고 문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 저녁에 후회했다는 게, 참 아까울 따름이네요."

플랑보는 이어서 그 이야기의 내면에서부터 풀어나갈 터였다. 비록 안쪽에서 보더라도 그 사연은 기이했다. 겉으로만 본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낯선 이가 그 일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바깥쪽에서 관찰해야 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극적인 사건은 성탄절 다음 날 오후에 시작되었다. 마구간이 있는 집의 정문과 원숭이 나무가 있는 정원을 연결하는 문이 열렸고, 한 젊은 여자가 빵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러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용감한 갈색 눈을 가진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매는 짐작하기 어려웠다. 갈색 모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머리카락이고 어느 부분이 모피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만약 그 매력적인 얼굴이 없었다면, 그녀는 마치 어설프게 걷는 작은 곰처럼 보였을 것이다.

겨울 오후는 서서히 해질녘으로 물들고 있었다. 이미 루비빛 빛이 꽃망울 하나 피지 않은 화단 위로 퍼져 나갔다. 그 빛이 마치 죽은 장미들의 유령들을 화단 가득 채워 넣은 듯했다.

집 한쪽에는 마구간이 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라우렐나무로 이루어진 통로가 뒤쪽의 더 큰 정원으로 이어졌다. 젊은 여인은 새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졌다. 그날만 해도 네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였다. 개가 그걸 다 먹어 치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라우렐나무 통로를 조용히 지나, 뒤쪽의 상록수 숲으로 들어섰다. 숲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놀람의 탄성을 지른다. 진짜 놀람이었든, 아니면 관습적인 것이었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 위에 우뚝 선 높은 정원 담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상한 형상의 인물이 기이하게도 담장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아, 점프하지 마세요, 크루크 씨." 그녀가 다소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너무나도 높은 곳이잖아요."

그는 벽을 타고 마치 공중마를 타듯 내려오는, 키가 크고 각진 얼굴의 젊은이였다. 머리는 칫솔처럼 쭈뼛 서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고 기품 있어 보였으나 피부는 누렇게 질려 있어 마치 남의 것 같았다. 그는 공격적인 붉은색 넥타이만은 유난히 신경 써 입은 듯했다. 그밖의 차림새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어쩌면 그 넥타이가 그에게 어떤 상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소녀의 놀란 외침을 무시한 채, 마치 메뚜기처럼 가볍게 그 옆으로 뛰어내렸다.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나도 내가 도둑이 되야 할 사람인 것 같아." 그는 평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옆집의 그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도 분명히 도둑이 됐을 거야. 어쨌든 그게 무슨 해가 되겠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녀가 항의했다.

"그렇군요," 젊은이가 말했다. "벽 너머에서 태어났다면, 그 벽을 넘는 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할지, 저는 결코 알 수 없어요."

"저도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크루크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벽 안쪽, 즉 올바른 편에 서 있는 셈이죠."

"그리고 벽의 어느 쪽이 옳은 편이죠?" 젊은 아가씨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당신이 어느 편에 서든," 크룩이라는 젊은이가 말했다.

그들이 라우렐나무 숲을 지나 앞마당으로 걸어가는 사이, 모터 경적 소리가 세 번 울렸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빛나는 속도와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는, 옅은 녹색의 자동차가 새처럼 앞문으로 날아와 멈춰 섰다. 차체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야호, 야호!" 붉은 넥타이를 맨 청년이 말했다. "어쨌든 운 좋은 사람이 있군. 애덤스 양, 당신의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현대적이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분은 제 대부이신 리오폴트 피셔 경이세요. 매해 박스데이마다 꼭 오시죠."

그리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으나, 그 침묵은 무심코 열정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러비 애덤스가 말을 이어갔다.

"그분은 정말 자비로우십니다."

저널리스트 존 크루크는 그 유명한 시티의 거물 기업가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거물이 존 크루크를 들어보지 못한 것은 크루크의 탓이 아니었다. 『클라이어론』이나 『뉴 에이즈』에 실린 몇몇 기사에서 레오폴드 경은 가혹하게 비판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음울한 표정으로 자동차 하역 작업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과정은 꽤 길었다.

앞좌석에서 녹색 제복을 입은 키 크고 깔끔한 운전기사가 내렸다. 뒷좌석에서는 회색 제복을 입은 작은 체구의 깔끔한 하인이 나왔다. 두 사람은 함께 레오폴드 경을 현관 계단에 내려놓더니, 마치 매우 조심스럽게 포장된 소포를 풀 듯 그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바자회를 한 채울 만큼 충분한 담요, 숲속 모든 짐승의 모피, 무지개 모든 색깔의 스카프가 하나둘 벗겨졌다. 그러자 마침내 인간 형체가 드

러났다. 친근하지만 낯선 노인의 형체였다. 그는 회색 염소 수염을 기르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큰 모피 장갑을 비비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 모든 진상이 드러나기 훨씬 전, 현관의 두꺼운 큰 문이 가운데서 쾅 하고 열렸다. 모피 코트를 입은 젊은 아가씨의 아버지, 애덤스 대령이 직접 나와 저명한 손님을 안으로 초대했다. 그는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말이 별로 없는 사내였다. 페즈 모자처럼 생긴 빨간 담배 모자를 쓰고 있어, 이집트의 영국 사르다르나 파샤처럼 보였다.

그와 함께 온 이는 캐나다에서 막 내려온 매제, 제임스 블런트였다. 그는 수염이 노란, 덩치가 크고 다소 난폭한 젊은 농부 신사였다. 그들과 함께 더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 하나 더 있었다. 이웃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온 사제였다. 대위의 전처가 가톨릭 신자였기에, 아이들은 흔히 그렇듯 그녀의 신앙을 따라 자랐기 때문이다.

사제는 이름부터가 평범했다. 브라운이라는 이름조차도. 하지만 대위는 늘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여겼다. 그래서 가족 모임에는 자주 그를 불렀다.

집의 큰 현관홀은 레오폴드 경이 외투를 벗고 들어설 만큼 넉넉했다. 현관과 홀은 집 규모에 비해 유독 넓어, 마치 앞문 한쪽 끝과 계단 바닥 다른쪽 끝이 마주한 거대한 방처럼 느껴졌다.

화덕 위에는 대령의 검이 걸려 있었고, 그 불꽃 앞에서는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 음울한 크루크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레오폴드 피셔 경

에게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 존경받는 금융가는 여전히 두꺼운 외투 주머니를 더듬거리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겉옷 속 깊은 주머니에서 검은 타원형 상자를 꺼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것이 대녀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거만한 자만심 같으면서도 어딘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 태도로, 그는 상자를 모두에게 내밀었다. 손끝이 닿자마자 상자가 열렸고, 그 빛이 눈부셔서 모두를 반쯤 눈이 부시게 만들었다. 마치 수정 분수가 그들의 눈앞에서 분출한 것 같았다.

오렌지색 벨벳 안감 위에는 마치 세 알의 알처럼, 세 개의 하얗고 선명한 다이아몬드가 놓여 있었다. 그 보석들은 주변 공기를 불태울 듯 빛나고 있었다. 피셔 경은 자비로운 미소를 띠며 서 있었다. 그는 소녀의 놀람과 환희, 대령의 냉랭한 존경과 굵직한 감사, 그리고 온 집안 사람의 경외심을 마음껏 음미하고 있었다.

"이제 돌려놓겠습니다, 친애하는 분." 피셔가 말하며 케이스를 코트 꼬리 부분에 다시 넣었다. "내려올 때 정말 조심했소. 이 보석들은 '날아다니는 별'이라 불리는 세 개의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인데, 도난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붙여진 이름이오. 온갖 거물 범죄자들이 이 보석을 노리고 뒤쫓고 있지만, 거리나 호텔에서 돌아다니는 무리들도 손이 갔을 법했소. 여기 오는 길에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소."

"당연한 일이지." 붉은 넥타이를 맨 남자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들이 가져간다고 탓할 일도 아니다. 빵을 달라고 애원하는데 돌멩이 하나 주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 돌멩이라도 주워 가겠지."

"그런 말은 하지 마," 소녀가 신기한 듯 빛나는 얼굴로 외쳤다. "그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한 건 네가 그 끔찍한, 이름이 뭐더라 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야. 내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 굴뚝 청소부를 꼭 안고 싶어 하는 남자를 뭐라고 부르더라?"

"성인이죠."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루비가 말하려는 건 사회주의자인 것 같소." 레오폴드 경이 오만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급진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를 먹는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크룩이 다소 성급한 어조로 말했다. "보수주의자라 해서 잼을 보존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주의자가 굴뚝 청소부와 함께 사교적인 저녁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주의자는 모든 굴뚝을 청소하고, 그 대가로 청소부들에게도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그을음을 소유하는 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제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크룩은 그를 흥미롭고 심지어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누가 그을음을 소유하고 싶겠는가?" 그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브라운 신부가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정원사들이 그걸 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크리스마스 날, 마술사가 나타나지 않아 아이들이 실망했을 때, 그을음만으로도 아이들 여섯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깥에 바르는 방식으로요."

"아, 정말 멋지다!" 루비가 외쳤다.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

시끄럽게 박수를 치던 캐나다인 블런트 씨가 큰 소리로 환호를 보내는 찰나, 놀란 금융가도 (꽤나 겸손한 태도로)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때 두 겹의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사제가 문을 열자, 다시 한 번 상록수와 원숭이나무, 그리고 모든 것이 어스름해지는 아름다운 보라색 석양을 배경으로 한 앞마당이 드러났다. 이렇게 프레임처럼 둘러싸인 풍경은 연극의 배경화면처럼 색채가 풍부하고 기묘해서, 사람들은 잠시 문턱에 서 있는 초라한 인물을 잊고 말았다. 그는 먼지가 묻어 있고 헐렁한 코트를 입은, 분명 평범한 심부름꾼 같은 사내였다. "여기 블런트 씨 계신가요?" 그는 주저하는 기색으로 편지를 내밀며 물었다. 블런트 씨는 깜짝 놀라 찬사의 외침을 멈췄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찢어 편지를 읽었다. 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지더니 다시 맑아졌고, 그는 형제이자 주인인 상대방을 돌아보았다.

"대령님, 제가 이렇게 귀찮게 해서 속상합니다." 그는 밝은 어조로, 식민지 특유의 정중한 어투를 섞어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 어떤 옛 친구가 용건을 가지고 찾아와도 괜찮으실까요? 사실 그분은 플로리안이라는 프랑스인입니다. 유명한 곡예사이자 희극 배우죠. 서부에서 몇

년 전 그를 알고 지냈는데, 그는 프랑스계 캐나다인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무슨 용건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물론이지, 물론." 대령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내 친구라면 누구든 반갑게 맞이하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게 무슨 뜻이든, 얼굴을 까맣게 칠 거요." 블라운트가 웃으며 외쳤다. "그가 다른 모든 사람의 눈도 까맣게 만들지 않는다고는 장담 못하겠소. 나는 상관없소. 나는 세련되지 않았소. 하지만 한 남자가 자신의 모자 위에 앉아 있는, 그 옛날 즐겁던 판타마임은 좋아하오."

"제 모자 위에는 사양하겠습니다," 레오폴트 피셔 경이 위엄 있게 말했다.

"어휴, 어휴," 크루크가 가볍게 말했다. "서로 다투지 맙시다. 모자 위에 앉는 것보다 더 저급한 농담도 있으니까요."

그는 붉은 넥타이를 맨 청년을 싫어했다. 그 청년은 사냥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예쁜 대녀와도 지나치게 친밀했기 때문이다. 피셔는 이런 감정을 품고, 가장 비꼬는 듯한 위엄 있는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모자 위에 앉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이군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컨대, 당신 위에 탑햇을 올려놓는 것 말입니다." 사회주의자가 말했다.

"자, 자, 자." 캐나다인 농부가 야만적인 친절을 담아 외쳤다. "즐거운 저녁을 망치지 맙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밤 우리 모두를 위한 무언가를 준비해 보자는 겁니다. 얼굴에 먹칠을 하거나 모자를 밟고 앉는 식의 지루한 장난이 아니라면요. 그런 건 싫으시죠? 그와 비슷한, 하지만 더 나은 무언가를요."

"왜 우리가 정통 영국식 팬터마임을 하지 않습니까? 광대(Clown), 콜룸바인(Columbine) 같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것 말입니다. 제가 열두 살에 영국을 떠날 때, 그런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광경은 마치 장작불처럼 제 뇌리에 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작년에야 다시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런 전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우는 요정극들뿐이더군요. 저는 뜨거운 부지깽이와 소시지로 만들어진 경찰관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교훈을 늘어놓는 공주들이나, 푸른 새 같은 것들을 내세우더군요."

"저에게 맞는 건 푸른 수염(Blue Beard)입니다. 특히 그가 판탈룬(pantaloon, 전통 코미디의 허약한 노신사 역할)으로 변장했을 때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경찰관을 소시지로 만들어버리는 건, 제가 가장 지지할 만한 아이디어예요." 존 크루크가 말했다. "최근 몇몇 사람이 제시한 사회주의의 정의보다 훨씬 나은 정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복장은 너무 큰 공사가 될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블라운트가 흥분하여 외쳤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라키나데(흥겨운 코미디)죠. 그 이유 두 가지를 들자면, 첫째, 어떤 정도로든 마음껏 즉흥 개그를 칠 수 있고, 둘째, 모든 소품이 식탁이나 수건 건조대, 빨래 바구니 같은 일상적인 가재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크루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닐었다. "하지만 제 경찰 제복은 못 입겠어요. 요즘 경찰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블라운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허벅지를 치며 외쳤다.

"맞아, 우리가 할 수 있어!"

"플로리안의 주소를 여기 가지고 있어. 그는 런던의 모든 의상점에서 다 안다고. 그가 올 때 경찰 제복을 가져오라고 전화를 걸게."

그리고 그는 전화기 쪽으로 뛰어갔다.

"아, 정말 환상적이에요, 대부님." 루비는 거의 춤을출 듯이 외쳤다. "나는 콜롬바인을 할 거고, 대부님은 판탈로네가 되어 주세요."

백만장자는 이교도적인 엄숙함으로 몸을 빳빳이 굳혔다.

"내 생각엔 말이다, 얘야. 팬털룬 역은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어."

"좋아하시면 제가 판타룬 역을 맡겠습니다." 아담스 대령이 입에 물었던 시가를 빼내며 말했다. 그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을 연 사람이었다.

"당신은 꼭 동상을 만들어야 해요." 캐나다인이 전화를 마치고 환한 표정으로 돌아오며 외쳤다. "자, 다 준비됐소. 크루크 씨가 광대 역을 맡겠소. 그는 기자라 오래된 농담을 다 알고 있거든. 나는 해리퀸이 될 거요. 다리가 길고 뛰어다니는 것만 잘하면 되니까. 플로리안 친구가 경찰 제복을 입고 올 거라 전화를 했소. 가는 길에 갈아입을 테고. 이 홀에서 바로 공연할 수 있소. 관객은 맞은편 넓은 계단에 앉아 한 줄씩 단을 높여 앉으면 돼. 앞문은 무대 뒤 배경이 될 수 있소. 열리면 달빛이 비치는 정원이 되고, 닫히면 영국식 실내 풍경이 되지. 정말 마법처럼 변하거든."

그는 주머니에서 우연히 건진 당구용 분필 조각을 꺼내, 앞문과 계단 중간쯤 되는 홀 바닥에 줄을 그으며 무대 앞줄의 경계를 표시했다.

그토록 허무맹랑한 연극이 남은 시간 안에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하지만 그들은 집안에서 젊음이 살아 숨 쉴 때 특유의, 무모함과 열정이 섞인 태도로 일에 매달렸다. 그날 밤, 그 집에는 젊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록 모든 사람이 그 젊음이 어디서 불꽃처럼 타올랐는지, 즉 두 얼굴과 두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언제나 그랬듯, 부르주아적 관습이라는 평범한 틀 속에서 무언가를 창조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점점 더 거칠어져 갔다. 콜롬바인

은 거실에서 본 적 있는 커다란 램프 갓을 연상시키는 기묘한 치마를 입고 있어 매력적으로 보였다. 클라운과 판탈룬은 요리사의 밀가루로 얼굴을 하얗게 물들였고, 다른 하녀에게서 받은 붉은 화장으로 입술을 물들였다. 그 하녀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선행처럼 이름 없이 익명으로 남아 있었다.

하를리퀸은 이미 시가 상자에서 꺼낸 은색 종이로 옷을 입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빛나게 할 크리스탈을 얻기 위해, 거실에 걸린 낡은 빅토리아 시대 샹들리에를 부수려다 간신히 말려냈다. 사실 그는 정말로 샹들리에를 깨뜨렸을 것이다. 만약 루비가 과거 가장무도회에서 다이아몬드 여왕 분장을 할 때 입었던 오래된 판타지마 페이스트 보석을 꺼내지 않았다면 말이다.

사실 그녀의 삼촌, 제임스 블라운트는 흥분에 거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마치 학교 소년처럼 행동했다. 그는 브라운 신부에게 갑자기 종이로 만든 당나귀 머리를 씌웠다. 신부는 이를 인내심 있게 받아들였고, 심지어 귀를 움직이는 비범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는 심지어 리오폴드 피셔 경의 코트 단에 종이 당나귀 꼬리를 달려 보려다, 이는 단호히 저지당했다.

"삼촌이 너무 이상해요." 루비가 크룩에게 외쳤다. 크룩의 어깨에는 진지하게 소시지 줄이 둘러져 있었다. "왜 그는 이렇게 난폭한 거죠?"

"그는 당신의 콜룸바인에게 하를리퀸이죠." 크룩이 말했다. "나는 그저 옛 농담을 되풀이하는 광대일 뿐입니다."

"당신이 하라키네였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하며 소시지 줄을 흔들었다.

브라운 신부는 무대 뒤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베개를 팬토마임의 아기로 변신시켜 박수를 받기도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는 무대 앞으로 돌아나가 관객석에 앉았다. 첫 번째 낮 공연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모든 것이 장엄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자리였다.

관객은 많지 않았다. 친척들과 지역 친구들 몇 명, 그리고 하인들이 전부였다. 리오폴드 경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의 풍만한 몸매와 여전히 털깃이 달린 옷차림은 뒤에 앉아 있는 작은 성직자의 시야를 대부분 가렸다. 하지만 그 성직자가 정말로 많은 것을 놓쳤는지는,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연극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즉흥 연기의 격렬한 열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 열기는 주로 크룩이라는 광대에게서 나왔다.

평소 그는 재능 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광기 어린 전지전능함으로 충만해 있었다. 세상보다 더 지혜로운 어리석음이었다. 그것은 한 순간, 특정 사람의 얼굴에 비친 특정 표정을 본 젊은이가 겪는 감정과도 같다.

그는 광대로 분장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작가(만약 작가가 있었다면), 대본 읽는 사람, 배경화가가, 무대 장치 이동 담당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케스트라였다.

엄청난 연극이 진행되는 도중, 그는 가끔씩 의복을 그대로 입은 채 피아노 앞에 던져듯 뛰어갔다. 그리고 똑같이 터무니스럽지만 적합한 대중음악을 힘차게 연주했다.

이 모든 장면의 하이라이트는 무대 뒤쪽의 두 개의 정문이 활짝 열리며 드러난 순간이었다. 달빛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지만, 그보다 더 돋보이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유명한 프로 배우, 대플로리안이었다. 그는 경찰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피아노를 치던 광대(클라운)는 '펜잔스의 해적' 속 경찰가사를 연주했지만, 그 소리는 먹먹한 박수 소리에 묻혔다. 대희극 배우의 모든 동작은 경찰의 태도와 행동을 훌륭하면서도 절제 있게 모방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릴퀴인이 날아들며 그의 투구를 때렸다. 피아니스트가 "그 모자를 어디에서 구했나요?"라는 선율을 타자, 그는 놀란 듯 훌륭하게 연기하며 몸을 돌렸다. 그러자 다시 날아든 하릴퀴인이 그를 두들겼다. 피아니스트는 "그때 또 다른 하나가 생겼지"라는 선율을 몇 마디 더 더했다.

하릴퀴인이 경찰의 품으로 뛰어들어 그 위에 쓰러지자, 관중은 다시금 함성 같은 박수를 터뜨렸다. 바로 그 순간, 이 낯선 배우가 푸트니 주변에 여전히 명성을 남긴 '죽은 사람'의 유명한 모방을 선보였다. 살아있는 사람이 저토록 축 처져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 날렵한 하리퀸은 그를 자루라도 든 듯 뒤집어엎거나, 인디언 클럽처럼 비틀거나 던졌다. 피아노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미치게 우스꽝스러운 선율에 맞춰서였다. 하리퀸이 그 희극적 형사를 바닥에 털썩 내려놓을 때, 클라운은 "네 꿈에서 깨어나"를 연주했다. 등을 굽혀 그를 등에 업고 이리저리 흔들 때는 "어깨에 뭉치를 이고"를, 그리고 하리퀸이 결국 경찰을 가장 설득력 있게 '퍽' 하고 떨어뜨렸을 때, 악기 앞에서 광기 어린 표정의 그이는 '사랑에게 편지를 썼는데, 길에서 떨어뜨렸네'라고 믿어지는 가사의 경쾌한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정신적 무질서의 그 한계선에서, 브라운 신부의 시야는 완전히 가려졌다. 바로 앞의 금융가의 거물이 온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거칠게 모든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곤 초조하게 다시 앉았으나 손은 여전히 주머니를 더듬었고, 곧 다시 일어섰다.

순간, 그가 무대 앞의 조명선을 넘어 앞으로 걸어 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피아노를 치는 광대를 향해 맹렬한 눈초리를 던졌고, 이내 말없이 방을 뛰쳐나갔다.

신부는 몇 분 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마추어 하릴퀴노가 자신의 훌륭한 적수 앞에서 추는 그 기묘하지만 우아한 춤을 말이다. 하릴퀴노는 진심 어리지만 거친 예술성으로 천천히 뒤로 물러나 문 밖으로 나갔다. 그는 달빛이 가득하고 고요한 정원으로 사라졌다. 무대 조명 앞에서는 너무 눈부셨던 은색 종이와 판지로 만든 의상은, 이제 밝은 달 아래로 춤추듯 멀어지며 점점 더 마법 같고 은빛으로 빛났다. 관객들이 박수 폭풍과 함께 모여들던 찰나, 브라운은 팔을 갑자기 터치받았

다. 그리고 그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대령의 서재로 들어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부른 이를 뒤따랐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서재의 풍경은 장중하면서도 기묘한 웃음을 자아내어, 그의 의심을 가시게 하지 못했다.

콜로넬 애덤스는 여전히 자연스러운 복장으로 판탈룬 분장을 하고 앉아 있었다. 그의 이마 위로는 주름진 고래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슬픈 노안 앞에서는, 사투르날리아의 광란조차 진지해져 버릴 만큼이었다.

레오폴트 피셔 경은 벽난로 받침대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는 당황스러운 심정으로, 자신만의 중요한 척을 하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브라운 신부." 아담스가 말했다. "사실은, 오늘 오후 우리가 모두 본 그 다이아몬드들이 내 친구의 테일코트 주머니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는요," 브라운 신부가 너그러운 미소를 띠며 보태었다. "그 바로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 말은 꺼내지 마십시오." 아담스 대령이 피셔를 향해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오히려 그런 말이 이미 거론되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저는 그저 어떤 신사라도 베풀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뿐입니다."

"주머니를 뒤집어 보는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하며 자신의 주머니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7실링 6펜스, 왕복 티켓, 작은 은십자가, 작은 breviary(시편집), 그리고 초콜릿 한 개가 드러났다.

대령은 그를 오랫동안 응시한 뒤 말했다. "당신의 주머니 속보다 당신의 머릿속을 더 보고 싶군요. 제 딸이 당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가톨릭 신자)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녀가 최근——" 그러자 그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최근에," 늙은 피셔가 소리쳤다. "아버지 집을 극단적인 사회주의자에게 열어 주었소. 그 자는 공개적으로 '부자라면 무엇이든 훔치겠다'고 떠든다. 이것이 바로 끝장이군. 여기가 바로 그 부자다. 하지만 돈은 하나도 없다."

"제 머릿속을 보고 싶으시다면, 마음껏 보셔도 좋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지친 어조로 말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가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다이아몬드를 훔칠 각오를 한 자들은 사회주의를 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비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 사람도 흠칫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신부는 계속 말했다.

"보시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소. 그 사회주의자는 피라미드를 훔치지 않듯, 다이아몬드도 결코 훔치지 않을 것이오. 우

리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즉 경찰 분장을 한 플로리안을 찾아봐야 하오. 궁금하군요, 지금 그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판탈룬이 일어서더니 방을 박차고 나갔다. 잠시 공백이 흘렀다. 백만장자는 신부를 바라보았고, 신부는 자신의 짧은 기도서를 응시했다. 그러자 판탈룬이 다시 돌아와 단호하고도 격식 있는 어조로 말했다.

"경찰관이 여전히 무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장막이 여섯 번이나 오르내렸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책을 떨어뜨린 채, 정신이 멍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회색 눈동자에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빛이 스며들었다. 그러자 그는 좀처럼 뻔하지 않은, 뜻밖의 대답을 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령. 그런데 부인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아내요?" 군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다. "그녀는 두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오빠 제임스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지 못하고 단 일주일 늦게 도착했죠."

작은 신부는 총에 맞은 토끼처럼 홱 뛰어올랐다.

"갑시다!" 그는 평소와 달리 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어서 가자! 그 경찰을 꼭 봐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커튼으로 가려진 무대 쪽으로 달려갔다. 코룸바인과 클라운을 무례하게 밀치며 지나쳤는데, 두 배우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듯

속삭이고 있었다. 브라운 신부는 쓰러진 희극 경찰관 곁으로 다가가 몸을 굽혔다.

"클로로포름이지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야 비로소 짐작한 거예요."

잠시 놀란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대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발 진지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오."

브라운 신부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곤 곧바로 멈추었다. 그 뒤로는 나머지 말 내내 그 웃음을 억누르느라 애를 썼다.

"선생님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범인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프랑스 배우, 경찰 역을 맡았던 그 사람—하릴퀸이 함께 춤추고 어르고 마구 내던지던 그 영리한 시체—그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끊어졌다. 그는 등을 돌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뭐였다고요?" 피셔가 캐묻듯 물었다.

"진짜 경찰이야." 브라운 신부가 말하며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그 푸른 정원의 가장 끝자락에는 오목한 곳과 은밀한 동산이 있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월계수와 다른 불멸의 관목들은 남쪽의 따뜻한 색감을 띠며 사파이어 같은 하늘과 은빛 달을 배경으로 빛나고 있었다. 흔들리는 월계수의 녹색 생기와, 밤의 짙은 보라빛 인

디고, 그리고 거대한 수정처럼 보이는 달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낭만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정원 나무 꼭대기 가지 사이에서 기이한 인물이 기어 오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낭만적이라기보다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천만 개의 달을 입은 듯했다. 실제 달빛도 그의 움직임마다 포착되어 그의 몸의 새로운 일부를 불태웠다.

하지만 그는 번쩍이며 성공적으로 이 정원의 짧은 나무에서 다른 쪽의 키 크고 덤불처럼 자란 나무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췄다. 작은 나무 아래로 그림자가 미끄러져 내려왔고, 그 그림자가 그를 향해 분명히 이름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플랑보," 그 목소리가 말했다. "정말 날아다니는 별처럼 보이네. 하지만 결국엔 떨어지는 별이 되기 마련이지."

위쪽의 은빛 반짝이는 형체는 월계수 잎사귀들 사이로 몸을 기울이며 아래쪽의 작은 형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망칠 수 있으리라 확신한 듯, 그 형체는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경청하고 있었다.

"플랑보, 그거야말로 네가 해낸 일 중 최고야. 애덤스 부인이 죽은 지 딱 일 주일 뒤,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을 때 캐나다에서(아마 파리행 표로) 온 건 영리했지. 하지만 피셔가 오는 날과 '플라잉 스타즈'를 정확히 집어낸 건 그 이상으로 영리했고, 이어진 행동은 영리함의 차원을 넘어선 천재성이었어. 돌을 훔치는 건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피셔의 코트에 종이 당나귀 꼬리를 붙이는 그 어설픈 꾀 말고도 손

재주로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썼을 테니까.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네가 너 자신을 뛰어넘었지."

그 은빛 형체는 푸른 나뭇잎 사이에서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멈춰 선다. 뒤로 물러나 도망치는 길이 쉽사리 열려 있음에도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아래에 서 있는 그 남자를 응시할 뿐이다.

"아, 네," 아래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극을 억지로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중으로 활용했죠. 처음엔 보석을 조용히 훔치려 했지만, 공범으로부터 이미 의심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유능한 경찰관이 그날 밤 바로 당신을 색출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도둑이라면 이 경고에 감사하며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시인이죠. 당신은 이미 보석을 가짜 무대 장신구들의 번쩍임 속에 숨기는 영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의상이 할리퀸의 것이라면 경찰관이 나타나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아챘던 거죠. 푸트니 경찰서에서 당신을 찾아 나선 그 훌륭한 경찰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함정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현관이 열리자 그는 바로 크리스마스 무언극의 무대 위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모든 존경받는 푸트니 주민들의 폭소 속에서 춤추는 하라킨에게 발차기를 당하고, 곤봉으로 얻어맞고, 기절하며 마약을 먹게 되었죠. 음, 당신은 더 이상 이보다 나은 일을 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잠깐, 그 다이아몬드들을 제게 돌려주시겠어요?"

빛나던 인물이 매달려 있던 초록 나뭇가지가 놀란 듯 바스락거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플랑보, 그걸 다시 돌려줘. 그리고 그 삶을 포기해라. 너 안에는 아직 젊음과 명예, 유머가 남아 있다. 하지만 그 길에서 그것들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악의 한 수준을 영원히 유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길은 계속 내려간다. 자비로운 사람은 술에 취해 잔인해지고, 솔직한 사람은 살인한 뒤 그것을 숨기며 거짓말을 한다. 너처럼 정직한 불법자, 부자들을 위한 즐거운 도적처럼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진흙으로 변해 버렸다. 모리스 블룸은 원칙적인 아나키스트, 가난한 이의 아버지처럼 시작했지만, 결국 양쪽 모두에게 이용받고 멸시받는 윤기 나는 스파이이자 고발자가 되었다. 해리 버크는 진심으로 자유로운 돈 운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끝없는 브랜디와 소다를 마시며 배고픈 여동생에게 의지하고 있다. 암버 경은 일종의 기사도 정신으로 사교계에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런던에서 가장 비열한 독수리들에게 협박당해 돈을 뜯기고 있다. 바리옹 대위는 네 세대 전에 위대한 신사-아파슈였지만, 정신병원에서 '고발자'들과 자신을 배신하고 쫓아온 '장물아비'들에 대한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며 죽었다. 플랑보, 너 뒤의 숲이 매우 자유롭게 보인다는 것을 안다. 너는 순식간에 원숭이처럼 그 숲으로 녹아들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너는 회색빛 늙은 원숭이가 될 것이다, 플랑보. 차가운 마음과 죽음에 가까이서 자유로운 숲에 앉아 있을 때, 나무 꼭대기는 매우 헐벗어 있을 것이다."

아래의 작은 남자가 나무 위의 상대를 보이지 않는 긴 줄로 매단 듯, 상황은 여전히 그 상태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했다.

"당신의 하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비열한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자부했었죠.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비열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불리한 상황 속에 있는 정직한 소년에게 혐의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소년을 그가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 역시 그를 사랑하는 그 여인으로부터 떼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죽기 전에 그보다 더 비열한 일들을 저지를 것입니다."

세 개의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나무에서 떨어지며 잔디밭으로 굴러 갔다. 작은 남자가 몸을 굽혀 그것을 주워 올렸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나무의 초록색 새장에는 은빛 새가 더 이상 없었다.

보석들이 돌아왔다. 놀랍게도 그 보석들은 브라운 신부가 우연히 주워 온 것이었다. 이 사건은 저녁을 환호성과 승리의 열기로 마무리지었다.

기분이 최고조에 달한 레오폴드 경은 신부에게까지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자신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은둔과 무지를 요구하는 신조를 지키는 이들을 존중할 수 있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남자

캠던타운의 두 가파른 골목이 푸른 황혼에 잠긴 시간이었다. 모퉁이에 자리한 제과점 창문은 시가 필터처럼 붉게 빛났다. 아니, 어쩌면 폭죽의 잔여물처럼 더 정확할지 모른다. 창문 안은 여러 거울에 반사된

빛이 다채롭게 어지러웠고, 금박을 입은 알록달록한 케이크와 사탕 위에 빛이 춤추고 있었다.

그 불타는 듯한 유리창에는 수많은 길거리 아이들의 코가 달라붙어 있었다. 초콜릿이 붉은색, 금색, 초록색의 금속성 포장지로 감싸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포장지는 초콜릿 자체보다 더 매혹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창가에 놓인 거대한 흰색 웨딩 케이크는 묘하게도 먼 곳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마치 북극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무지개 같은 유혹은 자연스럽게 열 살이나 열두 살 정도의 이웃 아이들을 불러모았다. 하지만 이 모퉁이는 더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매력적이었다. 스물네 살이 넘은 한 젊은이도 같은 창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에게도 이 가게는 불타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매력은 초콜릿만으로 설명될 수 없었다. 물론 그는 초콜릿을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는 키가 크고 덩치가 굵은, 붉은 머리의 젊은이였다. 결의가 서린 얼굴이었으나 태도는 늘 나른했다. 그의 팔 아래에는 평평한 회색 파일이 끼어 있었다. 흑백 스케치들로 가득한 그 파일은, 그의 삼촌(해군 제독이었다)가 사회주의를 이유로 그를 상속에서 제외시킨 이후로, 출판사들을 상대로 조금씩, 혹은 많이씩 팔아치우곤 했다. 그 일이 일어난 계기는 바로 그 경제 이론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름은 존 턴불 앵거스였다.

드디어 안으로 들어선 그는 제과점 문을 지나 뒷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일종의 페이스트리 가게 겸 식당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젊은 여자에게 가볍게 모자를 벗어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은 단정하고 날렵한 미인이었다. 얼굴에는 건강한 붉은기가 돌았고, 짙은 눈동자가 매우 민첩하게 빛났다. 보통의 대기 시간을 거친 뒤, 그녀는 그의 주문을 받기 위해 안방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의 주문은 분명히 평범한 것이었다.

"부탁입니다." 그가 정확히 말했다. "반펜니 빵 한 개와 작은 컵에 담은 블랙 커피를 주세요."

그리고 소녀가 돌아서려던 그 찰나,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저와 결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게 안의 젊은 아가씨가 몸을 딱 굳히며 말했다. "그런 농담은 허락하지 않아요."

빨간 머리의 젊은이가 뜻밖에도 무거운 표정으로 회색 눈을 들어올렸다.

"진짜로요," 그가 말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반펜니 빵만큼이나요. 비싸고, 빵처럼요. 대가를 치러야 하죠. 소화가 잘 안 되고, 빵처럼 속을 쑤시죠. 아픈 거예요."

그 어두운 눈빛의 젊은 여자는 단 한 순간도 그의 시선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비극적인 정밀함으로 그를 관찰하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끝나자, 입가에 미소라는 그림자 같은 것이 스쳤다. 그리고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자리 잡았다.

"생각해 봐," 앵거스가 딴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이 반펜스 빵을 먹는 게 좀 잔인하지 않아? 이 빵들이 자라서 일펜스 빵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결혼하면 이런 잔인한 스포츠는 이제 그만두겠어."

어둡고 젊은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분명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그 생각에는 동정 어린 온기가 섞여 있었다. 마침내 결의에 찬 태도로 몸을 돌렸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테이블 위에 상점 진열장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놓은 것이었다.

그 물건들에는 다채로운 색감의 사탕을 쌓아 올린 피라미드, 여러 접시에 담긴 샌드위치, 그리고 제과점 특유의 신비로운 포트와 셰리 담겨 있는 두 개의 디캔터가 포함되었다. 이 깔끔하게 차려진 중앙에는, 창문의 거대한 장식품이었던 엄청난 양의 하얀 설탕 케이크가 조심스럽게 내려져 있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의무죠, 사랑하는 라우라." 그가 입을 열었다.

"오, 제발, 잠깐만 멈춰요." 그녀가 외쳤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묻는 건, 대체 그게 뭐라는 거죠?"

"의식적인 식사입니다, 호프 씨."

"그게 대체 뭐예요?" 그녀가 설탕 산을 가리키며 재촉하듯 물었다.

"웨딩 케이크입니다, 앵거스 부인." 그가 말했다.

소녀는 그 물건으로 다가가, 요란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린 뒤 다시 진열창에 꽂아 넣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우아한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올린 채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결코 나쁘지 않았지만, 확실히 짜증이 섞여 있었다.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으시네요."

"저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건 제 기독교적 겸손이니까요."

그녀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미소 뒤로 그 표정은 어느새 한층 무거워져 있었다.

"앵거스 씨,"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헛소리가 1분이라도 더 이어지기 전에, 제 이야기를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드려야겠소."

"기쁩니다." 앵거스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러는 김에 저에 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 입 다물고 들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에요. 심지어 유난히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 일이 아닌데도 내 악몽이 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케이크를 다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해요." 로라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우선, 제 아버지가 러드버리에 있는 '레드 피시' 여관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사실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바에서 손님들을 모셨거든요."

"난 늘 의문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왜 그 한 제과점에는 유난히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을까요."

러드버리는 동부 지역 어딘가에 있는, 잠들어 있는 듯한 초록빛 작은 마을이었다. '레드 피시' 여관에 드나드는 손님은 주로 가끔 들르는 영업 사원들뿐이었다. 나머지 손님들은 말 그대로 '최악'의 부류들이었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몸이 나른한 작은 남자들이었다. 겨우 먹고살 돈은 있었지만 할 일은 없었다. 그들은 형편없는 옷을 입고 술집 구석에 기댄 채 경마에 베팅하는 일만 했다. 하지만 이런 불쌍한 젊은이들도 우리 여관에는 많지 않았다. 다만 두 명이 유독 자주 찾아왔다. 어떤 의미에서든 너무 흔했다.

두 사람은 모두 자기 돈으로 살았다. 지루할 정도로 게으르면서도 지나치게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조금 불쌍하게 생각했다. 그들 둘 다 약간의 기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부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종류의 결함이었다. 엄밀히 말해 기형은 아니었다. 이상한 점이었다.

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작은 남자였다. 난쟁이와 비슷했고, 적어도 경마 선수처럼 보였다. 하지만 외모는 전혀 경마 선수 같지 않았다. 둥글고 검은 머리에 깔끔하게 다듬은 검은 수염, 새처럼 빛나는 눈매였다. 주머니에서는 동전 소리가 났고, 큰 금시계고리가 요란하게 흔들렸다. 그는 정장 차림이 너무 완벽해서 정작 신사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비록 무의미하게 놀기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쓸모없는 일들에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다. 즉흥적인 마술 솜씨였다. 성냥 열다섯 개를 불꽃놀이처럼 차례로 불태우거나, 바나나 같은 것을 잘라 춤추는 인형으로 만들었다. 그의 이름은 이사도어 스마이드였다.

나는 아직도 그의 모습을 선명히 기억한다. 어두운 작은 얼굴을 하고, 시가 다섯 개로 뛰는 캥거루를 만들고 있던 그의 모습이.

"다른 한 사람은 좀 더 말이 없고 평범해 보였지만, 어쩐지 가엾은 스마이스보다 나를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금발이었다. 코는 콧대가 높았고, 기묘한 빛을 띤 듯 다소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질 정도였지만, 그가 가진 사시는 눈은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다. 그가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따위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나는 이런 결함이 그 가엾은 청년을 조금은 비관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스마이스가 어디든 가서 원숭이 장난을 치듯 떠들고 다녔던 반면, 제임스 웰킨(사시는 남자의 이름이었다)은 우리 술집의 안방에 앉아 있거나, 평범하고 회색빛으로 펼쳐진 시골을 혼자서 장거리 산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마이스 역시 자신의 작은 키에 대해 조금은 예민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그는 그 점을 더 현명하게 잘 감추었을 뿐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같은 주에 모두 나를 청혼했을 때, 나는 정말로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고, 또한 매우 슬펐다."

"글쎄, 나는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마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아. 하지만 어쨌든 그 괴상한 친구들은 어딘지 내 편이었지. 그리고 그들은 내가 진짜 이유, 즉 그들이 너무 끔찍할 정도로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거절했다고 생각하기를 나는 두려워했어. 그래서 나는 다른 종류의 헛소리를 만들어냈지.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지 않은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였어. 나는 그들의 돈이 그저 상속받은 돈일 뿐이니, 그런 돈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지. 내가 그렇게 선의에 찬 태도로 말한 지 이틀 후,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 내가 처음 들은 소리는 그 둘이 마치 터무니없는 동화 속 인물이라도 된 듯, 운명을 찾아가기 위해 떠났다는 것이었지."

"그날 이후로 그 둘 중 누구도 다시는 본 적이 없소. 하지만 '스마이트'라는 작은 신사로부터 두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이었소."

"다른 그 사람, 들어보셨나요?" 앵거스가 물었다.

"아니요, 그는 편지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소녀가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스마이트의 첫 번째 편지는 단순히 웰킨과 함께 런던으로 도보 여행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웰킨은 걸음이 매우 빨라서, 키가 작은 스마이트는 이내 지쳐 길가에서 쉬게 됐습니다. 운 좋게도 그는 떠돌이 마당패들에게 발견되었고, 키가 작은 데다 영악하고 재주 많은 작은 인간이었기에, 그는 곧바로 마당패 일단에 합류해 잘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쿠아리움으로 보내져,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몇 가지 기예를 선보였죠. 그것이 그의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며 이었다. "두 번째 편지는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고, 저는 지난주에야 그 편지를 받았거든요."

앙거스라는 남자는 커피 잔을 비우고는, 다정하고 인내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어가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스마스의 무음 서비스'에 대한 광고판, 다들 보셨죠? 안 본 사람이 당신뿐이길 바라요. 저는 그걸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기계로 집안일 전체를 처리해 준다는 시계 장치 같은 발명품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식의 광고 말이에요. '버튼 하나면 음주하지 않는 집사가 나옵니다.' '레버 돌리면 추파를 던지지 않는 하녀 열 명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죠. 광고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 기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돈은 모두 제가 루드버리에서 알던 그 작은 악동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가난했던 그 아이가 이제 제자리를 잡았으니,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가 언제든 나타나서 자신이 세상에 자신의 길을 개척해 냈다고 자랑할까 봐 두렵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남자는?" 앵거스가 고집스러운 침묵 속에서 되물었다.

로라 호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구여, 저는 당신이 마녀라고 생각해요. 네, 당신이 맞아요. 저는 그 남자의 글씨를 한 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죽은 자보다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의 그림자가 제 발걸음마다 따라다닙니다. 그가 제 정신을 반쯤 망가뜨렸어요. 사실, 그는 제 정신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있을 수 없는 곳에 존재하는 것 같았고, 말하지도 못할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자, 내 사랑하는 친구," 젊은이가 경쾌하게 말했다. "그가 사탄 그 자체라도, 이제 당신은 누군가에게 말했으니 그의 끝은 났소. 혼자 있으면 누구나 미쳐버리기 마련이오, 아가씨. 그런데 언제부터 그 비스듬히 보는 친구의 기척과 소리를 느꼈다고 했소?"

"제임스 웰킨이 웃는 소리가, 지금 당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렷이 들렸어요." 소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거기 다른 사람은 없었죠. 저는 모퉁이 가게 밖에 서 있었는데, 양쪽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였으니까

요. 그의 웃음소리는 그의 사시만큼이나 기이했죠. 저는 그 웃음소리를 잊고 있었죠. 지난 일 년 가까이 그를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몇 초 후, 그의 라이벌로부터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유령이 소리를 내거나 비명이라도 지르는 걸 직접 목격한 적이 있나?" 앵거스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로라는 갑자기 몸을 떨더니,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이조어 스미스가 성공을 알리는 두 번째 편지를 막 다 읽었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웰킨이 '하지만 너는 그의 것이 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에 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죠. 정말 무서워요. 저는 미친 게 아닌가 봐요."

"정말 미쳤다면, 본인은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신사의 행적은 좀 수상해. 두 사람이 함께하면 한 사람보다 낫지—다른 기관에 대한 암시는 패스하고, 그냥 나 같은 튼튼하고 실용적인 남자가 결혼 케이크를 창문 너머로 다시 가져오게 허락해 주겠나?"

그가 말을 마치려는 순간, 밖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작은 모터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가게 문 앞에 쑥 들어와 멈춰 섰다. 그 순간, 작은 남자가 번들거리는 탑모자를 쓴 채 바깥방에서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다.

앙거스는 지금까지 정신 위생이라는 명분 아래 유쾌한 태도를 유지해 왔으나, 이제 그의 영혼이 겪는 긴장을 드러내듯 안방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새로 온 이를 마주했다. 그를 한눈에 본 것만으로도 사랑에 빠진 남자의 야생적인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토록 단정하면서도 왜소한 체격, 거만하게 앞으로 내민 검은 수염 끝, 영리하지만 안달이 난 듯한 눈매, 그리고 정갈하지만 매우 긴장된 손가락들. 그는 그가 방금 전부터 듣던 바로 그 남자, 바나나 껍질과 성냥갑으로 인형을 만드는 이사도어 스마이스가 맞았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금속 집사나 추파를 던지지 않는 금속 하녀들로 거액을 번 남자였다.

순간 두 남자는 서로의 소유욕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경쟁의 영혼이 지닌 특이한 냉담한 관용을 담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스마이스 씨는 두 사람이 적대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단호하면서도 폭발적인 어조로 물었다.

"호프 양, 그 창문의 물건을 보셨습니까?"

"창문 위에?" 멍하니 서 있던 앵거스가 되물었다.

"다른 건 설명할 시간이 없소." 작은 백만장자가 짧게 잘라 말했다. "여기서 장난이 한창인 것 같소. 반드시 조사해야 해."

그는 광택 나는 지팡이를 들어 방금 전 앵거스 씨의 혼례 준비로 창문이 비워진 곳을 가리켰다. 앵거스 씨는 깜짝 놀랐다. 유리창 앞면에 긴 종이 한 줄이 꼼꼼히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전 그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 종이는 분명히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에너지를 충전한 스미스 씨를 따라 거리로 나섰다. 유리창 바깥면에는 우표용지 약 1야드 반쯤 되는 종이들이 꼼꼼히 풀칠되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스미스와 결혼하면, 그는 죽는다."

"로라." 앵거스가 가게 안으로 큰 붉은 머리를 내밀며 말했다. "너 미친 거 아니지?"

"그건 웰킨이라는 놈의 짓이오." 스미스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와는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늘 나를 귀찮게 했소. 지난 이주 동안만 해도 내 아파트에 협박 편지가 다섯 번이나 놓여 있었지. 누가 그 편지를 가져다놓았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 그것이 바로 웰킨 본인인지 확인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했소. 아파트 관리인은 수상한 인물이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고 단언했고, 웰킨은 공공 상점 창문에 무언가 지저분한 포스터를 붙여놓았소. 그런데 그 상점 주인들은--"

"그렇습니다." 앵거스는 겸손하게 말했다. "가게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죠. 잘 들었습니다, 스미스 씨. 당신처럼 사안을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통찰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충분하죠."

"그범인은 아직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십오 분 전쯤 창가로 나갔을 때에도 그곳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방향조차 알 수 없는 상태라 쫓아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앵거스는 계속했다. "제 조언을 듣는다면, 스미스 씨, 이 일을 즉시 유능한 조사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공공 기관보다 사립 탐정이 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를 타고 오 분 거리에 활동하는 매우 뛰어난 인물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플랑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다소 소란스러웠던 과거를 지녔지만, 지금은 엄격하게 정직한 인물입니다. 그의 두뇌는 그 자체로 금덩어리죠. 햄스테드의 럭나우 맨션스에 산답니다."

"이상하군요." 작은 남자가 검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저도 바로 이 근처, 히말라야 맨션에 삽니다. 구석진 곳이라 조금만 돌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방으로 가서 이 이상한 웰킨 문서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 사이 형사 친구분이라도 데려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앵거스가 정중하게 말했다. "음, 우리가 빨리 행동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기묘한 즉흥적 공정심이라는 것을 보여준 듯, 똑같은 형식의 정중한 작별 인사를 여인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재빠른 소형 자동차에 모두 뛰어올랐다. 스마이스가 핸들을 잡고 차를 돌려 큰 도로 모퉁이를 돌자, 앵거스는 거대한 광고 포스터 하나를 보며 웃음을 지었다.

포스터에는 '스마이스의 정숙한 서비스(Smythe's Silent Service)'라는 문구와 함께, 머리 없는 거대한 철인형 인형이 냄비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인형 아래에는 '절대 화내지 않는 요리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저도 제 아파트에서 그걸 쓰죠." 작은 수염 기른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광고용도 있지만, 실용적인 이유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 알만하다면, 제가 만든 그 거대한 시계 장난감 인형들이 제가 알던 그 어떤 살아 있는 하인들보다도 더 빨리 석탄이나 클라레 포도주를 가져오거나 시간표를 전달해주죠. 하지만 우리끼리만 이야기하자면, 그런 하인들도 단점이 없지는 않아요."

"정말요?" 앵거스가 물었다. "그들이 못 하는 일이 있다는 거요?"

"네," 스마이스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자들은 누가 그 협박 편지를 내 아파트에 두고 갔는지 내게 말해 주질 못하거든."

그 남자의 모터차는 그 자신처럼 작고 빠랐다. 사실, 그의 자동차는 그의 가내 하인 장치와 마찬가지로 그가 직접 발명한 것이었다. 그는 마치 자기 상품을 믿는 광고 사기꾼 같았다. 저녁의 밝은 햇살 아래, 그들은 길고 하얀 곡선 도로를 빠르게 달렸다. 그 순간, 작고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더욱 강조되었다. 곧 하얀 곡선들은 더 날카롭고 어지러워졌다. 그들은 현대 종교들이 말하는 상승 나선 위에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런던의 거의 에든버러처럼 가파른 구석을 넘고 있었다. 테라스는 테라스 위에 쌓였고, 그들이 찾고 있던 아파트 타워는 모두 위에 솟아올라 이집트식 높이에 달했다. 해가 저물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들이 코너를 돌며 히말라야 맨션스로 들어설 때의 변화는 창문을 여는 것처럼 갑작스러웠다. 그들은 런던 위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들을 초록빛 슬레이트 바다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발견했다. 맨션스 반대편, 자갈로 된 곡선 도로 반대쪽에는 나무가 우거진 울타리가 있었다. 그것은

정원이라기보다는 가파른 산울타리나 둑 같았다. 그 아래로는 인공 수로가 흐르고 있었는데, 마치 요새의 해자 같은 운하였다. 차가 곡선을 돌며 지나갈 때, 한 구석에서는 밤을 파는 노점상이 보였다. 다른 끝에는 희미한 푸른색 경찰관이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 두 사람만이 높은 교외의 고독 속에서 유일한 인간 형태였다. 하지만 그는 비합리적으로 그들이 런던의 말없는 시를 표현한다고 느꼈다. 그들은 이야기 속의 인물들처럼 느껴졌다.

작은 자동차가 총알처럼 오른쪽 집으로 쏘아 올랐다. 그리고는 주인을 폭탄조각처럼 내던졌다. 그는 곧장 광택이 나는 금박이 달린 제복을 입은 키 큰 문지기에게, 그리고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 바람의 키 작은 짐꾼에게 물었다. "제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었나요?"

그들은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질문한 이후로는 아무도,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았다고 확신시켰다. 그러자 스마이스와 약간 당황한 앵거스는 로켓처럼 엘리베이터로 쏘아 올랐다. 그들은 최상층에 도착할 때까지 올라갔다.

"잠시만 들어오세요." 숨을 헐떡이며 스미스가 말했다. "웰킨 편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구석으로 달려가서 친구를 모셔오시면 됩니다."

그는 벽 속에 숨겨진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평소에는 양복점의 인형처럼 양옆에 늘어서 있는 반쯤 인간형 기계들이 유일한 볼거리였다. 이 기계들

은 머리가 없고, 어깨는 불필요할 정도로 볼록하며, 가슴은 비둘기 가슴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역에 있는 자동 기계와 다를 바가 없었다. 팔 대신 큰 갈고리가 달려 있어 쟁반을 나르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구별을 위해 완두콩색, 진홍색,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을 뿐이었다. 다른 모든 면에서 이들은 그저 자동 기계일 뿐, 누구도 두 번 돌아보지 않을 존재였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두 줄의 기계들 사이에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계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붉은 잉크로 엉성하게 적힌 하얀 종잇조각이었다. 민첩한 발명가는 문이 열리자마자 그 종이를 집어 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앵거스에게 건넸다. 종이의 붉은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다.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오늘 그녀를 만나러 갔다면, 너를 죽이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사이도르 스마이스가 조용히 말했다. "위스키 한 잔 하시겠어요? 나, 오히려 한 잔 마시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플랑보 좀 불러다주십시오." 앵거스는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곧장 플랑보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상대방이 놀라울 정도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을 최대한 빨리 여기로 데려오시오."

앵거스가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스마이스가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자 시계추 장식품 하나가 자리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의 홈을 따라 사이펀과 데칸터가 담긴 쟁반을 나르고 있었다. 문이 닫히면서 죽은 듯하던 하인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작은 남자를 혼자 남겨두다니, 왠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스마이스의 층계참 아래로 여섯 계단을 내려간 곳, 셔츠 소매를 걷어맨 남자가 양동이를 들고 무언가 하고 있었다. 앵거스는 그에게, 형사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계단을 오르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세야 한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약간의 보너스도 약속했다.

그는 현관 홀로 내려가 문지기에게도 비슷한 경계 태세를 주문했다. 문지기로부터 한 가지 단순화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집에는 뒷문이 없다는 것이었다. 앵거스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떠돌아다니는 순경 한 명을 붙잡아 문 앞에 서서 출입을 감시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앵거스는 잠시 멈춰 서서 밤 한 줌을 사고, 상인이 이 근처에 얼마나 머물 것 같은지 물어보았다.

밤나무 장수는 외투 깃을 세우며, 눈이 올 것 같으니 자기도 곧 자리를 떠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저녁 공기는 회색빛으로 물들며 날카로운 한기를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앵거스는 온갖 언변을 동원해 밤나무 장수를 그 자리에 붙들어 두었다.

"자신의 밤송이로 몸을 따뜻하게 하시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보유한 밤송이를 모두 다 먹어치우세요. 제가 그만한 보상을 드리겠소. 제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주신다면, 소버린 한 개를 드리겠소. 그리고는 경비원이 서 있는 그 집에 남자, 여자, 아이 중 누가 들어갔는지 저에게 알려주시오."

그는 마지막으로 포위된 탑을 돌아보며, 발걸음을 재촉해 그 자리를 떠났다.

"어쨌든 그 방 둘레에 포위망을 쳐 뒀소. 네 명 모두 웰킨의 공범일 리가 없으니까."

럭나우 맨션은 말하자면 그 언덕 위의 집들 중에서도 한 단계 낮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히말라야 맨션은 그 언덕의 정점에 해당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플랑보 씨의 반공식적인 아파트는 1층에 있었다. 그곳은 실런트 서비스의 아파트가 지닌 미국식 기계문명과 차가운 호텔 같은 호화로움과 대조적이었다. 플랑보는 앵거스의 친구로, 앵거스를 그의 사무실 뒤 로코코 양식의 예술적 공간에서 맞이했다. 그 공간의 장식물들은 사브르 칼, 하르퀴버스(화승총), 동양의 희귀품, 이탈리아 와인 플라스크, 야생적인 요리 냄비, 페르시아의 깃털 달린 고양이, 그리고 특히 어색해 보이는 작은 먼지투성이의 로마 가톨릭 사제였다.

"이분은 제 친구 브라운 신부입니다." 플랑보가 말했다. "자주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남쪽 사람인 저에게는 조금 춥지만요."

"네, 날씨도 괜찮을 거예요." 앵거스는 보라색 줄무늬가 있는 동양식 오타만에 앉으며 말했다.

"아니요," 신부는 고요하게 말했다. "이제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는 그 순간, 밤나무 열매 장수가 예언한 대로 첫눈송이들이 어두워지는 창문 너머로 살랑살랑 흩날리기 시작했다.

"글쎄," 앵거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 사업 차 왔소.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 더더욱."

사실은 플랑보의 집 바로 옆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한 한 남자가 있다는 거야.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끊임없이 괴롭힘과 협박을 받고 있어. 그 적이라는 건 아무도 본 적 없는, 썩은 놈이지."

앵거스가 로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자신의 경험까지, 스마이스와 웰킨의 전말을 하나씩 털어놓자 플랑보는 점점 더 깊은 관심을 보였다. 빈 거리 모퉁이에서 들린 초자연적인 웃음소리, 텅 빈 방에서 또렷하게 들린 이상한 말들. 플랑보는 점점 더 몰입해 갔고, 작은 신부는 마치 가전제품처럼 이야기에서 배제된 채 방치된 듯했다.

창문에 붙어 있던 낙서된 우표지 이야기를 듣자, 플랑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어깨가 온 방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괜찮으시다면," 그가 말했다. "이 사람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쩐지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기쁩니다." 앵거스가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그 녀석이 안전합니다. 굴로 통하는 유일한 구멍에 네 명의 남자를 배치해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거리로 나섰다. 작은 사제는 작은 개처럼 순종적으로 그들을 따라갔다. 그는 그저 명랑한 어조로, 수다를 떠는 사람처럼 말했다. "눈이 땅에 얼마나 빨리 쌓이는지 보시오."

은빛 가루가 얇게 내려앉은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던 그들은, 앵거스가 이야기를 마쳤다. 우뚝 솟은 아파트들이 있는 달 모양의 도로에 다다랐을 때쯤, 그는 이제 비로소 네 명의 파수꾼들에게 시선을 돌릴 여유를 얻었다.

밤을 파는 노인은, 소버린화를 받기 전이든 후이든, 문 앞을 줄곧 지켜봤지만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완강하게 맹세했다. 경찰관은 그보다 더 단호했다. 그는 모든 종류의 도둑, 즉 모자를 쓴 자들이든 헐벗은 자들이든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인물이 반드시 의심스럽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너무 순진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든 주시하고 있었지만, 맹세코 정말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세 남자가 여전히 현관 위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금도장 경비원 주위에 모여들자, 그의 판정은 더욱 최종적이었다.

"공작이든 청소부든, 이 아파트에 무슨 볼일이냐고 누구에게나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온화하고 금장식이 화려한 거구의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 신사가 떠난 이후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맹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브라운 신부는 뒤로 물러나서 겸손하게 보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겸손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이후로, 계단을 오르내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요?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건 우리가 모두 플랑보 집 근처에 모여 있을 때였는데."

"여기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공무원은 당당한 권위로 밝게 말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뭐란 말이오?" 신부는 물고기처럼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며 말했다.

다른 이들도 모두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았다. 플랑보는 격분한 듯한 외침과 함께 프랑스식 제스처를 취했다. 금색 장식을 단 제복을 입은 사람이 지키고 있는 입구, 그 거인의 오만한 다리를 벌린 사이로 회색 발자국이 줄지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발자국은 분명히 존재했다.

"세상에!" 앵거스가 저도 모르게 외쳤다. "보이지 않는 사나이!"

말 없이 그는 돌아서서 계단을 뛰어 올랐다. 플랑보가 그 뒤를 쫓았다. 그러나 브라운 신부는 여전히 눈 덮인 거리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다. 마치 그의 질문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듯했다.

플랑보는 거대한 어깨로 문짝을 박차고 들어갈 기세였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인(스카치맨)은 직관은 부족해도 이치가 더 있었다. 그는 문

틀을 더듬거리며 손끝으로 숨겨진 버튼을 찾아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 풍경은 대체로 변함없었다. 홀은 더 어두워졌지만, 해질녘의 마지막 붉은 빛줄기가 여기저기 스며들고 있었다. 머리가 없는 기계 몇 대가 용도에 따라 제자리에서 옮겨져, 흐릿한 어둠 속에 여기저기 서 있었다. 그들의 코트에 칠해진 녹색과 붉은색도 어둠 속에 묻혀 어두워졌고, 형체가 불분명해지면서 오히려 인간 형체와 더 닮아 보였다.

그러나 그 모든 기계 한가운데, 붉은 잉크가 적힌 종이가 놓여 있던 정확히 그 자리에, 마치 병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잉크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붉은 잉크가 아니었다.

플랑보가 이성과 폭력을 프랑스식 특유의 방식으로 섞어 "살인!"이라고 외쳤다. 그는 곧장 아파트로 뛰어들어가 단 다섯 분 만에 구석구석과 찬장까지 모두 뒤졌다.

하지만 그는 시체를 발견하기를 기대했건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사도어 스마이스는 그곳에 없었다.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채 말이다.

가장 치열한 수색을 마친 두 남자는 바깥 현관에서 마주쳤다. 얼굴은 땀으로 젖었고 눈은 놀람으로 부릅떴다.

"내 친구여." 플랑보가 흥분한 나머지 프랑스어로 말했다. "당신의 살인자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살자까지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앵거스는 어둑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가짜 인간들이 가득했다. 그의 스코틀랜드 영혼 깊숙한 구석에서, 어떤 켈트족의 본능이 떨림을 일으켰다.

살인 현장의 피 자국 바로 위에는, 실제 크기의 인형 하나가 서 있었다. 아마도 죽어가는 남자가 쓰러지기 직전, 자신을 구하라고 부른 것 같았다. 인형의 어깨까지 닿는 높은 갈고리 팔 중 하나가 살짝 들어 올려져 있었다. 앙거스는 갑자기 끔찍한 상상을 했다. 바로 그 가엾은 스마이스의 철제 아이, 즉 이 인형이 그를 내려쳤다는 생각이었다.

무생물이 반역했다. 이 기계들이 주인을 죽였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그에게 무슨 일을 한 걸까?

"그를 먹었다니?" 귓가에서 악몽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순간 오한이 밀려왔다. 찢겨 나간 인간의 유골이, 머리가 없는 그 시계 장치 속에 흡수되어 으스러지는 상상을 하니, 몸이 찌릿해졌다.

앵거스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힘주어 말했다.

"자, 이제 끝이군요. 그 불쌍한 친구는 구름처럼 사라지고, 바닥에는 붉은 자국만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플랑보가 말했다. "이 세상 일이든, 저 세상 일이든 상관없이요. 저는 내려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은 아래로 내려갔다. 양동이를 든 사내를 지나쳤을 때, 그 사내는 다시금 침입자가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아래에는 경비원과 서성이는 군밤 장수가 있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음을 굳게 재확인했다.

하지만 앵거스는 네 번째 확인을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는 그 대상을 볼 수 없었다. 그는 다소 초조한 목소리로 외쳤다.

"경찰관은 어디 있나?"

"죄송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에게 길가에 있는 무언가를 조사하라고 보냈거든요. 그게 제게는 꽤 흥미로운 사안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를 빨리 다시 불러와야 해." 앵거스가 갑자기 말을 끊으며 말했다. "위층의 불쌍한 남자는 단순히 살해당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말끔히 지워졌거든."

"어떻게요?" 사제가 물었다.

플랑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신부님, 제 영혼에 맹세코 이건 제 관할보다 신부님의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친구도 적도 없는데, 스마이스가 요정들에게 납치라도 된 듯 사라졌거든요. 만약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저는--"

말을 하던 그들이 모두 멈춰 섰다. 특이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큰 파란색 제복을 입은 경찰이 크레센트의 모퉁이를 돌아 달리고 있었다. 그는 브라운에게 곧장 다가왔다.

"맞습니다, 신부님." 그가 헐떡이며 말했다. "방금 아래 운하에서 스마이스 씨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앵거스가 손을 허둥지둥 머리에 가져갔다. "그가 뛰어 내려가서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나요?"라고 물었다.

"그는 절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소. 그건 확신할 수 있소." 순경이 말했다. "그가 물에 빠져 죽은 것도 아니야. 심장 부위에 큰 칼자국을 입고 숨졌거든."

"그런데 당신은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플랑보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조금만 더 길을 따라 걸어가 봅시다." 신부가 말했다.

그들이 크레센트의 다른 쪽 끝에 다다랐을 때, 그는 불쑥 말했다. "바보 같은 실수였군! 경찰에게 물어볼 게 하나 있었네. 갈색 빛이 도는 자루를 발견했는지."

"왜 하필 갈색 자루였죠?" 앵거스가 놀라며 물었다.

"다른 색깔의 자루였다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했을 테지만,"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그 자루가 연한 갈색이었다면, 이 사건은 이미 끝난 셈이지."

"그건 기쁜 소식이군요." 앵거스가 진심 어린 비꼼으로 말했다. "아직 시작도 안 됐으니까요. 적어도 저한테는 말이죠."

"다 알려주시오." 플랑보가 말했다. 그의 말투는 기이할 정도로 무겁고 단순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빠른 걸음으로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높은 반달 모양의 도로 너머에 펼쳐진 긴 도로 위로, 브라운 신부가 조용하지만 경쾌하게 앞서 걸어갔다.

마침내 신부가 말했다. 그의 말투는 거의 애처로울 정도로 모호했다.

"글쎄요, 지루하게 들릴까 봐 걱정입니다. 우리는 늘 사물의 추상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죠. 이 이야기를 다른 곳부터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사실,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들은 당신이 한 말에 답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뜻한 바에 답하거나, 그들이 당신이 뜻한 바라고 생각하는 것에 답하죠.

시골 저택에서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함께 묵고 계신 분 있나요?'라고 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여인은 '네, 집사와 하인 세 명,

응접실 하녀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응접실 하녀가 방 안에 있거나, 집사가 그녀의 의자 뒤에 있더라도요. 그녀는 '우리 집에 묵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묵는 사람'이란 당신이 묻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죠.

하지만 전염병을 조사하는 의사가 '누가 이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그 여인은 집사와 응접실 하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억해 낼 것입니다.

모든 언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당신은 질문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실에 가까운 답을 들었을 때도 말이죠.

그 네 명의 아주 정직한 남자들이 '아무도 맨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문자 그대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당신이 의심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사실 한 남자가 집에 들어갔고, 그 남자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앵거스가 붉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브라운 신부는 다시금 겸손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마치 스스로의 생각을 더듬어 나가는 사람처럼.

"물론 그 남자를 생각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의 교묘함입니다. 하지만 저는 앵거스 씨가 들려준 이야기 속의 두세 가지 단서를 통해 그 남자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첫째, 웰킨이 장거리를 걷는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창문에 쌓여 있던 수많은 우편용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젊은 여자가 한 말 중 두 가지가 진실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인 머리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급히 덧붙였다. "화가 나지 마세요. 그녀는 그 말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편지를 받기 직전, 그녀는 거리에서 완전히 혼자일 수 없습니다. 방금 받은 편지를 읽기 시작할 때도, 그녀는 거리에서 완전히 혼자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녀 근처에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왜 꼭 그 근처에 누군가 있어야 합니까?" 앵거스가 물었다.

"왜냐고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비둘기 편지라도 아니라면, 누군가 그녀에게 그 편지를 직접 가져다 줬을 테니까."

"정말, 웰킨이 자신의 라이벌 편지를 그 여인에게 건넸다는 말씀이십니까?" 플랑보가 열을 올리며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제가 말했다. "웰킨이 자기 라이벌의 편지를 그 여인에게 건넸죠.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아, 이쯤에서 더는 참을 수 없겠군!" 플랑보가 폭발하듯 소리쳤다. "저 자가 누구란 말인가? 외모가 어떤가?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자의 평범한 차림새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붉은색, 파란색, 금색 옷을 꽤 잘 차려입었습니다." 사제가 정확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답했다. "그 눈에 띄고, 심지어는 과시적인 복장을 한 채, 그는 여덟 개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히말라야 맨션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스마이스를 살해했고, 시체를 안고 다시 거리로 내려왔습니다."

"신부님," 앵거스가 멈춰 서서 외쳤다. "당신이 미쳐버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당신은 미친 게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다만 좀 눈이 어두울 뿐이죠.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을 보지 못하셨잖아요."

그는 세 걸음 재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로 스쳐 지나가던 평범한 우편배달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는 그들 곁을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게 부산히 지나갔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체부란 사람들은 대체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가 깊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처럼 열정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작은 시체 하나쯤은 쉽게 숨길 수 있을 만큼 큰 가방도 들고 다니죠."

우편배달부는 자연스럽게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몸을 낮추며 담장 옆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수염이 희끗희끗한 마른 체격의 평범한 외

모를 한 사내였으나, 그가 놀란 표정으로 어깨 너머로 돌아보았을 때, 세 사람은 모두 그의 거의 악마 같은 사팔뜨기 눈초리에 못 박혔다.

* * * * *

플랑보는 자신의 사브르와 보라색 깔개, 페르시아 고양이 곁으로 돌아갔다. 그가 챙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존 턴불 앵거스는 다시 가게 안의 여주인 곁으로 돌아갔다. 그 무모한 젊은이는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매우 안락한 기분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수시간 동안 별빛 아래 눈 덮인 언덕을 걸었다. 그와 함께한 살인자와 신부가 나눈 대화는 영원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고우의 명예

올리브빛과 은빛이 뒤섞인 폭풍우가 몰아치는 저녁 무렵이었다. 브라운 신부는 회색 스코틀랜드 체크 무늬 외투를 두른 채, 회색빛 스코틀랜드 계곡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그는 글렌가일 성의 기이한 풍경을 마주했다.

그 성은 계곡이나 오목한 땅의 한쪽 끝을 막아 마치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다. 마치 세계의 끝인 듯했다.

성벽은 가파른 지붕과 바다빛 청록색 슬레이트로 지어진 첨탑을 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옛날 프랑스-스코틀랜드식 저택들의 양식을 따랐

다. 영국인에게는 동화 속 마녀들의 불길한 뾰족 모자를 연상시켰다. 푸른 탑을 둘러싼 소나무 숲이 흔들리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그 숲은 수없이 많은 까마귀 떼만큼이나 검은빛으로 보였다.

이 꿈결 같고, 거의 잠결 같은 악마적인 분위기는 단지 풍경에서 비롯된 공상에 불과하지 않았다. 그 곳에는 실제로 그런 구름이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만과 광기, 그리고 신비로운 슬픔으로 이루어진 구름이었다. 그런 구름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스코틀랜드의 귀족 가문에 더 무겁게 내려앉곤 했다.

스코틀랜드는 유전이라는 독약을 두 배로 복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귀족의 혈통 의식과, 칼뱅주의자의 파멸에 대한 의식이 바로 그 독약이었다.

브라운 신부는 글래스고에서 맡은 일을 잠시 미뤄 친구 플랑보와 만나기로 했다. 플랑보는 아마추어 탐정으로, 글렌가일 성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다른 더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형사와 함께, 작고한 글렌가일 백작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 미스터리한 인물은 한 가문의 마지막 후예였다. 그 가문의 용감함, 광기, 그리고 폭력적인 교활함은 16세기 그들의 나라의 음흉한 귀족들 사이에서도 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메리 스튜어트 여왕을 둘러싸고 쌓아 올린, 거짓말로 지어진 그 궁전의 미로 속에서, 방 안의 방처럼 깊숙이 숨어 있던 야망에 한층 더 깊이 빠져 있었다.

시골의 동요는 그들의 음모가 어떤 동기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솔직하게 증언했다.

여름 나무에 흐르는 푸른 수액이 오길비 가문에게는 붉은 금과도 같다.

글렌가일 성에는 수세기 동안 제대로 된 영주가 한 명도 없었다. 빅토리아 시대가 왔을 때는 이미 모든 기이한 행동은 다 소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조차 했다. 하지만 마지막 글렌가일 영주는 부족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이제 남은 유일한 선택지를 택했다. 그는 사라진 것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가 해외로 떠났다는 뜻이 아니다. 그가 어디엔가 있었다면, 모든 정황으로 보아 여전히 성 안에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교회 기록과 붉은 표지의 귀족 명감에 분명히 적혀 있었음에도, 그 누구도 해 아래서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그를 본 사람은 단 한 명, 말과 정원을 맡은 사이사이의 하인뿐이었다. 그는 귀가 너무 멀어서, 더 실무적인 이들은 그를 벙어리라고 여겼고, 날카로운 이들은 그를 반쯤 멍청하다고 단정했다. 마른 체격에 붉은 머리를 한 노동자였으나, 고집스러운 턱과 턱끝, 그리고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푸른 눈동자를 지닌 그는 이스라엘 고우라 불렸다. 그는 버려진 영지에서 유일하게 침묵하는 하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감자를 캐는 데 쏟는 에너지와, 정해진 시간에 부엌으로 사라지는 규칙성은 사람들에게 그를 위해 상급자의 식사를 준비한

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상한 백작이 여전히 성 안에 숨어 있다는 생각도 들게 했다. 만약 사회가 백작이 그곳에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원한다면, 하인은 끈질기게 그가 집에 없다고 주장했다.

어느 날 아침, 프로보스트와 목사가 성으로 소환되었다. 글렌가일가가 장로교도였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원사, 말 관리인, 요리사가 수많은 직업에다 장의사까지 더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고귀한 주인을 관에 박아 넣었다. 이 기묘한 사실이 얼마나 더, 혹은 얼마나 적게 조사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플랑보가 이틀 또는 사흘 전에 북쪽으로 떠난 시점까지, 이 일은 법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쯤이면 글렌가일 경의 시체(만약 그것이 시체가 맞다면)는 언덕 위의 작은 교회 묘지에 오랫동안 안치되어 있었다.

브라운 신부가 어스름한 정원을 지나 샤토의 그림자 밑으로 들어섰을 때,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축축하며 천둥이 치는 듯 묵직했다. 초록빛이 도는 황금빛 석양의 마지막 빛줄기 너머로 그는 검은 인간 실루엣을 보았다. 굴뚝 모양의 모자를 쓴 남자가 어깨에 큰 삽을 메고 있었다. 그 모습은 묘하게도 묘지기 같은 인상을 줬다. 하지만 브라운은 감자 캐는 일을 하던 귀머거리 하인을 떠올렸기에,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농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공식 조사라는 명분 아래 '검은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체면 유지인지,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한 시간의 일을 잃지 않으려는 그들 특유의 절약 정신도 잘 알고 있었다. 신부가 지나갈 때 남자가 놀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본 것도,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계심과 예민함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행동이었다.

문은 플랑보가 직접 열었다. 그는 손에 서류를 든, 쇳빛 회색 머리의 야윈 사내를 데리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크레이븐 경감이었다. 현관은 대부분 비워져 텅 빈 상태였으나, 한두 명의 악명 높은 오길비 가문 사람들이 검은 가발과 변색된 캔버스 속에서 창백하게 비웃는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브라운 신부는, 동맹자들이 긴 참나무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식탁의 한쪽 끝은 엉성하게 적힌 종이들로 뒤덮여 있었고, 위스키와 시가들이 양옆에 놓여 있었다.

나머지 긴 식탁 면적은 간격을 두고 놓인 낯선 물건들로 가득했다. 그 물건들은 그야말로 수수께끼 그 자체였다.

어떤 것은 반짝이는 깨진 유리조각들을 쌓아 올린 것처럼 보였다. 또 다른 것은 갈색 먼지가 높은 산처럼 쌓인 듯했다. 세 번째는 평범한 나무 막대기처럼 보였다.

"여기 지질학 박물관 같은 게 있군요." 그가 앉으며 말했다. 갈색 먼지와 결정 조각들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짧게 끄덕였다.

"지질학 박물관은 아닙니다." 플랑보가 대답했다. "심리학 박물관이라고 해야겠군요."

"세상에, 그러지 맙시다." 경찰 형사가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어려운 말부터 시작하지는 맙시다."

"심리학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오?" 플랑보가 친근한 놀람을 담아 물었다. "심리학이란, 곧 미친다는 뜻이오."

"그래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은 대답했다.

"글쎄," 플랑보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글렌가일 경에 대해 알아낸 건 단 한 가지야. 그는 미친 사람이었지."

고우의 검은 실루엣이 창문을 지나갔다. 높은 모자를 쓰고 삽을 든 그의 형체가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비쳤다. 브라운 신부는 무표정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남자한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을 거야. 안 그랬으면 스스로를 살아 묻지도, 죽어서 그렇게 서둘러 묻히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왜 그게 광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플랑보가 말했다. "크레이븐 씨가 집에서 찾아낸 것들의 목록을 들어보시오."

"촛불을 가져와야 합니다." 크레이븐이 갑자기 말했다. "폭풍이 일고 있어서, 너무 어두워 글씨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기이한 수집품들 중에, 양초 같은 건 없었나요?" 브라운 신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플랑보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어두운 눈빛으로 친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것도 이상하군요." 그가 말했다. "양초가 스물다섯 자루인데, 촛대는 자취조차 없으니까요."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왔다. 브라운 신부는 식탁을 따라 걸어가, 다른 증거품들 틈에 놓인 한 다발의 밀랍 양초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실수로 붉은 갈색 먼지 더미 위에 몸을 기울였다. 그러자 날카로운 재채기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터져 나왔다.

"허!" 그가 말했다. "코담배잖아!"

그는 양초 하나를 집어 조심스레 불을 붙인 뒤, 다시 돌아와 위스키 병 목에 꽂았다. 불안정한 밤바람이 헐거운 창문을 통해 불어닥쳤고, 긴 불꽃은 깃발처럼 흔들렸다. 성 주변에서는 수마일이나 되는 검은 소나무 숲이 바위를 둘러싼 검은 바다처럼 거세게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크레이븐이 진지한 표정으로 종이를 하나 들어 올리며 말을 시작했다. "우리가 성에서 발견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던 물건들의 목록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이 대체로 해체되고 방치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방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거주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소박했지만 비위생적이지는 않았

습니다. 그 사람은 하인 고우가 아니었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서. 매우 방대한 양의 보석 더미였다. 거의 모든 것이 다이아몬드였고, 모두 세팅 없이 그대로의 상태였다.

물론 오길비 가문에 가보가 있을 법하다. 하지만 그런 보석들은 대체로 특정한 장신구에 세팅되어 있는 것이 상례다. 오길비 가문의 보석들은 마치 동전 주머니에 동전을 넣듯, 세팅도 없이 주머니에 넣어 둔 듯하다.

두 번째 단서다. 산더미 같은 흩어진 코담배. 뿔통에 넣지도, 주머니에 넣지도 않았다. 대신 벽난로 난로판 위, 사이드보드 위, 피아노 위, 어디에나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노신사는 주머니를 뒤지거나 뚜껑을 여는 귀찮은 일을 아예 하지 않는 듯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집안 곳곳에서 기묘한 작은 금속 조각 무더기들이 발견되었죠. 어떤 것은 강철 용수철처럼 생겼고, 어떤 것은 미세한 바퀴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기계 장난감을 해부해 놓은 것 같았죠."

"네 번째 단서. 병목에 꽂아야 할 수밖에 없는 밀랍 양초들입니다. 꽂을 만한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기이하다는 점을요. 우리가 준비된 것은 중앙의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한눈에 마지막 백작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우리

가 여기 온 이유는 그가 정말로 여기서 살았는지, 정말로 여기서 죽었는지, 그리고 그의 장례를 치른 그 빨간 머리의 허수아비 같은 자가 그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 최악의 경우, 즉 가장 극적이고 멜로드라마틱한 해결책을 가정해 봅시다. 하인이 정말로 주인을 살해했거나, 주인이 실제로 죽지 않았거나, 주인이 하인으로 분장했거나, 하인이 주인 대신 묻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윌키 콜린스의 비극을 무엇이든 만들어내 보세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촛대 없는 양초를 설명할 수 없으며, 왜 좋은 가문의 노신사가 피아노에 코담배를 자주 흘리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가장자리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코담배와 다이아몬드, 밀랍, 그리고 헐거운 시계 장치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보이는군요," 사제가 말했다. "이 글렌가일은 프랑스 대혁명에 격분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구왕정(ancien regime)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부르봉 왕가의 마지막 시절 가정을 그대로 재현하려 애썼다. 18세기 사치품이었던 코담배를 썼고, 18세기 조명 수단인 양초를 사용했다. 철제 기계 부품들은 루이 16세의 자물쇠 취미를 반영한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상징하는 것이다."

다른 두 사람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기이한 생각입니다!" 플랑보가 외쳤다. "그게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실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다만, 당신은 코담배와 보석과 시계 장치와 양초를 연결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죠. 저는 그 연결고리를 손쉽게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탑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러곤 입을 열었다.

"글렌가일 백작은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더 어두운 삶을 살았죠. 무모한 침입자 말입니다. 그는 촛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등불 속에 잘라 넣은 짧은 양초뿐이었으니까요. 그가 사용한 코담배는 프랑스의 치명적인 범죄자들이 후추를 쓰듯 했습니다. 즉, 잡으려는 자나 추격자의 얼굴에 갑자기 뭉쳐 던져버리는 용도로요.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다이아몬드와 작은 강철 바퀴의 기묘한 일치점에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와 작은 강철 바퀴는 유리를 잘라내는 데 쓸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도구입니다."

찢어진 소나무 가지가 격렬한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 뒤의 창문을 강타했다. 도둑이 창문을 부수려 드나드는 듯한 흉내였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브라운 신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다이아몬드와 작은 바퀴." 크래븐이 생각에 잠겨 되뇌었다. "그게 당신을 그 설명이 맞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전부인가요?"

"진짜 해답은 아닌 것 같소." 신부는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네 가지 단서를 연결할 사람이 없다고 했지. 진짜 사연은 아마도 훨씬 평범할 거야. 글렌가일 경이 자신의 영지에서 보석을 찾았거나, 찾았다고 생각했을 거야. 누군가가 성의 동굴에서 나온 보석이라고 속여 그 반짝이는 돌들을 건넸겠지. 그 작은 바퀴들은 다이아몬드 연마용 기구일 거야. 그는 목초지나 험준한 산지에서 일하는 몇몇 목동들의 도움을 받아, 대충 간단하게 작업을 했을 거야. 스코틀랜드 목동들에게는 코담배가 최고의 향락품이지. 그들을 매수하려면 코담배로만 충분해. 그들은 촛대를 사용하지 않았어. 필요 없었으니까. 동굴을 탐험할 때는 손으로 촛불을 들고 다녔지."

"그게 다야?" 플랑보가 긴 침묵 끝에 물었다. "드디어 지루한 진실을 마주한 건가?"

"아니요, 신부님."

바람이 가장 깊은 소나무 숲 끝에서 긴 웃음소리처럼 잦아들 때, 브라운 신부는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말했다.

"그렇게 말한 건, 당신도 코담배를 시계 장치와, 촛불을 보석과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철학이 열 가지라면 우주를 설명할 수 있고, 거짓된 추측이 열 가지라면 글렌가일 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성이든 우주든, 그 진짜 해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전시물은 없나요?"

크래븐이 웃었다. 플랑보도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나, 긴 식탁을 따라 천천히 걸어나갔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목 등입니다. 물론 교훈적인 것보다는 다채로운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연필이 아니라 연필에서 빼낸 심들이 모인, 흥미진진하지만 다소 어이없는 수집품들이라 할까요. 윗부분이 살짝 갈라진 대나무 막대기도 있습니다. 이 대나무 막대기가 범행에 사용된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범행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유물들은 구식 미사본 몇 권과 작은 천주교 성화들입니다. 오길비 가문이 중세부터 간직해 온 것들일 테죠. 그들의 가문 자부심이 청교도적 신앙심보다 더 강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 물건들을 박물관에 전시했습니다. 기이하게 잘려 있고 훼손된 자국이 특이해서 말입니다."

창밖의 거친 폭풍이 끔찍한 구름 더미를 글렌가일 위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긴 방을 어둠에 잠기게 했다. 브라운 신부는 빛나는 작은 페이지들을 들어 올려 살펴보았다.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그는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크레이븐 씨," 그가 말했다. 열 살은 젊어 보이는 목소리로, "그 무덤을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죠?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이 끔찍한 일의 진실을 규명해야 하니까요. 만약 저라면 지금 바로 출발했을 텐데요."

"이제야?" 놀란 형사가 되물었다. "왜 하필 지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오.”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여기에 떨어진 것은 흘린 코담배나 길가에 굴러다니는 자갈 같은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라면 수백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는 오직 한 가지 이유만이 존재해. 그 이유는 세계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것이오.”

“이 종교화들은 단순히 더럽혀지거나 찢겨지거나 낙서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짓은 지루하거나 편협한 마음이 들었을 때, 아이나 개신도들이 저지르곤 하죠. 하지만 이 그림들은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매우 기이하게 훼손되었어요.”

“ 고대 필사본에서 신의 이름이 들어간 곳마다, 그 이름이 정교하게 도려내졌소. 제거된 것은 그것뿐이오. 또 다른 것은 아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던 후광뿐이었죠.”

“그러니 제 말대로 하시오. 영장을 받고, 삽과 도끼를 챙기시오. 그리고 그 관을 깨뜨리기 위해 올라가 봅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런던 경찰이 물었다.

“말하자면,” 작은 신부가 대답했다. 폭풍의 굉음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살짝 높아졌다. “말하자면, 이 성의 가장 높은 탑 위에 지금 이 순간, 코끼리 백 마리만큼이나 큰 우주의 대악마가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묵시록처럼 울부짖고 있을지도 모르지. 여기엔 어딘가 검은 마법이 숨어 있어.”

"흑마술이오." 플랑보가 낮은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그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무슨 뜻이오?"

"아마도 정말 끔찍한 일이겠지." 브라운이 성급하게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지하실의 그 복잡한 미로를 내가 어찌 다 추리하겠는가?

어쩌면 당신은 코담배와 대나무로 고문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혹은 광인들이 밀랍과 강철 가루를 갈망할지도 모른다. 연필심으로 만든 미친 듯한 약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가장 빨리 푸는 길은 언덕 위로 올라가 묘지로 가는 것이다."

그들은 밤바람이 불어닥쳐 얼굴을 땅에 묻을 뻔할 때까지, 자신이 신부를 따랐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동인형처럼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었다. 크레이븐이 손에 도끼를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주머니에 영장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다. 플랑보는 이상한 정원사의 무거운 삽을 들고 있었고, 브라운 신부는 하나님 이름이 뜯겨 나간 작은 금박 책을 들고 있었다.

언덕을 올라 교회 묘지로 가는 길은 굽이굽이 돌아도 거리는 짧았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니 그 길이 유난히 길고 험하게 느껴

졌다. 눈이 닿는 곳 끝까지, 비탈을 올라갈수록 더 멀리까지 소나무 바다만이 펼쳐졌다. 바람을 받아 모든 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 광활한 몸짓은 허무해 보였다. 마치 그 바람이 사람이 살지 않고 목적도 없는 어떤 행성 주위를 휘감고 도는 것 같았다. 회청색 숲이 무한히 자라난 그 사이로, 모든 이교도적 사물의 마음에 깃든 고대적인 슬픔이 날카롭고 높게 울려 퍼졌다.

깊이 알 수 없는 나뭇잎들의 저승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잃어버려 방황하는 이교도 신들의 비명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그 이성에 벗어난 숲을 헤매다, 결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신들이었다.

"보시게요," 브라운 신부가 낮지만 편안한 어조로 말했다. "스코틀랜드가 존재하기 전부터 스코트인들은 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묘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고대 시절에는 그들은 정말 악마를 숭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친근하게 덧붙였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청교도 신학을 열렬히 받아들인 이유입니다."

"내 친구여," 플랑보가 격분한 듯 몸을 돌리며 물었다. "그 모든 코담배는 대체 무슨 뜻인가?"

"친구여," 브라운이 똑같은 진지한 어조로 대답했다. "모든 진정한 종교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 바로 물질주의라는 점이지. 그리고 악마 숭배도 충분히 진정한 종교야."

그들은 언덕의 초록빛 이마 위로 올라왔다. 거칠게 울부짖는 소나무 숲을 뚫고 드러난, 몇 안 되는 벌판 중 하나였다.

허름한 울타리가 바람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나무와 철사가 뒤섞인 그 울타리는 묘지의 경계를 알렸다.

크레이븐 경위가 무덤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플랑보는 삽 끝을 땅에 꽂고 그 위에 기대어 섰다. 두 사람은 거의 흔들리는 나무와 철사줄만큼이나 몸이 떨리고 있었다.

무덤 끝에는 거대한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었다. 썩어가면서도 회색빛과 은빛을 띠던 그 식물들.

한두 번, 가시풀 씨앗 뭉치가 바람에 터져 지나갈 때마다 크레이븐은 화살이라도 맞은 듯 몸을 움찔거렸다.

플랑보는 삽날을 휘파람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풀밭에 꽂았다. 그리고는 잠시 멈춰 서서, 지팡이처럼 삽대에 기대어 섰다.

"계속 말씀하세요." 사제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찾아내는 게 두렵습니다," 플랑보가 말했다.

런던의 형사가 갑자기 높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 목소리는 대화하듯 가볍고 명랑하게 꾸며낸 것이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자신을 숨겼을까? 뭔가 끔찍한 사정이 있었겠지. 혹시 나병 환자였나?"

"그것보다 더 나쁜 일이야." 플랑보가 말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나병 환자보다 더 나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상상하는 게 아니오." 플랑보가 말했다.

그는 몇 분 동안이나 말없이 무언가를 파헤쳤다. 그러곤 목이 메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제대로 된 형상이 아닐까 봐 무섭습니다."

"그 종잇조각도 아니었습니다, 신부님." 브라운 신부가 고요히 말했다. "우리는 그 종잇조각조차도 무사히 넘겼습니다."

플랑보는 맹목적인 에너지로 파내었다. 그러나 폭풍이 언덕에 연기가 달라붙듯 매달려 있던 질식할 듯한 회색 구름들을 밀어냈고, 별빛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회색 들판을 드러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거친 나무 관의 윤곽을 분명히 알아보지 못했고, 어찌어찌해서 그것을 잔디 위로 뒤집어엎었다. 크레이븐이 도끼를 들고 다가섰다. 엉겅퀴 끝이 그의 몸을 스쳤고, 그는 움찔했다. 그러자 그는 더 단단한 걸음걸이로 나아가, 플랑보와 맞먹는 기세로 도끼질을 하고 비틀며 관 뚜껑을 찢어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회색 별빛에 반짝이며 드러났다.

"뼈입니다." 크래븐이 말했다. 그러고는 "하지만 사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치 그것이 놀라운 일인 양.

"그는 괜찮습니까?" 플랑보가 이상하게도 높낮이가 오락가락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군요." 형사는 목이 메어 말했다. 상자에 담긴 흐릿하고 썩어 가는 해골을 내려다보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플랑보의 거대한 몸이 격하게 떨렸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가 외쳤다, "도대체 왜 그가 괜찮지 않다고 생각했을까? 저주받은 추운 산맥에서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바로 그 검은색, 뇌가 없는 반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온통 숲이고, 그 위로는 무의식의 고대적인 공포가 드리워져 있다. 그것은 무신론자의 꿈과도 같다. 소나무들이 있고, 또 다른 소나무들이 있으며, 수백만 그루의 소나무들이……"

"세상에!" 관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외쳤다. "그런데 저 사람, 머리가 없군."

다른 사람들은 굳어 서 있었지만, 신부는 처음으로 놀라며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다.

"머리가 없네!" 그가 되뇌었다. "머리가 없다니?" 마치 다른 결함이 있을 것처럼 거의 예상하고 있는 듯한 어조였다.

그들의 머릿속을 온통 '글렌가일에서 태어난 무두유아', '성 안에 숨어 있는 무두청년', '고대 복도를 거니는 무두남자', '아름다운 정원을 배회하는 무두남자' 같은 반쯤 멍청한 환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굳어 버린 정신 속에서도 그 이야기의 싹은 트지 못했다. 그 안에 어떤 이치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지친 짐승처럼 어리석게 서서, 우렁찬 숲소리와 절규하는 하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생각이란, 갑자기 손아귀에서 미끄러져 나간 거대한 무엇인 양 느껴졌다.

"무두머리 사내들이 셋이나 있구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이 열린 무덤 주위를 빙 둘러서서."

런던에서 온 창백한 형사가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다, 마치 시골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멈춰 섰다. 하늘을 가르는 길고도 날카로운 비명 같은 바람이 몰아쳤기 때문이다. 그는 손에 쥔 도끼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도끼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는 도끼를 떨어뜨렸다.

"신부님." 플랑보가 거의 쓰지 않던, 어리석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구의 대답은 총이 발사되듯 즉각적으로 터져 나왔다.

"잠이요!" 브라운 신부가 외쳤다. "잠이죠. 우리는 이미 모든 길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들 때마다 모든 사람이 신을 믿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잠은 성사입니다. 믿음의 행위이자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연적인 성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에 내려앉은 것은 드물게 사람에게 닥치는 일입니다. 아마도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크레븐은 벌린 입술을 다물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신부는 대답하며 얼굴을 성으로 향했다. "우리는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찾아보기 드문, 돌진하듯 무모한 걸음걸이로 그들 앞의 길을 내려갔다. 그들이 다시 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강아지처럼 순진하게 잠에 빠져들었다.

수면의 신비로움을 찬양하면서도, 브라운 신부는 침묵의 정원사 말고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다. 그는 부엌 정원에서 말없이 일하는 정원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큰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다. 새벽 무렵, 요동치던 폭풍은 쏟아지는 비로 끝났고, 날은 묘한 청량함과 함께 밝아졌다. 정원사는 마치 무언가와 수다를 떨던 것처럼 보였지만, 형사들을 보고는 괘씸한 듯 삽을 배추밭에 꽂아 세웠다. 그리고는 아침 식사에 대한 말을 남긴 채 배추 줄 사이를 지나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사람, 일꾼으로 훌륭하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감자 농사는 정말 일품이야." 그는 차분한 자비심을 담아 덧붙였다. "하지만 결점도 있지. 우리 모두 결점이 있잖아? 그는 이 흙둑을 고르게 파지 않아. 예를 들어, 여기." 그는 갑자기 한곳을 발로 차며 말했다. "저 감자는 정말 의심스럽군."

"왜요?" 크래븐이 물었다. 작은 남자의 그 취미에 살짝 웃음을 띠며.

"그건 의문스럽군."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왜냐하면 고우 영감 자신도 그걸 의심했거든. 그는 이 구석저석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삽을 꽂았지만, 바로 이 곳만큼은 피했다. 그러니 여기엔 아주 훌륭한 감자가 숨어 있을 게 분명해."

플랑보는 삽을 끌어당기더니, 재촉하듯 그 자리에 다시 꽂았다. 흙더미가 갈라지며 나온 것은 감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기괴하게 둥글게 부풀어 오른, 거대한 버섯처럼 보였다. 하지만 삽날이 닿자 차갑고 뾰족한 소리가 났다. 그것은 공처럼 굴러가며, 그들을 향해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었다.

"글렌가일 백작이요," 브라운 신부가 슬픈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는 무거운 표정으로 해골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묵념하던 그는 플랑보에게서 삽을 빼앗았다. "다시 묻어야 해." 그는 말하며 해골을 흙속에 단단히 눌러 넣었다.

그리고는 작은 몸과 거대한 머리를, 땅에 꽂힌 삽의 긴 자루에 기댔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만약 이 마지막 기이함의 의미를 알 수만 있다면……"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거대한 삽 자루에 기대어,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듯 두 손으로 이마를 감쌌다.

하늘의 구석구석이 푸르고 은빛으로 물들며 밝아지고 있었다. 작은 정원의 나무들 사이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마치 나무들 자체가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세 남자는 침묵을 지켰다.

"아, 다 포기하겠습니다." 플랑보가 드디어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내 머리와 이 세상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코담배, 망가진 기도서, 그리고 음악 상자의 내장……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브라운 신부는 곤란한 듯 이마를 찌푸리며, 평소에는 찾아보기 힘든 불쾌한 표정으로 삽자루를 툭툭 치며 타박했다.

"아, 참, 참, 참!" 그가 외쳤다. "그건 참으로 명백해.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나는 코담배와 시계 장치,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을 이해했지. 그 후로 나는 정원사 올드 고우와도 이야기를 나눴어. 그는 자기가 듣지도 못 하고 멍청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 느슨하게 놓인 물건들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내가 잘못 생각한 것도 있었어. 찢어진 미사 경본도 괜찮은 거야. 하지만 마지막 문제는 달라. 무덤을 훼손하고 죽은 자의 머리를 훔치다니—분명히 나쁜 짓이잖아? 분명히 흑마

법이 숨어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코담배와 양초의 단순한 이야기와는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기며 그는 우울하게 담배를 피웠다.

"내 친구여," 플랑보가 차가운 유머를 섞어 말했다. "나를 조심해야 해. 내가 한때는 범인이었으니까. 그 신분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사건을 직접 꾸며냈고, 원하면 즉시 연기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지. 이 탐정이라는 짓은 너무 기다려야 해서 내 프랑스인 특유의 조바심을 건드리네. 나는 평생, 선이든 악이든,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행동해 왔어. 다음 날 아침에는 반드시 결투를 했지. 계산서는 즉시 치렀고, 치과 방문조차 미룬 적이 없어."

브라운 신부의 파이프가 입에서 빠져나와 자갈 길에 세 조각으로 부서졌다. 그는 눈을 굴리며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바로 우둔한 광경 그 자체였다. "주님, 내가 얼마나 멍청한 순무야!" 그는 계속 말했다. "주님, 정말 순무 같아!" 그러고는 약간 어정쩡한 표정으로 웃기 시작했다.

"치과의사라니!" 그가 되뇌었다. "영적인 심연에서 여섯 시간이나 허비하다니, 다름 아닌 치과의사를 생각지 못해서였다니!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생각인가! 친구들, 우리는 지옥 같은 밤을 보냈지만, 이제 해는 떠올랐고 새들은 노래하며, 빛나는 치과의사의 모습이 세상을 위로해 준다."

"이제야말로 이 녀석에게서 실마리를 뽑아내겠다." 플랑보가 앞으로 다가가며 외쳤다. "만약 종교재판소의 고문 수단들을 동원한다면 말이다."

브라운 신부는 햇살이 내리쬐는 잔디밭 위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애절하게 외쳤다.

"제발, 제가 좀 멍청한 짓을 하게 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당신은 모르십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일에는 결코 깊은 죄가 없었다는 것을요. 그저 조금 미쳤을 뿐, 어쩌면."

"그 정도쯤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는 다시 한번 몸을 돌려, 진지한 표정으로 그들을 마주했다.

"이건 범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오히려 기묘하고 굽어진 정직함의 이야기죠. 우리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즉 자신의 몫을 조금도 더 많이 취하지 않은 남자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민족이 종교로 여겨온, 야생적인 삶의 논리를 탐구한 것입니다."

"글렌가일 저택에 관한 그 오래된 지역 동요가……"

여름 나무에 스며드는 푸른 수액이 오길비 가문에겐 붉은 금과도 같으니

그것은 비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기도 했다. 글렌길 가문이 부를 추구했다는 말은, 그들이 실제로 금을 모아들였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들은 금으로 된 장신구와 식기류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사실 그들은 특이한 광증에 사로잡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에서 발견한 모든 물건들을 다시 살펴보자. 금 반지 없는 다이아몬드, 금 촛대 없는 양초, 금 코담배갑 없는 코담배, 금 연필통 없는 연필심, 금 장식 없는 지팡이, 금 시계, 아니 정확히는 금 회중시계가 없는 태엽 장치. 그리고 미치도록 들리는 소리 같지만, 오래된 미사 경본에 새겨진 하느님의 이름과 후광이 진짜 금으로 되어 있었기에, 그것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 미친 진실이 밝혀지는 동안, 정원은 환해지는 듯했고 강해지는 햇살 속에서 풀잎은 한층 더 화사해 보였다. 플랑보가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없어진 게 맞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이어 말했다. "하지만 도난당한 것은 아닙니다. 도둑이라면 이 미스터리를 남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도둑이라면 금 코담배갑과 그 안의 코담배를 모두 가져갔을 것이고, 금 연필꽂이와 속의 연필까지 모두 훔쳐갔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 양심을 가진, 다만 특이한 양심을 지닌 자와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쪽 채소밭에서 저는 그 미친 도덕가를 만났고, 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치볼드 오길비 경은 글렌가일에서 태어난 사람 중 가장 선량한 인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냉혹한 덕성은 인간 혐오증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불성실함을 원망하며, 어찌 된 일인지 모든 인간이 불성실하다고 일반화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선이나 무상 베풂을 불신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그대로 요구하는 인간을 하나라도 찾아낸다면, 글렌가일의 모든 금화를 그에게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도전을 날린 그는, 그 대답이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혼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마을에서 온 귀먹고 멍청해 보이는 소년이 늦게 도착한 전보 한 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글렌가일은 날카로운 농담으로 그 소년에게 새 파딩 동전 하나를 건넸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스름돈을 세어 보니 새 파딩 동전은 그대로 있고, 대신 소버린 금화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우연한 사건은 그에게 냉소적인 추측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 소년은 종족 특유의 끈적한 탐욕을 보일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둑이 되어 동전을 훔쳐 사라지거나, 아니면 보상금이라도 노리고 겸연쩍게 돌아와 동전을 건네거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글렌가일 경은 혼자 살았기에 침대에서 깨어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문 밖에는 그 멍청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년이 가져온 것은 소버린 금화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정확히 십구 실링 십일 펜스 삼 파딩의 거스름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기이한 정밀함이, 광기에 찬 영주의 머릿속에 불처럼 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디오게네스라고 맹세했다. 그는 오랫동안 정직한 사람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한 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내가 그것을 본 적이 있다. 그는 그 소년, 아니 그 기이한 존재를 거대하고 방치된 자신의 저택으로 들여와, 그를 유일한 하인으로 길렀다. 그리고 이상한 방식으로 그의 후계자로 삼았다.

그 기이한 존재가 이해한 것은 오직 두 가지였다. 영주의 고정관념 두 가지였다. 첫째, 법의 문자가 모든 것이라는 점. 둘째, 글렌길의 황금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점. 그는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 정도까진 이해가 간다. 단순한 일이다. 그는 저택에서 황금을 모두 뜯어냈다. 황금이 아닌 것은 한 톨도 가져가지 않았다. 코담배 가루 한 톨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오래된 성화에서 금박을 떼어냈고, 나머지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나는 그 부분까지는 이해했다. 하지만 그 두개골 문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감자 더미 속에 묻힌 인간 두개골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 일로 나는 정말로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던 중 플랑보가 한 마디를 했다.

"괜찮을 거야. 그는 이빨 속의 금을 꺼낸 뒤, 해골을 무덤으로 다시 돌려놓을 거야."

그날 아침 플랑보가 언덕을 넘었을 때, 그는 기이한 한 사람을 보았다. 바로 그 공정한 구두쇠였다. 그는 훼손된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다.

산바람이 불자 그의 목에 감긴 체크무늬 스카프가 날려 올랐다. 그의 머리에는 단정하게 모자가 쓰여 있었다.

잘못된 형태

런던에서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주요 도로 중 일부는 시골 깊숙이 들어갈수록 마치 흐릿하고 끊긴 유령 같은 거리로 변한다. 건물은 곳곳에 큰 틈이 벌어졌지만, 길의 선은 여전히 유지된다. 여기저기에 상가 무리가 나타나고, 울타리로 둘러싸인 들판이나 목장이 이어지며, 유명한 pubs(술집)가 나오고, 시장 정원이나 묘목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는 한 채의 큰 단독 주택이 서 있고, 또 다른 들판과 주점이 이어지는 식이다.

누군가 이런 길 중 하나를 따라 걷다 보면, 시선을 사로잡는 한 채의 집을 지나치게 된다. 그 매력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그의 눈길을 끌기 마련이다.

그것은 길고 낮은 집으로, 도로와 평행하게 늘어서 있다. 벽은 대부분 흰색과 연한 녹색으로 칠해졌고, 베란다와 햇빛 가리개가 달려 있다. 현관 천장에는 구식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우산처럼 기묘한 모양의 작은 돔이 얹혀 있다.

사실 이 집은 전형적인 구식 주택이다. 좋은 의미에서 매우 영국적이고, 부유했던 시절의 클랩햄(Clapham) 스타일처럼 매우 교외적이다.

그런데 이 집은 주로 더운 날씨를 위해 지어진 듯한 인상을 준다. 흰 페인트와 햇빛 가리개를 보고 있으면, 모호하게나마 파가리(모기장 모자)나 야자수까지 떠오른다.

이 느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렵다. 아마도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영국령 인도 출신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집을 지나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없는 매료감을 느낄 것이다. 그곳은 꼭 한 편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처럼 느껴질 테니까. 그리고 그 직감은 맞았다. 곧 알게 될 테지만. 이 이야기는 18××년 오순절 때, 이 집에서 실제로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에 관한 것이다.

성령강림주일 직전 목요일 오후 4시 30분쯤, 그 집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앞문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다. 세인트멍고 교회 브라운 신부가 큰 파이프를 물고 나섰고, 그 옆에는 플랑보라는 키 큰 프랑스 친구가 아주 작은 담배 하나를 물고 따라나섰다.

이 두 사람이 독자에게 어떤 흥미를 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진실은 이 둘이 유일한 볼거리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하얀색과 녹색으로 칠해진 그 집의 앞문이 열릴 때 드러난 것들은 더 있었다.

이 집에는 묘한 특이사항들이 있다. 먼저 이를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독자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 그 문이 열렸을 때 정확히 무엇이 드러났는지를 독자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집은 전체적으로 T자 모양의 평면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가로막대가 유난히 길고, 세로막대는 아주 짧았을 뿐이다.

긴 가로막대는 거리를 따라 늘어선 정면 부분이었다. 중앙에는 현관이 있었고, 높이는 두 층이었다. 집의 주요 공간은 거의 이곳에 모여 있었다.

짧은 세로막대는 현관 바로 뒤쪽으로 뻗어 나갔다. 높이는 한 층에 불과했고, 두 개의 긴 방이 연결된 구조였다. 첫 번째 방은 퀸턴 씨가 기이한 동양풍 시와 로맨스를 집필하던 서재였다.

더 안쪽에 있는 방은 유리 온실이었다. 그곳에는 특이하고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운 열대 꽃들이 가득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면, 그 꽃들은 더욱 화려하게 빛났다.

현관이 열려 있을 때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종종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이며 바라보곤 했다. 그들은 풍부한 장식이 가득한 방들을 지나, 동화 속 무대 전환 장면처럼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줏빛 구름과 황금빛 태양, 진홍빛 별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한없이 선명하면서도 투명했고, 멀리서 빛나는 듯했다.

시인 레너드 퀸턴은 이 효과를 위해 스스로 세심하게 준비했다. 그가 자신의 시들 중 어느 것에서도 이토록 완벽하게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 적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는 색채를 마시듯 마시고 목욕하듯 즐기는 사람이었다. 형식, 더 나아가 올바른 형식까지도 소홀히 할 정도

로 색채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켰다. 바로 그 점이 그의 재능을 동양 예술과 이미지, 즉 동양으로 완전히 이끌었다. 그의 작품은 모든 색이 다 행스러운 혼돈 속으로 떨어지며 아무것도 상징하지도, 가르치려 들지도 않는, 어지러움을 주는 카펫이나 눈부실 듯한 자수 같은 세계를 반영했다. 그는 비록 완전한 예술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을지라도, 인정받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격렬하고 심지어 잔혹한 색채의 난만을 반영하는 서사시와 연애담을 구상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불타는 금빛이나 피빛 구리빛의 열대 하늘이 있었고, 보라색이나 공작 녹색으로 칠해진 코끼리 위에 열두 겹의 터번을 두른 동양의 영웅들이 타고 있었다. 또한 백 명의 흑인도 옮길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보석들이 등장했는데, 그것들은 고대적이고 기이한 빛깔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요약하자면, 그는 서양의 지옥보다 더한 동양의 천국에 빠져 지냈고, 보통 사람이라면 광인이라 부를 만한 동양의 군주들과 어울리며, 본드 스트리트의 보석상이라도 백 명이나 되는 비틀거리는 흑인이 들고 오지 않는 한 진품이라 인정하지 않을 법한 동양의 보석들을 다뤘다.

퀸턴은 재능이 있었지만, 병적인 재능이었다. 심지어 그의 병적인 기질은 작품보다 삶에서 더 두드러졌다. 그는 기질이 약하고 성미가 급했으며, 아편을 이용한 동양식 실험 때문에 건강이 크게 상했다.

그의 부인은 아름답고 성실한 여성이었지만, 사실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처지였다. 그녀는 남편의 아편 중독에는 반대했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이 있었다. 바로 하얀색과 노란색 옷을 입은 인도의

은자였다. 남편은 그 은자를 몇 달 동안이나 집안에 머물게 했고, 그를 자신의 영혼을 동양의 천국과 지옥으로 안내할 버질이라 불렀다.

브라운 신부와 그의 친구는 이 예술가들로 가득한 가정을 벗어나 문턱에 발을 디뎠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이 집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안도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었다. 플랑보는 파리에서 학생 시절 퀸턴을 알고 지냈고, 이번 주말 동안 그들과 친분을 다시 쌓았다. 하지만 최근 플랑보가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는 이제 퀸턴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아편으로 목을 조이고 야한 짧은 시를 양피지에 끄적이는 것은, 플랑보가 생각하는 신사가 타락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정원을 한 바퀴 돌기 전에 문턱에 서 있을 때, 앞뜰의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젊은이가 허둥지둥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그는 머리에 비스듬히 모자를 쓰고, 붉은 넥타이를 어지럽게 매고 있었다. 마치 잠자리에 들 때 넥타이를 그대로 두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작은 지팡이를 흔들며 불안하게 움직였다.

"저기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퀸턴 영감을 만나야 해요.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는 이미 떠났나요?"

"퀸턴 씨는 안에 계실 겁니다." 브라운 신부가 파이프를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뵈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지금 그와 함께 있거든요."

술에 취한 듯 걸음이 어설픈 젊은이가 홀로 넘어져 들어왔다. 동시에 퀸턴의 서재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타났다. 의사는 문을 닫고 장갑을 끼기 시작했다.

"퀸턴 씨를 뵙시겠습니까?" 의사가 차분하게 물었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사실, 절대 안 됩니다. 누구도 그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방금 수면제를 먹였거든요."

"아니, 잠깐만 봐, 친구." 붉은 넥타이를 맨 청년이 의사의 외투 앞자락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내가 완전히 꼼짝 못 해, 정말이야. 나—"

"안 됩니다, 앳킨슨 씨." 의사가 그를 뒤로 물러나게 하며 말했다. "약의 효과를 바꿀 수 있게 되면, 저도 제 판단을 바꾸겠습니다."

그는 모자를 단단히 눌러쓰고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햇살 가득한 거리로 나섰다. 그는 목이 굵고 성품이 온화한 자그마한 남자였다. 작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지극히 평범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능력 있어 보이는 인상을 풍겼다.

모자를 쓴 젊은이가 문밖에 서 있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능숙해 보이지 않았다. 그저 상대방의 외투를 잡아당기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을 몰랐다. 그는 마치 몸이 던져진 것처럼 멍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세 사람이 함께 정원을 지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방금 내가 한 말은 아주 깔끔하고도 명백한 거짓말이었소."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퀸턴은 앞으로 30분 가까이 지나야 수면제를 먹소. 하지만 나는 그 작은 악당, 즉 돈을 빌려주면 절대 갚지 못할 것 같은 그 녀석 때문에 퀸턴이 괴롭힘을 당하게 두지 않을 것이오. 비록 그

가 퀸턴 부인의 오빠이기는 하지만, 그는 더러운 꼬마 사기꾼이오. 반면 퀸턴 부인은 그 어떤 여성보다도 훌륭한 분이지."

"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녀는 착한 여자요."

"그래서 그 괴물이 사라질 때까지 정원에서 기다리려고요. 그제야 퀸턴에게 약을 가지고 들어갈 테니까요. 아킨슨은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문을 잠갔으니까."

"그렇다면 해리스 박사," 플랑보가 말했다. "우리 온실 끝부분을 따라 뒤쪽으로 한 바퀴 돌아볼까요. 그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바깥에서라도 구경할 가치는 있습니다."

"맞아요. 환자 좀 들여다볼 수도 있겠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온실 끝자락, 피처럼 붉은 포인세티아들 사이에 오토만 위에 누우니까요. 그걸 보면 소름이 끼칠 지경이죠. 그런데 당신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요?"

브라운 신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길고 무성한 풀숲에서, 거의 완전히 숨겨져 있던 것을 주워 올렸다. 그것은 기이하고 굽은 동방의 칼이었다. 칼날에는 색색의 보석과 금속이 정교하게 박혀 있었다.

"이게 뭐야?" 브라운 신부가 다소 불쾌한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물었다.

"퀸턴의 것일 거야." 해리스 박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에 온갖 중국 잡동사니를 모아두곤 하니까. 아니면 그가 줄에 묶어둔 그 온순한 힌두인 소유일지도."

"힌두교도라니?" 브라운 신부가 손에 쥔 단도를 계속 바라보며 물었다.

"아, 인도 마술사 같은 거죠." 의사가 가볍게 말했다. "물론 사기꾼이겠지."

"박사님은 마법을 믿지 않으세요?" 브라운 신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원, 세상에! 마술이라고!" 의사가 말했다.

"정말 아름답군요." 사제는 낮고 몽환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색깔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잘못됐어요."

"왜요?" 플랑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무엇이든 좋아요. 추상적으로 보면 그 형태가 잘못됐거든요. 동양 미술을 볼 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색감은 취하게 아름다운데, 형태는 비루하고 못생겼어요. 의도적으로 비루하고 못생기게 만든 거죠. 터키 카펫에서 사악한 것들을 본 적도 있어요."

"세상에!" 플랑보가 웃으며 외쳤다.

"그것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의 글자와 기호입니다. 하지만 그 기호들이 악한 뜻을 담고 있다는 건 압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다. "선들이 고의로 어긋나 있습니다. 뱀이 몸을 구부리며 도망치듯."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의사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플랑보는 조용히 그에게 답했다. "신부님께선 때때로 이런 신비주의적 안개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부님이 그런 상태가 되실 때는 항상 악이 아주 가까이 있을 때뿐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 헛소리!" 과학자가 말했다.

"자, 이것을 보시오." 브라운 신부가 팔을 쭉 뻗어 구부러진 칼을 들어 올렸다. 마치 반짝이는 독사를 손에 든 듯했다. "모양이 이상하지 않소? 이 칼은 단호하고도 소박한 목적을 지니지 못했소. 창처럼 뾰족하지도 않고, 낫처럼 넓게 휘어 있지도 않소. 무기로는 보이지 않소. 오히려 고문 기구처럼 느껴지오."

"좋아하지 않으시는 모양이군요." 활달한 해리스 형사가 말했다. "그럼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 성가신 온실 끝자락에 다 다랐나요? 이 집은 모양이 이상해요, 뭐."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브라운 신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집 모양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오히려 웃길 지경이죠. 하지만 잘못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온실 끝을 감싸는 유리 곡선 너머로 돌아섰다. 그 끝에는 문도 창문도 없어 출입할 길이 없었기에, 유리는 끊어지지 않는 한 줄기로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유리는 맑았고, 해는 이미 서쪽 하늘로 기울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안쪽의 화사하게 피어오른 꽃들뿐만 아니라, 갈색 벨벳 코트를 입은 시인의 연약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는 소파에 나른하게 누워 있었고, 아마도 책 읽다가 반쯤 잠이 든 듯했다.

그는 창백하고 마른 사내였다. 헐거운 갈색 머리와 턱수염이 그의 얼굴을 장식하고 있었는데, 그 수염은 역설적으로도 그를 덜 남성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세 사람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지금 그들이 퀸턴을 바라보았을지는 의문이다. 그들의 시선은 다른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그들의 발길 앞, 유리 건물의 둥근 끝부분 바로 바깥에는 키 큰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옷자락은 발끝까지 흐르듯 내려앉아 흠집 하나 없는 순백을 이루었고, 맨살이 드러난 갈색 두개골과 얼굴, 목은 석양의 햇살에 반짝이며 장엄한 청동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유리 너머로 잠들어 있는 이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산맥만큼이나 움직이지 않았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브라운 신부가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나며 외쳤다.

"아, 저 힌두 협잡꾼일 뿐이야." 해리스가 투덜거렸다. "하지만 저 녀석이 왜 여기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

"마치 최면처럼 보이네요." 플랑보가 검은 수염을 깨물며 말했다.

"너희 비의료인들은 왜 항상 최면에 관한 헛소리를 늘어놓느냐?" 의사가 외쳤다. "그건 차라리 도둑질에 훨씬 가까워 보인다."

"어쨌든 그에게 말을 걸어보지." 항상 행동을 중시하는 플랑보가 말했다. 그는 한 번의 긴 걸음걸이로 인도인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 동양인보다도 훨씬 큰 키를 자랑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평온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 필요하신 것이라도?"

거대한 배가 항구로 들어가는 듯, 그 거대한 노란 얼굴이 천천히 돌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흰 어깨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놀랐다. 노란 눈꺼풀이 잠든 사람처럼 완전히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 그 얼굴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을 반쯤 뜨며, 진주빛 눈동자가 비칠 만큼만 틔웠다. 그는 다시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눈을 크게 뜨고 놀랄 만큼 날카롭게 응시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어두워지는 정원으로,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내며 사라져 갔다.

"기독교인은 더 겸손하오," 브라운 신부가 중얼거렸다. "그는 무언가를 원하니까."

"도대체 그 녀석이 뭘 하고 있는 거지?" 플랑보가 검은 눈썹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태양빛은 아직 현실이었지만, 그것은 저녁의 붉은 빛이었다. 정원의 나무와 관목들은 그 빛을 배경으로 점점 더 검게 변해갔다. 그들은 온실 끝을 돌아 다른 쪽으로 걸어가 정문으로 향했다. 걸어가자마자 마치 새를 놀라게 하듯, 연구실과 본관 사이의 깊은 구석에서 무언가가 깨어난 듯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흰 가운을 입은 파키르가 그림자 속에서 미끄러져 나와 정문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갑자기 멈춰 서서 혼란을 떨쳐내야 했다. 황혼 속에서 퀸턴 부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거운 금발과 네모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소 엄숙해 보였지만, 전혀 무례하지 않았다.

"저녁 잘 보내셨습니까, 해리스 박사님." 그녀가 건넨 말은 그것뿐이었다.

"안녕하세요, 퀸턴 부인." 작고 건장한 의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곧 남편님께 수면제를 드리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제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우아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 여자는 지나치게 몰아붙여졌지,"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런 여자들은 스무 해 동안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다가, 어느 순간 끔찍한 일을 저지르곤 하니까."

작은 의사가 처음으로 그에게 흥미로운 눈빛을 보냈다. "당신은 의학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알아야 합니다." 신부가 대답했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알아야 하니까요."

"음," 의사가 말했다. "나 퀸턴에게 약을 주러 갈게."

그들은 정면 외관의 모퉁이를 돌아 앞문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를 세 번째로 목격했다. 그는 정면 문으로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서재에서 막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의 근접감이었다. 그러나 서재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브라운 신부와 플랑보는 그 기묘한 모순을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다. 해리스 박사는 불가능한 일에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늘 나타나던 아시아인을 내보낸 뒤, 발걸음을 재촉하며 현관으로 나섰다.

그곳에서 그는 이미 잊고 있던 한 인물을 발견했다. 공허한 눈빛의 앳킨슨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두툼한 지팡이로 여기저기를 건드리며 중얼거렸다.

박사의 얼굴이 혐오와 결의로 일그러졌다. 그는 옆에 있던 이에게 재빨리 속삭였다.

"이 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다시 잠그야 해. 하지만 나는 2분 안에 다시 나올게."

의사는 재빨리 문을 열고 다시 잠갔다. 뒤따라오려던 중산모를 쓴 젊은이의 엉성한 추격을 간신히 피한 것이었다. 젊은이는 성내며 현관 의자에 몸을 던졌다. 플랑보는 벽에 걸린 페르시아 양각 그림을 바라보았고, 브라운 신부는 마치 몽롱한 듯 멍하니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약 사 분 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앳킨슨이 더 빨랐다. 그는 앞으로 뛰쳐나가 문을 잠시 열어 둔 채 외쳤다.

"아, 잠깐, 퀸턴, 내가--"

서재 반대편에서 퀸턴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그는 피곤한 웃음을 지으며, 하품과 비명을 섞은 듯한 소리로 말을 건넸다.

"아, 네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 가져가. 나 좀 내버려 둬. 나는 공작에 대한 노래를 쓰고 있는 중이야."

문이 반쯤 닫히려는 순간, 반 소버린 동전이 구멍 사이로 날아들었다. 앳킨슨이 앞으로 넘어지며 놀랄 만큼 민첩하게 그것을 받아냈다.

"그렇다면 결정됐군." 의사가 그렇게 말하며, 문을 거칠게 잠그고는 앞장서서 정원으로 나섰다.

"이제 레오나드는 조금은 평화를 찾을 수 있겠군요." 신부에게 그가 말했다. "그는 혼자 방에 갇혀 한두 시간 동안이나 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제가 대답했다. "우리가 그를 떠날 때 그의 목소리는 꽤 상쾌해 보였거든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정원을 두루 둘러보았다. 아킨슨이 허물어진 차림으로 서서 주머니 속의 반 소버린 동전을 딸랑거리고 있었다. 그 너머, 보랏빛 황혼 속에는 인도인이 풀밭 언덕 위에 똑바로 앉아 해가 지는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갑자기 물었다.

"퀸턴 부인은 어디 있소?"

"그녀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림자 가리개에 비친 그림자가 바로 그녀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고개를 들어, 가스등 불빛에 비친 어두운 실루엣을 찌르는 듯한 시선으로 살폈다.

"네, 그 그림자가 맞습니다." 그는 몇 걸음 걷더니 정원에 놓인 벤치에 주저앉았다.

플랑보가 그 옆에 앉았다. 하지만 의사는 다리에 의지해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황혼 속을 걸어갔고, 두 친구는 혼자 남게 되었다.

"아버지," 플랑보가 프랑스어로 물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브라운 신부는 반 분이나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곤 입을 열었다. "미신은 종교적이지 못하지만, 이 곳 공기가 묘하다. 그 인도인 때문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는 침묵에 잠겼다. 멀리서 바라본 인도인의 윤곽이 여전히 기도하듯 굳게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브라운 신부가 지켜보니 그 남자가 아주 미세하게, 리듬감 있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둑한 정원 길로 서서히 기어오며 낙엽을 살랑거리게 하는 바람이, 어두운 나뭇가지 끝을 살짝 흔들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

하늘은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처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 있는 인물들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앳킨슨은 나른한 표정으로 나무 기둥에 기대어 섰다. 퀸턴의 부인은 여전히 창가에 머물러 있었고, 의사는 온실 끝을 거닐고 있었다. 그의 시가 밤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희미하게 빛났다.

반면, 파키르는 여전히 굳게 앉아 있으면서도 몸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 나무들도 함께 흔들리며, 곧 울부짖을 듯했다. 폭풍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인도인이 우리에게 말을 건넸을 때," 브라운 신부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나는 그와 그의 온 우주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고작 세 번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시아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가 다시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의 우주처럼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이 필요 없었고, 어떤 죄악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할 때는, 그의 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가 말 그대로 자신의 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무(無)가 욕망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갈구하듯 아무것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소멸, 즉 모든 것, 혹은 어떤 것의 단순한 파괴를 말입니다."

빗방울 두 방울이 떨어졌다. 이유야 어쨌든 플랑보는 벌떡 놀라 고개를 들었다. 마치 빗방울이 자신을 쏘았기라도 한 듯.

그와 동시에 온실 끝자락에 서 있던 의사가 그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달리는 내내 무언가를 외치며.

그가 폭탄처럼 그들 사이로 튀어나왔을 때, 초조해하던 앳킨슨이 마침 집 정면 가까이를 거닐고 있었는데, 의사가 발작하듯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악행이야! 너, 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개새끼!"

신부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지휘관인 군인의 것처럼 강철처럼 단단했다.

"싸움은 하지 마라." 그가 차분하게 외쳤다. "우리는 원하는 사람을 충분히 붙잡을 수 있어. 의사님, 무슨 일입니까?"

"퀸턴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의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다. "유리를 통해 그를 잠깐 볼 수 있었지만, 그가 누워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떠나기 전과 전혀 다르거든요."

"그분께로 가시죠." 브라운 신부가 짧게 말했다. "앳킨슨 씨는 혼자 두셔도 됩니다. 퀸턴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여기서 멈춰 그를 지켜보겠습니다." 플랑보가 재촉하듯 말했다. "당신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의사와 신부는 서재 문으로 달려가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들은 중앙에 놓인 큰 자단나무 책상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시인이 평소 글을 쓰던 책상이었다. 방 안은 환자용 작은 난로 하나만이 밝히고 있어 어두웠다.

책상 한가운데에는 한 장의 종이만이 놓여 있었다. 분명히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이 분명했다.

의사가 그것을 집어 들었다. 잠깐 훑어본 뒤 브라운 신부에게 건넸다.

"세상에, 저걸 보세요!"

의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로 뒤의 유리 방으로 돌진했다. 그곳에는 끔찍한 열대 식물들이 여전히 석양의 붉은 빛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브라운 신부는 종이를 내려놓기 전, 그 문장을 세 번이나 다시 읽었다.

"나는 자결했다. 그러나 나는 살해당했다!"

글씨는 레너드 퀸턴 특유의, 아니 할 말이 없으리만큼, 더 말하자면 판독조차 어려울 지경인 필체였다.

브라운 신부는 여전히 손에 그 종이를 쥔 채 온실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의술 친구를 마주쳤다. 친구의 얼굴에는 확신과 함께 무너져 내린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끝났습니다." 해리스가 말했다.

그들은 선인장과 진달래가 어우러진,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지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인이자 로맨티스트인 레너드 퀸턴을 발견했다. 그는 오토만 위에 엎드린 채 고꾸라져 있었고, 붉은 곱슬머리가 바닥을 쓸고 있었다. 그의 왼쪽 옆구리에는 정원 한가운데서 주워 놓았던 기묘한 단도가 꽂혀 있었고, 그의 축 처진 손은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

폭풍이 한 걸음에 닥쳐왔다. 콜리지의 시에 나오는 밤처럼, 정원과 유리 지붕은 빗발에 어둠에 잠겼다. 브라운 신부는 시체보다 종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듯했다. 그는 종이를 눈 가까이 대고, 황혼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다. 그러자 그는 종이를 희미한 빛에 비추어 보았다. 그 순간, 번개가 하얗게 빛나 종이가 그 빛에 검게 보였다.

천둥을 동반한 어둠이 몰아쳤다. 이어 그 어둠 속에서 브라운 신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사님, 이 종이는 모양이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리스 박사가 찡그린 얼굴로 물었다.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모서리 하나가 살짝 잘려나간 듯한 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알겠소?" 의사가 투덜거렸다. "이 불쌍한 놈을 옮기자는 거요? 그는 이미 완전히 죽었소."

"아니요." 신부가 말했다. "저는 그대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을 부르죠."

그는 여전히 그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서재로 돌아가는 길, 그는 책상 옆에 멈춰 서서 작은 손톱 가위를 하나 집어 들었다.

"아, 이것으로 그가 그렇게 한 거군."

그가 안도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눈살을 찌푸렸다.

"저 종이 조각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그의 취향이었소. 그가 그런 종이를 수백 장 가지고 있었단 말요. 그는 모든 종이를 저렇게 잘랐단다."

의사는 다른 쪽, 더 작은 책상 위에 쌓아 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설교문 용지를 가리켰다. 브라운 신부는 그쪽으로 다가가 한 장을 들어 올렸다. 역시 같은 불규칙한 모양이었다.

"그렇군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여기, 잘려 나간 모서리들이 보입니다." 그의 동료의 분노를 안고 그는 그것을 세기 시작했다.

"괜찮습니다." 그는 사과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종이 스물세 장을 자르고, 모서리 스물두 개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급해하시는 것을 보니, 다른 이들과 합류합시다."

"누가 아내에게 알리겠습니까?" 해리스 박사가 물었다. "제가 경찰을 부르러 하인을 보내는 동안, 지금 바로 가서 그녀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복도 문 쪽으로 나갔다.

그곳에서도 그는 또 한 편의 희극을 마주했다. 다만 그 희극은 좀 더 기괴한 양상이었다.

그의 거구한 친구 플랑보가,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낯선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단 아래 길바닥에는 다정다감한 앳킨슨이 큰대자로 뻗어 있었다. 그의 부츠는 공중으로 치켜들려 있었고, 중산모와 지팡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길바닥을 굴러가고 있었다.

앳킨슨은 드디어 플랑보의, 거의 부성애에 가까운 감시에서 지쳐버렸다. 그는 플랑보를 쓰러뜨리려 시도했다. 비록 그 왕이 이미 왕좌에서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아파슈의 왕'과 상대하는 일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플랑보는 다시 적을 제압하려 덤벼들려 했다. 그때 신부가 가볍게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앳킨슨 씨와 화해하십시오, 친구." 그가 말했다. "서로 용서를 빌고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하세요. 더 이상 그를 붙잡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앳킨슨이 다소 주저하는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와 지팡이를 챙겨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브라운 신부는 더 진지한 어조로 물었다.

"그 인도인은 어디 있소?"

의사도 그들과 함께 있었기에, 세 사람은 저절로 시선을 돌렸다.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로 황혼의 보랏빛이 드리워진, 풀이 무성한 어두운 둔덕 쪽으로.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갈색 피부의 사내가 기이한 기도를 외우며 흔들리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하지만 인도인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미친 놈 같으니라니!" 의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이제 알겠어. 저 흑인 놈이 범인일 거야."

"당신은 마법을 믿지 않는 줄 알았는데요."

"맞아요, 나도 안 믿었습니다." 의사가 눈을 굴리며 말했다. "나는 그가 가짜 마법사라고 생각했을 때만 해도 그 노란 악마를 증오했습니

다. 하지만 만약 그가 진짜 마법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는 그를 더더욱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도망친 것은 별일 아니야." 플랑보가 말했다. "우리가 그에게 대항해 증명할 것도, 할 수도 없었으니까. 마술이나 자기 암시에 의한 자살 같은 이야기를 parish constable(교구 경찰)에게 하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지."

그 사이 브라운 신부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이제 그는 죽은 남자의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나섰다.

그가 다시 나왔을 때, 얼굴은 다소 창백하고 비장해 보였다. 하지만 그 면담에서 오간 말은, 모든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결코 알려지지 않았다.

플랑보는 의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가 그토록 빨리 자신의 옆에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는 놀랐다. 하지만 브라운은 그 사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의사를 따로 불러냈다. "경찰을 불렀군요?" 그가 물었다.

"네," 해리스가 답했다. "1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요?" 신부는 조용히 물었다. "사실은 이런 기이한 이야기들을 제가 모아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힌두교 친구 사례에서 보듯, 경찰 보고서에 담기에는 너무 특이한 요소들이 종종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보고서 하나를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의 직업은 참으로 명석하군요. 때때로 저는 당신이 이 사건의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알고 있지만,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의 일도 당신의 일처럼 기밀이 필요하지요. 당신이 저를 위해 써 주시는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써 주십시오.”

의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진지하게 경청하던 중, 잠시 신부를 마주 보더니 “알겠소.”라고 말한 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플랑보, 베란다 아래 긴 의자가 있군. 비 피해서 담배나 피며 쉬자고.” 신부가 말했다. “세상에서 너는 내 유일한 친구야.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함께 침묵하며 쉬고 싶기도 해.”

그들은 베란다 좌석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브라운 신부는 평소 습관과 달리 좋은 시가 한 개를 받아들고, 비가 베란다 지붕을 쉼 없이 울리며 빗줄기를 내리치는 사이, 묵묵하게 담배를 피웠다.

“내 친구여,”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사건이오. 아주 이상한 사건이라고.”

“그럴 만도 하지요.” 플랑보가 말하며, 마치 오한이 일어난 듯 몸을 떨었다.

“당신은 그것을 기이하다고 부르지만, 나도 기이하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현대인의 사고는 두 가지 다

른 개념을 혼동하곤 합니다. 하나는 '경이로운 것'으로서의 신비, 다른 하나는 '복잡한 것'으로서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기적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이유 중 절반을 차지합니다. 기적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단순합니다. 기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이나 인간의 의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혹은 마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흘러나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려는 것은, 이 사건이 마법술사인 악한 인디언이 저지른 마술이기 때문에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거나 악마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늘과 지옥만이 어떤 기이한 유혹이 인간의 삶에 스며들어 이상한 죄를 짓게 하는지 알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하듯 그것이 순수한 마법이었다면, 그것은 경이로울 수 있겠지만 신비롭지는 않습니다. 즉, 복잡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적의 본질은 신비롭지만, 그 방식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방식은 단순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폭풍이 다시 거세질 기세다. 희미한 천둥소리처럼 묵직한 울림이 들려왔다. 브라운 신부는 시가를 떨어뜨려 재를 털고 계속 말했다.

"이번 사건에는 뭔가 비뚤어지고 추하며 복잡한 기운이 담겨 있었소. 천국이나 지옥의 직선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달팽이가 남기는 굽이진 자국을 알듯이, 저도 한 인간이 남기는 굽이진 발자국을 압니다."

하얀 번개가 한 번 깜빡이며 거대한 눈을 떴다. 그러자 하늘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신부는 계속 말했다.

이 모든 비뚤어진 것들 가운데 가장 심하게 휘어진 것은 바로 그 종이의 모양이었다. 그 종이는 그를 죽인 단검보다 더 심하게 구부러져 있었다.

"그건 퀸톤이 자살을 자백한 그 종이를 말씀하시는군요," 플랑보가 말했다.

"퀸톤이 '나는 자결했습니다'라고 쓴 그 종이를 말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그 종이의 모양, 내 친구, 그건 잘못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본 적 있는 모양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모양이었죠."

"모서리 하나만 잘려 나갔을 뿐입니다." 플랑보가 말했다. "퀸턴의 모든 종이가 그렇게 잘려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방식이었소. 제 눈에는 아주 나쁜 방식이었구려. 플랑보, 보게나. 퀸톤—신이 그의 영혼을 거두시기를—어떤 면에서는 조금 못된 구석이 없지 않았지만, 그는 정말로 예술가였소. 연필과 펜을 모두 다룰 줄 아는 진정한 예술가라고. 그의 필적은 읽기 어렵기는 했지만, 힘차고 아름다웠지. 제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소. 어떤 것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말하오. 그는 결코 종이에서 저런 비열하고 작은 조각을 잘라내지 않았을 거요. 만약 무언가를 끼워 넣거나 묶기 위해 종이를 자르려 했다면, 그는 전혀 다

른 모양의 가위 자국을 남겼을 테니까. 그 모양 기억나지? 아주 비열한 모양이었소. 잘못된 모양이었지. 바로 이렇듯. 기억나지 않소?"

그는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시가불을 앞쪽으로 휘저었다. 불꽃이 어둠을 향해 불규칙한 네모를 그리며 빠르게 움직였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 플랑보는 마치 그 네모들이 어둠 위에 타오르는 신비한 문자처럼 보인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것은 친구가 말했던 그런 문자와 같았다. 해독할 수 없는 문자. 하지만 결코 좋은 뜻을 담고 있지 않은 문자들.

"하지만," 플랑보가 말했다. 신부는 다시 시가를 입에 물고 등을 기대며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가위를 썼다면요. 그 다른 사람이 설교문 용지를 자른 것이 어떻게 퀸톤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브라운 신부는 여전히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입에서 시가를 빼내며 말했다.

"퀸톤은 결코 자살하지 않았소."

플랑보는 그를 응시했다. "아니, 젠장," 그가 외쳤다, "그럼 왜 그는 자살을 자백했는가?"

신부는 다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팔꿈치를 무릎 위에 얹고 땅을 내려다보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살을 자백한 적이 없다."

플랑보는 시가를 내려놓았다. "당신은 그 글이 위조됐다는 뜻이오?"

"아니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퀸턴이 쓴 게 맞아요."

"자, 보시게." 화가 난 플랑보가 말했다. "퀸톤은 평범한 종이 위에 '나는 자결한다'고 직접 손으로 적어 뒀소."

"모양이 이상하군요." 신부는 차분하게 말했다.

"형체 따위야 알 바 아니야!" 플랑보가 외쳤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잘린 종이 조각이 스물세 개 있었소. 반면 잘려 나간 부분은 스물두 개뿐이요. 그러니 조각 하나, 아마도 글이 적힌 쪽의 조각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소. 그 점이 당신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소?"

플랑보의 얼굴에 희미한 빛이 스쳤다.

"퀸턴이 다른 말도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내 손으로 죽었다고 말할 것이오'라든가, '그렇게 믿지 마라' 같은 말이요."

"아이들이 말하듯, 더 뜨겁군요." 친구가 말했다. "하지만 그 조각은 지름이 반 인치도 안 됐습니다. 한 단어 넣을 공간도 없었으니, 다섯 단어는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지옥불을 품은 남자가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 찢어내야 했던, 콤마보다도 더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군요." 플랑보가 마침내 말했다.

"인용 부호는요?" 신부가 물었다. 그리고 그의 시가를 별이 떨어지듯 어둠 속으로 멀리 던졌다.

다른 남자는 이미 할 말을 다 했다. 브라운 신부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말했다.

"레오나드 퀸턴은 공상가였지. 요술과 최면에 관한 동양물 풍의 소설을 쓰고 있었어. 그는--"

그때 뒤에서 문이 활짝 열리며 의사가 모자를 쓴 채로 나왔다. 그는 긴 봉투를 신부의 손에 쥐여주었다.

"원하시는 문서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잘 자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신부가 말했다. 의사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신부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였기에, 가스등 빛이 그들을 향해 한 줄기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브라운 신부는 봉투를 뜯고 다음 글을 읽었다.

브라운 신부님께,

당신은 이겼소, 갈릴리 사람이여. 아니면, 저주받으리다, 당신의 눈은 매우 날카로운 것이오. 당신의 그 모든 이야기에 결국 정말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어릴 적부터 자연과, 사람들이 선악을 논하든 말든 간에, 모든 자연의 기능과 본능을 믿어온 사람이다. 의사가 되기 훨씬 전, 학교 다닐 적에 쥐와 거미를 기르며 살던 시절부터, 나는 좋은 동물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흔들리고 있다. 나는 자연을 믿었다. 그런데 자연이 사람을 배신할 수도 있는 듯하다.

당신의 그 허튼소리,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 나는 정말로 병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다.

나는 퀸턴의 아내를 사랑했다.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본능이 그렇게 말했고,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돌리는 힘이다.

나는 또한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저 사람을 괴롭히는 작은 미치광이 같은 남편보다, 나 같은 깨끗한 짐승과 함께라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그게 또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나는 과학자처럼 사실에 직면했을 뿐이다. 그녀가 더 행복했을 거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다.

내 신념에 비추어 볼 때, 퀸턴을 죽이는 것은 모든 이, 심지어 퀸턴 본인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었다. 나는 그 일을 저지르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하지만 건강한 한 인간으로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전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까지는 결코 그 일을 저지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기회를 보게 되었다.

오늘 나는 퀸턴의 서재에 모두 세 번 들어갔다. 첫 번째로 들어갔을 때, 그는 오직 자신이 집필 중인 기이한 이야기, 일명 '성인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이 이야기는 한 인도의 은수자가 영국인 대령을 자살하게 만드는 과정을 다루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원고를 보여주었고, 심지어 마지막 단락을 읽어주었다. 그 단락은 다음과 같았다: "펀잡의 정복자, 옅은 노란색의 해골 같았지만 여전히 거대한 그는 팔꿈치로 몸을 일으켜 조카의 귀에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나는 내 손으로 죽지만, 나는 살해당한 것이다!'" 우연히도, 그 마지막 문장은 새로운 용지 위에 적혀 있었다. 나는 방을 나가고 정원으로 나가, 끔찍한 기회를 얻은 듯 흥분했다.

우리는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내 편으로 돌아갈 만한 또 다른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

너는 인도인을 의심했고, 인도인이 가장 자주 사용할 만한 단도를 발견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그 단도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퀸턴의 서재로 돌아가 문을 잠근 뒤, 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퀸턴은 애트킨슨에게 대답하는 것 자체에 반대했지만, 나는 그 녀석을 조용히 시키라고 그를 재촉했다. 내가 방을 두 번째로 떠났을 때 퀸턴이 살아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퀸턴은 온실로 들어가 누웠다. 나는 서재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나는 손놀림이 빠른 편이었다. 1분 반 만에 내가 하려던 일을 모두 끝냈다.

나는 퀸턴이 쓴 로맨스 소설의 첫 부분을 모두 벽난로에 던져 불태웠다. 재가 되어 버렸다. 그러자 따옴표가 눈에 거슬렸다. 그래서 따옴표를 잘라냈다. 그리고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면, 전체 원고를 모두 잘라내어 모양을 맞췄다.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퀸턴의 자백서가 현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린 채로. 반면 퀸턴 자신은 그 너머 온실에 누워, 살아있지만 잠들어 있었다.

마지막 행동은 파국으로 치닫는 절박한 것이었다. 짐작할 수 있겠지. 나는 퀸턴이 죽은 척 연기하며 그의 방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 자백서로 너를 지체시켰고, 손놀림이 빠른 나는 네가 그 자백서를 보고 있는 사이 퀸턴을 죽였다. 그는 마약을 먹어 반쯤 잠든 상태였기에, 나는 그의 손에 칼을 쥐게 한 뒤 그 칼을 그의 몸속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다. 칼 모양이 묘하게 특이해서, 심장을 정확히 찌를 각도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외과 의사뿐이었다. 너는 이 점을 눈치챘는지 궁금하군.

일을 끝내고 나니,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내 본성이 나를 저버린 것이다. 몸이 나빠졌다. 마치 내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내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누군가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으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혼자 이 고민을 안고 살 필요는 없을 거라는, 절박한 안도감을 느꼈다. 대체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미친 건가? 아니면 바이런의 시 속 인물처럼,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걸까? 더 이상 쓸 수 없다.

제임스 에르스킨 해리스.

브라운 신부는 편지를 꼼꼼히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대문의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밖에는 젖은 우비 차림의 경찰관 여러 명이 도로 위에 빛나고 있었다.

사라딘 왕자의 죄

플랑보는 웨스트민스터 사무실에서 한 달 휴가를 얻자마자 작은 요트 한 척을 빌렸다. 그 배는 너무 작아서, 대부분 시간 동안은 노젓는 배로 더 어울렸다. 게다가 그는 동부 지방의 작은 강들에서 그 배를 탔다. 강이 너무 좁고 얕아서, 배는 마치 마법 배처럼 땅 위를 건너는 듯 초원과 옥수수밭 사이를 유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선박은 두 사람이 타기에 딱 알맞았다. 공간은 필수품만 들어갈 만큼 협소했고, 플랑보는 자신의 특별한 철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들로 배를 채웠다. 그가 챙긴 것은 겉보기에 네 가지 필수품으로 줄어든 듯했다. 첫째, 배가 고플 때 먹을 연어 통조림. 둘째, 싸우게 될 때 쓸 장전된 리볼버. 셋째, 기절할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챙긴 브랜디 한 병. 그리고 넷째, 죽을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챙긴 한 명의 사제.

이 가벼운 짐을 등에 업고 그는 노퍽의 작은 강들을 따라 거슬러 올랐다. 궁극적으로는 브로드스(Broads)에 도달할 생각이었지만, 그전까지 그는 가지가 드리워진 정원들과 초원, 거울처럼 비치는 저택이나 마을들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연못과 구석진 곳에 낚시를 하느라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강둑을 꼭 안아주듯 따라 다녔다.

진정한 철학자답게 플랑보는 휴가에 별다른 목표가 없었다. 하지만 진정한 철학자답게 그는 그럴 만한 변명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딘지 모호한 반쯤의 목적을 하나 품고 있었는데, 그 목적의 성공이 휴가를 화려하게 장식할 만큼은 진지하게 여기면서도, 실패하더라도 휴가를 망치게 되지는 않을 만큼은 가볍게 여겼다.

수년 전, 그가 도둑들의 왕이자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군림하던 시절, 그는 격렬한 찬사나 비난, 심지어 사랑에 관한 편지들을 자주 받았다. 하지만 그중 한 통만이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장의 명함 한 장이었다. 영국 소인이 찍힌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명함 뒷면에는 프랑스어로 초록색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은퇴해서 정숙한 사람이 된다면 나를 찾아오시오.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제 시대의 다른 위대한 인물들은 이미 모두 만나보았으니까요. 당신의 그 한 형사를 다른 형사가 체포하게 만드는 그 트릭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명함 앞면에는 격식 있는 서체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사라딘 왕자, 노퍽주 리드 아일랜드, 리드 하우스."

그때까지 그는 그 왕자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남부 이탈리아에서 그가 빛나는 명사였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젊은 시절, 그는 고위 귀부인인 기혼 여성과 도주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사회에서는 그런 탈출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더해져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다. 모욕을 당한 남편이

시실리의 절벽에서 투신자살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이후 왕자는 잠시 빈에서 생활했으나, 최근의 삶은 끊임없이 떠돌며 불안정한 여행으로 채워진 듯했다.

하지만 플랑보 역시 왕자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명성을 뒤로하고 영국에 정착했다. 그는 이 유명한 망명자가 노퍽의 브로드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깜짝 방문을 해볼까 생각했다. 그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곳은 충분히 작고 잊혀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명처럼 그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곳을 찾아냈다.

그들은 한밤중, 키 큰 갈대와 잘려 나간 나무들이 어우러진 제방 아래에 배를 정박시켰다. 힘든 노 젓기 끝에 잠은 일찍 찾아왔고, 우연히도 그들은 아직 밝지 않은 새벽에 깨어났다. 엄밀히 말해, 그들은 낮이 되기 전에 깨어났다. 머리 위 높은 갈대 숲 사이로 커다란 레몬빛 달이 막 지고 있었고, 하늘은 밤이지만 선명한 보라빛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키 큰 잡초들이 우리 주변을 숲처럼 감싸던, 요정 같은 모험의 시절이었다. 이렇게 낮고 큰 달을 배경으로 서 있으니, 데이지는 진짜 거대한 데이지처럼 보였고, 민들레도 거대한 민들레처럼 보였다. 어딘가 어린아이가 쓰는 벽지 바닥 무늬를 연상케 했다. 강바닥이 내려간 덕분에 그들은 모든 관목과 꽃들의 뿌리 아래로 가라앉아, 오직 위를 향해 키 큰 풀들만 바라볼 수 있었다. “세상에!” 플랑보가 말했다. “요정 나라에 들어온 것 같군.”

브라운 신부는 보트 안에서 꼿꼿이 곧추앉았다. 그리고 성호를 그었다. 그의 동작이 너무 갑작스러워 친구가 온화한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일인지.

"중세 발라드를 쓴 사람들은 당신보다 요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소," 사제가 대답했다. "요정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요."

"헛소리야!" 플랑보가 말했다. "이토록 순진한 달빛 아래에서는 오직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날 수 있어. 이제 발걸음을 재촉해서,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자. 다시는 이런 달이나 이런 기분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좋소."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난 요정나라에 들어가는 게 항상 잘못된 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소. 단지 항상 위험할 뿐이라고 말했을 뿐이요."

배는 천천히 밝아지는 강물을 따라 올라갔다. 하늘의 빛나는 보라색과 달의 옅은 금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새벽의 색채가 나타나기 전 그 거대하고 무채색인 우주 속으로 사라져 갔다.

붉고, 금빛이며, 회색의 첫 번째 희미한 줄기들이 지평선 끝에서 끝까지 갈라지자, 그 빛은 바로 앞 강가에 자리한 한 마을의 검은 덩어리에 의해 끊어졌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부드러운 황혼 속으로 들어섰다. 이 강변의 작은 마을에는 처마가 드리운 지붕들과 다리가 있었다.

집들은 길고 낮게 기울어진 지붕을 가지고 있어, 마치 거대한 회색과 붉은 소들이 강가로 내려와 물을 마시는 듯했다.

배가 그 조용한 마을의 부두와 다리를 지나갈 때, 새벽은 이미 넓게 퍼지고 하얗게 변해 일상의 낮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살아있는 생물을 보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은 나른하게 흐르는 물줄기 위에 서 있는 기둥에 기대어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 남자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으며, 얼굴은 방금 진 달처럼 동그랗고, 낮은 아치형 턱선 주변에는 붉은 수염이 뻗어 있었다. 그는 매우 평온하고 번영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분석할 수 없는 충동이 일었다. 플랑보가 흔들리는 배에서 온몸을 펴고 그 남자에게 외쳤다. 그는 리드 아일랜드나 리드 하우스를 아는지 물었다.

번영해 보이는 남자의 미소는 조금 더 넓게 퍼졌고, 그는 단순히 강을 따라 다음 굽이 쪽으로 손을 들어 보였다. 플랑보는 더 이상 말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배는 풀이 무성한 굽이굽이를 여러 번 지나고, 갈대가 우거져 고요한 강물 흐름을 따라갔다. 그러나 그 단조로운 탐색이 지루해지기 전, 배는 특히 급한 코너를 돌아 한적한 연못이나 호수 같은 곳으로 들어섰다. 그곳의 풍경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더 넓어진 물 한가운데, 사방으로 갈대가 둘러쳐진 작은 섬이 있었다. 그 섬을 따라 대나무나 단단한 열대 등나무로 지은 길고 낮은 집이

나 별장이 늘어져 있었다. 벽을 이루는 대나무 기둥은 옅은 노란빛이 돌았고, 지붕을 이루는 기둥은 더 짙은 붉은빛이나 갈색이었다. 그 외에는 긴 집은 반복과 단조로움 그 자체였다.

새벽 바람이 섬 주위의 갈대를 스치며 소리를 냈고, 기묘하게 갈비뼈 같은 구조의 집 안에서는 거대한 팬파이프가 울리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상에!" 플랑보가 외쳤다. "정말 여기가 맞군! 정말로 리드 섬이 있군. 만약 리드 하우스가 있다면 바로 여기일 거야. 수염 달린 그 뚱뚱한 남자는 요정일지도 몰라."

"아마도요." 브라운 신부는 공정하게 말했다. "그가 만약 그랬다면, 그는 나쁜 요정이었겠군요."

말을 마치는 순간, 성급한 플랑보가 달그락거리는 갈대밭에 그의 보트를 갖다 댔다. 그들은 길고 기묘한 작은 섬에 섰고, 그 옆에는 특이하고 고요한 집이 서 있었다.

그 집은 강과 유일한 선착장을 등진 채 서 있었다. 정문은 반대편에 있어, 길게 뻗은 섬 모양의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따라서 방문객들은 집 주변을 거의 세 면이나 도는 좁은 길을 따라, 낮은 처마 밑을 스치듯 다가갔다.

그들은 세 면에 있는 세 개의 다른 창문을 통해, 같은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 방은 밝은 나무로 판넬을 입히고 거울을 많이 걸어두었으며,

우아한 점심 식사를 준비한 듯 차려져 있었다. 드디어 정문까지 돌아왔을 때, 문 양쪽에는 터키석색 꽃병 두 개가 놓여 있었다.

문을 연 것은 좀 더 우울한 유형의 하인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몸매에 회색빛이 돌며, 활기 없이 중얼거렸다. 사라딘 공이 현재 외출 중이지만, 곧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공과 그의 손님들을 위해 집안 전체를 항상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었다.

녹색 잉크로 쓴 글씨가 적힌 명함을 내보이자, 우울한 하인의 양피지 같은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는 떨리는 정중함으로, 두 낯선 이가 머물 것을 권했다.

"전하께서 언제든 오실 수 있습니다. 그가 초대하신 신사를 막 만나지 못해 슬퍼하실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전하와 그분들의 친구들을 위해 항상 간단한 찬 음식을 준비해 두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전하께서 그것을 대접하기를 원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플랑보는 우아하게 허락하며, 노인을 따라갔다. 노인은 정중한 태도로 그를 길고 벽면이 가볍게 판자로 마감된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다만, 길고 낮은 창문과 길고 낮은 직사각형 거울이 번갈아 배치된 점이 특이했다. 그 배치가 공간에 묘한 가벼움과 허약함을 더했다. 마치 야외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구석에는 조용한 분위기의 그림이 하나둘 걸려 있었다. 하나는 제복을 입은 매우 젊은 남자의 큰 흑백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긴 머리를 한 두 소년의 빨간 크레용 스케치였다.

플랑보가 군복을 입은 그 남자가 왕자 본인인지 물었다. 하인은 짧게 부정했다. 왕자의 동생, 스티븐 사라딘 대위라고 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노인은 갑자기 말이 끊겨 버렸다. 더 이상 대화를 나눌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점심자리가 끝난 뒤에는 정교한 커피와 리큐어가 나왔고, 손님들은 정원과 서고, 그리고 가정부를 소개받았다. 그녀는 어둡고 단정한 미모의 여인이었으며, 위엄이 서려 있었고, 어쩌면 명부(冥府)의 성모 마리아와도 닮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녀와 집사만이 공작이 데려온 원래의 외국인 가신들 중 살아남은 유일한 존재였다. 지금 집안에 있는 다른 하인들은 모두 새로 모인 사람들이었고, 그중 대부분은 가정부가 노퍽에서 모아온 이들로 보였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앤서니 부인이었지만, 그녀는 약간 이탈리아식 억양으로 말을 했다. 플랑보는 앤서니라는 이름이 라틴어 이름의 노퍽식 변형일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집사인 폴 씨도 약간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의 말투와 훈련은 완전히 영국식이었다. 세계화된 귀족 사회에서 가장 세련된 남성 하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렇듯, 그는 영국인이었다.

그곳은 아름답고 독특한 곳이었지만, 어딘지 모를 기이하고 빛나는 슬픔이 감돌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흘러도 하루가 아닌 몇 날처럼 느껴졌다. 창문이 많고 긴 방들은 햇살로 가득 찼지만, 그 빛은 마치 죽은 듯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른 잡음들, 즉 사람들의 수다 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하인의 발소리 사이로 집 주변을 흐르는 강물의 슬픈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져 잘못된 곳에 도착했군요." 브라운 신부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회녹색 갈대와 은빛 물결이 펼쳐진 풍경이었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곳에 올바른 사람이 서면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죠."

브라운 신부는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묘하게도 공감 가는 작은 사내였다. 그 짧지만 길게 느껴지던 시간들 동안, 그는 전문적인 친구보다도 의식하지 못한 채 리드 하우스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수군거림에 꼭 필요한, 친근한 침묵의 재주가 있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이 말해 줄 만한 모든 것을 아마도 새 지인들로부터 모두 얻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하인 폴은 본질적으로 말이 없었다. 그는 주인에게 우직하고 거의 동물적인 애정을 드러냈다. 주인이 매우 심하게 대우받았다고 그는 말했다. 가장 큰 원흉은 왕자의 형제로 보였다. 그 이름만으로도 노인의 길쭉한 턱은 더 늘어지고, 앵무새 코는 비웃음으로 찌푸려졌다. 스티븐 대위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자선적인 형제

에게 수백, 수천 파운드를 탕진했고, 형제에게 사교계를 피하고 이 은신처에서 조용히 살도록 강요했다. 이것이 하인 폴이 말한 모든 것이었고, 폴은 분명 편파적이었다.

이탈리아인 가정부는 좀 더 말이 많은 편이었다. 브라운 신부가 짐작하건대, 그녀는 주인에 대해 그리 만족해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주인에 대해 미묘하게 신랄하면서도, 동시에 일종의 경외감을 담은 어조로 말했다.

플랑보와 그의 친구는 거울 방에서 두 소년의 빨간 크레용 스케치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때 가정부가 집안일 때문에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이 반짝이는 유리 패널 방의 특이한 점은, 들어서는 사람이 네다섯 개의 거울에 동시에 비친다는 것이었다. 브라운 신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하던 문장 중간에 멈춰 섰다.

그러나 그림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던 플랑보는 이미 큰 소리로 말했다.

"사라딘 형제들인가 보군. 둘 다 무척 순진해 보인다. 어느 형이 착한 형이고, 어느 형이 나쁜 형인지 가리기 어렵겠군."

그리고 그는 여성이 있는 것을 깨닫자, 어설픈 잡담으로 화제를 돌리고는 정원으로 나갔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여전히 그 빨간 크레용 스케치를 똑바로 응시했다. 앤서니 부인 역시 브라운 신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크고 비극적인 갈색 눈을 하고 있었다. 올리브빛 얼굴에는 기이하고도 고통스러운 경외감이 어둡게 타올랐다. 낯선 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 작은 신부의 옷차림과 신념이 남쪽의 고백에 대한 어떤 추억을 건넸는지, 아니면 그녀가 그가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녀는 그를 공범자처럼 낮게 속삭였다.

"당신의 친구는 한 가지 면에서는 옳습니다. 그는 선한 형제와 악한 형제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로, 아주 어렵게도, 선한 이를 가려내는 일은."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하며 몸을 돌렸다.

여자는 그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잔뜩 찌푸린 눈썹과, 마치 소가 뿔을 낮추듯 한 야수적인 구부림을 보이며.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녀가 낮게 내뱉었다. "대위가 그 돈을 다 가져간 건 나쁜 일이지만, 왕자가 그 돈을 준 것도 그리 착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대위만 켕기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직자의 고개를 돌린 얼굴에 희미한 빛이 스쳤다.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협박'이라는 단어를 형성했다. 그 순간, 여성이 갑자기 하얗게 질린 얼굴을 뒤로 돌리며 거의 쓰러질 뻔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고, 창백한 폴이 유령처럼 문턱에 서 있었다. 반사 벽의 기이한 효과로 인해, 다섯 명의 폴이 동시에 다섯 개의 문을 통해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

"전하께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의 그림자가 첫 번째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햇살이 쏟아지는 유리창을 등불 켜진 무대처럼 가로질러 간 것이다. 곧이어 그는 두 번째 창문 앞을 지나갔고, 방 안의 수많은 거울들이 그 모습을 연이어 비추었다. 거울마다 같은 독수리 같은 옆모습과 행진하는 형상이 반복되어 그려졌다.

그는 꼿꼿하고 날카로운 기색이었지만,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피부는 묘한 아이보리빛 노란빛을 띠고 있었다. 긴 볼과 턱을 가진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짧고 굽은 로마식 코를 가졌으나, 수염과 입수염이 그 윤곽을 가려버렸다. 수염은 턱수염보다 훨씬 짙어서, 약간 연극적인 인상을 주었다. 그는 그 연극적인 역할에 꼭 어울리는 차림새였다. 흰색 톱햇을 쓰고 코트에는 난초를 꽂았으며, 노란 조끼와 노란 장갑을 착용했다. 걸을 때마다 그는 장갑을 펄럭이며 흔들었다.

그가 현관문 앞으로 돌아왔을 때, 굳은 표정의 폴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새로 온 이가 쾌활하게 말했다. "자, 내가 왔잖소."

굳은 표정의 폴 신사는 침묵을 지키며 고개를 숙였다. 몇 분 동안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하인이 말했다. "모든 것이 귀하께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펄럭이던 사라딘 공이 신나게 방 안으로 들어와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유령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다섯 개의 문이 달린 방으로 들어오는 다섯 명의 공작들.

왕자는 하얀 모자와 노란 장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아주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플랑보 씨, 여기 계셔서 반갑습니다. 평판으로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실례되는 말씀이라면 죄송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플랑보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예민하지 않아요. 순결한 덕행만으로 명성을 얻는 이는 드물죠."

왕자는 그 말이 자신에 대한 비꼼인지 확인하듯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역시나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도 포함해 모두에게 의자를 권했다.

"아주 아담하고 좋은 곳인 것 같소." 그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낚시는 정말로 훌륭하오."

신부는 아기가 누군가를 응시하듯,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할 수 없는 기묘한 상념이 맴돌고 있었다. 그는 회색으로 곱슬거리도록 손질된 머리, 누런 빛을 띤 얼굴, 그리고 다소 사치스러운 차림새의 날씬한 체구를 바라보았다. 이러한 모습들은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다만 무대 조명을 받는 배우의 복장처럼, 조금은 과장된 인상일 뿐이었다.

그의 이름 모를 매혹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얼굴의 구조 자체에 있었다. 브라운은 어딘가에서 이 얼굴을 본 적이 있다는 반쯤 잊힌 기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마치 옛 친구가 분장을 하고 나타난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거울들이 생각났다. 브라운은 이 기묘한 느낌을 인간 가면이 여러 개로 늘어난 심리적 효과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사라딘 공작은 손님들에게 기쁨과 세련된 태도로 사회적 예의를 다졌다. 그는 형사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성격이며 휴가를 적극 활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플랑보와 플랑보의 보트를 이끌고 시내에서 최고의 낚시터로 내려갔다. 그리고 단 이십 분 만에 자신의 카누로 돌아와 도서관에 있던 브라운 신부와 합류했다. 마찬가지로 예의 바르게 신부의 더 철학적인 즐거움에 함께 빠져들었다.

그는 낚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책에도 조예가 깊었다. 다만 그 책들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섯 여섯 개 국어를 구사했지만, 주로 각 언어의 은어나 속어를 사용했다. 그는 분명히 다양한 도시와 이질적인 사회들을 누비며 살아왔다. 그의 가장 즐거운 이야기들 중 일부는 도박장이나 아편굴, 오스트레일리아의 bushrangers(산적), 이탈리아의 brigands(도적)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브라운 신부는 한때 유명한 사라딘이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여행했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 여행이 그렇게 평판이 나쁘거나 그렇게 재미있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사라딘 공작은 세상 물정에 밝은 신사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지만, 신부 같은 민감한 관찰자에게는 불안정하고 심지어 신뢰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얼굴은 신사적이었지만, 눈빛은 wild했다. 그는 술이나 약물에 흔들리는 사람처럼 작은 신경질적 버릇을 가지고 있

었으며, 가사 운영의 지휘봉을 쥐고 있지도, 쥐고 있는 척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일은 두 노종자에게 맡겨졌고, 특히 집사에게 집중되었다. 집사는 명백히 이 집안의 중심 기둥이었다. 폴 씨는 단순한 집사라기보다는 청지기, 혹은 궁정 시종장쯤 되는 존재였다. 그는 사적으로 식사를 했지만, 주인과 거의 맞먹는 품위를 자랑했다. 그는 모든 하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공작에게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상의했다. 마치 공작의 변호인인 양 말이다.

그에 비해 음울한 가정부는 그림자처럼 작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을 지워버린 듯 집사에게만 복종했고, 신부는 동생이 형을 협박했다는 반쯤 드러난 비밀스러운 속삭임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공작이 실제로 부재 중인 대위에게 재정을 빼앗기고 있는지, 신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라딘에게 불확실하고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느껴졌기에, 그 이야기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

창과 거울이 늘어서 있는 긴 복도로 다시 들어섰을 때, 노을빛이 물결과 가느다란 버드가지가 늘어선 강가를 서서히 덮고 있었다. 멀리서 알락해오라기 한 마리가 울어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왜소한 북을 두드리는 요정 같았다.

신부의 마음속을 또다시 어스름한 회색 구름처럼 스쳐 간 것은, 슬프고도 악의에 찬 요정들의 땅에서나 있을 법한 기이한 정서였다.

"플랑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파멸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안절부절하던 사라딘 공작이 물었다.

"아니오," 손님이 대답했다. "저는 종말의 날을 믿습니다."

공작은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해질녘 빛에 얼굴이 어둠에 잠긴 채, 그는 그를 유난히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오?" 그가 물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장막의 뒷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진범에게 내려질 심판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심판이 종종 잘못된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왕자는 동물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냈다. 어둠에 가려진 얼굴에서 그의 눈이 기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의문이 조용히 폭발했다. 사라딘의 빛나는 듯한 기품과 갑작스러운 태도 속에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공작은—그는 정신이 온전히 정상인가?

그는 '잘못된 사람, 잘못된 사람'을 반복하고 있었다. 사회적 예의상 내는 외침치고는 지나치게 많은 횟수였다.

브라운 신부는 늦게야 또 다른 진실을 깨달았다. 거울 속으로 그는 열려 있는 침묵의 문과, 그 문턱에 서 있는 침묵의 폴 씨를 볼 수 있었다. 폴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백하고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가문의 변호사처럼 딱딱하면서도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여섯 명이 노를 젓는 보트가 부두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한 분의 신사가 앉아 계시더군요."

"배라니?" 공작이 되뇌었다. "신사라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놀란 침묵이 흘렀다. 갈대숲 속 새의 낯선 울음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릴 뿐이었다. 아무도 입을 열기 전에, 한두 시간 전 왕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새로운 인물과 형체가 세 개의 햇살 가득한 창문 옆으로 옆모습을 드러내며 지나갔다.

하지만 두 실루엣이 모두 날카로운 코를 가졌다는 우연 외에는,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 사라딘의 새 흰 모자 대신, 낡거나 이국적인 형태의 검은 모자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청결하게 면도한, 단호한 턱선 주변이 푸르게 빛나는, 아주 진지한 젊은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에는 어린 나폴레옹의 미묘한 흔적이 감돌았다.

이 연상은 전체적인 차림새에서 느껴지는 낡고 기이한 느낌 때문에 더욱 강해졌다. 마치 조상들의 유행을 바꾸려 노력하지도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낡은 푸른 프록 코트를 입고 있었고, 군인처럼 보이는 붉은 조끼를 입었으며, 초기 빅토리아 시대에는 흔했지만 오늘날에는

매우 어색하게 어울리지 않는 거친 흰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 낡은 옷가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차림새 속에서, 그의 올리브빛 얼굴은 기이하게도 젊고, 터무니없이 성실해 보였다.

"제기랄!" 사라딘 공작이 소리쳤다. 그는 하얀 모자를 고쳐 쓰고 직접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해 질 녘의 정원을 향해 문을 힘차게 열었다.

"당신의 이름은 사라딘?" 젊은이가 물었다.

사라딘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 온 사람은 눈이 흐릿하고 개처럼 둔탁한 갈색 눈이었다. 그 눈은 왕자의 초조하고 빛나는 회색 눈과 정반대였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또다시 그 얼굴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유리 패널로 된 방의 반복되는 모습을 떠올렸고, 그 우연의 일치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 수정궁이 정말 골치야!" 그는 중얼거렸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너무 자주 눈에 띄네. 꿈만 같아."

"당신이 사라딘 공작이라면, 제 이름은 안토넬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안토넬리." 공작은 나른한 목소리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어딘가에서 그 이름을 들은 것 같군."

"제 소개를 하지요." 젊은 이탈리아인이 말했다.

왼손으로 그는 정중하게 낡은 스타일의 탑햇을 벗었다. 오른손으로는 사라딘 공작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의 손이 공작의 얼굴을 맞았을 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하얀 탑햇은 계단을 굴러떨어졌다. 파란 화분 하나도 받침대 위에서 흔들렸다.

그 공작은 비록 정체가 어떻든, 분명히 겁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적의 목을 향해 덤벼들며 상대를 거의 잔디밭 뒤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적은 기이할 정도로 부적절한, 다급한 예의를 갖춘 태도로 자신의 몸을 빠져나왔다.

"괜찮습니다." 그가 헐떡이며 어눌한 영어로 말했다. "제가 모욕을 했으니,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마르코, 케이스를 열어라."

옆에 서 있던 남자는 귀걸이를 하고 큰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가방의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자루의 긴 이탈리아식 라피어를 꺼냈다. 멋진 강철 손잡이와 날을 가진 그것이었다. 그는 그 검들을 뾰족한 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잔디밭에 꽂았다.

입구를 마주 보고 서 있던 기이한 청년의 얼굴은 누렇게 질리고 복수심에 차 있었다. 잔디밭에 세워진 두 자루의 검은 묘지의 두 십자가처럼 보였다. 뒤로는 일렬로 늘어선 탑들이 보였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야만적인 재판정을 연상시키는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변함이 없었다. 갑작스러운 방해 때문이었다.

해 질 무렵의 금빛 햇살은 여전히 잔디밭에 빛나고 있었다. 알락해오라기는 여전히 울려 퍼졌다. 작지만 끔찍한 운명을 알리는 것처럼.

"사라딘 공작이시여." 안토넬리라는 남자가 말했다.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를 훔쳤습니다. 제게는 아버지가 더 행운아였습니다. 당신은 정정당당하게 그를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정정당당하게 죽일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당신과 악독한 어머니는 아버지를 태워 시실리의 외딴 고개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절벽 아래로 내동댕이친 뒤,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떠났죠. 내가 당신처럼 흉내 낼 수도 있겠지만, 당신을 본받는 것은 너무 추악합니다."

안토넬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나는 전 세계를 뒤지며 당신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늘 나를 피해 도망쳤죠. 그러나 이제 끝입니다. 이 곳이 세상의 끝이자, 당신의 끝입니다."

그는 검 한 자루를 가리켰다. "이제 당신은 내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아버지에게 주지 않았던 기회를 드립니다. 저 검들 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사라딘 공작은 눈썹을 찌푸리며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귀에는 방금 내린 일격의 울림이 아직 맴돌고 있었고, 그는 곧장 앞으로 뛰어들어가 손잡이 중 하나를 움켜쥐려 했다.

브라운 신부도 함께 앞으로 뛰어나와 분쟁을 중재하려 했다. 하지만 곧 신부 자신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임을 깨달았다. 사라딘 공작

은 프랑스의 프리메이슨이면서 격렬한 무신론자였다. 그는 역설의 법칙에 따라 신부를 더 자극했다.

반면 다른 남자에게는 신부든 평신도든 전혀 통하지 않았다. 나폴레옹 같은 얼굴과 갈색 눈을 가진 이 젊은이는 청교도보다 훨씬 더 강경했다. 그는 이교도였다. 그는 지구의 아침부터 존재해 온 단순한 살생자였다. 석기 시대의 인간, 돌과 같은 사내였다.

마지막 희망은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다. 브라운 신부는 집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독재자 같은 폴이 하인들에게 모두 육상 휴가를 줬던 것이다. 긴 복도들 사이를 어둡게 움직이는 것은 앤서니 부인 혼자뿐이었다.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창백하고 섬뜩한 얼굴로 그를 마주했다. 그 순간, 거울의 집이 던진 수수께끼 중 하나가 풀렸다. 안토넬리의 무겁고 갈색이던 눈동자는, 바로 앤서니 부인의 눈동자와 똑같았다.

그리고 단숨에, 그는 이야기의 절반을 꿰뚫어 보았다.

"아드님이 밖에 계십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아끼며 말했다. "아드님이거나 공작 중 한 분이 죽을 것입니다. 폴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부두에 있어요." 여자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가…… 그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앤서니 부인,"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말했다. "농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 친구는 강 하류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보트도 아들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죠. 이 카누가 유일한 수단이 아닙니까. 폴 씨는 이 카누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산타 마리아! 저는 몰라요." 그녀가 말하더니, 짚으로 짠 바닥에 온몸을 펴고 쓰러져 버렸다.

브라운 신부는 그녀를 소파에 눕혔다. 그리고 물동이 하나를 통째로 그녀에게 던져 넣었다. 도움을 외치며 그는 작은 섬의 부두로 내려갔다.

하지만 카누는 이미 강 한가운데에 있었다. 올드 폴은 그 나이에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기운으로 노를 저으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주인을 구해야 합니다!" 그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외쳤다. "나는 그를 반드시 구해 내리!"

브라운 신부는 배가 역류를 헤치고 올라가는 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노인이 제때에 작은 마을을 깨워 주길 기도했다.

"결투라니, 이미 충분히 나쁜 일인데," 그는 거친 가루빛 머리를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번 결투는 결투 자체로도 뭔가 이상해. 뼈저리게 느껴져. 대체 뭘까?"

그는 석양의 물결이 흔들리며 비치는 수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자 섬 정원의 반대편에서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차갑게 부딪히는 강철의 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긴 섬의 가장 끝머리, 마지막 장미 줄기 너머의 잔디밭에서 두 사람은 이미 검을 맞대고 있었다.

그들 위로는 저녁 하늘이 순금빛 돔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디테일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외투를 벗어던졌지만, 사라딘의 노란 조끼와 하얀 머리, 안토넬리의 붉은 조끼와 흰 바지는 수평으로 내려앉는 빛에 비쳐 춤추는 시계 속 인형들의 색채처럼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검 끝은 끝까지 빛나 마치 두 개의 다이아몬드 핀처럼 보였다.

그토록 작고, 그토록 경쾌해 보이는 두 형상이 주는 공포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서로를 코르크 판에 꽂아 고정시키려 애쓰는 두 나비처럼 보였다.

브라운 신부는 온 힘을 다해 달렸다. 작은 다리는 바퀴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일찍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거친 시칠리아 사람들의 그림자 아래, 노를 짚고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싸움을 멈출 수 없었다. 동시에 그 싸움이 어떤 재앙으로 끝날지 미리 예상할 수도 없었다. 두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잘 맞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작은 냉소적인 자신감으로 기술을 휘둘렀고, 시칠리아 남자는 살의에 찬 신중함으로 그에 맞섰다.

갈대 숲이 우거진 강 한가운데 있는 잊혀진 섬 위에서는, 그 격투가 작은 방울처럼 튀고 반짝였다. 과거 혼잡한 원형 극장에서 본 어떤 격투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었다. 이 어지러운 싸움은 오랫동안 균형을 유지했고, 그로 인해 항의하던 사제에게도 희망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확률로 볼 때, 폴은 곧 경찰을 데리고 돌아와야 했다. 만약 플랑보가 낚시에서 돌아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터였다. 육체적으로 봤을 때, 플랑보는 다른 네 명의 남자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랑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더 기이한 것은 폴이나 경찰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떠다닐 수 있는 다른 뗏목이나 나뭇가지는 이미 남아 있지 않았다. 광활하고 이름 없는 연못 한가운데 있는 이 잊혀진 섬에서는, 그들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암초와 마찬가지로 고립되어 있었다.

그 생각을 하려는 순간, 쌍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한 타악음처럼 빠르게 울려 퍼졌다. 공작의 팔이 허공으로 치켜올려지더니, 검끝이 그의 등 뒤 두 어깨뼈 사이로 튀어나왔다. 그는 거대한 회전 운동과 함

께 넘어졌는데, 마치 소년들이 놀이 삼아 반만 돌리는 카트휠처럼 보였다. 그의 손에서 검이 별처럼 날아올라 멀리 있는 강물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는 땅을 흔드는 듯한 거대한 추락과 함께 쓰러졌다. 그의 몸은 큰 장미나무를 부수었고, 하늘로 붉은 흙먼지 구름을 뿜어냈다. 마치 이교도들의 제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시칠리아인은 아버지의 영혼에게 피의 제물을 바친 것이었다.

사제는 즉시 시신 옆에 무릎을 꿇었다. 다만 그것이 진짜 시신인지, 다시 한 번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여전히 마지막의 무의미한 확인 작업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때서야 강 위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되었고, 경찰선이 부두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경관들과 다른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흥분한 폴까지 함께였다. 작은 신부는 뚜렷이 의심을 담은 표정으로 일어섰다.

“도대체 왜,” 그가 중얼거렸다. “도대체 왜 그는 전에 오지 않았을까?”

일곱 분쯤 뒤에 마을 사람들 및 경찰들이 섬을 뒤덮었다. 경찰은 승리를 거둔 결투자를 제압하며, 의식적으로 그에게 "말한 모든 것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남자는 놀랍도록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단지 처형당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를 끌고 갔다. 그는 입을 다물었고, 이상하지만 확실한 진실은 그가 이 세상에서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 한 번, 재판에서 '유죄'라고 말했을 때만 예외였다.

브라운 신부는 갑자기 인파로 가득해진 정원을, 피의 사나이가 연행되는 과정을, 그리고 의사의 검사를 마친 뒤 시신이 옮겨지는 모습을, 마치 끔찍한 꿈이 깨져가는 광경을 지켜보듯 응시했다. 그는 꿈결에 빠진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는 증인으로서 이름과 주소를 알렸지만, 강가로 데려다주겠다는 보트 제안은 거절했다. 그리고 혼자 섬 정원에 남아, 부서진 장미 덤불과 그 빠르고도 불가해한 비극이 펼쳐진 온갖 푸른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강물 위로는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습지 같은 강둑에서는 안개가 피어올랐다. 늦게까지 남아있던 새 몇 마리가 불규칙하게 날아다녔다.

그의 의식 아래, 평소보다 훨씬 생생하게 움직이는 무의식 깊숙한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무언가 아직 풀리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그 느낌은 하루 종일 그를 떠나지 않았다.

브라운 신부는 이를 '거울 나라'에 대한 환상쯤으로 치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는 진짜 이야기를 보지 못한 채, 단지 한 장의 가면극이나 풍자극을 지켜본 것 같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면극을 위해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는다. 또한 칼에 몸이 꿰뚫리지도 않는다.

그는 강변 부두의 계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자 반짝이는 강물 위를 고요히 내려오는, 키가 큰 다크한 돛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며 감정이 밀려와, 그는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플랑보!" 그가 외치며 친구의 양손을 다시 한 번, 또 한 번 꼭 쥐었다. 낚시 장비를 들고 물가로 올라오던 플랑보는 이 광경에 몹시 놀랐다. "플랑보, 그러니 넌 죽지 않았어?"

"살해당했다니요?" 낚시꾼이 큰 놀람을 드러내며 되물었다. "도대체 왜 제가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요." 동료가 약간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사라딘이 살해당했고, 안토넬리는 처형을 원하며, 그의 어머니는 기절해 버렸죠. 그리고 저는요, 제가 이 세상에 있는지 저 세상에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마운 건, 당신도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당황해 있는 플랑보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하선대에서 돌아서서 낮은 대나무 집의 처마 밑으로 들어섰다. 처음 도착했을 때처럼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등불이 밝혀진 내부 풍경은 그들의 시선을 확실히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사라다인을 파멸시킨 자가 벼락처럼 섬에 떨어졌을 때, 긴 식당의 식탁은 저녁 식사가 준비된 채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저녁 식사는 평온하게 진행 중이었다.

앤서니 부인은 다소 불쾌한 표정으로 식탁 끝자락에 앉아 있었다. 반면 식탁 머리에는 집사 폴 씨가 최상의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먹고 마시고 있었다. 그의 흐릿하고 푸르스름한 눈은 이상하게도 얼굴에서 튀어나와 있었고, 마른 얼굴은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지만, 만족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플랑보는 힘차게 짜증을 내며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고는 창문을 억지로 열더니, 등불이 비치는 방 안으로 분개한 얼굴을 내밀었다.

"그래, 당신도 배고플 수 있겠지. 하지만 정원에서 주군이 죽어 누운 틈을 타, 그의 저녁 식사를 훔치다니—"

"오랜 세월 동안 즐겁게 수많은 것을 훔쳐 왔소." 낯선 노신사가 평정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 저녁식사는 내가 훔친 적이 없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요. 이 저녁식사도, 이 집과 정원은 모두 내 것이니까요."

플랑보의 얼굴에 생각이 스쳤다.

"당신은 말하길, 사라딘 공의 유언장이……"

"나는 사라딘 공작입니다." 노인이 짠 아몬드를 씹으며 말했다.

창밖의 새들을 바라보고 있던 브라운 신부는 갑자기 쏘인 듯 놀라 뛰었다. 그리고 순무처럼 창백한 얼굴을 창문 너머로 내밀었다.

"뭐라고?"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폴, 사라딘 공작님. 당신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존경할 만한 그 노인은 정중하게 말하며 셰리 잔을 하나 들어 올렸다.

"저는 아주 조용히 삽니다. 집안일에 익숙한 성격이라서요. 겸손을 위해 저는 스티븐이라는 불행한 아우와 구별하기 위해 폴이라고 불립니다. 그가 최근, 정원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적들이 그를 이곳까지 쫓아온 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지극히 파탄 났기 때문이죠. 그는 집안일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숙이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여자의 머리 바로 위, 맞은편 벽을 계속 응시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자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가족 간의 유사성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그러자 그의 늙은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며 떨리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 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세상에!" 플랑보가 잠시 침묵을 깨고 외쳤다. "그가 웃고 있다!"

"가자." 브라운 신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멀리 떨어지자고. 다시 정직한 배로 돌아가자고."

섬을 떠난 뒤에는 밤이 깊어 강가와 갈대밭도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어두운 강물을 따라 내려가며, 붉은 배 등불처럼 빛나는 큰 시가 두 개를 피우며 몸을 녹였다. 브라운 신부는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빼들며 말했다.

"이제 이야기 전체를 짐작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일은 아주 원시적인, 그러니까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에게 두 명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현명했죠. 그래서 그는 두 명의 적이 한 명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플랑보가 대답했다.

"아, 정말 간단해요." 친구가 다시 말했다. "순진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지만, 둘 다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형인 공작은 성공하는 유형의 악당이었다면, 동생인 대위는 실패하는 유형의 악당이었죠. 이 비참한 대위는 거지 신세에서 시작해 협박꾼이 됐고, 어느 날 형제인 공작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당연히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파울 사라다인 공작은 공개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고, 사교계의 작은 죄악쯤에는 명성을 잃을 만한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 그것은 교수형에 처할 만한 중죄였습니다. 스티븐은 말 그대로 형의 목에 밧줄을 감고 있었던 셈이죠. 그는 어쨌든 시칠리아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고, 파울이 산에서 늙은 안토넬리를 살해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대위는 10년 동안 거액의 은밀비를 챙겼고, 그 결과 공작의 막대한 재산조차 점점 어리석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딘 공작은 피를 빨아먹는 형제 하나만 짊어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안토넬리의 아들이, 살해 당시 아직 어린아이였음에도 사나운 시칠리아의 의리를 배워 자랐으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소년은 교수형 같은 형벌로는 복수하지 않았다. 스티븐이 가진 법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옛날 방식의 복수, 즉 'vendetta'의 무기를 사용했다.

소년은 죽음을 부르는 무술을 치명적일 정도로 완벽하게 연마했다. 그리고 그가 그 무기를 사용할 나이가 되자, 사회면 기사들은 그가 여행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친 것이었다. 쫓기는 범죄자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그리고 그의 뒤를 쫓는 단 한 명의 사나이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파울 공작의 처지였다.

파울 공작의 처지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안토넬리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쓸수록, 스티븐을 입막음할 돈은 줄었다. 스티븐에게 돈을 주어 침묵을 사면 살수록, 안토넬리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기회는 멀어졌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나폴레온 같은 천재성을 발휘한 것이다.

그는 두 적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순순히 항복했다. 마치 일본식 레슬링 선수처럼 몸을 낮추자, 적들은 그의 앞에 쓰러졌다. 그는 세계 일주라는 경주를 포기했고, 젊은 안토넬리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 주었다. 그리고는 형제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다.

그는 스티븐에게 값비싼 옷과 편안한 여행을 위한 충분한 돈을 보냈다. 편지 내용은 대략 이랬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넌 나를 완전히 털어냈지. 노퍽에 작은 집이 하나 남아 있어. 하인과 지하 저장고도 있고. 만약 더 필요하면 그 집을 가져가면 돼. 원하면 직접 와서 소유권을 행사해라. 나는 그곳에서 조용히 친구나 대리인, 혹은 그 어떤 신분이든 되어 살겠지."

그는 시칠리아인이 사라다인 형제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마 그림으로나 보았을 뿐이다. 두 형제는 모두 회색의 뾰족한 수염을 기르고 있어 외모가 비슷했다.

그는 자신의 수염을 면도하고 기다렸다.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새 옷을 입은 불쌍한 대위는 왕자처럼 당당히 집에 들어섰지만, 결국 시칠리아인의 칼끝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찬사라 할 만하다. 사라다인 같은 악령들은 종종 인간의 미덕을 전혀 예상치 못해 실수하곤 한다. 그는 이탈리아인의 일격이 오면, 그것이 보복한 일격처럼 어둡고 폭력적이며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당연시했다. 희생자는 밤에 칼에 찔리거나, 수풀 뒤에서 총격을 받아 말 한마디 없이 죽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안토넬리의 기사도 정신이 정식 결투를 제안했을 때, 모든 가능한 설명이 가능해진 그 순간, 파울 공작은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그때 내가 본 것은 그가 벌떡 일어나 배를 저어 나가는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안토넬리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리기 전에, 그는 맨머리를 드러낸 채 작은 배를 타고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당황했더라도 절망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 모험가와 그 광신자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험가인 스티븐은 극적인 즐거움 때문에, 즉 새로운 역할을 연기하는 재미와 새로 얻은 아늑한 거처에 매달리고 싶은 욕망, 그리고 행운을 믿는 악당의 태도와 뛰어난 검술 솜씨로 입을 다물 가능성이 컸다.

반면 광신자 안토넬리는 확실히 입을 다물고, 가족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처형당할 것이었다.

폴은 강가에서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제야 그는 마을을 깨우고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두 적을 영원히 붙잡혀 가는 것을 지켜본 뒤, 미소를 띤 채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다.

"웃다니, 하느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플랑보가 몸을 크게 떨며 말했다. "저런 생각은 사탄에게서 배우는 건가?"

"그 생각은 당신에게서 얻은 겁니다." 사제가 답했다.

"천만에!" 플랑보가 외쳤다.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대체 무슨 뜻이오?"

신부는 주머니에서 방문용 명함을 꺼내, 희미하게 타오르는 시가 불빛에 들어 보였다. 명함 위에는 초록색 잉크로 성의 없이 적힌 글씨가 선명했다.

"그가 처음 당신에게 보낸 초대장을 기억하시나요?" 그가 물었다. "그리고 당신의 범죄적 업적에 대한 찬사도요. '형사 한 명이 다른 형사를 체포하게 만든 그 술수'라고 그는 말했죠."

그는 방금 당신의 술수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양옆에 적을 두고, 그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들이 서로 충돌해 서로를 죽이게 만든 것이죠.

플랑보는 사라딘 공작의 명함을 신부의 손에서 빼앗아, 거칠게 작은 조각들로 찢어버렸다.

"이제 그 옛날 해골과 뼈의 상징도 다 끝났군." 그는 강물에 사라져 가는 어두운 물결 위로 조각들을 뿌리며 말했다. "하지만 물고기들에게는 독이 될 것 같군."

흰색 카드와 녹색 잉크의 마지막 빛이 잠겨 어두워졌다. 아침의 색처럼 연하고 생동감 있는 빛이 하늘을 물들였고, 풀숲 뒤의 달은 점점 옅어졌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표류했다.

"신부님," 플랑보가 갑자기 물었다. "그 모든 게 꿈이었을까요?"

신부는 고개를 저었다. 반대하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알 수 없다는 뜻이었을까. 하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다.

어둠 너머로 산사나무와 과수원의 향기가 스며들었다. 바람이 깨어났다는 신호였다.

다음 순간, 바람은 작은 배를 흔들어 세우고 돛을 부풀렸다. 그리고 그들은 굽이치는 강을 따라 더 나은 곳, 해롭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향했다.

하나님의 망치

보헌 비콘의 작은 마을은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의 교회 첨탑은 높고 날카로워, 마치 작은 산봉우리처럼 보였다. 교회 발치에는 대장간이 있었다. 불길이 붉게 타오르고, 망치와 철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곳이었다. 그 맞은편, 거친 돌길로 이어진 십자가 모양의 사거리에는 '푸른 멧돼지' 여관이 있었다. 그곳이 마을 유일한 여관이었다.

이 사거리에서 두 형제가 마주쳤다. 은빛과 납빛이 섞인 새벽녘이었다. 한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려 했고, 다른 사람은 하루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다.

명예 귀족이자 성직자인 윌프리드 보헌은 매우 경건했다. 그는 새벽녘, 엄격한 기도나 명상 수행을 위해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형인 노먼 보헌 대령(호너블)은 경건하지 않았다. 그는 '푸른 멧돼지' 여관 밖 벤치에 저녁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철학적 관찰자라면 그의 잔을 화요일의 마지막 한 잔이라거나 수요일의 첫 잔이라 여길 수 있었다. 대령은 그다지 까다롭지 않았다.

보헌 가문은 중세까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극소수의 귀족 가문 중 하나였다. 그들의 군기는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까지 가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집안이 기사도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전통을 간직하는 자는 가난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귀족들은 전통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유행에 산다. 보헌 가문은 앤 여왕 시절에는 모호크(Mohocks)였고,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는 마셔(Mashers)였다. 그러나 오래된 가문 중 몇몇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지난 두 세기 동안 썩어내려가 결국 단순한 알코올 중독자와 겉멋만 부리는 퇴폐자로 전락했다. 심지어 정신이상이라는 속삭임까지 돌 정도였다.

대령이 쾌락을 쫓는 늑대 같은 모습에는 분명 인간 같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고, 새벽이 되어야만 집에 돌아가겠다는 만성적인 고집에는 불면증의 끔찍한 선명함이 어려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한 노인이었지만, 머리카락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노랗게 빛났다. 그는 그저 금발에 사자 같은 외모로 보였겠지만, 푸른 눈이 얼굴 깊숙이 패여 있어 마치 검은색처럼 보였다. 그 눈은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다. 그는 매우 긴 노란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콧구멍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주름이 수염 양옆에 패여 있어, 그의 얼굴에는 일종의 비웃는 표정이 새겨진 듯했다.

저녁 옷 위에 그는 특이한 옅은 노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코트는 외투라기보다는 아주 가벼운 드레싱 가운처럼 보였다. 그의 머리 뒤쪽에는 밝은 녹색의 매우 넓은 챙이 달린 모자가 삐죽하게 꽂혀 있었는데, 이는 분명히 아무렇게나 집어 든 동양의 기이한 물건이었

다. 그는 이러한 어색한 복장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는 항상 그런 옷을 입어도 어울리게 보이게 만드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다.

그의 형제인 교구 신부도 노란 머리와 우아한 풍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는 검은색 옷을 턱까지 단단히 여민 채였다. 얼굴은 면도하고 가꾸어졌으며, 조금은 신경질적인 표정이었다. 그는 종교 외에는 아무것도 위해 살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특히 장로교도인 대장장이처럼, 그가 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고딕 양식 건축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유령처럼 교회에 나타나 맴도는 것은, 형제가 여성과 와인을 찾아 격렬하게 뒤지는 것과 거의 병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또 다른, 더 순수한 변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의심스럽지만, 그 남자의 실천적인 경건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실 이 주장은 대부분 고독과 비밀 기도를 사랑하는 것을 무지하게 오해한 것이었고, 그가 종종 제단 앞이 아니라 특이한 곳들, 즉 지하 묘지나 갤러리, 심지어 종탑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는 지금 대장장이의 마당을 통해 교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지만, 형제의 동굴처럼 깊은 눈이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춰서서 약간 찌푸렸다. 대령이 교회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는 추측을 낭비하지 않았다. 남은 곳은 오직 대장장이의 작업장뿐이었다. 비록 대장장이는 청교도였고 그의 신도들이 아니었지만, 윌

프리드 보헌은 아름다운 그리고 다소 유명한 아내에 관한 몇 가지 스캔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창고 너머로 의심스러운 시선을 던졌고, 대령은 일어나 웃으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아침이 밝았군, 윌프리드." 그가 말했다. "착한 집주인답게 나는 백성들을 밤새도록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소. 이제 대장간을 찾아갈 참이오."

윌프리드는 땅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대장장이님은 안 계세요. 그린퍼드 쪽에 가셨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를 찾아가는 이유입니다."

"노먼," 신부가 길가의 조그만 돌멩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번개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령이 물었다. "당신의 취미가 기상학이요?"

"내가 묻는 건," 윌프리드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은 거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실례합니다." 대령이 말했다. "당신의 취미는 민속학인 모양이군요."

"당신의 취미가 신성모독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남자가 자신의 성품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것에 상처를 받

아 날카롭게 반박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인간을 두려워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노인은 정중하게 눈썹을 치켜올렸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니?” 그가 말했다.

“사십 마일 안에 바네스 철공소 주인처럼 크고 힘센 사내가 드물다.” 신부는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겁쟁이나 약한 몸이 아니라는 건 안다. 하지만 그에게 벽 너머로 던져질 수도 있다.”

그 말은 적중했다. 진리였기 때문이다. 그의 입과 콧구멍 옆에 드리운 주름은 더 어둡고 깊어졌다. 잠시 동안 그는 얼굴에 무거운 비웃음을 띠고 서 있었다. 그러나 순간, 보헌 대령은 자신의 잔인한 유쾌함을 되찾았다. 노란 수염 아래로 개와 같은 앞니를 드러내며 그는 웃었다.

“그렇다면, 친애하는 윌프리드여,” 그가 매우 태연하게 말했다. “보헌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 갑옷을 일부 착용하고 나온 것은 현명했지.”

그는 이상하게 생긴 둥근 모자를 벗어놓았다. 겉은 초록색으로 덮여 있었지만, 안쪽은 강철로 안을 덧댄 것이었다. 윌프리드는 그것이 옛 가문의 홀에 걸려 있던 전리품에서 뜯어낸 가벼운 일본식 혹은 중국식 투구임을 알아챘다.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모자였죠.” 형이 가볍게 설명했다. “항상 가장 가까운 모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여자를 고르는 법이니까요.”

"대장장이님은 그린퍼드로 나가셨어요. 언제 돌아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윌프리드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부정한 영혼을 쫓아내듯 성호를 그었다. 그는 자신의 키 큰 고딕식 회랑이 주는 서늘한 황혼빛 속에서 그런 추잡함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의 평범했던 종교적 일상은 곳곳에서 작은 충격을 받으며 멈춰 서게 될 운명이었다.

그가 교회 문턱에 들어서자, 평소 이 시간엔 항상 비어 있던 자리에 한 무릎 꿇은 인물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인물은 문밖의 밝은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신부인 그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이른 아침 예배자라고 불린 이는 다름 아닌 마을의 바보, 대장장이의 조카였다. 그는 교회나 그 밖의 어떤 것에도 관심도, 이해할 능력도 없는 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항상 '미친 조'라고 불렀고, 다른 이름은 없는 듯했다. 그는 어둡고 건장하며 어깨가 축 처진 소년이었다. 하얗고 무거운 얼굴에, 검은 곧은 머리카락과 늘 벌린 입을 하고 있었다.

그가 신부를 지나쳐 갈 때, 그 달빛 같은 바보스러운 얼굴에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단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지금 그는 어떤 기도를 짓고 있는 걸까? 분명히 특이한 기도였을 것이다.

윌프리드 보헌은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 정신지체아가 햇살 가득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 그의 방탕한 형제가 조를 향해 유머러스하면서도 약간은

삼촌 같은 어조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까지 목격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대령이 열린 입술을 향해 동전을 던지는 것이었다. 대령은 마치 그 입에 정확히 떨어뜨리려 한다는 듯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상의 어리석음과 잔혹함이 햇살에 그대로 드러난 그 추한 풍경은, 금욕적인 그를 결국 정화와 새로운 생각을 위한 기도로 이끌었다. 그는 갤러리의 한 좌석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그가 사랑하며 영혼을 항상 평온하게 해주던, 색유리 창문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다. 백합을 든 천사가 그려진 푸른 창문이었다.

그는 이제 창백한 얼굴과 물고기 같은 입을 한 그 반푼이에 대해 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다시, 극심한 굶주림으로 야윈 사자처럼 배회하는 악한 형제에 대한 생각도 줄여갔다. 그는 은빛 꽃봉오리와 남색 하늘의 차갑고 달콤한 색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갔다.

그로부터 반시간 뒤, 마을 구두수선공 지브스가 그를 그곳에서 발견했다. 지브스는 급히 그를 찾아오라는 부름을 받고 달려온 터였다. 윌프리드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브스가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이게 된 것만으로도 사소한 일이 아님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브스는 많은 마을의 구두수선공들처럼 무신론자였다. 그가 교회에 나타난 것은 미친 조의 출현보다도 조금 더 기이한 일이었다. 그날 아침은 신학적 수수께끼로 가득한 하루였다.

"무슨 일이오?" 윌프리드 보헌이 다소 경직된 어조로 물었지만, 동시에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집어 들었다.

무신론자는 놀라울 정도로 공손한 어조로 말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쉰 듯, 동정 어린 온기를 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신부님. 바로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신부님의 형제분이--"

윌프리드는 가냘픈 손을 꽉 쥐었다. "지금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격정에 차 외쳤다.

"글쎄요, 신부님." 구두 수선공이 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끝났어요. 정말로 오셔야 합니다, 신부님."

보후는 구두 수선공을 따라 짧은 구불구불한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거리의 높이를 약간 넘어서는 입구로 이어졌다. 보후는 그 참상을 단번에 파악했다. 마치 지도 위를 내려다보듯, 모든 것이 발 아래 평평하게 펼쳐져 있었다.

대장간 마당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다섯이나 여섯 명 모여 있었다. 그중 한 명은 경감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곳에는 의사도 있었고, 장로교 목사도 있었다. 또한 대장장이의 아내가 다니던 가톨릭 예배당의 사제도 있었다.

그 사제는 이미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는 매우 빠르게, 그러나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다. 붉은빛이 도는 금발의 우아한 여인은 벤치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었다.

두 무리 사이, 그리고 망치 더미 한가운데 바로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저녁 파티복을 입은 채, 팔다리를 벌린 채 얼굴을 대고 누워 있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윌프리드는 그의 복장과 외모의 모든 디테일을 정확히 기억했다. 손가락에 낀 보후 가문의 반지까지도 말이다. 그러나 두개골은 검은 빛과 피로 이루어진 끔찍한 얼룩, 마치 어둠의 별처럼 보였다.

윌프레드 보헌은 한눈만 훑어보고는 계단을 뛰어 내려 마당으로 달려갔다. 가족의 주치의였던 의사가 그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더듬거리며 외칠 뿐이었다.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끔찍한 미스터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불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가장 솔직했던 신발 수선공이 대답했다. "공포는 많지만, 미스터리는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윌프레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다.

"분명하죠." 깁스가 대답했다. "사방 사십 마일 이내에서 그런 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장 큰 동기를 가진 자다."

"우리는 아무것도 미리 단정해선 안 됩니다." 키가 크고 검은 수염을 기른 의사가 다소 긴장한 어조로 끼어들었다. "하지만 깁스 씨가 그 타격의 성질에 대해 말한 것은 제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감님, 그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타격이었습니다. 깁스 씨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가냘픈 보좌 신부의 몸이 미신적인 전율로 떨렸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말했다.

"보훈 씨,"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유조차 힘이 부족합니다. 두개골이 달걀 껍질처럼 산산조각 났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뼈 조각이 총알이 진흙 벽을 뚫듯, 시신 속과 땅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으니까요. 이는 거인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안경 너머로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던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일에는 하나 좋은 점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을 단번에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해 준다는 거야. 만약 당신이나 나, 혹은 이 나라의 평범한 남자 중 한 명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몰린다면, 우리는 아기에게 넬슨 기둥을 훔쳤다는 혐의를 벗겨주는 것과 똑같이 무죄 판결을 받을 거야."

"맞아요, 그게 제 말이에요." 구두 수선공은 고집스럽게 되뇐다. "이 일을 저질렀을 사람은 단 한 명뿐이고, 그 사람만이 그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시메온 반스, 대장장이는 어디 있죠?"

"그분은 그린퍼드에 계십니다." 부제관은 주저하며 말했다.

"프랑스 쪽일 게 더 높지." 구두 수선공이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그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작은 체구에 빛 바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이미 모여 있던 사람들 곁에 합류한 작은 로마 교회의 신부에게서 나왔다. "사실은, 그는 지금 바로 그 길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사제는 외모로 봐서 흥미로운 인물은 아니었다. 거무스름하고 뻣뻣한 머리카락에, 동그랗고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아폴론처럼 찬란하게 생겼더라도,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아래 평야를 가로지르는 길을 내려다보며 유심히 살펴봤다. 그 길을 따라 시메온 대장장이라는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보폭으로, 어깨에는 망치를 메고 있었다. 그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거구였으며, 깊고 어둡고 불길한 눈매와 짙은 턱수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두 명의 남자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다. 그는 평소 특별히 활달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아주 편한 모습으로 보였다.

"세상에!"무신론자인 신발 수선공이 외쳤다. "그가 그 일을 저지른 망치가 바로 저기에 있군."

"아니요." 모래빛 수염을 가진, 단정해 보이는 형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가 사용한 망치는 저기 교회 담장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체와 망치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짧은 키의 신부는 조용히 걸어가 그 도구가 놓인 곳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망치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벼운 종류였다. 다른 망치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망치의 철제 날에는 피와 노란 머리카락이 묻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짧은 사제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의 둔탁하던 목소리에는 새로운 어조가 섞여 있었다.

"깁스 씨는 신비가 없다고 말하며 너무 단정하셨소. 적어도 하나의 신비는 남아 있죠. 왜 그렇게 큰 남자가, 그토록 작은 망치로 그토록 거대한 타격을 가하려 했는지 하는 신비 말입니다."

"아, 그건 잊어라." 깁스가 열에 타는 듯 외쳤다. "시메온 반스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사제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곧 스스로 여기로 올 것입니다. 저 두 남자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린퍼드에서 온 아주 착한 친구들이고, 장로회 예배당 건립 문제를 논의하러 온 사람들이죠."

그가 말을 끝내자마자, 키 큰 대장장이의 그림자가 교회 모퉁이를 돌아 자신의 작업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손에 쥐고 있던 망치가 떨어졌다.

무표정하게 위엄을 지키고 있던 형사가 곧장 그에게 다가갔다.

"반스 씨,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지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디 당신이 모르기를,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왕의 이름으로, 노먼 보훈 대령 살해 혐의로 당신을 체포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말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두 수선공이 조급한 흥분으로 말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직 그 머리가 망가진 채로 발견된 사람이 바로 보훈 대령인지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건 통하지 않아요." 의사가 신부에게 곁말로 말했다. "그건 탐정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저는 대령의 주치의였으니까, 대령의 몸 상태에 대해 대령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대령의 손은 매우 우아했지만,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죠.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의 길이가 정확히 같았다는 거예요. 아, 저쪽이 바로 대령이 맞군요."

그가 바닥에 놓인, 머리가 으스러진 시체를 흘끗 바라보자, 움직이지 않는 대장장이의 철처럼 단단한 눈동자도 그 시선을 따라가 그곳에 멈췄다.

"보훈 대령은 죽었소?" 대장장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렇다면 그는 지옥에 떨어졌구려."

"아무 말도 하지 마! 오, 아무 말도 하지 마," 무신론자 구두수선공이 외쳤다. 그는 영국 사법 제도를 경탄하며 흥분해서 발을 구르고 있었다. 선량한 세속주의자보다 더한 법학자는 없기 때문이다.

대장장이도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은 열광적인 광신의 경지를 담은 위엄 있는 표정이었다.

"세상의 법이 너희를 편들어 주니, 너희 무신론자들이 여우처럼 피하는 건 다행이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너희가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주머니 속처럼 지켜주신다."

그가 대령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개는 언제 죄를 지고 죽었소?"

의사가 말했다. "말조심을 하시오."

"성경의 표현을 절제한다면 저도 제 표현을 절제하겠습니다. 그는 언제 죽었습니까?"

"오늘 아침 여섯 시에 그가 살아 있는 걸 봤어요." 윌프리드 보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은 선하십니다." 대장장이가 말했다. "형사님, 제가 체포되는 것을 단 하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님께서 저를 체포하는 것을 반대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법정에서 명성 한 자락 더럽히지 않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형사님께서는 혹시라도 이 법정에서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나가실지 모릅니다."

이제야 순찰 경관이 처음으로 대장장이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다른 이들도 모두 그랬다. 다만 짧은 키의 기이한 신부만은 여전히, 그 끔찍한 타격을 가했던 작은 망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가게 밖에 서 있는 남자들이 두 명 있습니다." 대장장이의 말은 무거우면서도 또렷했다. "그들은 그린퍼드에 있는 훌륭한 장인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그들은 자정이 되기 전부터 새벽이 밝아오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제가 우리 부흥선교회의 위원회에 있었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밤새 열려 있고, 우리는 영혼을 빠르게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린퍼드 자체에서도 스무 명쯤은 제 증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방인이었다면, 경감님, 당신은 저의 몰락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당신에게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느낍니다. 지금 제 알리바이를 들으실지, 아니면 법정에서 들으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감은 처음으로 동요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리고 말했다. "물론, 지금이라도 당신을 완전히 무죄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대장장이도 평소처럼 길고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마당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린포드의 두 친구 곁으로 돌아갔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거의 모두가 그들과 친구였다. 두 사람은 각자 몇 마디 말을 건넸고,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사이먼의 순진함은 그들 위에 우뚝 솟은 큰 교회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그 침묵은 그 무리에게 찾아왔는데, 어떤 말보다도 더 기이하고 견디기 어려웠다. 미친 듯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그 보좌 신부는 가톨릭 사제에게 말했다.

"신부님, 그 망치에 유난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맞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런데 왜 망치가 이렇게 작습니까?"

의사가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맙소사, 정말 그렇군." 그가 외쳤다. "주변에 열 개의 큰 망치가 있는데, 작은 망치를 왜 쓰겠는가?"

그는 보좌 신부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낮게 말했다.

"무거운 망치를 들 수 없는 사람 말입니다. 남녀 간의 힘이나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깨의 힘 문제죠. 대담한 여자라면 가벼운 망치로 열 번은 살인을 저질러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거운 망치로는 딱정벌레 한 마리도 죽일 수 없죠."

윌프리드 보헌은 마치 마력에 홀린 듯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반면 브라운 신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며 경청하고 있었다. 의사는 더욱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왜 이런 바보들은 항상 아내의 연인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남편이라고만 생각할까? 열 번 중 아홉 번은 아내가 가장 싫어한다. 그가 아내에게 어떤 무례함이나 배신을 저질렀는지 누가 알겠는가. 저기 봐라!"

그는 벤치에 앉아 있는 붉은 머리의 여자를 향해 잠깐 손짓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눈물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위에서 말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시체를 향해 고정된 채였다. 그 눈빛에는 전기적인 빛이 감돌았고, 그 안에는 어리석음의 흔적이 섞여 있었다.

윌프리드 보헌 신부는 궁금한 게 없다는 듯 허공을 향해 흐느적거리는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화로에서 날아온 재를 소매에 털어내며, 그의 특유의 무심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당신은 많은 의사들과 똑같소. 당신의 정신의학은 참으로 흥미진진하지만, 당신의 물리학은 완전히 불가능하오. 그 여자가 이혼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청구인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는 동의하오. 그리고 여자가 큰 망치보다 작은 망치를 집어 든다는 점에도 동의하오. 하지만 문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소. 태어난 적 있는 그 어떤 여자도 저렇게 남자의 두개골을 납작하게 부술 수는 없소."

그는 잠시 침묵을 유지한 뒤, 사색에 잠긴 듯 덧붙였다.

"이 사람들은 전체 그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소. 그 남자는 실제로 철제 헬멧을 쓰고 있었소. 그리고 그 일격은 헬멧을 깨진 유리조각처럼 흩뜨렸소. 그 여자를 보시오. 그녀의 팔을."

다시 침묵이 그들을 가두었다. 그러자 의사가 다소 투덜거리는 듯 말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 모든 일에는 반대할 거리도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나는 핵심을 고수한다. 큰 망치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서야, 저 작은 망치를 주워들 리 없다."

윌프레드 보헌의 야위고 떨리는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희박한 노란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잠시 후 손이 떨어지자, 그는 외쳤다.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당신이 그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흔들리던 마음을 추스르며.

"당신이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멍청이가 아니면 작은 망치를 주워 들지 않을 거야.'"

"네," 의사가 말했다. "자, 어때?"

"글쎄, 그런 짓은 바보 아니면 못 했지." 사제가 말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깜짝 놀란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는 열에 타듯, 여인처럼 초조한 몸짓으로 말을 이었다.

"나는 사제입니다." 그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사제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말하려는 바는, 사제가 누구도 교수대에 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죄인을 명확히 봅니다. 그가 교수대에 오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를 고발하지 않으실 겁니까?" 의사가 물었다.

"제가 그를 고발한다 해도 그는 교수형에 처하지 않을 겁니다." 윌프레드는 기이하게도 행복한, 그러나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아침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는 광인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그 불쌍한 조 말입니다. 하느님만이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아시겠지만, 이런 기이한 인간들에게는 그들의 기도가 모두 거꾸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광인은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불쌍한 조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형제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그 형제는 조를 조롱하고 있었죠."

"주님의 이름으로!" 의사가 외쳤다. "이제야 제대로 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윌프리드 목사는 진실을 간파한 흥분에 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보시겠습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그가 열변을 토하며 외쳤다. "이것이야말로 두 가지 기이한 현상을 모두 설명하고, 두 가지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주는 유일한 이론입니다. 두 가지 수수께끼란 바로 '작은 망치'와 '강타'입니다.

대장장이라면 강타를 가했을 수도 있겠지만, 작은 망치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그의 아내라면 작은 망치를 들었을지언정, 그 강타를 가할 힘은 없었을 테고요. 하지만 미친 사람이라면 둘 다 가능했습니다. 작은 망치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미쳤으니 아무거나 집어 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강타에 관해서는, 의사 선생님, 발작에 시달리는 광인이 열 명의 남자를 이길 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의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다. "진짜로, 네가 그걸 찾아냈구나."

브라운 신부는 화자를 오랫동안,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응시했다. 그 큼직한 회색의 소 같은 눈이 얼굴의 나머지 부분만큼 보잘것없지는 않다는 것을 증명할 정도였다. 침묵이 내려앉자 그는 뚜렷한 존경을 담아 말했다.

"보헌 씨, 지금까지 제시된 이론 중 오직 당신의 이론만이 모든 면에서 타당하며 본질적으로 공격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확고한 지식에 기반해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이론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한 뒤, 작은 노인은 자리를 뜨더니 다시 망치를 응시했다.

"저 녀석은 제 분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군." 의사가 윌프레드에게 불쾌한 어조로 속삭였다. "그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 정말로 교활하니까."

"아니, 아니." 보헌이 마치 황폐한 피곤함 속에 중얼거렸다. "미친놈이 했어. 그 미친놈이."

두 성직자와 의사로 이루어진 무리는 경감과 체포된 남성이 있는 더 공식적인 무리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었다. 이제 그들의 무리가 흩어지자,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가, 대장장이의 큰 소리가 들리자 다시 고개를 숙였다.

"경감님, 이제 저를 믿어 주셨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힘이 세지만, 그린포드에서 망치를 저기까지 던져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망치에게 날개가 달려 있지 않다면, 울타리와 들판을 넘어 반 마일이나 날아갈 리 없으니까요."

경감은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이제 이 일과 무관하다고 봐도 됩니다. 정말로 뜻밖의 우연이죠. 제가 본 적 있는 우연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것 중 하나예요. 다만, 당신처럼 크고 힘센 사람을 찾느라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당신이 그 남자를 제압하는 데만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신도 그 남자에 대해 아무런 단서가 없나요?"

"예상이 하나 있습니다." 창백한 대장장이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하지만 그 대상은 남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두려움에 질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를 보자, 그는 거대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여자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경감이 장난기 어린 어조로 물었다. "소들이 망치를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살을 가진 그 무엇도 그 망치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장장이의 목소리는 숨 막힐 듯 낮게 떨렸다. "인간의 이치로 말하자면, 그 남자는 혼자 죽었을 겁니다."

윌프레드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내밀며, 타오르는 눈으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반스, 그 말은," 구두수선공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망치가 스스로 튀어 올라 그 남자를 때려눕혔다는 뜻이냐?"

"아, 당신들 신사들은 그저 놀라면서 비웃기만 하겠군요." 시메온이 외쳤다. "일요일이면 주님께서 어떻게 고요히 산헤립을 치셨는지 설교하는 당신들 성직자들이라니요. 저는 그분, 모든 집에 보이지 않게 거처하시는 그분이 제 명예를 수호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를 집 문 앞에 쓰러뜨리셨다고 믿습니다. 그 타격의 힘은 바로 지진이 가진 힘과 같았습니다. 결코 그보다 약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윌프레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 스스로 노먼에게 천둥번개에 조심하라고 일렀다."

"그 요원은 제 관할 밖입니다." 경감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분 밖으로 나간 적 없소." 대장장이의 대답이었다. "잘 확인해 보시오." 그는 넓은 등을 돌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브라운 신부는 윌프레드를 이끌고 그 장소를 벗어나려 했다. 그는 윌프레드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친근하게 대했다.

"이 끔찍한 곳을 떠납시다, 보헌 씨."

"제가 교회 안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우리는 영국 구 교회들에 꽤 관심이 있거든요."

윌프레드 보헌은 미소 짓지 않았다. 유머는 그의 약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다소 조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장로교 신자 대장장이나 무신론자 구두 수선공보다는 더 공감할 만한 상대를 만나, 고딕 양식의 장엄함을 설명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당연하지." 그가 말했다. "이쪽 편으로 들어가자."

그는 먼저 나서서 계단 꼭대기에 있는 높은 옆문으로 들어갔다. 브라운 신부가 그의 뒤를 따라 첫 번째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어깨에 손이 얹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돌아보았다. 의심으로 얼굴이 더 어두워진, 어둡고 마른 의사의 모습이 보였다.

"선생," 의사가 거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이 흉악한 사건의 일부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실 생각인가요?"

"왜냐고요, 박사님?" 사제가 아주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 직업을 가진 자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확신이 설 때는 더더욱 그러해야 하죠. 그것이 제 의무니까요. 만약 제가 당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예의 없이 침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제 관례의 극단까지 가보겠습니다. 아주 크고도 중요한 단서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의사 선생님?" 의사가 우울한 목소리로 물었다.

"첫째," 브라운 신부가 고요히 말했다. "그건 전적으로 당신들의 영역이야. 물리학의 문제지. 대장장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 타격이 신적인 것'이라는 표현은 틀리지 않았을지 몰라. 하지만 '그것이 기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말은 틀렸지. 의사 선생,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어. 다만 인간 자체가 기적일 뿐이야. 인간은 기묘하고 사악하지만, 그래도 반쯤은 영웅적인 마음을 지닌 존재니까. 그 두개골을 산산조각 낸 힘은 과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힘이었지. 자연 법칙 중 가장 자주 논쟁이 되는 법칙 중 하나였어."

의사는 찌푸린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단 한 마디만 내뱉었다.

"그리고 다른 단서는?"

"다른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제가 말했다. "그가 기적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망치에 날개가 달려 시골을 반 마일이나 날아갔다는 불가능한 동화를 비웃었던 그 대장장이를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브라운 신부가 넓은 미소를 띠며 덧붙였다. "지금까지 오늘 하루 동안 나온 말 중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가장 진실에 가까웠소."

그리고 그는 등을 돌린 채, 사제를 따라 계단을 힘차게 올라갔다.

윌프레드 신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창백했고, 조급해 보였다. 이 작은 지연이 그의 신경을 마지막으로 지탱하던 실을 끊어버릴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를 즉시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석으로 이끌었다. 그것은 갤러리의 일부로, 조각된 천장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천사의 아름다운 창문으로 밝혀져 있었다.

작은 라틴 신부는 모든 것을 탐구하고 감탄하며, 항상 밝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의 조사 과정에서 그는 측면 출입구와 윌프레드가 죽은 형제를 찾기 위해 달려 내려간 나선형 계단을 발견했다. 브라운 신부는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원숭이처럼 민첩하게 올라갔다. 그의 맑은 목소리는 위의 외부 플랫폼에서 들려왔다.

"보헌 씨, 여기 올라오시오. 공기가 당신에게 좋을 거요."

보헌은 그를 따라나섰다. 건물 밖으로 나온 그는 돌로 된 복도, 혹은 발코니 같은 곳에 섰다. 그곳에서는 작은 언덕이 서 있는 끝없는 평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숲은 보랏빛 지평선까지 이어졌고, 마을과 농장들이 곳곳에 점점이 박혀 있었다.

그들 아래로는 철공소 마당이 선명하고 네모반듯하게 보였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아주 작아 보였다. 검사관이 여전히 메모를 하며 서 있고, 시체는 깨진 파리와도 같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

"세계 지도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네," 보헌이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들 바로 아래로, 고딕 양식의 건물 줄기는 공허 속으로 곤두박질쳤다. 그 속도는 자살을 방불케 할 만큼 어지러울 정도였다. 중세 건축에는 거인의 에너지가 서려 있어,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마치 광란의 말의 등줄기가 달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다. 이 교회는 고요하고 오래된 돌로 조각되었으며, 표면에는 오래된 균류가 자라고 새들이 둥지를 틀어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별들을 향해 샘물처럼 솟구쳤고, 지금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면 소리 없는 구덩이로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했다.

탑 위에 남겨진 두 사람은 고딕 양식의 가장 끔찍한 면모와 마주했다. 기이하게 왜곡된 원근감과 불균형, 커다란 것이 작게 보이고 작은 것이 크게 보이는 환상, 그리고 공중을 떠다니는 돌들의 뒤집힌 세계였다. 가까이서 보면 거대한 돌 조각들은 들판과 농장들의 패턴을 배경으

로 돋보였다. 멀리서 보면 그것들은 난쟁이처럼 작아졌다. 모서리에 새겨진 새나 짐승은 마치 거대한 용이 아래 초원과 마을을 헤매는 것처럼 보였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지럽고 위험했다. 마치 거대한 정령들의 날개 사이에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태양빛이 비치는 시골 풍경 위에, 대성당처럼 높고 화려한 이 오래된 교회가 마치 구름이 쏟아지듯 앉아 있었다.

"높은 곳에 서서 기도하는 것, 생각해보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높은 곳은 바라보기 위해 있는 것이지, 그 위에서 내려다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윌프레드가 물었다.

"몸은 무사해도 영혼은 추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제가 말했다.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헌이 모호하게 말했다.

"예를 들어 저 대장장이를 보시오." 브라운 신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는 착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오. 마음이 단단하고, 독단적이며, 용서하지 못하죠. 그의 스코틀랜드식 종교는 언덕과 높은 절벽에서 기도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기보다 세상을 내려다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겸손이야말로 거인의 어머니입니

다. 계곡에서는 위대한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정상에서는 작은 것들만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보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다른 한 사람이 묘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잠시 후, 그는 창백한 회색 눈을 평야 너머로 고요히 돌리며 말을 이었다.

"저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다른 이들과 함께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내 높은 곳과 외로운 곳을 찾게 되었죠. 종탑이나 첨탑의 구석, 혹은 niche(벽감) 같은 곳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런 아찔한 높은 곳에 서 있었을 때, 세상이 그 아래에서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의 정신도 함께 어지러워졌고, 그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죠.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는 중대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윌프레드의 얼굴은 돌아섰지만, 그의 마른 손은 돌 난간을 꽉 쥐며 파랗게, 그리고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을 징벌할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다. 만약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이 마치 벌레들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특히 그 바로 아래에서, 눈부신 초록색 모자를 쓰고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그 남자를 유독성 벌레처럼 여겼다.

종루 모퉁이에서 까마귀들이 울부짖었다. 브라운 신부가 말을 잇기 전까지,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유혹에 빠지기도 했다. 그의 손에는 자연의 가장 무서운 무기 중 하나, 즉 중력이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광기 어린, 그러나 생명을 불어넣는 그 질주, 즉 모든 지상의 생물이 놓일 때면 자신의 심장인 대지로 날아드는 그 현상을 말하고 있다. 보라, 형사가 우리 바로 아래 대장간에서 당당하게 걷고 있다. 내가 이 난간 위로 작은 돌멩이를 던진다면, 그것이 그에게 떨어질 때는 총알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망치를 떨어뜨린다면—설령 작은 망치라도—"

윌프레드 보헌이 난간 너머로 한쪽 다리를 내밀었다. 브라운 신부가 단숨에 그의 옷깃을 잡아챘다.

"그 문으로는 안 됩니다." 그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그 문은 지옥으로 이어지니까요."

보헌은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대더니,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요?" 그가 외쳤다. "당신은 악마인가?"

"저는 한 남자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모든 악마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한 일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대부분은 짐작할 수 있죠. 형제를 떠날 때, 당신은 부당하지 않은 분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심지어 형의 입에 묻은 더러움을 안고 작은 망치를 집어 들어, 그를 죽일 뻔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은 당신은 망치를 단추가 달린 외투 안으로 밀어넣고, 교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여러 곳에서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천사 그림이 있는 창문 아래서, 높은 발판 위에서,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령의 동양식 모자가 초록색 딱정벌레 등처럼 기어 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당신의 영혼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천둥을 내리쳤습니다."

윌프레드가 약한 손을 이마에 대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모자가 녹색 딱정벌레처럼 보인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건요." 다른 한 사람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건 상식일 뿐이죠. 하지만 제 말을 더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저만 알고,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겠소. 이제 남은 일은 당신 몫입니다. 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소. 이 일은 고해성

사의 인장으로 봉인하겠소. 왜냐고요? 이유는 많지만, 당신과 관련된 이유는 하나뿐이오. 당신을 내버려 둔 것은, 살인자들 사이에서 보자면 당신이 아직 많이 빗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오. 범인을 잡기 쉬웠을 때 대장장이에게 뒤집어씌우지 않았고, 그의 아내에게도 쉽게 뒤집어씌우지 않았소. 당신은 그 멍청이에게 뒤집어씌우려 했소. 그가 고통받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점이 살인자들 속에서 제가 찾아야 할 빛나는 단서 중 하나였소. 이제 마을로 내려가, 바람처럼 자유롭게 당신의 길을 가시오. 제 할 말은 다 했소."

그들은 완전히 고요한 가운데 굽이치는 계단을 내려와, 대장간 옆 햇살 가득한 곳으로 나왔다. 윌프레드 보헌은 신중하게 마당의 나무 울타리 문을 잠금에서 풀었다. 그러고 나서 형사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저를 체포해 주십시오. 저는 제 형을 죽였습니다."

아폴로의 눈

태양이 웨스트민스터 위로 정점에 오르면서, 템스강의 신비로운 비결인 그 특이한 연기가 섞인 반짝임이 점점 더 회색빛에서 빛나는 극치로 변해가고 있었다. 두 남자가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건넜다. 한 남자는 매우 키가 크고, 다른 한 남자는 매우 작았다. 그들은 마치 의회 건물의 오만한 시계탑과 성당보다 겸손한 굽은 어깨를 가진 사람처럼 기묘하게 비교될 수도 있었는데, 짧은 남자는 성직자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키 큰 남자의 공식적인 이름은 므슈 에르쿨 플랑보, 개인 탐정이었고, 그는 성당 입구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서 새로운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다. 짧은 남자의 공식적인 이름은 캠버웰의 세인트 프랜시스 자비에르 교회 소속인 존 브라운 신부였으며, 그는 친구의 새로운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 캠버웰의 죽음의 침상에서 오고 있었다.

그 건물은 높이가 하늘을 찌를 듯 미국식이었다. 전화기와 엘리베이터 같은 기계 장치의 기름칠된 정교함 또한 미국적이었다. 하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직원도 부족했다. 입주한 세입자는 단 세 명뿐이었다. 플랑보 바로 위의 사무실과 바로 아래의 사무실만 차 있을 뿐, 그 위 두 층과 아래 세 층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새 아파트 타워를 한눈에 본 사람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비계 흔적이 몇몇 남아 있을 뿐, 단 하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플랑보 바로 위의 사무실 밖에 세워져 있었다. 거대한 금박 입힌 인간 눈 모양의 조형물이었다. 금빛 광선이 둘러싸고 있었고, 크기가 사무실 창문 두세 개 분이나 됐다.

"도대체 그게 뭐야?" 브라운 신부가 물으며 걸음을 멈췄다.

"아, 새로운 종교죠." 플랑보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해주면서, 사실 당신은 죄가 없었던 거라고 말해주는 그런 새로운 종교 중 하나요. 내가 보기엔 크리스천 사이언스랑 꽤 비슷하더군요."

"사실은요, 칼론이라는 자가 제 바로 위 층에 있는 아파트를 빌렸거든요. 그의 진짜 이름은 모르겠지만, 칼론은 분명 아니겠죠. 제 아래층

에는 타자기를 치는 여성 직원 두 분이 계시고, 위층에는 열정적인 이 노망난 사기꾼이 살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아폴로의 새로운 사제'라고 부르며, 태양을 숭배한다고 하더군요."

"자, 그가 조심하기를 바라지."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태양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존재였으니까."

"하지만 그 거대한 눈동자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제가 이해하기로, 그들의 이론은 인간의 정신이 완전히 안정되어 있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랑보가 대답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상징은 태양과 열린 눈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태양을 응시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건강했다면, 굳이 그것을 응시하려 들지 않았을 거야."

"자, 새로운 종교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소." 플랑보가 태연하게 말했다. "물론 그 종교는 모든 신체적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것은 한 가지 영적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브라운 신부가 진지한 호기심으로 물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영적 병은 무엇입니까?" 플랑보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아, 자기가 아주 멀쩡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친구가 말했다.

플랑보는 위층의 화려한 신전보다 아래쪽 조용한 사무실에 더 관심을 보였다. 그는 남부 특유의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물로, 자신을 가톨릭 신자이거나 무신론자 외의 무엇으로든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새로 생겨난, 빛나면서도 흐릿한 종교들은 그의 관심사에서 벗어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인간 자체, 특히 잘생긴 인간은 늘 그의 관심사였다. 게다가 아래층에 있는 여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흥미로운 인물들이었다.

사무실은 두 자매가 운영했다. 둘 다 마른 체격에 어두운 피부였으나, 그중 한 명은 키가 크고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어둡고 열정적인, 그리고 날카로운 코를 가진 프로필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어떤 무기의 깨끗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처럼, 항상 옆모습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여성 중 하나였다. 그녀는 삶을 헤치고 나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빛나지만, 그 빛은 다이아몬드보다는 강철의 빛에 가까웠다. 곧고 슬림한 그녀의 몸매는 그 우아함에는 약간 너무 딱딱해 보였다.

어린 여동생은 자매의 축소된 그림자 같았다. 조금 더 회색빛이 돌고, 창백하며, 덜 눈에 띄는 존재였다. 두 사람 모두 사무적인 검은색 옷을 입었고, 작은 남성용 커프스와 칼라가 특징이었다. 런던의 사무실에는 이처럼 단호하고 분주한 여성들이 수천 명이나 있지만, 이 두 자매에게서 흥미로운 점은 겉보기 지위보다는 실제 지위에 있었다.

언니인 폴린 스테이시는 실제로 문장(家紋)과 반 영토, 그리고 막대한 부를 물려받은 상속인이었다. 그녀는 성곽과 정원에서 자라났다. 하지만 냉랭한 열정, 즉 현대 여성에게 특유한 그 냉혹함이 그녀를 더 가혹하고 더 높은 존재로 여겨지는 삶으로 내몰았다.

물론 그녀는 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다면 낭만적이거나 수도승적인 방종이 되었을 테니, 그녀의 당당한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가 실용적인 사회적 목적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 중 일부는 그녀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다. 그것은 모범적인 타자점 공급점을 위한 핵심 자본이었다. 나머지 돈은 여성들의 그러한 일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연맹과 자선 단체에 분배되었다.

자매이자 파트너인 조안이 이러한 다소 평범한 이상주의를 얼마나 공유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조안은 리더를 개처럼 충성스럽게 따랐다. 그 사랑에는 비극적인 색채가 섞여 있어, 오히려 언니의 차갑고 높은 기개보다 더 매혹적으로 느껴졌다. 폴린 스테이시는 비극과 관련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비극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플랑보는 처음 그 아파트를 찾았을 때, 그녀의 격하고 빠른 태도, 그리고 차가운 인내심 부족에 크게 웃었던 적이 있다. 그는 현관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보이를 기다리며 엘리베이터 앞에 머물렀다. 보통 이 보이가 낯선 이를 각 층으로 안내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빛이 빛나는 매 같은 이 소녀는, 그런 공식적인 지연을 감내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다. 자신

은 엘리베이터 사용법을 모두 알고 있으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그녀의 아파트는 단 세 층 위였지만, 불과 몇 초간 상승하는 동안 그녀는 플랑보에게 자신의 근본적인 견해를 여러 가지 던졌다. 태도는 매우 대수롭지 않은 듯했지만, 요지는 그녀가 현대적인 노동 여성이며 현대적인 기계 장치를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빛나는 검은 눈은 기계 과학을 비난하고 로맨스의 부활을 요구하는 자들에 대해 추상적인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엘리베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랑보가 그녀를 위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거의 그 사실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 신사는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가며, 그런 불꽃처럼 타오르는 자립심에 대한 기억으로 미소 지었다. 다소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확실히 성미가 급했다. 하지만 그 급함은 허황되지 않고 실용적인 타입이었다. 가늘고 우아한 그녀의 손동작은 단호했고, 때로는 파괴적일 정도였다.

플랑보가 어떤 타자 업무로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방금 자매의 안경을 바닥 한가운데로 던져버리고는 그 위에 발로 짓밟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병적인 의학적인 관념'과, 그런 기구들이 암시하는 약함에 대한 병적인 수용에 대한 도덕적 격문 속으로 빠져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매가 또다시 인공적이고 불건강한 쓰레기를 이 공간으로 가져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그녀는 "내가 나무 다리를

착용하거나 가발을 쓰거나 유리 눈을 달아야 한다는 건가?"라고 물으며, 말을 내뱉을 때마다 그녀의 눈은 무서운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다.

플랑보는 이 광신적인 열정에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곧장 폴린 양에게 물었다. 프랑스식 논리대로,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안경 한 쌍이 엘리베이터보다 더 병적인 약함의 징후라면, 왜 과학은 한쪽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도 다른 한쪽에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까?"

"그건 너무 다르죠." 폴린 스테이시가 고상하게 말했다.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의 표징입니다. 맞습니다, 플랑보 씨. 여성의 힘의 표징이기도 하죠. 우리는 거리를 삼키고 시간을 거스르는 그 위대한 기관들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귀하고 장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과학이죠.

하지만 의사들이 팔아대는 불쾌한 부속품들과 임시방편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비겁함의 뱃지일 뿐입니다. 의사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이고 병든 노예인 양, 다리와 팔을 붙여 대죠.

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었습니다, 플랑보 씨. 사람들은 두려움에 길들여졌지 힘과 용기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간호사들이 아이들에게 해를 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별들 가운데 제가 보지 말아야 할 한 별이 있어야 합니까? 해는 제 주군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지 눈을 뜨고, 그 해를 똑바로 쳐다보겠습니다."

"당신의 눈빛은 태양을 부끄럽게 할 정도입니다." 플랑보가 이국적인 예의를 갖추며 말했다. 그는 이 낯설고 딱딱한 아름다움에게 찬사를 보냄으로써 일종의 쾌감을 느꼈다. 그 찬사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어 조금은 흔들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래, 저 위층의 황금 눈을 가진 마법사 손에 그녀가 들어갔군."

그는 칼론의 새로운 종교에 대해 잘 알지도, 관심이 있지도 않았지만, 그 종교의 특수한 관행인 '태양 응시'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있었다.

브라운 신부는 곧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긴밀하고도 깊어지는 영적인 유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을 칼론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장대한 존재였다. 육체적으로는 아폴론 신의 제사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풍채였다. 키는 플랑보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컸고, 얼굴은 훨씬 더 아름다웠다. 금빛 수염과 강렬한 푸른 눈, 사자처럼 뒤로 넘긴 헐렁한 머리카락이 그를 수놓았다. 그는 니체가 말한 '금발의 야수'와도 같은 골격이었지만, 그 모든 동물적인 아름다움은 진정한 지성과 영혼으로 빛나고 다듬어졌다.

그는 위대한 색슨 왕처럼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성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의 주변 환경이 가진 코크니식(런던 하층민풍)의 부조화가 이를 무색하게 만들지 못했다. 빅토리아 거리 빌딩 중간층에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 복도와 그의 방 사이에 평범한 옷차림의 사무원이 앉아 있다는 사실, 이름이 적힌 놋쇠 명패가 달려 있고 그의 종교를 상징하는 금박 문양이 거리 위를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세속적 요소들은 그를 오히려 더 돋보이게 할 뿐이었다. 안과의사 광고처럼 걸린 그 문양조차, 칼론이라는 인물이 뿜어내는 생생한 위압감과 영감 앞에서는 무색해졌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돌팔이 앞에서는 누구나 위대한 인물을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무실에서 작업복처럼 입은 헐렁한 린넨 재킷 차림새로도 그는 매혹적이면서도 위엄 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흰 제의를 입고 매일 해를 향해 인사하는 금빛 관을 쓴 그의 모습은 정말로 장엄했다. 때로는 거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모습에 닿자마자 갑자기 끊기기도 했다.

하루에 세 번, 새로운 태양 숭배자는 웨스트민스터의 모든 시선을 받으며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빛나는 주님께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였다. 새벽에 한 번, 해질 녘에 한 번, 그리고 정오의 충격적인 순간에 한 번.

그리고 정오의 종소리가 의회와 교회의 탑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던 그 순간, 플랑보의 친구인 브라운 신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아폴론의 흰 제사장을 보았다.

플랑보는 이런 일상의 '아폴로 경배'를 이미 충분히 목격했다. 그는 신부의 뒤를 돌아보며 따라오라고 기다리지도 않은 채, 키 큰 건물의 현관 안으로 툭 들어섰다.

반면 브라운 신부는, 의식이라는 직업적 흥미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우스꽝스러운 광경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인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태양 숭배자의 발코니를 응시했다. 마치 펀치와 주디 인형극을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선지자 칼론은 이미 일어서 있었다. 은빛 의복을 입고 손을 들어 올린 채, 그의 기이하게도 파고드는 목소리가 분주한 거리 끝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태양 찬송가를 읊고 있었다. 이미 그 한가운데에 빠져든 그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해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가 이 세상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그가 본 것은 없었다. 바로 아래 군중 속에 서 있는, 눈이 부셔 깜빡이는 눈을 가진 동그란 얼굴의 작은 사제 한 명을 보지 못했다.

아마도 이 두 사람 사이의 가장 놀라운 차이점은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브라운 신부는 어떤 것도 깜빡임 없이 바라볼 수 없었다. 반면 아폴로의 사제는 정오의 맹렬한 햇살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응시할 수 있었다.

"오 태양이여!" 선지자가 외쳤다. "별들 사이에서 너무도 위대하여 허락되지 않는 그 별이여! '공간'이라 불리는 그 비밀스러운 곳에 고요히 흐르는 샘물이여. 백색의 모든 피로하지 않은 것들의 아버지, 백색의 불꽃과 백색의 꽃과 백색의 봉우리여. 아버지, 당신의 가장 순결하고 고요한 모든 자녀들보다도 더 무죄하신 분이여. 원초적 순결이여, 그 평안 속으로——"

로켓이 역류하듯 거대한 굉음이 들리는 순간, 날카롭고 끊이지 않는 비명이 그 소리를 가르며 튀어 올랐다.

저택의 정문으로 다섯 사람이 급히 뛰어들어오는 사이, 세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뛰쳐나왔다. 순식간에 그들은 서로의 귀를 찢을 듯한 소음으로 뒤덮였다.

어떤 갑작스럽고도 끔찍한 공포가 잠시 거리 절반을 뒤덮은 듯했다. 그 소식은 모두 나쁜 소식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소동의 굉음이 잦아들자, 두 사람만이 움직임을 멈춘 채 그 자리에 남았다. 위로는 아폴로의 빛나는 사제, 아래로는 그리스도의 추한 사제.

드디어 플랑보의 장신과 거대한 기운이 저택 문간에 나타나 작은 군중을 압도했다. 그는 안개 경적처럼 큰 소리로 외치며, 누구든 좋으니 외과 의사를 부르라고 소리쳤다. 그가 다시 어둡고 붐비는 현관 안으로 돌아서자, 그의 친구 브라운 신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 들어

갔다. 그는 군중 사이로 몸을 낮추고 비키며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태양의 사제가 행복의 신, 즉 분수와 꽃의 친구인 신을 향해 부르짖는 웅장한 선율과 단조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브라운 신부는 플랑보와 여섯 사람 남짓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던 그 좁은 공간을 둘러싸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른 무언가가 내려온 것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야 할 무언가가.

플랑보는 지난 4분 내내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비극의 존재를 부인했던, 그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가 깨지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그는 지켜보았다.

그가 폴린 스테이스가 맞다는 사실에 단 한 순간의 의구심도 품은 적이 없었다. 그는 의사를 부르기는 했지만, 그녀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줄기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았다. 좋아할 점도 싫어할 점도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소한 디테일과 습관들이 남긴 견디기 힘든 비극은, 상실을 겪는 자를 작은 칼날들로 찌르는 듯 그를 괴롭혔다. 그는 그녀의 예쁜 얼굴과 교조적인 말투를, 죽음의 쓴맛이 모두 담긴 듯한 갑작스럽고 생생한 기억으로 떠올렸다.

순간이었다. 천둥이 난데없이 치듯,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듯, 그 아름답고 거만했던 몸은 열린 엘리베이터 샤프트 아래로 떨어졌고, 바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는 자살한 걸까? 그토록 오만한 낙관주의자였으니 불가능해 보였다. 살해당한 걸까? 하지만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아파트에는, 누구를 죽일 만한 상대가 어디 있겠는가?

그는 거친 말로, 강하게 말하려다 갑자기 약해져 버린 목소리로 칼론이라는 남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평소 무겁고 조용하며 차분한 목소리가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칼론은 지난 열다섯 분 동안 발코니에 올라가 자신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했다.

플랑보는 그 목소리를 듣고, 브라운 신부의 손을 느끼자 검붉은 얼굴을 돌려 불쑥 말했다.

"그가 그 위를 계속 서 있었다면, 도대체 누가 범행을 저질렀단 말인가?"

"아마도," 다른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 볼 수 있겠소. 경찰이 움직이기까지 아직 반시간이 더 남았으니까."

살해된 상속녀의 시체는 외과 의사들에게 맡긴 채, 플랑보는 계단을 뛰어올라 타자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는 다시금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이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친구에게로 급히 돌아왔다.

"그녀의 자매," 그가 불쾌할 정도로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자매가 산책하러 나간 것 같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면, 그 여성이 그 태양 숭배자의 사무실로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당신이라면, 그 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당신 사무실에서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덧붙였다.

"아, 내가 왜 저렇게 어리석었지? 당연히 아래층에 있는 그들의 사무실이지."

플랑보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신부는 그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스테이시 가의 빈 집 안이었다. 그곳에서 속을 알 수 없는 신부는 현관 입구에 놓인 큰 붉은 가죽 의자에 앉았다. 그곳은 계단과 중간 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다.

그가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다. 약 4분쯤 지났을까, 세 명의 인물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장중함이라는 점 외에는 공통점이 없었다.

첫 번째는 조안 스테이시였다. 사망한 여자의 자매였다. 분명히 그녀는 잠시 동안 '아폴로의 신전'이라 불리던 방에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아폴로 신부 그 자체였다. 그의 기도가 끝난 뒤, 그는 완전한 위엄을 자랑하며 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흰 제복과 수염, 갈라진 머리카락에서 도레의 '프라이토리움을 떠나는 그리스도' 같은 인상이 풍겨 나왔다. 세 번째는 플랑보였다. 그는 검은 눈썹을 찌푸린 채, 다소 당황한 표정이었다.

조안 스테이시 양은 어두운 표정이었고, 얼굴은 피로에 지친 듯 해졌으며, 머리카락에는 아직 젊은 나이에 회색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곧장 걸어 가서 실용적인 동작으로 종이를 펼쳤다. 그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성으로 돌아왔다. 만약 조안 스테이시 양이 범인이라면, 그녀는 차분한 범인이었다. 브라운 신부는 이상한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그녀에게서 떼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선지자여," 그가 말했다. 아마도 칼론에게 하는 말이었다. "당신의 종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칼론이 아직 왕관을 쓴 채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이런 말입니다." 브라운 신부는 솔직하게 의아하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쁜 첫 번째 원칙을 가졌다면,

그건 부분적으로 그의 잘못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매우 명확한 양심을 모욕하는 사람과 소피즘으로 어느 정도 흐려진 양심을 가진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정말로 살인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비난인가요?" 칼론이 아주 조용히 물었다.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가 역시나 다정하게 대답했다. "이건 방어의 변론입니다."

방 안은 놀란 듯 고요했다. 그 긴 정적 속에서 아폴로의 예언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정말로 그것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았다. 그는 자신의 빛과 생명으로 그 방을 가득 채웠다. 그의 기운이 넘쳐서, 만약 그가 원한다면 살리스베리 평원 전체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예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고전적인 장막을 방 전체에 두르는 듯했다. 그의 서사시 같은 제스처는 공간을 더 웅장한 시야로 넓혀주었다. 그러자 현대 성직자의 작은 검은 형상은 마치 흠집이자 침입자처럼 보였다. 헬라스의 찬란함 위에 찍힌 둥글고 검은 얼룩 같았다.

"드디어 만났군, 가야바." 선지자가 말했다. "당신의 교회와 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유일한 실재일세. 나는 해를 숭배하지만, 당신은 해가 가려지는 것을 숭배하네. 당신은 죽어 가는 자들의 사제이며, 나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사제이지. 지금 당신이 저지르는 의심과 비방의 행위는 당신의 가운과 신조와 꼭 어울리네. 당신의 교회는 그저 검은 경찰일 뿐이오. 당신은 배신이나 고문으로든 사람들의 죄를 자백하게 하려

드는 정탐꾼이자 형사일 뿐이오. 당신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단죄하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무죄로 입증하려 하네. 당신은 사람들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가진 덕목을 일깨워 주려 하네."

악의 서적을 읽는 독자여,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다. 당신의 터무니없는 악몽을 영원히 날려버리기 전에.

당신이 나를 유죄로 만들 수 있든 없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당신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불명예와 끔찍한 교수형이라 부르는 것들은, 다 자란 성인에게 장난감 그림책 속 괴물이 별것 아니듯 내게는 별것 아니다.

당신이 변호 측의 연설을 하려 한다고 했지. 나는 이 세상의 구름 같은 것에 관심이 없으니, 오히려 기소 측의 연설을 대신해주마. 이 일에서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내가 직접 그 말을 하겠다.

죽은 여자는 나의 사랑이었고 나의 신부였다. 당신의 납작한 성당들이 '합법'이라 부르는 방식과는 달랐다. 하지만 당신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만큼 더 순수하고 엄격한 법에 의해서였다. 그녀와 나는 당신들의 세계와 다른 세계를 걸었고, 당신들이 벽돌로 된 터널과 복도를 천천히 걸어 다닐 때, 우리는 수정궁전을 밟고 다녔다.

자, 나는 경찰관들이나 신학자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있었다면 곧 증오가 따라올 것이라고 항상 착각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기소 측의 첫 번째 주장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주장은 더 강력하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아끼지 않겠다. 폴린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은 물론, 오늘 아침 그녀가 죽기 직전에 그 책상에서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도 진실이다. 그 유언장은 그녀가 내게와 나의 새로운 교회에 50만 파운드를 남기도록 한 것이었다.

자, 수갑은 어디 있는가? 당신이 나를 어떻게 부려먹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징역형은 단지 그녀를 길가 역에서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수형은 그녀를 향해 급히 달리는 수레를 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는 청중의 뇌리를 강타하는 연설가 특유의 위엄 있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플랑보와 조안 스테이시는 놀람과 경외감에 찬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브라운 신부의 얼굴에는 극심한 고통 외에는 다른 표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이마에 깊은 주름을 짓고 땅만 내려다보았다. 태양의 예언자라고 불리던 남자는 벽난로 난간을 가볍게 기대며 다시 말을 이었다.

“간단히 말해, 저를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짧은 말로, 그 증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겠습니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요.

제가 이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진리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저는 이 죄를 저지를 수 없었습니다.'

폴린 스테이시는 정오 5분, 즉 12시 5분에 이 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백 명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할 것입니다. 정오 직전부터 12시 15분까지, 제가 평소대로 공개 기도를 드리러 제 방 발코니에 서 있었다고 말입니다.

제 서기, 클랩햄 출신의 단정하고 무난한 청년은 저와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는 아침 내내 제 사무실 앞방에 앉아 있었으며, 그 시간 동안 저와 어떤 교신도 오가지 않았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그는 제가 정오보다 정확히 10분 일찍 도착했으며, 사고에 대한 풍문이 돌기 15분 전부터 사무실과 발코니를 떠나지 않았다고 맹세할 것입니다.

이토록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절반을 소환장으로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손수갑은 다시 치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멍청한 의심의 자취를 공기 중 어디에도 남기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불행한 친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제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제 신앙과 철학을 탓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를 감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고차원적인 진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떤 고수들과 깨달은 이들이 역사 속에서 공중 부양, 즉 공중에 스스로

떠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 신비주의 지혜의 핵심인,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복의 일부일 뿐입니다.

불쌍한 폴린은 충동적이고 야망이 강한 성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신비주의의 깊이가 실제보다 더 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내려갈 때면, 그녀는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의지가 충분히 강하다면, 깃털처럼 해롭지 않게 가라앉을 수 있다'고요.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녀가 고귀한 생각들의 황홀감에 빠진 나머지 그 기적을 시도했다고요. 그녀의 의지, 혹은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고, 물질의 낮은 법칙이 끔찍한 복수를 저질렀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우 슬프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듯 매우 오만하고 악랄하지만, 분명히 범죄는 아니며 저와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경찰 법정의 속기 용어대로라면, 여러분은 이를 자살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과학의 진보와 천천히 하늘을 오르는 과정 속에서의 영웅적인 실패라고 부르겠습니다."

플랑보는 브라운 신부가 패배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신부는 여전히 땅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다. 그의 눈썹은 고통스럽게 주름져 있었고, 마치 부끄러움에 잠겨 있는 듯했다. 예언자의 날개 달린 말들이 불러일으킨 감정을 피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남들을 의심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우울한 전문 용의자가, 더 당당하고 더 순수한 자연스러운 자유와 건강의 정신에 의해 압도당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들었다. 마

침내 그는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 것처럼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음, 만약 그렇다면, 신사 여러분, 당신은 내가 말한 유언장을 가져가고 가시면 됩니다. 그 가난한 여인이 그걸 어디에 남겨두었는지 궁금하군요."

"저기 문 옆 그녀의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칼론이 말했다. 그의 태도는 그토록 묵직하고 순진해 보였기에, 그는 완전히 무죄인 양 보였다. "그녀가 아침에 그걸 쓰겠다고 특별히 말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으로 올라가면서 실제로 그녀가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문이 열려 있었나요?" 신부가 짚으로 짠 깔개 구석에 시선을 고정하며 물었다.

"네," 칼론이 차분하게 말했다.

"아, 그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죠." 다른 한 사람이 말하며 다시 방바닥을 응시했다.

"여기 종이가 하나 있네요." 조안 자매가 다소 기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문가에 있는 언니의 책상 쪽으로 다가가 파란색 풀스캡 용지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시큼한 미소가 맺혀 있었는데, 그런 장면이나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플랑보는 어두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칼론 선지자는 지금껏 그를 버티게 해 준 그 충직한 태연함으로 종이에서 물러나 서 있었다. 하지만 플랑보가 그 종이를 부인 손에서 받아 들고는, 가장 큰 놀라움으로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확실히 유언장 특유의 격식 있는 문체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소유한 모든 것을 기증하고 유증한다"라는 문구 뒤에, 글씨는 갑자기 굵힌 자국들로 끊겨 버렸다. 그리고 어떤 수증자의 이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놀란 플랑보는 이 잘려나간 유언장을 신부 친구에게 건넸다. 신부는 그것을 힐끗 바라본 뒤, 아무 말 없이 태양신의 사제에게 건네주었다.

그 순간, 그 교황은 화려하게 흐르는 제복 자락을 휘날리며 두 걸음에 방 안을 가로질러 왔다. 그는 조안 스테이시 위에 우뚝 솟아 섰고, 푸른 눈동자가 머리에서 튀어나올 듯 부릅떠져 있었다.

"여기서 무슨 원숭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그가 외쳤다. "폴린이 쓴 게 다는 아니야."

그들은 그가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목소리에는 양키 특유의 날카로운 쉰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의 위엄과 훌륭한 영어 실력은 마치 겉옷을 벗어던지듯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게 그녀 책상 위에 있는 유일한 거예요." 조앤이 말했다. 그리고 그 악의 어린 미소를 그대로 유지하며 그를 마주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저주와 불신으로 가득 찬 말들을 쏟아냈다. 그의 가면이 벗겨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마치 인간의 진짜 얼굴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았다.

"여기 좀 봐!" 그는 저주 섞인 한숨을 다 뱉어낸 뒤, 숨을 헐떡이며 광활한 미국식 억양으로 외쳤다. "나는 모험가일지언정, 당신이야말로 살인자요. 네, 여러분, 여기 그 죽음의 진상이 밝혀집니다. 초자연적인 부양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가엾은 소녀는 저를 위해 유서를 쓰고 있었죠. 저주받은 자매가 들어와 펜을 빼앗으려 몸부림쳤고, 유서를 다 쓰기도 전에 소녀를 우물가까지 끌고 가서 던져버린 겁니다. 천만에, 결국 우리 손에 수갑이 필요하겠군요."

"당신이 정확히 지적했군요." 조안이 거친 차분함으로 대답했다. "당신의 서기는 매우 신실한 젊은이입니다. 그는 맹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는 제 언니가 떨어진 전후 각 5분간, 제가 당신의 사무실에서 타이핑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어느 법정에서나 증언할 것입니다. 플랑보 씨도 제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렇다면," 플랑보가 외쳤다. "폴린은 떨어질 때 혼자였고, 그것은 자살이었던 거야!"

"그녀가 떨어졌을 때, 그녀 혼자였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어떻게 죽었단 말인가?" 플랑보가 재촉하듯 물었다.

"그녀는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어요." 형사가 반박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혼자일 때 살해당했습니다." 사제가 대답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응시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옛날처럼 처진 자세로 앉아 있었다. 둥근 이마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개인적인 수치와 슬픔이 아닌, 보편적인 죄책감과 비애가 서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색채도 없이 쓸쓸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칼론이 저주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경찰이 이 잔인하고 사악한 자매를 언제 잡으러 오느냐는 거야. 그녀는 자신의 피를 나눈 친족을 죽였지. 그리고 내 것을 강탈했어. 반백만 파운드나. 그건 그 무엇 못지않게 신성히 내 것이었는데--"

"자, 자, 예언자여." 플랑보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며 말을 끊었다. "이 세상이 모두 구름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오."

태양신의 제관이 발판 위로 다시 올라서려 애썼다. "그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그 돈으로 전 세계의 사역을 뒷받침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의 뜻이기도 합니다. 폴린에게 이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폴린의 눈에는——"

브라운 신부가 갑자기 몸을 쭉 펴며 일어섰다. 그의 뒤에는 넘어진 의자가 바닥에 평평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죽을 만큼 창백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에 불타 오르는 듯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거야!" 그가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지. 폴린의 눈에는--"

거대한 예언자는 작은 신부 앞에서 거의 광기 어린 혼란으로 물러섰다.

"무슨 뜻이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는 거듭 외쳤다.

"폴린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군요." 사제가 거듭 말했다. 그의 눈은 점점 더 빛나고 있었다. "계속하십시오. 하느님의 이름으로, 계속하십시오. 악마들이 저지른 가장 더러운 죄라도 고해성사를 마친 뒤에는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고백을 간청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폴린의 눈으로 본 것을요."

"놓아주시오, 악마 같은 놈!" 칼론이 거인처럼 사나운 기세로 몸부림치며 외쳤다. "당신은 누구요? 저주받은 정탐꾼이 어찌하여 거미줄을 치듯 나를 에워싸고, 엿보고 또 엿보는 것이오? 놓아주라고!"

"제가 막아 드릴까요?" 플랑보가 물었다. 칼론이 이미 문을 활짝 열어젖혔기에, 그는 출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아니, 그에게 길을 주게."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우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듯한, 기이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카인을 지나가게 하라. 그는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이야."

그가 방을 나서자, 방 안은 긴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은 플랑보의 날카로운 머릿속에서는 한 번의 심문보다 더 가혹한 고통으로 느껴졌다. 조안 스테이시 미스는 매우 냉정하게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했다.

"신부님," 플랑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제 호기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 의무입니다. 만약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가 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어떤 범죄 말입니까?"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물론 우리가 상대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친구가 성급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두 가지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것들은 무게가 사뭇 다르고, 범인들도 전혀 다른 이들입니다."

조안 스테이시 양은 자신의 서류들을 모아서 정리한 뒤, 서랍에 자물쇠를 채우려 했다. 브라운 신부는 그 모습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녀 역시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 듯이 말을 이어갔다.

"두 가지 범죄는 모두 같은 사람의 같은 약점을 찌른 것이야. 바로 그녀의 돈 때문이었지.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더 작은 범죄 때문에 발목을 잡혔고, 그 작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결국 돈을 손에 넣었어."

"오, 강연하듯 장황하게 말하지 마," 플랑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간단히 말해."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다.

조안 스테이시 양은 작은 거울 앞에 서서, 업무에 매진하는 듯한 검은 눈썹을 찌푸리며, 똑같이 업무적인 검은 모자를 머리에 단단히 고정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한가로운 태도로 손가방과 우산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는 방을 나섰다.

"진실은 단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단어죠."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폴린 스테이시는 눈이 멀었습니다."

"맹인이라니!" 플랑보가 되뇌며, 온몸을 쭉 펴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혈통적으로 그 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이어 말했다. "폴린의 자매는 폴린이 허락하기만 했다면 안경부터 사줬을 겁니다. 하지만 폴린은 특이한 철학, 혹은 별난 고집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그런 병을 용인해 주면 오히려 병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흐림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의지로 그 흐림을 떨쳐내려 했죠. 그러다 눈은 피로해지면서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혹독한 스트레스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이 잘난 예언자,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가 찾아왔을 때 닥쳤습니다. 그는 맨눈으로 뜨거운 태양을 응시하라고 가르쳤죠. 그것을 '아폴론의 수용'이라 불렀습니다. 오, 만약 이 새로운 이교도들이 옛 이교도들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은 조금 더 현명했을 테니까요. 옛 이교도들은 순수한 자연 숭배가 잔혹한 면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폴론의 눈이 사람을 태우고 맹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신부는 부드럽지만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악마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눈먼 상태로 만들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눈먼 상태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그녀를 죽였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범죄의 단순함은 그 자체로 역겹기까지 하다.

그가 그녀와 함께 승강기를 타고 오르내릴 때, 직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그랬다는 것도 너희는 안다. 또 승강기가 얼마나 매끄럽고도 조용히 움직이는지도 알고 있다.

칼론은 승강기를 소녀의 층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열린 문 너머로, 그녀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유언장을 느리고도 눈먼 손으로 쓰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명랑하게 소리쳤다. 승강기를 준비해 두었으니, 준비가 되면 나오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는 버튼을 누르자, 소리 없이 자신의 층으로 쑥 올라갔다. 자신의 사무실을 지나, 자신의 발코니로 나갔다. 그리고 바쁜 거리 한 복판에서 무사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일을 마친 가엾은 소녀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갔다. 연인과 승강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곳으로. 그리고 그녀는 발을 내딛었다 _"

"멈추시오!" 플랑보가 외쳤다.

"그 단추를 누르면 50만 파운드는 거머쥘 수 있었을 텐데," 작은 신부는 그 끔찍한 일들을 대할 때처럼 무표정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산산조각 났지. 그 돈이 필요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도 폴린의 시력 상실 비밀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유언장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비록 미완성 상태였고 서명도 없었지만, 스테이시 자매 중 다른 한 명과 그녀의 하녀가 이미 증인으로 서명해 놓았다는 점이었다. 조안이 먼저 서명했지. 폴린이 나중에 완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전형적인 여성스러운 법적 형식에 대한 무시였다.

결국 조안은 진정한 증인 없이 자매가 유언장에 서명하기를 원했다. 왜 그랬을까? 나는 그 실명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폴린을 혼자 서명하게 한 것은, 사실은 서명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스테이시 가문 사람들은 대개 만년필을 쓴다. 하지만 폴린에게 그건 특히 더 자연스러운 습관이었다. 그녀는 습관과 강한 의지, 그리고 뛰어난 기억력으로 시력을 잃은 후에도 거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잘 썼다. 다만 펜에 잉크가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의 만년필은 자매가 꼼꼼하게 채워주었다. 오직 한 자루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이 한 자루는 자매가 채워주지 않았다. 남아있던 잉크는 몇 줄을 쓰고는 완전히 고갈되고 말았다.

그리고 예언자는 오십만 파운드를 잃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면서도 가장 뛰어난 살인 중 하나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도 없었다.

플랑보가 열린 문가로 다가가자, 계단을 올라오는 경찰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몸을 돌려 이렇게 말했다.

"십 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칼론까지 범인을 추적했다니, 정말 악마처럼 세심하게 모든 것을 지켜봐야만 가능한 일이지."

브라운 신부는 깜짝 놀라는 듯 몸을 움찔했다.

"그를 향한 거요." 그가 말했다. "아니요, 조안 양과 만년필에 대한 사실을 캐내기 위해선 꽤 밀착해서 따라다녀야 했죠. 하지만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미 칼론이 범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난하시는군요!" 플랑보가 외쳤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제가 대답했다.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 전부터, 그가 바로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요?"

"이런 이교도적 스토아 학파자들은," 브라운 신부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항상 자신의 강함 때문에 실패하곤 하지. 거리를 따라 굉음과 비명이 들려왔지만, 아폴로의 사제는 놀라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어. 무슨 일인지 나는 알지 못했지. 하지만 그가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었어."

부러진 검의 표징

숲의 수천 갈래 가지는 회색빛을 띠었고, 그 백만 개의 나뭇잎은 은빛으로 빛났다. 짙은 남색, 마치 슬레이트색 같은 하늘에는 별들이 부서진 얼음조각처럼 차갑고도 눈부셨다. 빽빽한 숲이 우거졌으나 사람은 드문 시골 마을은 모두 거칠고도 부서지기 쉬운 서리 속에 얼어붙어 있었다. 나무들 사이의 검은 음영은 끝없이 깊은 스칸디나비아의 지옥, 즉 계측할 수 없는 추위의 지옥처럼 보였다. 교회 정면에 솟은 네모난 돌탑조차 이교도적인 북방의 정취를 풍겨, 마치 아이슬란드 해안 바위들 사이에 우뚝 선 야만적인 탑처럼 느껴졌다. 교회 묘지를 탐험하기에는 이상한 밤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탐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묘지는 회색빛 별빛 아래에서 마치 초록빛 덩어리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숲의 잿빛 황야가 갑자기 녹색의 언덕으로 변한 듯했다. 무덤 대부분은 기울어져 있었고, 교회로 이어지는 길은 계단처럼 가파랐다.

언덕 꼭대기, 평평하고 눈에 띄는 곳에는 그 마을을 유명하게 만든 기념비가 서 있었다. 주변에는 형체 없는 무덤들이 널려 있었지만, 그 기념비만은 현대 유럽 최고의 조각가 작품이라 기이하게 돋보였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그가 묘사한 인물의 명성에 가려 순식간에 잊혔다.

별빛이라는 작은 은색 연필이 그리는 자취로, 기념비는 누워 있는 거대한 병사의 동상을 드러냈다. 강인한 두 손은 영원한 경배를 다하는 듯 봉해졌고, 큰 머리는 대포 위에 기대어 있었다. 경건한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수염이라기보다 턱수염이었다. 그것은 옛날, 무거운 뉴컴 대령의 양식을 따랐다. 제복은 몇 줄의 간단한 선으로 표현되었지만, 분명 현대전의 양상이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끝이 부러진 검이 놓여 있었고, 왼쪽에는 성서가 있었다.

빛나는 여름 오후에는 마차가 가득 차서 미국인들과 교양 있는 교외 주민들이 묘지를 구경하러 왔다. 하지만 그때조차 그들은 거대한 숲과 그 위에 얌전하게 둥글게 솟은 교회당, 묘지를 한곳으로 느끼며, 이상하게도 침묵하고 외면당한 곳이라고 느꼈다.

한겨울의 서늘한 어둠 속에서, 누구라도 그가 별들과 함께 홀로 남겨지리라 생각할 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나무들 사이로

정적만이 흘렀다. 그러다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검은 옷을 입은 두 개의 흐릿한 그림자가 작은 길을 따라 묘지로 올라갔다.

그 차가운 별빛은 너무 희미해서, 두 사람이 검은 옷을 입었다는 사실 외에는 그들 주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한 남자는 유난히 거구였으며, 다른 한 남자는(아마도 그 대비 때문이었을까) 놀라울 정도로 작았다.

그들은 역사적인 전사의 거대한 석조 무덤 앞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몇 분 동안 그 무덤을 멍하니 응시했다. 넓은 반경에 인간은 물론,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병적인 상상을 가진 자라면, 그들이 과연 인간인지조차 의심했을 법했다.

어쨌든 그들의 대화 시작은 이상하게 들릴 만했다. 첫 침묵이 흐른 뒤, 작은 남자가 다른 이에게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자갈을 어디에 숨길까?"

키 큰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래사장 위입니다."

작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현명한 사람은 나뭇잎을 어디에 숨기나요?"

"숲속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키 큰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현명한 사람이 진짜 다이아몬드를 숨길 때, 가짜 다이아몬드들 사이에 숨긴다는 말이십니까?"

"아니, 아니요." 작은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두죠."

그는 차가운 발을 한두 번 구르며 말했다.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있어. 다른 걸 말야. 좀 특이한 걸."

"성냥 좀 켜주겠나?"

큰 남자가 주머니를 더듬거렸다. 곧 성냥을 긋는 소리와 불꽃이 일며 기념비의 평평한 면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검은 글자로 새겨진 그 유명한 문구가 불빛에 드러났다. 수많은 미국인이 경건하게 읽어온 글이었다.

"아서 세인트 클레어 장군 경의 기억에 바친다. 그는 영웅이자 순교자였다. 항상 적을 정복했고 항상 그들을 용서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를 배신하여 죽였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그를 보상하시고 복수하시기를."

불꽃이 큰 남자의 손가락을 태우고, 손은 까맣게 그을린 채 성냥이 떨어졌다. 그는 다시 다른 성냥을 켜려다, 작은 동료가 그를 말렸다.

"괜찮습니다, 플랑보 형님. 저는 원하는 걸 봤습니다. 아니, 원치 않는 건 보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이제 우리는 다음 여관까지 도로를 한 마일 반쯤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려다간 사람은 불도 들고 맥주도 마셔야 마땅하니까요."

그들은 가파른 길을 내려갔다. 녹슨 대문을 다시 잠그고, 얼어붙은 숲길 위를 발걸음 소리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떠났다. 그들은 거의 사분의 일 마일을 걸어서야 작은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 현명한 사람은 해변에 돌을 숨기죠. 하지만 해변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세인트 클레어 사건에 대해선 알고 계신가요?"

"영국 장군 따위에는 문외한입니다, 브라운 신부." 큰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영국 경찰에 대해서는 조금 알지만요. 제가 아는 건 단 하나입니다. 신부님은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 누구든 좋으니 그의 묘지를 찾아다니며 저를 장장 한바퀴 돌리셨다는 거죠. 그가 여섯 군데나 묻혔다고 생각할 지경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세인트 클레어 장군의 기념비를 봤습니다. 템즈 강변에서는 그가 말을 탄 거대한 기마상도 봤고요. 그가 태어난 거리에는 그의 메달 부조가 있고, 그가 살던 거리에도 또 다른 메달 부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님은 밤이 깊어지도록 그를 모신 관을 보러 마을 교회당 묘지로 저를 끌고 오셨군요."

큰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위대한 인격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가 대체 누구였는지 전혀 모르니 말입니다. 신부님은 그 크립트와 묘비에서 대체 무엇을 찾고 계신 겁니까?"

"단 한 단어만 찾고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거기에 없는 단어죠."

"그래," 플랑보가 물었다. "이 일에 대해 내게 알려줄 생각은 없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야겠군요." 사제가 말했다. "첫째, 누구나 아는 사실. 둘째, 제가 아는 사실. 누구나 아는 것은 짧고 명확하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렸다."

"맞아요." 플랑보라는 큰 키의 남자가 경쾌하게 말했다. "잘못된 곳에서 시작해 봅시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부터요."

"전부 거짓말은 아니어도, 적어도 매우 불충분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이어 말했다. "사실상 대중이 알고 있는 것은 정확히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중은 아서 세인트 클레어가 위대하고 성공적인 영국 장군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훌륭하면서도 신중한 작전을 펼친 뒤, 그는 브라질과 맞서기 위해 지휘권을 맡았죠. 그때 브라질의 애국자 올리비에가 최후통첩을 내밀었습니다. 대중은 그 자리에서 세인트 클레어가 소수의 병력으로 올리비에의 대군을 공격했다가, 영웅적인 저항 끝에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그가 포로가 된 뒤, 문명 세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잔인하게도, 세인트 클레어는 가장 가까운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 군대가 철수한 뒤, 그는 그곳에 매달려 흔들리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부러진 검이 걸려 있었죠."

"그 널리 알려진 이야기, 사실은 거짓말인 겁니까?" 플랑보가 물었다.

"아니,"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이야.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글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플랑보가 말했다. "하지만 대중적인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체 무슨 미스터리가 있다는 거지?"

그들은 회색빛 유령처럼 서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지나쳐야 비로소 작은 신부가 대답했다. 그는 잠시 손가락을 깨물며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글쎄, 그 수수께끼는 심리학의 수수께끼야.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해, 두 가지 심리의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지. 그 브라질 사건에서 현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자신의 성격과 정반대로 행동했거든. 기억해, 올리비에와 세인트 클레어는 둘 다 진정한 영웅이었어. 틀림없는 고전적인 영웅들이지. 마치 헥토르와 아킬레우스의 싸움 같았다고나 할까."

그가 잠시 멈추고 물었다.

"그런데 만약 아킬레우스가 소심하고 헥토르가 배신자였다면,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소?"

"계속해." 큰 남자가 또다시 손가락을 깨물고 있는 상대에게 성급하게 말했다.

"아서 세인트 클레어 경은 구시대적 신앙의 군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분 같은 이들이 인도 항쟁 당시 우리를 구해 주셨죠." 브라운 신부가 이어 말했다.

"그분은 과감함보다 의무를 더 중시했습니다. 개인적인 용기는 뛰어나셨지만, 지휘관으로서 확실히 신중하셨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병력의 손실을 매우 혐오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전투에서 그분은 아무나 봐도 터무니없다고 할 만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전략가가 아니어도 바람이 불면 바람을 피해야 한다는 상식만 있으면 그 행동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달려올 때 피해야 한다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이치였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영국 장군의 머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두 번째 수수께끼는 브라질 장군의 심장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리비에 대통령은 환상적인 인물이라거나 귀찮은 존재라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들조차 그분이 기사도적 정신에 가까운 너그러움을 지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사로잡은 포로 중 거의 대부분은 석방

되거나 오히려 특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들조차도 그의 단순함과 온화함에 감동받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는 일생에 단 한 번,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한 가지 행동에 대해 악마적인 복수를 저질렀을까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 중 한 명이 이유 없이 바보처럼 행동했습니다. 세상의 선한 자 중 한 명이 이유 없이 악마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내 친구, 이제 너에게 맡기마."

"아니, 당신이 해야죠." 다른 사람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이건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모든 것을 저에게 말해야 합니다."

"자, 브라운 신부가 다시 말을 이었다. '공중의 인상이 제가 말한 그대로라고만 하기는 불공평합니다. 그 뒤에 두 가지 일이 더 있었거든요. 그 일들이 새로운 빛을 비춰 주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걸로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새로운 종류의 어둠을 던져 주었을 뿐입니다. 어둠이 새로운 방향으로 퍼져 나갔다고나 할까요.

첫 번째 일은 이렇습니다. 세인트클레어 가문의 가정의사가 그 집과 사이가 틀어졌고, 격렬한 연재 기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그는 고 장군이 종교적 광신자였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전달하는 바는, 결국 그 장군이 그냥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라는 뜻보다 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이내 시들해졌다. 물론 모두 세인트 클레어가 청교도적 경건함에서 비롯된 몇 가지 특이한 성향을 지녔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사건은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블랙 강에서 무모한 공격을 감행해 불운하게도 지원도 받지 못한 그 연대에는 키스 대위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당시 세인트 클레어의 딸과 약혼한 사이였고, 나중에는 정식으로 결혼했다. 키스 대위는 올리비에게 포로로 잡힌 이들 중 한 명이었다. 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병사들처럼, 그는 후하게 대우를 받고 곧장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약 20년 뒤, 중령이 된 키스는 『버마와 브라질에 있는 영국 장교』라는 제목의 자서전 형식의 책을 출판했다. 독자가 세인트 클레어의 참사에 대한 미스터리를 간절히 찾아보려 할 때, 다음과 같은 구절이 눈에 들어온다.

"이 책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저는 사건이 일어난 그대로 정확히 서술했습니다. 저는 영국의 영광이 스스로를 지킬 만큼 충분히 오래됐다는, 구시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외로 두는 것은 오직 블랙 강에서의 패배 사건뿐입니다. 제 이유는 사적인 것이지만, 명예롭고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다만 두 분의 저명한 분들의 명성을 위해 이것만큼은 덧붙이고 싶습니다.

세인트 클레어 장군은 이번 사건에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행동이 제대로 이해된다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고 총명했던 행동 중 하나였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올리비에 대통

령은 비슷한 평판을 통해 잔인한 불의를 저질렀다고 비난받습니다. 적의 명예를 위해 말하자면, 그는 이번 사건에서 평소의 호의 이상을 보였습니다.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동포들에게 세인트 클레어가 생각했던 만큼 바보가 아니었고, 올리비에가 생각했던 만큼 야만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말의 전부입니다. 그 어떤 세속적인 고려로도 제가 이 한 마디를 더 보태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 앞의 가시덤불 사이로 윤기 나는 눈덩이 같은 거대한 얼어붙은 달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달빛 아래서 화자는 인쇄된 종이의 한 조각을 통해 키스 대위의 글을 다시금 기억해 낼 수 있었다. 그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려던 순간, 플랑보가 프랑스식 제스처로 손을 들어 올렸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 번에 맞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앞으로 걸어나갔다. 검은 머리와 소의 목을 닮은 목덜미를 앞으로 내밀고, 마치 걷기 경주를 이기는 사람처럼 걸었다. 재미있고 흥미를 느낀 작은 사제는 옆을 따라가려 애썼다.

그들 바로 앞에서는 나무들이 좌우로 조금씩 물러났다. 길은 달빛이 비치는 맑은 계곡을 가로질러 내려갔다. 그러다가 다시 토끼가 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다른 숲의 벽 속으로 파고들었다.

먼 숲의 입구는 작고 동그랗게 보였다. 먼 철도 터널의 검은 구멍처럼. 하지만 그것은 몇백 야드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플랑보가 다시 말을 건네기 전까지 동굴처럼 벌어져 있었다.

"찾았어요!" 그가 큰 손으로 허벅지를 치며 외쳤다. "4분만 생각하면, 당신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다 말할 수 있겠군요."

"좋아," 친구가 동의했다. "네가 해라."

플랑보가 고개를 들었지만 목소리는 낮췄다.

"아서 세인트 클레어 장군은 정신병이 대물림되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딸은 물론, 가능한 한 장차 사위가 될 사람조차 숨기려 했죠. 그가 옳든 그르든, 마지막 파탄이 코앞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결심했죠. 하지만 평범한 자살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사실을 세상에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전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머릿속에는 구름이 더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기 어린 순간에, 그는 공공의 의무를 사사로운 일에 바쳤습니다. 그는 무모하게 전투에 뛰어들어, 첫 총알에 맞아 죽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포로 신세와 치욕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의 머릿속에서 봉인됐던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을 부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단단히 고정했다. 눈앞에는 회색빛 숲의 정면이 펼쳐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무덤의 입구처럼 검은 틈이 하나 뚫려 있었다. 그들의 길은 바로 그 틈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갑자기 길에 삼켜지는 그 음산한 기운이, 그에게 생생하게 그려진 비극의 광경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는지 모른다. 그는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끔찍한 이야기군요." 그가 말했다.

"끔찍한 이야기군요."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는 절망에 찬 듯 고개를 뒤로 젖히며 외쳤다. "아, 정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키 큰 플랑보가 몸을 돌리며 그를 응시했다.

"신부님의 말씀은 참으로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브라운 신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외쳤다. "달빛처럼 투명하고 순결하며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광기와 절망조차도 무죄일 수 있습니다. 플랑보, 그보다 더 나쁜 일들이 있어요."

플랑보는 급히 고개를 들어 그토록 불러낸 달을 바라보았다. 그가 서 있던 곳에서 검은 나뭇가지 하나가 달을 가로질러 휘어졌는데, 그 모양이 악마의 뿔과 꼭 닮아 보였다.

"신부님, 신부님!" 플랑보가 프랑스식 제스처를 취하며 더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다. "그게 그보다 더 나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보다 더 나빠요." 폴이 무거운 메아리처럼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숲속의 어두운 회랑으로 뛰어들었다. 줄지어 선 나무 기둥들이 흐릿한 벽화처럼 그들을 감쌌고, 마치 꿈속의 어둠 가득한 복도 같았다.

그들은 곧 숲의 가장 깊은 속살로 들어섰다. 보이지 않는 나뭇잎들이 그들을 빙 둘러싸고 닿아 있었다. 그때 신부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현명한 사람은 나뭇잎을 어디에 숨길까? 숲속에 숨긴다. 하지만 숲이 없다면 어찌할까?"

"이봐, 이봐," 플랑보가 성내며 외쳤다. "그가 대체 뭐하는 짓이오?"

"그는 그걸 숨길 숲을 심는다"라고 사제는 어둡게 말했다. "무서운 죄다."

"자, 좀 들어보게." 친구가 성급하게 소리쳤다. 어두운 숲과 어두운 말투가 그의 신경을 조금씩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해줄 건지, 말 건지 확실히 해줘. 그 외의 다른 단서는 뭐가 있어?"

"그 밖에도 구석구석 파헤쳐 찾아낸 증거가 세 가지 더 있습니다." 다른 이가 말했다. "시간순서대로 말하기보다, 논리적인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투의 결과와 경과에 대한 우리의 근거는 올리비에 자신의 전보에 있습니다. 전보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는 두세 개 연대를 거느리고 블랙 강을 내려다보는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은 더 낮고 습지가 많은 지형이었습니다. 그 너머로는 완만한 구릉지가 이어졌고, 그곳에 영국군 선봉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더 많은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본진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영국군 전체의 병력은 올리비에 군보다 훨씬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부대는 본진으로부터 거리가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올리비에군은 강을 건너 이 부대를 차단하려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무렵, 그는 자신의 위치가 특히 견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서 지원도 받지 못한 영국의 소수 부대가 강을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른쪽 다리와 위쪽의 건널목을 이용해 반은 다리를, 반은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래 습지 언덕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병력으로 그토록 견고한 지점을 공격하려 들다니,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올리비에는 그보다 더 기이한 점을 발견했다.

그 광란의 연대는 강을 등진 채 한 번의 맹렬한 돌진으로 더 단단한 땅을 점령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진흙탕에 파리처럼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물론 브라질군은 대포로 그들을 향해 큰 구멍을 뚫었다. 연대는 용감하지만 점점 약해지는 소총 사격으로 보복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꺾이지 않았다. 올리비에의 간결한 기록은 이 바보들의 신비로운 용기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끝을 맺는다.

"우리의 선이 마침내 전진하여 그들을 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세인트 클레어 장군을 비롯해 여러 다른 장교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대령과 소령은 모두 전투 중 전사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연대의 최후가 역사상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상당한 장교들이 전사한 병사들의 소총을 주워 들고, 장군 자신은 맨머리로 부러진 검을 들고 말 위에서 우리에게 맞서 있었습니다."

장군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올리비에의 기록은 키스 대위처럼 침묵하고 있다.

"그럼," 플랑보가 중얼거렸다. "다음 단서를 보자고."

"다음 단서는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말하기는 간단합니다. 저는 결국 링컨셔 펜스 깊숙이 있는 구빈원에서 한 노병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블랙 리버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연대장이 죽을 때 그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 연대장은 클랜시 대령이라는, 황소처럼 거구인 아일랜드 남자였습니다. 그는 총탄보다 분노로 더 많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 어이없는 기습작전의 책임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군의 명령이었을 테니까요. 그의 마지막 교훈적인 말은 이랬습니다. '저 망할 나귀가 칼끝을 잃고 가는구나. 그의 머리

가 잘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은 누구나 이 깨진 칼날의 디테일을 눈치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랜시 대령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경솔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뿐이죠. 이제 세 번째 조각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길은 숲속을 지나 점점 오르막으로 접어들었다. 화자는 숨을 고르며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하고 실용적인 어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작 한두 달 전, 올리비에와 다툼을 벌이고 고향을 등진 한 브라질 관리가 영국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영국은 물론 대륙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는데, 에스파도라는 이름의 스페인인이었다. 나도 그를 직접 알고 있었다. 누런 얼굴에 갈고리 코를 가진, 한물간 멋쟁이 노인이었다. 사적인 사정 때문에 그가 남긴 문서들을 볼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그는 물론 가톨릭 신자였으며, 나는 그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그와 함께했다.

그가 남긴 것들 중 성 클레어 사건과 관련된 단서는 하나도 없었다. 다만 대여섯 권의 평범한 연습장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안에는 어느 영국 병사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아마도 브라질 사람들이 전사자 중 한 명에게서 발견한 듯하다. 어쨌든 그 일기는 전투 전날 밤에 갑자기 끊겨 있었다.

"하지만 그 불쌍한 남자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은 분명 읽어볼 가치가 있었다. 내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빛이 너무 어두워 읽을 수가 없다. 대신 요점만 정리해 주마. 기록의 첫 부분은 유

머로 가득 차 있다. 분명 병사들이 서로 던진 농담들인데, '독수리'라는 인물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람이 누구든, 그는 병사들 중 한 명이 아닌 것 같았다. 영국인조차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군으로 분류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현지의 중재자이자 비전투원, 아마도 안내원이나 기자쯤 되는 사람으로 들렸다. 그는 클랜시 대령과 자주 면담했다. 하지만 더 자주 보인 것은 소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사실 이 군인의 기록에서 소령은 꽤 두드러진다. 머레이라는 이름의, 야윈 검은 머리 남자였다. 북아일랜드 출신의 청교도였다. 이 울스터인의 엄격함과 클랜시 대령의 쾌활함 사이의 대비를 두고 농담이 끊이지 않았다. 또 독수리가 밝은 색 옷을 입었다는 농담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가벼운 농담들은 호각 소리처럼 날카로운 한 마디에 순식간에 흩어졌다.

영국군 진영 뒤쪽, 강과 거의 평행하게 달린 그 지역 몇 안 되는 주요 도로 중 하나가 있었다. 서쪽으로는 그 도로가 강가를 따라 굽이쳐 내려가, 앞서 언급한 다리를 건너 강을 건넜다. 동쪽으로는 그 도로가 황야 속으로 휘감기듯 이어졌고, 약 두 마일쯤 떨어진 곳에 다음 영국군 기지가 있었다.

그날 저녁, 그쪽 방향에서 기병대의 빛나는 행렬과 말발굽 소리가 도로를 따라 들려왔다. 단순한 일기 작가조차 놀라움으로 그 행렬을 지켜보았다. 장군과 참모들이 함께였다. 장군은 일러스트레이션 신문이나 아카데미 그림에서 자주 보아온 그 큰 흰 말에 타고 있었다. 그들이 장군에게 올린 경례가 단순한 의식에 불과하지 않았음은 틀림없었다.

장군은 적어도 의식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안장에서 즉시 내려와 장교들 무리 속에 섞여들었다. 그리고는 단호하지만 속삭이듯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일기 저자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장군이 머레이 소령과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그런 선택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 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었고, 구식 복음주의자형 장교들이었다.

어쨌든 장군이 다시 말에 올랐을 때, 그는 여전히 머레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말의 고삐를 잡아 강 쪽으로 도로를 내려갈 때, 키 큰 얼스터 출신의 머레이도 여전히 진지한 논쟁을 벌이며 말의 고삐 옆을 따라 걷고 있었다.

병사들은 두 사람이 강 쪽으로 꺾이는 나무 무리 뒤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지켜보았다. 대령은 이미 천막으로 돌아갔고, 병사들도 각자 파수 자리로 돌아갔다. 일기를 쓰는 남자는 또 4분이나 더 머물렀다. 그리고 그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느릿느릿 도로를 내려오던 그 위대한 백마가, 수없이 많은 행렬에서 그랬듯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그들을 향해 돌진해 왔다.

처음에는 그 말에 탄 남자가 말을 잃고 도망친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그들은 장군, 뛰어난 기마술가인 그가 스스로 말에 채찍을 가하며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말과 기수는 허리케인처럼 그들 곁을 스쳤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말의 고삐를 잡아당긴 장군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얼굴로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죽은 자를 깨우는 나팔소리처럼 대령의 이름을 외쳤다.

나는 그 대참사의 지진 같은 사건들이, 일기를 쓴 우리 친구 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마치 목재 더미처럼 뒤섞여 쌓여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꿈속의 어지러움과 흥분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대열 속으로 떨어지듯 들어가는 것을, 말 그대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강을 건너 즉각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군과 소령이 다리에서 어떤 것을 알아냈다고 했다. 목숨을 건 공격을 감행할 시간이 겨우 남아 있었다. 소령은 즉시 도로 뒤쪽의 예비군을 소집하기 위해 돌아갔다. 그 긴급한 호소조차도 도움이 제때에 도착할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밤에 강을 건너야 했고, 아침이 되기 전에 고지를 점령해야 했다. 일기는 바로 그 낭만적인 야행군 행진의 소란과 맥동 속에서 갑자기 끝난다.

브라운 신부는 앞서 올라갔다. 숲속 길이 점점 좁아지고 가파지며 굽이치더니, 마치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어둠 속에서 신부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왔다.

"또 하나, 작으면서도 거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그들을 기사도적 돌격으로 몰아세울 때, 그는 반쯤 검을 칼집에서 빼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그런 극적인 행위가 부끄러웠는지, 다시 검을 칼집에 꽂아 넣었죠. 보시다시피, 또다시 그 검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 가지들이 빽빽하게 얽힌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 빛은 그들의 발치에 거미줄 같은 그림자를 던졌다. 그들은 다시 맨 밤하늘의 옅은 빛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플랑보는 진실을 공기처럼, 즉 사방을 감싸는 분위기로서는 느꼈다. 하지만 하나의 개념이나 이념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어지러운 머리로 대답했다.

"자, 칼이 어때서요? 장교들은 보통 칼을 차고 다니지 않나요?"

"현대 전쟁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 다른 한 사람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어디서든 축복받은 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이야?" 플랑보가 으르렁거렸다. "그건 그냥 이따위 사건일 뿐이야. 두 펜스짜리 싸구려 통속극 같은 사건이지. 늙은이가 마지막 전투에서 칼날이 부러졌다는 거. 신문에 실릴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어. 지금도 그렇게 됐잖아. 그 무덤이나 묘지 같은 데서도 칼끝이 부러진 건 다 똑같이 묘사되어 있어. 네가 나를 이 극지 탐험 같은 곳에 끌고 온 게, 그림 눈이 있는 두 사람이 세인트 클레어의 부러진 칼을 봤다는 이유 때문은 아니지?"

"아니요." 브라운 신부가 총알이 터지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런데 그의 깨지지 않은 칼을 누가 봤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한 사람이 소리쳤다. 그리고 별들 아래에서 발을 멈췄다. 그들은 갑자기 숲의 회색 문턱을 벗어나 있었다.

"그러니까, 그의 깨지지 않은 칼을 누가 봤단 말입니까?" 브라운 신부가 고집스럽게 되물었다. "일기장을 쓴 사람은 아니지. 어쨌든 장군은 제때 칼을 칼집에 넣었으니까."

플랑보는 달빛 아래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햇빛 아래서 갑자기 눈이 먼 사람이 주위를 더듬듯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처음으로 열정을 담아 말을 이었다.

"플랑보," 그가 외쳤다. "나는 무덤들을 뒤져 봐도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전체 그림을 뒤집어엎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실을 하나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대령은 총탄을 가장 먼저 맞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죠. 군대가 근접전을 벌이기 훨씬 전에, 그는 이미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인트 클레어의 검이 부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검이 왜, 어떻게 부러졌을까요? 친구여, 그 검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러져 있었습니다."

"오!" 친구가 쓸쓸하면서도 유쾌한 어조로 물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조각은 어디 있단 말인가?"

"알고 있습니다." 사제가 곧장 대답했다. "벨파스트의 프로테스탄트 성당 묘지 북동쪽 구석에 있습니다."

"정말요?" 다른 쪽에서 물었다. "당신은 그걸 찾아봤나요?"

"죄송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솔직하게 사과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대리석 기념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유명한 블랙 리버 전투에서 용감하게 전사한 머레이 소령을 기리는 기념비 말입니다."

플랑보가 갑자기 살아난 듯했다. “당신은 무슨 뜻이오?” 그는 쉰 목소리로 외쳤다. “성 클레어 장군이 머레이를 미워해서, 전장에서 그를 살해했다는 말이오?”

“당신은 아직 선하고 순수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군요.”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보다 더 나빴습니다.”

“음,” 큰 남자가 말했다. “내 악의적인 상상은 다 떨어졌군.”

신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로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현명한 사람은 나뭇잎을 어디에 숨길까? 숲속에.”

다른 한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만약 숲이 없다면, 그는 숲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죽은 나뭇잎 하나를 숨기고 싶다면, 그는 죽은 숲 전체를 만들 것이다.”

아직도 대답은 없었다. 신부는 더욱 부드럽고 조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만약 누군가 시체를 숨겨야 한다면, 그는 시체들로 가득한 들판 속에 그것을 숨길 거야.”

플랑보는 시간과 공간의 지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듯 발을 구르며 앞으로 내딛었다. 그러나 브라운 신부는 마치 마지막 문장을 이어가는 양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아서 세인트클레어 경은 이미 말했듯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 점이 그의 문제였다. 사람들은 언제쯤 깨달을까. 성경만 읽고 남의 성경은 읽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한 인쇄공은 성경을 오자 찾느라 읽는다. 모르몬교도는 성경을 읽고 다처제를 발견한다. 기독교과학자는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는 팔과 다리가 없다고 믿는다. 세인트클레어 경은 인도에서 복무한 노년의 영국 개신교 군인이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잠시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일에 대해 허탄한 수사는 멈추라.

그것은 열대 햇살 아래 오리엔트 사회에서 살며, 이리저리 방향 없이 오리엔트의 한 책에 몸을 담그고 있는, 육체적으로 무서운 한 남자를 의미할 수 있다. 물론 그는 신약보다 구약 성경을 읽었을 것이다. 물론 그는 구약 성경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 즉 정욕과 폭정과 반역을 찾아냈을 것이다.

음, 그가 너희가 말하는 대로 정직했다고 하겠다. 하지만 부정의에 대한 숭배에서 정직하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남자는 자신이 찾았던 각기 뜨겁고 비밀스러운 땅마다 하렘을 거느렸고, 증인들을 고문했으며, 수치스러운 금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그는 확고한 눈빛으로, 자신이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했다고 말했을 것이다.

나의 신학은 단 한 가지 질문으로 충분하다. '어떤' 주님의 영광인가?

어쨌든 이런 악행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지옥의 문을 하나둘 열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문은 항상 더 작고 좁은 방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범죄에 대한 진정한 비난이다. 인간은 점점 더 야생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비열해지기 때문이다.

세인트클레어는 곧 뇌물과 협박의 난관에 질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블랙 리버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는 세계를 떠나 또 다른 세계를 거쳐, 단테가 우주의 가장 낮은 바닥이라 묘사한 곳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가 다시 물었다.

"그게 제 뜻입니다." 신부가 선뜻 대답하며, 달빛에 반짝이는 얼음으로 덮인 웅덩이를 가리켰다. "단테가 얼음의 마지막 원형에 누구를 넣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배신자들이군." 플랑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무들이 어둠 속에서 비현실적인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 윤곽은 조롱하는 듯, 거의 음란할 정도로 기이하게 뻗어 있었다.

그 풍경에 압도된 그는, 자신이 단테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흐릿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신부는, 확실히 영원한 죄악의 땅을 이끌어 주는 베르길리우스였다.

"올리비에가 알다시피, 그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비밀 요원과 스파이를 용납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일은 다른 많은 일들처럼, 그의 등 뒤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이는 제 옛 친구 에스파도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차림새의 허영심 많은 젊은이였는데, 갈고리 코 때문에 '독수리'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그는 전선에서 자선가 행세를 하며 영국 군대 내부의 실상을 살폈고, 마침내 그 군대에서 가장 부패한 인물—오, 하느님 맙소사!—그것도 꼭대기에 있는 자를 손에 넣었습니다.

세인트클레어 장군은 거액의 돈이 시급했습니다. 이미 신임이 떨어졌던 그의 가족 의사가, 나중에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충격적인 폭로를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크 레인에서 자행된 괴상하고 원시적인 사건들, 그리고 인간 제사와 노예 떼를 연상시키는 영국 복음주의자들의 행위가 폭로될 위기에 처했던 거죠.

또한 그의 딸의 지참금도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부의 명성은 부 그 자체만큼이나 달콤했으니까요. 그는 마지막 끈을 끊고 브라질에 신호를 보냈고, 영국에 적대적인 세력들로부터 재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에스파도 독수리에게 말걸은 사람은 세인트클레어 장군만은 아니었습니다. 울스터에서 온 어둡고 엄숙한 젊은 소령이, 그 끔찍한 진실을 어렴풋이 눈치챈 것이죠. 두 사람이 다리를 향해 느릿느릿 걷고 있을 때, 소령은 장군에게 즉각 사임하지 않으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총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군은 그가 다리가 있는 곳, 열대 나무가 끝나는 지점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래하듯 흐르는 강물과 햇살에 반짝이는 야자수들 사이에서(저는 그 풍경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장군은 사브르를 빼 들고 소령의 몸통을 꿰뚫었습니다."

겨울철 길은 살을 에는 서리 속에서 능선을 넘어 굽이쳤다. 가시덤불과 덤불들은 잔인할 정도로 검은 형상을 드러냈다. 하지만 플랑보는 그 너머에 희미하게 빛나는 고리의 끝자락을 본 것 같았다. 그것은 별빛이나 달빛이 아니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불꽃처럼 보였다. 그는 이야기가 막바지에 다다를 때까지 그 빛을 지켜보았다.

"세인트클레어는 지옥의 사냥개였지만, 품종은 훌륭했습니다. 가엾은 머리가 그의 발치에서 차가운 덩어리로 얼어붙었을 때, 그토록 맑고 강렬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키스 대위가 정확히 지적했듯, 그 위대한 인물이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 바로 이 마지막, 세상에 경멸받는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얼굴로 무기를 닦았습니다. 희생자의 어깨 사이에 꽂았던 칼끝이 몸속에서 부러져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는 마치 클럽의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듯, 차분하게 그 뒤에 닥칠 일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설명할 수 없는 칼끝을 찾아내며, 이상하게 부러진 칼, 혹은 사라진 칼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침묵을 강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독선적인 지성이 그 난관에 맞섰습니다. 아직 한 가지 방법이 있었

습니다. 그는 이 한 명의 시체를 덜 이상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한 명의 시체를 덮을 수 있는 시체의 언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십 분 후, 팔백 명의 영국 병사들이 죽음으로 향하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검은 겨울 숲 너머로 따뜻한 빛이 더 진하고 밝게 번져갔다. 플랑보가 그 빛을 향해 거침없이 걸음을 재촉했다. 브라운 신부도 발걸음을 빠르게 했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이야기에만 몰두한 듯했다.

이 영국인 천 명의 용맹과 그들의 지휘관이 지닌 재능은 대단했다. 만약 그들이 즉시 언덕을 공격했다면, 비록 그 광란의 행군이라 할지라도 운이 따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을 장기판의 졸처럼 가지고 놀던 악한 마음은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영국군 시체가 흔한 광경이 될 때까지, 적어도 다리가 있는 습지대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고 나서야 마지막 웅장한 장면이 펼쳐질 참이었다. 은발의 전사 성인이, 더 이상의 학살을 막기 위해 부서진 검을 내려놓을 것이었다.

오, 이 즉흥적인 작전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었는가.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증명은 못 하겠지만) 그 피투성이 진흙탕에 발이 묶여 있을 때, 누군가는 의심했고, 누군가는 추측했으리라.

그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어디서 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내게 말합니다. 맞힌 자가 연인이었음을, 곧 노인의 딸과 결혼할 사람이었음을."

"그런데 올리비에와 교수형 건은요?" 플랑보가 물었다.

"올리비에는 기사도적 정서도, 또 정책적 계산도 섞여 있어 포로를 데리고 행군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화자는 설명했다. "대개 그는 모든 포로를 풀어주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는 모든 포로를 풀어주었다."

"장군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요." 키 큰 남자가 말했다.

"모두요." 신부가 말했다.

플랑보는 검은 눈썹을 찌푸렸다. "아직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플랑보, 다른 그림도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더 신비로운 어조로 말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새벽, 불타는 듯한 황량한 언덕에서 야영지가 해산합니다. 브라질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대오와 열을 지어 행군 준비를 합니다. 올리비에의 붉은 셔츠와 길게 늘어뜨린 검은 수염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그는 넓은 챙의 모자를 손에 쥔 채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풀어줄 가장 큰 적, 즉 백발의 순박한 영국 노병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그 병사는 자신의 부대원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영국군 잔존부대는 경례 자세를 취한 채 뒤에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철수를 위한 물자와 차량이 늘어섭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브라질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국군은 여전히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적의 소리와 빛이 열대 지방의 지평선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처럼 그들의 자세가 바뀝니다. 그들은 쉰 개의 얼굴을 일제히 장군 쪽으로 돌립니다.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죠."

플랑보가 크게 펄쩍 뛰었다. "아, 당신 말은--"

"네," 브라운 신부가 깊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세인트클레어의 목에 로프를 맨 것은 영국인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이 그의 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운 손이기도 했다고 믿습니다. 그를 수치스러운 나무에 매달아 올린 것도 영국인의 손이었죠. 그를 숭배하고 승리를 위해 따르던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국의 태양 아래 야자수의 푸른 교수대에 매달려 흔들리는 그를 바라보며, 증오에 차서 그가 그 교수대에서 떨어져 지옥으로 가기를 기도한 것도 영국인의 영혼이었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모두 용서하시고 견디게 하소서!)"

두 사람이 능선에 올라서자, 붉은 커튼이 드리운 영국 여관의 강렬한 홍색 빛이 갑자기 시야를 가득 채웠다. 여관은 길가에 옆으로 자리잡고 있어, 마치 광활한 환대의 공간에서 길을 비켜 선 듯했다. 세 개의 문이 모두 활짝 열려 손님을 초대하고 있었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도 하룻밤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를 재판했고, 결국 그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그의 딸의 명예를 위해, 그들은 배신자의 지갑과 살인자의 검날에 대한 이야기를 영원히 봉인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어쩌면——하늘이 그들을 도와주시길——그들은 그 일을 잊으려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도 잊으려 합시다. 여기가 우리가 묵을 여관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플랑보가 대답하며,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바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러나 그는 곧장 들어가지 못했다. 발걸음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다가는 길바닥에 거의 쓰러질 뻔했다.

"저기, 악마의 이름으로 봐라!" 그가 외치며, 도로 위에 걸려 있는 네모난 나무 간판을 가리켰다. 간판에는 가짜 고풍스러운 글씨로 '부러진 검의 표(The Sign of the Broken Sword)'라고 적혀 있었고, 그 위로는 거친 형상의 검손잡이와 잘려 나간 칼날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준비되지 않으셨나요?" 브라운 신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분은 이 나라의 신이십니다. 여관과 공원, 거리 절반이 그분과 그분의 이야기로 이름 지어졌으니까요."

"우린 나병 환자 이야기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플랑보가 도로에 침을 뱉으며 외쳤다.

"영국에서는 그와 관련된 일을 영원히 끝낼 수 없을 겁니다." 신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황동은 단단하고 돌은 오래 가니까요. 그의 대리석 조각상은 수세기 동안 자랑스러운 무죄의 소년들을 위로할 것이

고, 그의 마을 무덤에는 백합 향기처럼 충성의 냄새가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알지 못했던 수백만 명이 그를 아버지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 마지막 몇몇 아는 이들은 그를 오물처럼 취급했던 분을요. 그는 성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은 결코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마음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깨는 일에는 선과 악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행동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모든 신문은 사라질 것입니다. 브라질 반대 열기는 이미 지나갔고, 올리비에 장군은 이미 모든 곳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피라미드처럼 오래 갈 금속이나 대리석에, 클랜시 대령이나 키스 대위, 올리비에 대통령, 혹은 그 어떤 무고한 사람이 잘못 비난받는 이름이 새겨진다면, 그때야말로 제가 입을 열어야 한다고요. 만약 세인트 클레어가 잘못 칭송받는 것뿐이라면, 저는 침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붉은 커튼으로 치장된 여관에 뛰어들었다. 안은 아늑하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치스러울 정도였다.

테이블 위에는 성 클레어의 무덤을 본뜬 은제 모형이 놓여 있었다. 은으로 만든 머리는 숙여 있고, 은검은 부러진 채였다. 벽면에는 같은 장면을 담은 컬러 사진과, 관광객들을 태우고 그 무덤을 구경하러 가는 와건넷의 운행 계통도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푹신한 패드가 깔린 편한 벤치에 앉았다.

"자, 춥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외쳤다. "와인이나 맥주라도 한 잔 하죠."

"그럼 브랜디라도?" 플랑보가 말했다.

죽음의 세 가지 도구

브라운 신부는 소명과 신념 양면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을 잘 알고 있었다. 죽은 자는 누구나 존엄하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새벽녘에 깨어나, 아론 암스트롱 경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묘한 어색함을 느꼈다. 그토록 즐겁고 인기 있는 인물과 비밀스러운 폭력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아론 암스트롱 경은 코믹할 정도로 재미있는 인물이었고, 전설이 될 만큼 널리 알려진 인기인이었다. 마치 선니 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거나, 픽윅 씨가 한웰 요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과 같은 기이한 느낌이었다.

암스트롱 경은 자선가였기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과도 마주쳤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가장 밝고 명랑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연설은 일화와 '큰 웃음'으로 가득 찬 폭포수 같았다. 그의 건강은 터질 듯 넘쳐났고, 그의 윤리는 낙관주의 그 자체였다.

그는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음주 문제'를 다룰 때도, 성공한 금주주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멸의, 혹은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유쾌함을 보여줬다.

그의 회심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청교도적 성향이 강한 강단과 강연장에서는 그의 과거가 종종 회자되었다. 그저 소년이던 시절, 그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에서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로 빠져들었다가, 결국 그 두 가지에서 벗어나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를 겸손하게 표현했을 뿐, 실제로는 그런 삶을 청산한 것이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만찬과 회의에서 그의 모습을 본 이들은, 그가 과거에 주정뱅이나 칼뱅주의자처럼 병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넓고 하얀 수염, 천사 같은 얼굴, 그리고 빛나는 안경. 그는 마치 세상 모든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진지하게, 그리고 가장 즐겁게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햄스테드의 시골 끝자락에 있는 단아한 집에서 살았다. 키는 높았으나 폭은 좁은, 현대적이면서도 평범한 탑 모양의 집이었다. 그 집의 가장 좁은 면은 철로 옆의 가파른 초록빛 절벽을 향해 돌출되어 있었고, 지나가는 기차 때문에 집 전체가 흔들리곤 했다.

아론 암스트롱 경은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다. 자신은 신경이 쇠줄처럼 단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만약 기차가 그 집을 자주 놀라게 했다면, 그날 아침에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이제 놀란 것은 기차가 아니라 집이었다.

기관차는 집채 하나가 날카로운 잔디 경사면을 파고드는 지점 바로 너머에서 속도를 줄이며 멈췄다. 기계적인 것들의 정지는 보통 느리게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이 정지를 불러일으킨 생명의 원동력은 놀라울 만큼 빨랐다.

검은 옷을 두루 입은 한 사내가 기관차 위의 능선에 나타났다. 그는 검은 장갑을 낀 손까지 온통 검은색으로 단장하고 있었다. 그는 검은 손을 흔들며 마치 검은색 풍차처럼 보였다. 이런 모습만으로는 지체하는 기차조차 쉽게 멈추게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나온 비명은 이후에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회자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외침인지 듣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끔찍할 정도로 선명하게 기억되는 비명 중 하나였다. 그 순간 그가 외친 단어는 단 하나, “살인!”이었다.

하지만 기관사 증인은, 비록 그 끔찍하고도 분명한 억양만 들었을 뿐, 그 단어 자체는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기차가 멈춰 서자, 피상적인 시선으로도 비극의 여러 단서를 쉽게 포착할 수 있었다. 초록빛 언덕 위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아론 암스트롱 경의 하인 마그누스였다. 낙관적인 성품의 경은 종종 이 우울한 하인의 검은 장갑을 보고 비웃곤 했지만, 지금쯤은 누구도 그를 웃으며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질문자 몇 명이 선로를 벗어나 연기가 자욱한 수풀 너머로 걸어들어갔을 때, 그들은 언덕 아래, 거의 바닥까지 굴러떨어진 시체를 발견했다. 노인의 몸은 노란색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그 안감은 선명한 붉은색이었다. 그의 다리에는 밧조각이 걸려 있었다. 아마도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엉킨 듯했다. 피가 약간 묻어 있었지만, 그 양은 매우 적었다. 그러나 시체는 살아있는 존재가 취할 수 없는 기이한 자세로 구부러지거나 부러져 있었다. 바로 아론 암스트롱 경이었다.

몇몇 여행객들이 그 금빛 수염을 가진 큰 키의 남자를 데려왔다. 그는 죽은 남자의 비서, 패트릭 로이스였다. 그는 보헤미아 사회에서 한때 잘 알려져 있었고, 보헤미아 예술계에서도 명성이 자자했다. 그는 더 모호하지만 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하인의 비명을 따라 했다. 그 집안의 세 번째 인물인, 죽은 남자의 딸 앨리스 암스트롱이 이미 비틀거리며 손을 흔들며 정원으로 들어왔을 때, 기관사는 이미 자신의 정지를 풀고 있었다. 기적이 울렸고 기차는 숨을 몰아쉬며 다음 역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계속 달렸다.

브라운 신부는 거구의 전 보헤미안 비서 패트릭 로이스의 요청으로 급히 소환되었다. 로이스는 본토 아일랜드인이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가톨릭 신자일 뿐, 진정으로 위기에 처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신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유형이었다.

그런데 만약 한 명의 공식 형사가 비공식적인 플랑보의 친구이자 추종자였다면, 로이스의 요청은 그토록 신속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플랑보와 친구가 되려면 브라운 신부에 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형사 머턴이 작은 사제를 들판을 가로질러 철도까지 안내하는 동안, 그들의 대화는 두 완전히 낯선 사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친밀한 분위기였다.

"내 눈으로 볼 때," 머턴이 솔직하게 말했다. "이 사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의심할 만한 사람도 없다. 매그너스는 진지한 바보일 뿐이다. 살인자가 될 만큼의 교활함은커녕, 오히려 너무 순진한 바보다. 로이스는 준남작의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온 지 오래다. 게다가 그의 딸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너무 터무니없다. 애기 할아버지처럼 밝은 노인인 암스트롱을 누가 죽이겠는가? 만찬 연설자의 피를 손에 묻히다니. 그것은 바로 산타클로스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다."

"네, 정말 활기찬 집이었어요." 브라운 신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가 살아 있을 때는 그랬죠. 하지만 그가 죽은 지금도 여전히 활기차다고 보시나요?"

머튼이 살짝 놀라며 옆사람을 더 밝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가 죽었다고요?" 그가 되물었다.

"그렇소." 신부는 무표정하게 말을 이었다. "그는 기분이 좋았지. 하지만 그 기분을 다른 이들과 공유했는가? 솔직히 말해, 그 집안에서 그 혼자만 기분이 좋았을 뿐 다른 이들은 아니었는가?"

머턴의 마음속 창문이 열리자, 익숙했던 사물이 처음으로 낯설게 비치는 놀람의 기묘한 빛이 들어왔다. 그는 자선가로서의 작은 경찰 업무로 암스트롱가의 집을 자주 들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집은 그 자체로 우울한 분위기였다. 방들은 매우 높고 차가웠으며, 장식은 소박하고 구식이었다. 바람이 잘 드는 복도는 달빛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전기 불빛으로 비춰졌다.

그리고 방마다 복도마다 불꽃처럼 타오르던 노인의 붉은 얼굴과 은빛 수염은, 그 자리에 어떤 따뜻함도 남기지 않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집의 유령 같은 불편함은 주인 자신의 생기와 활력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난로나 램프가 필요 없다며, 자신의 따뜻함을 스스로 지니고 다닌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머턴이 다른 거주자들을 떠올릴 때, 그는 그들이 모두 자신의 주인과 마찬가지로 그림자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무표정한 남종은 거대한 검은 장갑을 끼고 있어 거의 악몽 같았다. 비서인 로이스는 튼튼한 소처럼 커다란 체격에 트위드 옷을 입었고, 짧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짚색 수염은 트위드 옷감처럼 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넓은 이마에는 이른 주름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다. 그는 또한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픈 종류의 선의였으며, 거의 마음이 상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어떤 종류의 실패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암스트롱가의 딸에 관해서는, 그녀가 그의 딸이라는 것이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는 너무 창백한 색감과 섬세한 윤곽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했지만, 그녀의 형태 자체에는 마른잎이 흔들리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머턴은 그녀가 지나가는 기차의 굉음에 놀라 떨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었다.

"보시게요," 브라운 신부가 겸손하게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저는 암스트롱의 그 낙천성이 다른 이들에게는 그리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런 행복한 노인을 죽일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지 마소서.' 만약 제가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가 매우 담담하게 덧붙였다. "아마도 낙천가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머튼이 웃으며 물었다. "사람들이 밝은 기분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종종 웃음을 즐깁니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하지만 영원한 미소는 싫어할 거예요. 유머 없는 밝음은 참을 수 없이 괴로운 일이니까요."

그들은 철책 옆 바람 부는 풀밭 길을 한참이나 묵묵히 걸었다.

높은 암스트롱 가옥의 그림자가 멀리까지 드리워지는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브라운 신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는 무거운 생각을 떨쳐내듯, 진지하게 건네는 말투가 아니었다.

“물론 술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암스트롱 같은 남자들에게는 가끔씩 와인 한 잔이 필요해서, 그걸 마시면 슬픔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싶다는 거요.”

머턴의 공식 상사인 길더 형사는 회색빛 수염이 섞인, 단단하고 유능한 형사였다. 그는 부검 의사를 기다리며 초록빛 언덕 위에 서 있었고, 패트릭 로이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로이스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수염과 머리카락이 거칠게 자라 길더 형사보다 훨씬 우뚝해 보였다.

그 모습이 특히 눈에 띄었던 이유는, 로이스가 항상 힘겨운 듯 몸을 구부리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는 작은 사무 및 가정의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마치 물소가 작은 마차를 끄는 것처럼 무겁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사제를 본 순간, 평소와는 달리 기쁜 기색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를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사이 머턴은 노련한 형사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고 있었다. 다만, 그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소년 같은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글쎄요, 길더 씨. 그 수수께끼를 좀 더 파헤치셨나요?”

“별다른 비밀은 없소.” 길더가 꿈결 같은 눈꺼풀 아래로 까마귀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한테는 분명히 있지요.” 머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주 간단하단 말이야, 내 친구." 수석 조사관이 회색의 뾰족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가 로이스 씨의 목사를 부르러 간 지 삼분도 못 돼, 모든 것이 드러났거든. 검은 장갑을 낀 창백한 얼굴의 하인이 기차를 막았던 일, 기억나지?"

"그는 어디에서나 알아볼 수 있어요. 어쩐지 그 남자는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지." 길더가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기차가 다시 출발하자, 그 남자도 함께 사라졌지. 경찰을 피하기 위해 바로 그 기차를 탔다니, 꽤나 냉정한 범죄자가 아니냐?"

"그가 정말로 주인을 죽였다고, 확신하는 모양이군." 젊은이가 말했다.

"네, 아들이여,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길더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가 주인 서랍 속에 있던 이만 파운드 어치의 증권을 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아니, 진정한 난제는 그가 어떻게 그를 죽였는지입니다. 두개골이 큰 무기 하나로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에는 어떤 무기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범인이 무기를 가지고 도망쳤다면 매우 곤란했을 텐데, 그러려면 무기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았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 무기가 너무 커서 눈에 띄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신부가 묘하게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길더는 그 난데없는 말에 고개를 돌려, 브라운의 뜻을 묻듯 엄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말투가 좀 어설프군요. 저도 그건 압니다." 브라운 신부가 변명하듯 말했다. "동화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암스트롱은 거인의 몽둥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우리 발밑에 있는 이 푸른 땅, 즉 지구가 바로 그 거대한 몽둥이였죠. 우리는 이 거대한 푸른 덩어리를 '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는 바로 이 푸른 언덕에 부딪혀 산산조각 난 채 죽었습니다."

"어떤 뜻이요?" 탐정이 재촉하듯 물었다.

브라운 신부는 달빛 같은 그의 얼굴을 집의 좁은 뒷면 위로 돌렸다. 그리고는 희망 없이 눈을 깜빡였다. 그의 시선을 따라 그들은 건물의 다른 부분은 모두 창문이 없는 뒷편 꼭대기, 다락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보이시나요?" 그가 어색하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곳에서 떨어뜨려졌거든요?"

길더는 창문을 짙은 눈초리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그래,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하지만 왜 그렇게 단정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브라운 신부가 회색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저기요, 죽은 이의 다리에는 밧줄이 감겨 있소. 저기 창문 모서리에 걸린 다른 밧줄 하나도 보이지 않소?"

그 높은 곳에서는 그 물체가 희미한 먼지 한 톨이나 머리카락 한 올처럼 보였지만, 날카로운 노경의 형사는 만족한 표정이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가 브라운 신부에게 말했다. "당신의 승리가 분명합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왼쪽 선로의 곡선 구간을 따라 한 량짜리 특별 열차가 돌아 들어왔다. 그리고는 멈춰 서더니 또 다른 경찰관 무리를 쏟아냈다. 그 중앙에는 도망쳤던 하인 매그너스의 창피한 얼굴이 보였다.

"젠장! 저자들이 그를 잡았네." 길더가 새삼 기민하게 앞으로 나섰다.

"돈이 있느냐!" 그가 첫 번째 경찰에게 외쳤다.

그 남자는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그러고는 덧붙였다.

"적어도 여기서는 말이죠."

"경감님을 뵙고 싶은데요." 매그너스라는 남자가 물었다.

그가 입을 열자, 사람들은 단번에 그의 목소리가 어떻게 기차를 멈추게 했는지 이해했다.

그는 평범해 보이는 사내였다. 검은 머리는 납작하게 누웠고, 얼굴은 기색 없이 창백했다. 눈과 입의 수평선 같은 주름에서는 희미하게 동양적인 기운이 풍겨 나왔다. 그의 혈통과 이름은 늘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아론 경이 런던의 한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그를 '구조'한 이후로 말이다. 어떤 이들은 그가 더 추악한 일들로부터 구해졌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의 얼굴이 죽어 있던 것과 정반대였다. 외국어를 정확히 구사하려던 노력 때문이든, 혹은 다소 청력이 약했던 주군을 배려한 탓이든, 매그너스의 목소리는 특이하게도 울림과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말을 건넬 때마다 온무리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진작부터 알았어요." 그는 당당하고도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내 가엾은 옛 주인님은 제가 검은 옷을 입는다고 비웃곤 했죠. 하지만 저는 늘 그의 장례식에 대비해 준비해 둘 거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는 어두운 장갑을 낀 두 손을 잠시 움직였다.

"경사," 길더 경감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검은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남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꽤 위험해 보이는데."

"글쎄요, 경감님," 경사가 똑같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오?" 다른 쪽에서 날카롭게 물었다. "그 사람을 체포하지 않았소?"

미미한 경멸이 가느다란 입가에 번졌다. 다가오는 기차의 휘슬 소리는 그 조소를 이상하게도 따라하는 듯했다.

"그가 하이게이트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바로 체포했습니다." 경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곳에서 그는 주인의 돈을 로빈슨 경감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길더는 남자 하인을 완전히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소?" 그는 매그너스에게 물었다.

"물론 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죠." 그 사람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답했다.

"물론이죠." 길더가 말했다. "아론 경의 돈은 아론 경의 가족에게 맡겨두는 게 훨씬 안전했을 테니까요."

기차가 요동치며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문장 끝자락은 그 소음 속에 묻혀 버렸다. 하지만 그 불행한 집이 주기적으로 겪어 왔던 그 지옥 같은 소음 속에서도, 그들은 마그누스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대답은 종소리의 또렷함 그대로, 한 음절 한 음절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아론 경의 가족을 신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요하게 서 있던 남자들 모두에게, 누군가 새로운 존재가 근처에 있다는 기이한 기운이 스쳤다. 브라운 신부 어깨 너머로, 암스트롱의 딸의 창백한 얼굴이 보일 때, 머턴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은빛 같은 아름다움을 지닌 젊은 여인이었지만, 머리카락은 먼지 끼고 색이 바랜 갈색이었다. 어떤 그림자 속에서는 그 머리카락이 완전히 회색으로 변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말조심하시오. 암스트롱 양을 놀라게 할 테니까." 로이스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맑은 목소리의 남자가 말했다.

그 여자가 신음하듯 몸을 움츠리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저 암스트롱 여자의 떨림은 나도 좀 익숙합니다. 몇 년 동안 그녀가 간헐적으로 떨리는 모습을 수없이 봐 왔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그녀가 추워서 떨린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떨린 건 증오와 악의적인 분노 때문이었다는 것을요—오늘 아침 실컷 잔치를 벌인 악마들 말입니다.

만약 제가 없었다면, 그녀는 지금쯤 애인과 함께 모든 돈을 챙겨 도망갔을 겁니다. 제가 못 말렸다면요. 제 가엾은 늙은 주인님이 그녀가 그 술주정뱅이 개자식과 결혼하는 것을 막은 그날부터, 그녀는 이럴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만하세요." 길더가 매우 엄숙하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가족적인 추측이나 의심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면, 당신의 단순한 의견은--"

"좋아요, 제가 실증적인 증거를 드리죠." 마그누스가 거친 억양으로 말을 끊었다. "검사님, 저를 소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하죠. 그리고 그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인이 창문 밖으로 피를 흘리며 내던져진 순간, 저는 다락방으로 달려가서 그의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붉은 단도를 아직 쥐고 있었죠. 이 증거도 적법한 기관에 넘기겠습니다."

그는 꼬리 주머니에서 붉은 얼룩이 번진 긴 뿔 손잡이 칼을 꺼내, 정중하게 순경에게 건넸다. 그러고는 다시 물러서 섰다. 그의 가늘게 뜬 눈은 거의 얼굴에서 사라진 채, 한 뚱뚱한 중국인 특유의 비웃음으로 변해 있었다.

머턴은 그를 보는 순간 몸이 뒤틀릴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길더에게 중얼거렸다.

"당신도 암스트롱 양의 말을 그의 말보다 더 신뢰할 수 있겠지?"

브라운 신부가 갑자기 얼굴을 들어 보였다. 그 얼굴이 너무도 당당하고 깨끗해서, 마치 방금 목욕을 하고 나온 것처럼 보였다.

"네," 그가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암스트롱 양의 말이 그 사람의 말과 맞서고 있는 건가요?"

소녀가 놀란 듯, 기이한 작은 비명을 지르자 모두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몸은 마비된 듯 굳어 있었다. 다만 엷은 갈색 머리카락으로 둘러싸인 얼굴만이, 끔찍한 놀람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순식간에 올가미에 걸려 숨이 막힌 사람처럼 서 있었다.

“이 사람이,” 길더 씨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사건 직후, 당신을 칼을 쥐고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했다고 말하더군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앨리스가 대답했다.

다음으로 그들이 알아차린 것은, 패트릭 로이스가 굽은 등 큰 머리를 들고 그들이 둘러선 원 안으로 걸어 들어와 특이한 말을 내뱉는 것이 보였다.

"글쎄, 내가 가야 한다면, 먼저 좀 재미를 보자."

그의 거대한 어깨가 들썩이며, 그는 마그누스의 평범한 몽골인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마그누스는 불가사리처럼 납작하게 잔디밭에 쓰러졌다. 두세 명의 경찰이 즉시 로이스에게 다가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린 듯했다. 우주가 얼빠진 어릿광대극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그건 아닙니다, 로이스 씨.” 길더가 단호하게 소리쳤다. “당신을 폭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할 겁니다.” 비서 목소리는 쇠북처럼 울렸다. “당신은 나를 살인죄로 체포할 겁니다.”

길더는 넘어진 남자를 놀란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모욕을 당한 남자는 이미 일어나서, 거의 다치지 않은 얼굴에서 조금 난 피를 닦고 있었다. 길더는 짧게 물었다. "무슨 뜻이오?"

"이 남자가 말한 대로입니다." 로이스가 설명했다. "암스트롱 양이 칼을 든 채로 기절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칼을 아버지에게 공격하려고 집어 든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움켜쥐었던 것입니다."

"그를 지키기 위해서요." 길더가 진지하게 되물었다.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요," 비서가 대답했다.

앨리스는 그를 복잡하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래도 당신이 용감하다는 사실이 다행이에요."

"다 같이 올라오시오." 패트릭 로이스가 무겁게 말했다. "이 저주받은 일의 전모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락방은 비서의 사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덩치 큰 은둔자에게는 다소 작은 독방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는 분명히 격렬한 드라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방 중앙 근처 바닥에는 큰 권총이 던져진 듯 놓여 있었다. 조금 더 왼쪽에는 뚜껑이 열렸지만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은 위스키 병이 굴러와

있었다. 작은 탁자 위의 천은 끌려나오고 짓밟힌 채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창틀 위에는 시체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길이의 밧줄이 제멋대로 던져져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두 개의 화병이 산산이 부서졌고, 한 개는 카펫 위에서도 깨져 있었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로이스가 말했다. 너무 이르게 망가진 그 남자의 이 단순함은, 갓난아기의 첫 번째 죄가 지닌 비장함처럼 느껴졌다.

"여러분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쉰 목소리로 이었다. "제 사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두들 아실 테니, 끝맺음도 그와 같게 하죠. 전 한때 '재주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행복할 수도 있었어요. 암스트롱은 술집에서 제 정신과 육신의 잔해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가엾은 그 친구는 늘 제게 다정했죠. 다만, 그가 여기서 앨리스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옳았다고 말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스스로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세한 일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석에 반쯤 비어 있는 위스키 병이 있고, 카펫 위에는 총알이 모두 터진 권총이 놓여 있습니다. 시체 위에서 발견된 밧줄은 제 상자에서 가져온 것이고, 시체는 제 창문에서 던져진 것입니다. 탐정을 보내 제 비극을 파헤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흔한 잡초일 뿐입니다. 저는 교수대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전부입니다!"

경찰은 아주 미묘한 신호를 받고는 그 큰 남자를 에워싸고 그를 데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조용한 태도는 브라운 신부의 기이한

모습에 다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턱의 카펫 위에 네 발로 엎드린 채, 신부는 마치 어떤 체면치레가 필요 없는 기도를 올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타인의 시선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 그런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고개를 들어 방 안 사람들을 향해 반짝이는 동그란 얼굴을 내밀었다. 마치 유쾌하게도 웃고 있는 인간의 머리가 달린 네 발 달린 짐승처럼 보였다.

"내 말인데," 그가 너그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처음에 우리 무기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무기가 발견되고 있어. 찌를 칼도 있고, 목을 졸라 죽일 밧줄도 있고, 쏠 권총까지. 하지만 결국 그는 창문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 이건 말이 안 돼. 비효율적이야." 그는 땅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말들이 풀을 뜯을 때 하는 것처럼.

길더 경감이 진지한 뜻을 담아 입을 열었지만, 그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진 기괴한 형체가 아주 수다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이제 세 가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들어 보자. 첫 번째는 카펫에 난 구멍이다. 총알 여섯 발이 뚫고 들어간 자국이지. 대체 누가 카펫을 향해 총을 쏠 이유가 있단 말인가? 술에 취한 남자가 적을 향해 총을 쏠 때, 그는 적의 얼굴을 노린다. 얼굴이 자신을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발과 싸우지 않으며, 구두를 포위 공격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밧줄이 있다."

화자는 카펫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듯 손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취해야, 누군가 한 남자의 목에 밧줄을 감았다가 결국에는 다리에 감을까? 로이스는 그런 정도로 취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취했다면, 그는 지금쯤 푹 잠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가장 명백한 것은 위스키 병이다. 너는 알코올 중독자가 위스키 병을 두고 싸웠고, 승리한 뒤 그것을 구석으로 굴려 놓았으며, 절반은 쏟고 절반은 남겼다고 말하는 거다. 하지만 그것은 알코올 중독자가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이다."

그는 어색하게 몸을 일으켜 서서, 자기를 고발하는 살인자에게 맑은 회개의 어조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친애하는 선생님.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엉터리입니다."

"신부님." 앨리스 암스트롱이 낮은 목소리로 신부에게 물었다. "잠시 혼자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 요청은 수다스러운 신부를 복도 밖으로 밀어냈다. 그가 다음 방에서 입을 열기도 전에, 그 소녀는 기이할 정도로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영리한 분이지요." 그녀가 말했다. "패트릭을 구하려는 마음도 알아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이 진실을 파고들면 들수록, 내가 사랑하는 그 불쌍한 남자에게 불리할 증거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왜요?" 브라운 신부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그가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 움직일 기색 없는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그가 뭘 했나요?"

"저는 바로 옆 방에 있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두 문은 모두 닫혀 있었지만, 갑자기 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가 '지옥, 지옥, 지옥'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총성이 터지며 두 문이 흔들렸죠. 제가 문들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총성은 세 번 더 울렸지만, 총구는 제 불쌍하고 미친 패트릭의 손에서 아직 연기를 뿜고 있었어요. 저는 제 눈으로 그가 마지막 살인적인 연사를 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가 창틀에 매달려 공포에 질려 있던 제 아버지에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로프를 목에 감아 질러 죽이려 했지만, 로프는 아버지의 몸부림치는 어깨를 타고 발목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로프가 한쪽 다리에 단단히 감겨 패트릭은 미친 듯이 아버지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매트 위에서 칼을 집어 들고 그들 사이에 뛰어들어, 의식을 잃기 직전에 로프를 베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소녀는 과거의 기억에 짓눌려 쓰러졌다. 신부는 굳은 걸음으로 옆방으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그는 길더와 머턴, 그리고 수갑을 찬 채 의자

에 앉아 있는 패트릭 로이스를 발견했다. 신부는 경감에게 겸손하게 말했다.

"감시하시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그 이상한 커프스를 잠시라도 벗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매우 힘이 센 사람입니다." 머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것들을 벗기고 싶어 하십니까?"

"아, 저는 혹시나 그분과 악수할 수 있는 큰 영광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제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두 형사는 깜짝 놀라 바라보았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이 일, 당신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자에 앉은 남자는 어지럽힌 머리를 흔들었다. 신부는 참지 못하고 재촉하듯 고개를 돌렸다.

"그럼 제가 하겠소." 그가 말했다. "사적인 삶이 공적인 명성보다 훨씬 중요하오. 저는 살아있는 이를 구할 것이며,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묻게 하겠소."

그는 치명적인 그 창가로 걸어갔다. 말을 이어가며 창밖을 내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는 무기가 너무 많았지만 사망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그건 무기가 아니었고, 죽

음을 초래하기 위해 쓰인 것도 아닙니다. 그 기괴한 도구들, 즉 올가미, 피 묻은 칼, 폭발하는 권총은 모두 기이한 자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론 경을 죽이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그를 구하기 위해 쓰인 것이었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서!" 길더가 되뇌었다. "무엇으로부터?"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는 자살을 꿈꾸는 광인이었으니까."

"뭐?" 머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그리고 '기쁨의 종교'라니——"

"그건 잔인한 종교야." 신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가 조상들처럼 조금이라도 울어볼 수 있게 왜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 그의 계획은 경직되었고, 그의 관점은 냉담해졌다. 그 유쾌한 가면 뒤에는 무신론자의 공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그는 대중 앞에 유지해야 할 그 활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이미 오래전 끊어버린 술에 다시 손을 댔다. 하지만 진심 어린 금주주의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때의 공포는, 그가 다른 이들을 경고하며 묘사하고 두려워해 온 그 심연의 지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다는 점에 있다. 그 지옥은 불쌍한 암스트롱에게 너무 일찍 찾아왔고, 오늘 아침까지 그는 이미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지옥에 있다고 울부짖었고, 그 목소리는 너무도 미친 듯이 들려 그의 딸조차 아버지의 목소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죽음만을 갈망했고, 미친 자들의 장난처럼 주변에 죽음의 여러 형태를 흩뜨려 놓았다. 죄어드는 올가미, 친구의 권총, 그리고 칼이

었다. 로이스는 우연히 그 장소에 들어갔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행동했다. 그는 칼을 뒤의 매트 위에 던져버렸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 총알을 빼낼 시간이 없었기에, 그는 바닥에 총알을 하나씩 쏟아부었다. 자살을 시도하던 남자는 죽음의 네 번째 형태를 보고는 창문 쪽으로 달려들었다. 구원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그는 로프를 들고 그를 쫓아가 양손과 발을 묶으려 했다. 그때 운 나쁜 소녀가 방으로 뛰어들어, 그 몸싸움을 오해하고 아버지를 칼로 베어 구하려 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로이스의 주먹을 베었을 뿐이라, 이 사건에서 흘린 적은 그 피가 전부였다. 하지만 물론, 너는 그가 그 하인의 얼굴에 피는 남겼지만 상처는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겠지? 다만, 불쌍한 여인이 기절하기 전에야 비로소 아버지를 칼로 베어 놓아, 그가 창문을 뚫고 영원한 세계로 추락하게 만들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은 길게 이어지다, 마침내 금속성 소리를 내며 깨졌다. 길더가 패트릭 로이스의 수갑을 풀던 소리였다.

길더가 로이스에게 말했다.

"저는 진실을 말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당신과 그 젊은 아가씨는 암스트롱의 사망 기사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니까요."

"암스트롱의 부고 기사이 참을 수 없군." 로이스가 거칠게 소리쳤다. "그녀가 그 사실을 알면 안 된다는 걸 모르겠어?"

"무엇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머턴이 물었다.

"아, 그 여자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지, 바보야!" 다른 한 명이 포효했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 남자는 지금도 살아 있었을 텐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가 미쳐버릴지도 몰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모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오히려 그분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잔혹한 실수라도 죄악처럼 인생을 독하게 만들지는 않죠. 어쨌든 지금 두 분 모두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저는 이제 청각 장애인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잔디밭으로 나가는 순간, 하이게이트에서 아는 사람이 그를 막으며 말했다.

"시체검안관이 도착하셨소. 심문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저는 청각 장애자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수사 때문에 머물지 못해 죄송합니다."